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화성능행도병》속 소리풍경 연구	도지원
일제강점기 수원군의 일본종교 침투 양상	문혜진
일제강점기 오산 출신 변기재의 생애와 사회운동 : '오산그룹'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동민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화성 모범 농촌마을 방문 고찰	이신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원왕갈비통닭의 온라인 인식 연구	김세훈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가구의 특성 분석 : 수원시 타지주택 소유 전세가구를 중심으로	김리영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특성분석 및 정책방향	김숙희·임혜진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산골시설의 장사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나을·백정미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수준의 비교분석 연구	장연수

제18호
2021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목차

제18호

2021년

《화성능행도병》속 소리풍경 연구 도지원	1
일제강점기 수원군의 일본종교 침투 양상 문혜진	41
일제강점기 오산 출신 번기재의 생애와 사회운동 : '오산그룹'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동민	73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화성 모범 농촌마을 방문 고찰 이신재	123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원왕갈비통닭의 온라인 인식 연구 김세훈	153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가구의 특성 분석 : 수원시 타지주택 소유 전세가구를 중심으로 김리영	179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특성분석 및 정책방향 김숙화·임혜진	213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산골시설의 장사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나을·백정미 ...	249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수준의 비교분석 연구 장연수	295

《화성능행도병》 속 소리풍경 연구

도지원**

1. 서론
2. 이론 배경
3. 《화성능행도병》 속 소리풍경과 해석
4. 결론

1. 서론

옛날의 소리풍경(soundscape)은 현재와 얼마나 달랐을까? 현재 당시의 소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록과 그림을 통해 소리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정조 시대의 소리풍경을 《화성능행도병(華城陵行圖屏)》¹ 속에서 찾아 연구할 것이다.

소리풍경은 캐나다 작곡가 머레이 쉐이퍼(R. Murray Schafer)가 제창하였으며, 소리(sound)와 경관(scape)이 복합된 것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시각적 풍경을 인공 음과 자연 음 등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셰이퍼는 음악은 시대의 지표이며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아는 수단이라 하며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소리환경이 그것을

* 본 연구는 도지원, 2021, 『《화성능행도병》에 묘사된 소리풍경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の内容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졸업, E-mail : dwjiing1914@naver.com, Tel : 010-2065-3978

1 본 논문에 사용되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며, 명칭은 소장처를 따름.

만드는 사회적 상황의 지표로 읽힐 수 있고 그 사회의 경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생각하였다.²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볼 《화성능행도병》은 을묘년(1795년)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한 8일 간의 주요 행사장면들을 병풍에 그린 궁중 기록화이다. 이 작품은 궁중 기록화이지만 풍속화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는데 김홍도(金弘道)의 영향을 받은 화원 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³

《화성능행도병》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문선왕묘(文宣王廟)에 참배한 것을 그린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洛南軒)에서 치러진 과거시험에 정조가 친림한 것을 그린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 혜경궁 홍씨의 환갑연을 그린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에서의 양로연을 그린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서장대에서 야간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그린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 득중정에서 활쏘기와 불꽃놀이 하는 모습을 그린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다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시흥 행궁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가는 행렬을 그린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노량진에 설치된 주교를 건너는 어가행렬을 그린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로 총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능행도병》의 소리풍경을 찾는 데 바탕이 되는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는 8일 동안의 행사 내용과 원행의 계획부터 의궤가 제작되는 것까지의 모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은 《화성능행도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리풍경을 담은 기록화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 그림에 담긴 소리풍경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리풍경의 개념과 《화성능행도병》의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해 〈봉수당진찬도〉의 의례의 순서와 정재(呈才)⁴ 그리고 음악을 알아보고 의례의 소리풍경을 고찰한다. 〈서장대야조도〉에서는 훈련절목과 신호음을 만들어내는 데 쓰인 도구들을 알아보고 군사의 소리풍경을 고찰할 것이다. 백성들의 소리가 보이는 나머지 여러 그림에서는 그림 안에 들어있는 소리를 분석해 백성의 소리풍경을 고찰한다.

2 머레이 세이퍼, 한명호·오양기 옮김, 2008,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그물코, 21쪽.

3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수원시, 233쪽.

4 정재(呈才) : 대궐 안의 잔치 때에 벌이던 춤과 노래.

본 연구를 통해 시각적 감각에만 의존한 작품 감상을 넘어 청각적으로도 작품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화성능행도병》이 단순히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기록화라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궁중 기록화 속의 소리와 문화정치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캐나다 작곡가 머레이 셰이퍼가 제창한 소리풍경은 자연이나 도시에 관한 서양 근대의 다양한 계획론이 시각에 편중해 온 것에 반대하여 전신 감각적인 사고를 되찾으려는 이념에서 만들어졌다.⁵

셰이퍼는 집 근처의 항구소음과 자신이 부임함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공사소음으로 인해 시달렸고 이를 고민하였다. 셰이퍼는 본인이 소리 전문가였는데도 소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졌지만, 당시 공해라고 하면 대기, 토양, 수질 등의 오염 정도만을 관심을 가지며 소음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셰이퍼는 인간에게 소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하면서 소음공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노력하였고 소리환경을 넘어 소리풍경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 갔다.⁶

소리풍경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그의 독특한 세계관과 여러 요인이 더해져 만들어졌다. 청각 문화를 등한시하며 시각 중심이었던 근대 서구의 반성과 청각 문화에 대한 복권 시도, 생태학 운동으로 대변된 환경 전체에 대해 커진 사회적인 관심 등이 그 요인이다.⁷

셰이퍼는 환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소리환경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운동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 주체로서 구상된 것이 세계 소리풍경 프로젝트(World Soundscape Project : WSP)이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5 한명호·오양기·황해주, 2008, 「우리나라의 소리문화 창조를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와 실천 전략」,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8(5), 35-36쪽 재인용.

6 토리고에 게이코, 한명호 옮김, 2015,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그물코, 32-33쪽.

7 토리고에 게이코, 한명호 옮김, 2015,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그물코, 28-30쪽.

- ① 여러 소리환경을 비교하면서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한다.
- ② 소리환경을 개선하고 더 낮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음향생태학과 관련해 학생과 현장 연구자들을 교육한다.
- ④ 음향생태학과 관련해 일반 시민을 교육한다.
- ⑤ 장래 연구를 위한 자료를 축적한다.⁸

WSP는 1972년경부터 4~5명으로 구성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밴쿠버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 활동을 확대해 나갔는데 기본적 활동인 『캐나다의 지자체 소음 규제 조례 조사』도 하였고 1972년경부터 밴쿠버의 소리풍경을 현장 조사하고 두 장의 LP 레코드를 모아 만든 『밴쿠버의 소리풍경』이 1974년에 최초의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1973년에는 캐나다 전역을 돌며 조사하며 1년 후 그 성과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캐나다를 넘어 유럽에서 조사한 성과를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1975년에 나온 『유럽의 소리일기』, 『다섯 마을의 소리풍경(Five Village Soundscapes)』이 그것이다. 1978년에는 마지막 활동 결과물이 나왔는데 출판된 WSP의 모든 활동성적을 용어집 형태로 만든 『음향생태학 핸드북』이었다.⁹

세이퍼는 음악은 시대의 지표이며 사회적 사건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사건을 아는 수단이라 하였으며, 한 시대의 사회적 상황의 지표가 읽히는데 그 사회의 일반적 소리환경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¹⁰ 또한 과학, 사회, 예술의 중간지대가 소리풍경 연구의 본령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세이퍼는 과학과 예술을 둘로 나누지 않고 두 정신의 장점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이성 안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했다는 의미로 ‘현대의 르네상스인’으로 불리는데 이런 모습은 세이퍼가 조사연구 활동을 전개하며 과학과 예술에서부터 환경윤리 문제까지 소리풍경 디자인을 제창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토리코에 게이코, 한명호 옮김, 2015,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그물코, 46쪽.

9 토리코에 게이코, 한명호 옮김, 2015,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그물코, 47~50쪽.

10 머레이 세이퍼, 한명호·오양기 옮김, 2008,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그물코, 21쪽.

실제로 ‘아트(art)’라는 단어도 그 열쇠가 되는데, 현재는 ‘예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본래 ‘아트(art)’는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techne)’(‘기술’을 뜻한다)와 라틴어 ‘아르스(ars)’에 해당하는데, 현대의 예술(art)이라는 의미보다 확장된 개념이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예술과 과학이 분리되고 있어 현대 문명 자체의 쇠퇴와도 연결되고 있다. 예술과 과학 두 영역의 재통합을 위한 실천으로 세이퍼는 몸소 소리 환경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소리풍경 디자인을 제창하였다.¹¹

세이퍼는 시각적 표현인 도형 이론과 배경을 빌려 형태가 없는 소리풍경을 설명하였는데 소리풍경을 분석할 때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소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풍경을 기조음, 신호음, 표식음으로 구별하여 소리풍경의 중요한 특징들을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조음은 주음(keynote)이라는 음악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특정한 악곡의 조성을 결정하는 소리이며 배경에 해당하는 소리로 언제나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물·바람·숲·동물·별레·새 소리와 같이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배경 속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습관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보기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소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기조음이 사라지면 뭔가 다른 이상(異常)함을 느끼게 된다.

신호음은 도형에 해당하는 소리로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듣는 소리이다. 경적, 종소리 같은 통신이나 음향적 경고 수단으로 쓰인다. 이 신호음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잡한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소리풍경에서 기조음과 신호음은 소리의 내용이 아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 소리에 대해 얼마나 의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표식음은 ‘랜드마크(landmark)’에서 나온 것으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존중되면서 동시에 경계되는 소리로 신호음 중에서도 특정한 소리가 부각된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음향 생활에 독자성을 부여하므로 특정 소리가 표식음으로 확립되면 보호할 가치가 생긴다.¹²

11 토리고에 게이코, 한명호 옮김, 2015,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그물코, 85~87쪽.

12 머레이 세이퍼, 한명호·오양기 옮김, 2008,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울'』, 그물코, 24~25쪽; 토리고에 게이코, 한명호 옮김, 2015,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그물코, 106~110쪽.

소리풍경은 소리를 매개로 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연구대상은 건축, 자연, 생활, 예술, 문화 등 광범위하다. 현재 소리풍경과 관련된 연구는 공간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소리환경을 구현해 내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제시한 이호석의 연구,¹³ 무등산 무돌길을 소재로 소리 자원을 조사해 소리풍경 지도제작을 제작해 지역자원으로서 가치를 일깨우고 활용방안을 마련한 조은재의 연구,¹⁴ 소리풍경 유형에 따른 음악 공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김준수의 연구¹⁵가 있으며, 그림을 소재로 한 소리풍경 연구는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명호의 연구¹⁶가 유일하다.

우리는 보통 시각에 의존해 미술작품을 감상한다. 그러나 작품은 오감을 이용해 냄새를 맡을 수도, 촉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도, 맛볼 수도 있다. 시각 의존의 감상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대할 때 담긴 의미나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소리문화를 파악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리문화란 그 시대적 모습들을 잘 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청각적 방법으로 작품을 볼 때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 많은 소리풍경이 들리면 사람들의 생활, 사회적 상황, 시대적 감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속 소리풍경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소리가 보여야 한다. 《화성능행도병》은 단원 김홍도의 영향을 받아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표현을 볼 수 있고 더불어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소재로 선택하게 되었다.

13 이호석, 2012,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조은재, 2020, 「무등산 무돌길 소리풍경의 보존과 활용」,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준수, 2007, 「사운드스케이프 연출에 따른 음악치료클리닉 공간인식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한명호, 2020,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묘사된 소리풍경」,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7(2).

3. 《화성능행도병》속 소리풍경과 해석

《화성능행도병》은 을묘년(1795년)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한 8일간의 주요 행사장면들을 병풍에 그린 궁중 기록화이다.¹⁷ 《화성능행도병》은 『원행을묘정리의궤』가 바탕이 되어 그려졌는데, 이 의궤에는 각종 의식의 절차, 신하들이 왕에게 올린 보고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와 했던 일, 관청간의 공문서 등 능행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화성능행도병》은 8폭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선왕묘(수원향교)에 방문하여 참배한 것을 그린 <화성성묘전배도>, 과거시험이 열린 낙남헌에 정조가 친림한 것을 그린 <낙남헌방방도>,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그린 <봉수당진찬도>, 낙남헌에서의 양로연 행사를 그린 <낙남헌양로연도>, 서장대에서 군사들이 야간훈련을 하는 모습을 그린 <서장대야조도>, 득중정에서 활쏘기와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그린 <득중정어사도>, 시흥행궁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가는 행렬을 그린 <환어행렬도>, 노량진에 설치된 주교를 건너는 어가행렬의 모습을 그린 <한강주교환어도>가 있다.

1) <봉수당진찬도>의 의례소리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르면 봉수당진찬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의례가 진행되었다(굵은 글씨는 그림에 표현된 곡과 춤을 나타냄).

〈표 1〉 봉수당진찬의 의례

No.	의식순서	악곡명	정재명
1	자궁(慈宮)께서 예복을 갖추고 나온다.	여민락령(與民樂令)	
2	내외명부가 재배(再拜)를 한다.	낙양춘곡(樂陽春曲)	
3	임금께서 용복(戎服)을 갖추고 나온다.	여민락령(與民樂令)	

17 박정혜, 2006,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95쪽.

No.	의식순서	악곡명	정재명
4	임금께서 재배를 하면 의빈척신과 배종백관이 이를 따라 같이 한다.	낙양춘곡(樂陽春曲)	
5	자궁계 휘건(揮巾)을 올린다.	여민락령(與民樂令)	
6	자궁계 찬안(饌案)을 올린다.	여민락만(與民樂慢)	
7	자궁계 꽃을 올린다.	여민락령(與民樂令)	
8	여령(女伶)이 장락장(長樂章)을 창한다.		
9	임금께서 자궁계 수주(壽酒)를 올린다.	여민락령(與民樂令)	
10	여집사가 임금을 대신하여 치사(致詞)를 읊는다.		
11	여관이 선지(宣旨)를 아뢴다.		
12	자궁께서 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천세만세곡 (千歲萬歲曲)	
13	여집사가 “삼고두(三叩頭)를 하시오.” 하고 창하면 임금께서는 의빈척신과 배종백관들과 함께 한다.		
14	“산호(山呼)를 하시오.” 하고 창하면 임금께서는 의빈척신과 배종백관들과 함께 한다.		
15	임금께서 재배를 하면 의빈척신과 배종백관이 이를 따라 같이 한다.	낙양춘곡(樂陽春曲)	
16	임금께 휘건을 올린다.	여민락령(與民樂令)	
17	임금께 찬안을 올린다.	여민락만(與民樂慢)	
18	임금께 꽃을 올린다.	여민락령(與民樂令)	
19	자궁께 탕(湯)을 올린다.	여민락만(與民樂慢)	
20	제1작 - 임금께서 자궁께 잔을 올리고 자궁께서 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 임금께도 잔을 내려주시면 임금께서 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다음 여관과 여집사는 내외명부와 의빈척신에게 술잔을 돌린다. - 임금께 탕을 올리고 여관과 여집사는 내외명부와 의빈척신에게 탕을 제공한다.	여민락(與民樂) 환환곡(桓桓曲)	헌선도(獻仙桃)
21	제2작 내명부대표가 자궁께 잔을 올린다.	여민락(與民樂) 청평악(淸平樂)	금척(金尺) 수명명(受明命) 하황은(荷皇恩)
22	제3작 외명부대표가 잔을 올린다.	여민락(與民樂) 오운개서조곡 (五雲開瑞朝曲)	포구락(抛毬樂) 무고(舞鼓)
23	제4작 종친대표가 잔을 올린다.	천세만세곡 (千歲萬歲曲)	아박(牙拍) 향발(響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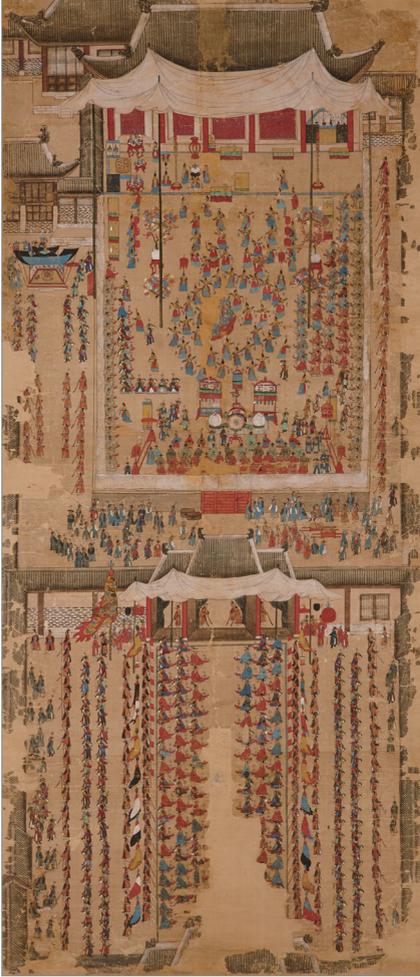
No.	의식순서	악곡명	정재명
24	제5작 의빈대표가 잔을 올린다.	여민락(與民樂) 유황곡(惟皇曲)	학무(鶴舞)
25	제6작 척신대표가 잔을 올린다	여민락(與民樂) 환환곡(桓桓曲)	연화대(蓮花臺)
26	제7작 배종관대표가 잔을 올린다.	여민락(與民樂) 하운봉곡(夏雲峯曲) 정읍악(井邑樂) 여민락(與民樂) 낙양춘곡(樂陽春曲)	수연장(壽延長) 처용무(處容舞) 첨수무(尖袖舞)
27	여령이 관화장(觀華章)을 창한다.		
28	여관과 여집사가 모든 사람의 상을 치운다.	여민락만(與民樂慢)	
29	임금과 의빈척신이 재배를 한다.	낙양춘곡(樂陽春曲)	
30	여집사가 임금을 모시고 나온다.	여민락령(與民樂令)	
31	여관과 여집사가 내외명부와 의빈척신을 배위(拜位)로 이끌고 내외명부와 의빈척신은 자궁께 재배를 한다.	낙양춘곡(樂陽春曲)	
32	여관이 자궁께 예식을 마쳤다고 전하고 자궁께서는 합(闈) 안으로 돌아온다.	여민락령(與民樂令)	

자료 : 수원시,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1996, 139~141쪽.

비고 : 굵은 글씨는 그림에 표현된 곡과 춤을 나타냄

《화성능행도병》의 <봉수당진찬도>에서는 무고(舞鼓), 선유락(船遊樂), 아박무(牙拍舞), 향발무(響鉞舞), 헌선도(獻仙桃) 총 5개의 정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곡은 학무(鶴舞) 정재에 쓰인 연통(連筒)과 포구락(拋毬樂) 정재에 쓰인 쌍포구(雙拋毬)가 보이므로 여민락(與民樂),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 유황곡(惟皇曲), 향당교주(鄉唐交奏),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 환환곡(桓桓曲) 총 6개의 곡이 현장에서 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정재와 곡들이 그림과 같이 한꺼번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록화적 역할을 하는 그림 형식에 맞춰 진찬연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순서가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봉수당진찬도>에는 선유락에 사용되는 채선(彩船)이 무고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고 정조가 혜경궁에게 헌수(獻壽)할 때 추어진 헌선도 정재가 그려져 있다. 헌선도는 장수를 축복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으며 대개 임금의 어머니에게 올리는 내연에서 먼저 공연되었다. 병풍 속 <봉수당진찬도>에는 헌선도 정재를 끝낸 여기(女妓) 세 명이 정조에게 바쳐진 선도(仙桃)가 담긴 은반(銀



〈그림 1〉〈봉수당진찬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盤) 주변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병풍에 선유락을 의례에 헌선도 대신 그린 것은 선유락이 비교적 화려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의례 중간에 술잔을 올릴 때마다 연주된 반주음악은 진찬연에서 정제만큼 중요하다. 헌선도 정제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여민락과 환환곡이 연주되었다. 쓰인 악기는 대금, 좌고, 가야금, 거문고, 장고, 향피리, 해금 등이다.¹⁹ 무고는 충렬왕 때 영해(寧海)에 귀양을 간시중(侍中)²⁰ 이 혼(李混)이 바다 위에서 부사(浮査)를 얻어 무고를 만들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무고정제는 여민락만의 다른 이름인 오운개서조가 연주되었으며 아박은 조선 말까지 전승된 것으로 고려사에서는 동동(動動)이라 명시되어 있다. 아박정제는 향당교주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천세만세곡이 연주되었다. 천세만세곡은 향발무에도

연주되었고 학무정제에는 여민락과 유향곡이 연주되었는데, 유향곡은 세종조에 종묘에서 아헌악(亞獻樂)으로 연주되던 악장이며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다. 선유락

18 박정혜, 2006,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308쪽.

19 강민영, 2004, 「奉壽堂進饌과 南軒養老宴의 音樂的 考察 -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쪽.

20 시중(侍中) : 고려시대 종일품에 해당되는 벼슬이다.

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의주(儀註)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림 속에서는 정재 중 중심에 가장 크고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선유락은 단장한 채선(彩船)²¹을 중심으로 추는 화려한 춤이다.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 21,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에 따르면 이 춤이 영조 이전부터 전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선유락정재의 연주곡은 낙양춘곡인데 이 곡은 고려시대에 송(宋)에서 들어온 사악(詞樂)의 하나이며 하운봉(夏雲峯)이라 하기도 한다.²²

현장에서는 위의 곡 외에 여민락령(與民樂令), 청평악(淸平樂), 정읍악(井邑樂)이 연주되었다. 여민락령은 여민락의 한 유형으로 본령(本令)이라고 하기도 하며, 현재는 태평춘지곡(太平春之曲)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청평악은 고려시대부터 연주된 당악곡으로 성종 때까지는 전승이 되었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²³ 정읍악은 아악곡의 하나인데 고려시대 이후로는 무고를 추다가 정읍사를 노래하던 음악이었지만, 조선시대 이후로 가사는 부르지 않고 관악합주곡으로 전승되었다.²⁴

봉수당진찬연의 특징은 정조 이전에 공연되지 않았던 학무, 검무 정제가 공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검무는 국립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에는 그려지지 않았다. 조선전기에 공연된 포구락, 학무, 몽금척(夢金尺), 수연장, 연화대무, 하황은, 현선도는 재현된 것이다.²⁵ 하황은은 중국을 대국으로 받아들이는 사대사상 의식이 강조되었는데, 강국인 명이 사대의 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반란을 일으켜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그 신하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대주의 형식의 정제를 만들고 연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²⁶ 수명명은 명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은 조선의 왕을 칭송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안에는 이성계의 공덕 그리고 근면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세종대에 만들어진 하황은은 명이 정사(政事)를 잘 보살핀 영향이 조선까지 닿아서 태평하게 되었다는 의미 담

21 채선(彩船) : 선유락에 쓰던 배이다.

22 장사훈, 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2쪽.

23 이해구, 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735쪽.

24 장사훈, 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667쪽.

25 송방승, 2008, 『의궤속의 우리 춤과 음악을 찾아서』, 보고서, 155~156쪽.

26 성기숙, 2000, 「궁중정재에 나타난 사대사상 연구 '조선전기 정재의 창사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5, 165~166쪽.

겨 있었는데,²⁷ 영조 대에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영조가 직접 개사하기도 하였다.²⁸

진찬연에서는 모든 정재를 정조가 직접 하교하였으며 정리소(整理所)에서 명을 받들어 마련해 거행하였다.²⁹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음악연주와 정재 공연을 담당 한 공령(工伶)이 기록되어 있는 권5에 따르면 봉수당에서 악기편성을 단출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까지 장악원의 차비공인들을 다 동원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와 간소함 그리고 절약을 지키고자 하는 정조의 깊은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재를 출 때는 반주 음악도 쓰였지만, 창(唱)도하였는데 이 가사를 보면 정조의 의도를 알 수 있다.³⁰ <봉수당진찬도>에 그려진 정재의 창에서 의미가 담긴 구절을 가져 왔는데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권1 악장(樂章)에서 제1작의 헌선도의 가사를 볼 수 있다.

아득히 오대(鼈臺)³¹에 있다가 궁궐에 와서 조회하오니, 천 년 만에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받들고 만수(萬壽)의 상서로움을 드립니다. 감히 용안을 바라옵고 삼가 구호를 외칩니다.

대보름 밤 즐거운 잔치에 춘광을 감상하고 성대한 일 맞이하여 천상의 양기(陽氣)를 생각하네. 요(堯)임금은 기쁜 듯이 하늘의 북극을 바라보시고, 순(舜)임금은 의관을 차리시고 궁전 가운데서 팔짱을 끼셨도다. 환성은 널리 울리고 소곡(韶曲)³²이 이어지며 화기(和氣)는 어리어서 어향내음 풍기도다.

27 성기숙, 2000, 「궁중정재에 나타난 사대사상 연구 '조선전기 정재의 창사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5, 184쪽.

28 이명성, 2014, 「조선 후기 궁중공연예술의 공연형태」, 『동양문화연구』 18, 251쪽.

29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101~102쪽.

30 정조는 많은 악서를 편찬하였는데 그 중 『국조시악(國朝詩樂)』은 악장모음집으로 1781년 편찬되었다. 그래서 봉수당진찬연에 시행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국조시악』은 『시악화성(詩樂和聲)』을 기반으로 편찬되었다. 『국조시악』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지만 『시악화성』의 악보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조시악』도 시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원행을묘정리의궤』 악장 부분에서도 헌선도정재에 “헌반(獻盤)하는 치사(致詞)와 질차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자세히 기록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해구의 『신역 악학궤범』을 중심으로 여운필의 『역주 고려사 악지』를 참고하였다.

31 오대(鼈臺) : 선인(仙人)이 사는 집이다.

32 소곡(韶曲) : 순임금의 악곡이다.

이처럼 태평을 이루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리오. 반도(蟠桃)³³한 떨기로 온
갖 상서를 드립니다. (중략)

량원(閬苑)³⁴과 속세는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들으니 성덕(聖德)이 더욱 높
오사 서쪽 신선세계를 떠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년 만에 열리는 선도(仙
桃)를 바칩니다. 임금의 나이가 하늘처럼 오래기를 비우고, 춤추며 성스러
운 조정을 합례합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사방에서 사신이 모이니,
단정히 팔짱끼고 영원히 종묘를 보존하시리이다. (중략)

위의 내용에 따르면 오대라는 서쪽의 선인들이 궁궐을 방문하여 선도를 받들고
장수를 주는데 그저 왕이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요임금이 하늘의 복극을 바라보기
만 해도 별이 움직이듯이, 순임금이 궁전 가운데서 팔짱만 껴도 순조롭게 다스려지
듯 나라가 잘되고 있기에 주는 것이다.³⁵ ‘춘광’이라는 단어를 통해 ‘봄’이 시간적 상
징임을 보여 준다. 봄은 새롭게 시작하거나 부활을 의미하며 헌선도의 복숭아를 말
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³⁶

포구락³⁷은 가사를 『악학궤범』 제3권에서 볼 수 있다.

경포정투홍문과(輕拋正透紅門過) 가벼이 던져 바로 홍문을 뚫고 나가나니
공헌군왕만수배(共獻君王萬壽杯) 다 같이 군왕에게 만수배를 드리나이다

위의 부분에서는 송축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
겨 있다.³⁸

33 반도(蟠桃) : 3천 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는 장수(長壽)의 선도(仙桃)이다.

34 량원(閬苑) : 신선이 사는 곳이다.

35 조경아, 2012, 「정재(呈才)의 가무악(歌舞樂) 요소에 담긴 상징과 비유」, 『무용예술학연구』 32, 172쪽.

36 조경아, 2012, 「정재(呈才)의 가무악(歌舞樂) 요소에 담긴 상징과 비유」, 『무용예술학연구』 32, 156쪽.

37 『원행음묘정리의궤 역주』의 악장부분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 이혜구, 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장정수, 2004, 「당악정재 (포구락)의 역사적 전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0, 113쪽; 여운필, 2011,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을 참고하였다.

38 장정수, 2004, 「당악정재 (포구락)의 역사적 전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0, 123쪽.

칠반묘무(七般妙舞)	온갖 운치 있는 춤으로
이정비연시기(已呈飛燕之奇)	이미 비연의 기묘함을 보였고
수곡청가(數曲淸歌)	몇 가락 청아한 노래는
차기관주지미(且冀貫珠之美)	또 관주의 미를 바라도다
오음제송육률상취(五音齊送六律相催) ³⁹	오음은 일제히 전송하는 듯하고, 육률을 서로 재촉하는 듯하니
재배계전(再拜階前)	뜰 앞에서 재배하고
상장호거(相將好去)	서로 이끌고 떠나리로다

위의 내용에서 오음육률에서 오음은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로 오성(五聲)이라고도 한다. 육률(六律)은 황종(黃鐘)·태주(大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을 말한다. 옛날 중국음악의 다섯 가지 소리와 여섯 가지 율(律)을 뜻하는데 조화로우며 기쁨이 높고 바른 음을 추구하는 의미를 말한다.⁴⁰

무고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가사가 나오지 않아 『악학궤범』을 참고하였다. 본래 먼 길을 떠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과 사랑을 노래한 <정읍사(井邑詞)>가 불렸으나 조선 중종 대에 <오관산(五冠山)>이라는 곡으로 바뀌었다.⁴¹ <오관산>은 효자 문충이 지었다. 문충은 그의 집은 도성에서 30리나 떨어져 있는 오관산 밑에 살며 모친을 지극히 효성스럽게 섬겼는데, 벼슬살이를 하느라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지만,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보살폈으며 그 모친이 늙어 감을 한탄하여 지은 노래이다. <오관산>은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지 않지만 『고려사』 권71, 「악지」에 쓰인 이제현의 시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木頭雕作小唐鷄. 筋子拈來壁上棲⁴²

나무 끝에 조그만 닭을 조각하여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벽 위에 두네

39 이혜구, 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에는 나오지 않으나 장정수, 2004, 「당악정재 <포구락>의 역사적 전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0에서는 나와 추가하였다.

40 장정수, 2004, 「당악정재 <포구락>의 역사적 전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0, 123쪽.

41 조경아, 2012, 「무고(舞鼓) 정재의 가무악 요소에 담긴 의미와 그 역사성」, 『한국무용사학』 13, 20쪽.

42 『고려사』에는 ‘拈’으로 쓰여 있으나 이는 착오로 ‘棲’가 맞아 본 연구에는 ‘棲’로 쓴다.

此鳥膠膠報時節，慈顏如似日平西⁴³

이 닭이 ‘꼬끼오’하고 때를 알리면 어머니의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아
지셨으면

위의 내용을 통해 <오관산>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효에 대한 의미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박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가사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고려사』 『악지』에는 동동(動動)이라고 쓰였다. 총 13구의 가사가 쓰이며 첫 번째 구절(기구)을 빼면 나머지는 12월조로 구성되었다. 기구에는 전체적으로 임금에게 덕과 복을 바친다는 내용이, 2월에는 보름에 켜 연등이 많은 사람을 비출 만큼 뛰어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4월에는 고려의 관명인 ‘녹사’가 나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있고, 5월에는 천 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는 약을 단오에 바친다는 의미가 있으며, 6월에는 유뚫날에 하던 정화풍습이 나온다. 7월에는 송도(頌禱)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백중 위령제 내용이 나온다. 8월에는 임이 없는 한가위는 의미 없는 한가위라는 표현이, 9월에는 중앙절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계절 중 보름날마다 축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자체가 송도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⁴⁴

향발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가사가 나와 있지 않아 『악학궤범』을 참고하였다. 『악학궤범』 제5권에 따르면 <보허자령(步虛子令)>이 불렸다.⁴⁵

벽연통효해과한(碧烟籠曉海波閑)	푸른 연기 새벽하늘에 자욱한데 바다 물결 한가로우니
강상수봉한(江上數峯寒)	강가의 두어 봉우리 차갑도다
패환성리이향(珮環聲裏異香)	패환소리 속의 기이한 향기는
표락인간(飄落人間)	표락인간이로다
미강절오운단(珥絳節五雲端)	강절이 오색구름 끝에 멈추도다

43 여운필, 2011,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 229~230쪽.

44 성영애, 2018, 「동동(動動)의 장르적 속성과 원형 모색」, 『한국문화학 예술』 28, 108~109쪽.

45 이혜구, 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49쪽.

	〈미전사〉
완연공지가화서(宛然共指嘉禾瑞)	완연히 함께 아름다운 좋은 벼의 상서 가리키며
미일소과주안(微笑破朱顏)	한 차례 웃어 붉은 얼굴 웃음 띠고
구중요궐망중(九重峴闕望中)	구중의 높은 궁궐 바라보는 가운데
삼축요천(三祝堯天)	하늘을 향해서 축원
만만재대남산(萬萬載對南山)	만만년 남산을 대하소서 〈미후사〉

미전사와 미후사는 각각 천상과 지상을 말한다. 새벽하늘에 푸른 안개가 자욱하다. 새벽 바다에 차가운 봉우리가 강가에 있다. 기이한 향기를 풍기는 신선이 옥고리 속 소리를 내면서 천계(오산)에서 지상으로 와 벼를 가리키며 웃으며 풍년을 예측하고 임금의 성대와 장수를 축원한다는 내용이다.⁴⁶

학무 또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가사가 나오지 않아 『악학궤범』을 참고하였는데 학무에는 〈보허자령〉이 불렀다.⁴⁷ 가사와 의미는 위와 같다.

선유락은 본래 지방에서 배따라기로 불렀는데 영조 때 궁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교방가요(教坊歌謠)』에는 선악(仙樂)이라 명시되어 있다. 선유락에는 이현보가 지은 〈어부사〉⁴⁸가 불렀다. 그러나 궁중 연향에서는 모든 가사를 부르지 않았고 1~2장만 부르거나 생략하였다.⁴⁹

만사에 무심하여 낚시대 하나뿐이니, 삼공의 벼슬로도 이 강산과는 바꿀 수
없거늘

뚝 지어라 뚝 지어라 산에 비가 오고 시내에 바람 부니 낚시줄 거두는구나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하니, 일생의 종적이 이 푸른 물결에 있거늘

동풍이 불어오고 해가 기우니 초강은 더욱 깊고, 한 조각 이끼 낀 낚시터 돌

46 박진태, 2002, 「당악정재의 연극적·희곡적 측면-헌선도와 오양선을 중심으로-」, 『나룻말씀』 17, 42쪽.

47 이해구, 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332쪽.

48 김은자(2005: 18)에 따르면 국문이 섞여 있어 악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49 성기숙, 2010, 「교방가요 소재 선악(仙樂)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2), 113쪽.

에 수만 가지 버들이 그늘을 드리웠거늘
 배 저어라 배 저어라 부평초 같은 신세, 백구와 더불어 한가롭거늘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하니, 시내 사이의 어촌엔 두어 집뿐이거늘

갓끈 씻은 노래(영탁가)를 파하니 물가는 고요한데, 죽도의 사립문은 아직
 열어 놓지도 않았구나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밤중쯤 진회에 배를 대니 술집이 가깝구나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하니, 뜰 아래에서 질그릇에 홀로 술 따르는구나

위는 선악의 〈어부사〉 종편의 내용이다. 늙은 어부의 평화롭고 여유 있는 생활 모습이 담겨 있으며 태평성대의 의미로 궁중연회 때 불렀다.⁵⁰

지금까지 봉수당진찬연의 의례 분석을 통해 정재와 반주, 창 속에 정조가 진찬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의미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는 선유락, 향발, 현선도 정재의 곡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송축의 의미는 향발, 아박, 포구락, 현선도 정재의 곡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올바른 음악을 추구하는 것은 포구락을 통해,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효는 무고정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의 송축, 나라의 풍요로움, 올바른 음악의 의미로 진찬연의 의례적으로 진찬연의 축하 의미를 담았지만 가장 무게가 실린 의미는 효의 의미일 것이다. 정조는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직접 효(孝)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효를 통한 정치적 의도를 나타냈는데 진찬연은 실제 사도세자의 생신날에 열었으며, 그의 묘가 있는 수원의 봉수당에서 치러졌다. 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화성능행도병》을 그린 규장각의 차비대령 화원은 최득현, 김득신, 이명규, 윤석근, 허식, 이인문, 장한중이다. 차비대령 화원제 운영의 응행절목(應行節目)에 따르면 본래 도감이 설치된 경우에 의례 관련한 그림을 해당 관서의 화원들이 그렸지만, 따로 임금의 지시가 있거나 일이 중요하고 긴박한 경우에 규장각의 차비대령

50 성기숙, 2010, 「교방가요 소재 선악(仙樂)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2), 108쪽.

화원을 뽑아 진행한다고 쓰여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화성능행도병》의 제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⁵¹



〈그림 2〉 현선도



〈그림 3〉 향박과 아박

51 박정혜, 2006,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303쪽.



〈그림 4〉 무고



〈그림 5〉 선유락



〈그림 6〉 〈봉수당진찬도〉의 악공들

차비대령 화원들은 소리가 잘 보이도록 <봉수당진찬도>에 표현하였다. 중앙문과 좌익문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었을 때 배종백관들이 자리한 하단은 많은 소리가 보이지 않으며 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상단은 상대적으로 소리가 많이 보이는데 특히 의례에 관련된 소리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 상단에 위치한 진찬연의 주인공 혜경궁 홍씨의 비증은 적고 정재를 추는 정재여령(呈才女伶)들의 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다. 의례 소리를 <봉수당진찬도>에 표현하기에 탁월한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정재의 모습이 <봉수당진찬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은반(銀盤) 위의 선도를 바치는 헌선도 정재를 춘 세 명의 여기(女妓) 모습과 동그란 향발(響鉢)을 양손에 들며 향발 정재를 추는 모습, 상아로 만든 아박(牙拍)을 들고 춤추는 모습, 북을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싸며 무고 정재를 추는 모습, 그리고 정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며 크게 그려진 선유락 정재의 모습이 소리를 연상시킨다. <봉수당진찬도>에서 정재는 각 특징이 잘 표현되어 다른 인물에 비해 더 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정재를 추는 모습을 더욱 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악공들의 모습이다.

악공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은 즐거운 진찬의 소리환경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 이 악공들은 봉수당과 중앙문 사이에 위치하는데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정조가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소리의 방향을 볼 수 있다. 상단에 정조와 혜경궁, 왕실 사람들이 있고 중앙에 악공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문과 좌익문을 지나 하단에 배종 백관들이 위치한다. 이 위치들을 이어 보면 수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리가 정치적 메시지의 매개체 역할을 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봉수당진찬도>에서는 의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왕실에서 거행된 을묘원행 중 진행된 행사 일부를 기록한 것이지만, 소리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다.

2) <서장대야조도>의 군사 소리

<서장대야조도>는 정조가 야간에 장용영을 서장대에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국왕 호위의 전담부대인 1785년 장용위(壯勇衛)가 창설되고 1793년 군영으로 규모를 키워 장용영(壯勇營)이 되었다. 현릉원의 호위를 위한 장용외영이 설치되고 수원부사를 정 2품의 유수로 승격하며 장용외사를 겸하게 되었으며 자연스

럽게 왕의 호위를 담당하면 본영은 내영이 되었다. 그러나 장용영은 설치 목적이 정조의 왕권 강화에 있었던 만큼 정조가 죽고 난 후 1802년에 혁파되고 말았다.⁵²

그림은 저장대가 확대되어 그려져 있는데 저장대 안에는 판부사, 장용외사, 영돈령, 좌의정, 영의정, 병조판서가 참가했고 입시관원들이 시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별운감사(別雲劍使)가 있고 교졸들은 저장대 주변과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新豐樓)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야조식 속 소리가 나타나는 부분은 <표 2>에 정리하였다.⁵³ 각 면에서의 소리는 저장대에서의 소리와 동일하므로 생략하였고 신평(信砲)와 응포(應砲)는 둘 다 포를 사용하며 신호음으로써 사용되었는데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 신호를 보내는 포와 신호를 받는 포,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천아성(天鵝聲)과 나팔도 둘 다 나팔이 사용되나 천아성은 군사를 모으는 목적이 강하다. 또한 의궤에서도 구별하여 쓰여 있기에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소리가 있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현하였다.



<그림 7> <서장대야조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2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23쪽에서 재인용.

53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155~156쪽과 수원시, 2005, 『장용영고사』, 215~217쪽을 참고하였다.

〈표 2〉 서장대 야간훈련의 절목

	훈련 순서	소리
기조 (起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호를 주관하시기를 아뢴다. 2. 매복하라는 호령을 하시기를 아뢴다. 3. 발복로(發伏路)⁵⁴를 한다. 4. 2호를 주관하시기를 아뢴다. 5. 발방(發放)⁵⁵한다. 6. 3호를 주관하시기를 아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팔수를 불러 거행한다. 2. 교련관을 불러 신포⁵⁶를 3번 발포한다. 3. 징 가장자리를 두드려 울리면 시작하고 다시 징을 치면 끝낸다. 4. 나팔수를 불러 거행한다. 5. 고수(鼓手)를 불러 거행한다. 6. 나팔수를 불러 거행한다.
폐성문 (閉城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문을 닫으라는 호령을 하시기를 아뢴다. 2. 함성을 지르도록 호령하시기를 아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한 후 징을 2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면 성문을 닫고 징을 쳐서 끝낸다. 2.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도록 한 후 천아성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함께 3차례 한다. 징을 쳐서 끝낸다.
연거 (演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횃불을 올리라는 호령을 하시기를 아뢴다. 2. 횃불을 4자루 점화한다. 3. 횃불을 당기라는 호령(點炬號令)을 하시기를 아뢴다. 4. 횃불을 점검한다. 5. 횃불을 끄라는 호령(仆炬號令)을 하시기를 아뢴다. 6. 횃불을 내린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고 가지 3개에 불을 일으키도록 한다. 2. 각 면에서는 동시에 응포⁵⁷하고 불을 일으켜 횃불을 올린다. 3.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고 천아성⁵⁸을 불도록 한다. 4. 각 면에서는 일제히 응포하고 점거하며 모두 3차례 함성을 지른다. 5.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도록 한다. 6. 각 면에서는 일제히 응포하고 부거한다.
낙기 (落旗)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를 내리라는 호령(落旗號令)을 하시기를 아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련관을 불러 신포 1번 발포하고 북을 굴리듯이 치면서 팽과리를 울리기를 3차례 같이 하면서 기를 내린다.

54 발복로(發伏路) : 성문 밖의 요새나 참호에 군사를 매복하여 경비하는 과정이다.

55 발방(發放) :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구호를 외치는 일이다.

56 신포(信砲) : 신호용으로 쓰던 화포이다. 검은색 화약을 써서 밤에는 불빛, 낮에는 검은 연기, 굵은 날에는 폭발 소리로 신호를 보낸다.

57 응포(應砲) : 적이나 상대편에서 쓰는 대포에 대응하여 대포를 쏘. 또는 그렇게 쏜 대포이다.

58 천아성(天鵝聲) : 사변 등이 있을 때에 군사를 모으는 데 길게 부는 나팔소리이다.

훈련 순서		소리
현등 (懸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을 달라는 호령(懸燈號令)을 하시기를 아린다. 2. 휴식 호령하시기를 아린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고 가지 3개에 불을 일으키도록 하고 복을 굴리듯이 치면서 팽과리를 3차례 같이 하면 오색의 쌍등(雙燈)을 건다. 2.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도록 한다. 팽과리를 울리고 징을 쳐서 끝낸다.
전경 (傳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경하라는 호령(起更號令)을 하실 것과 종을 치는 일에 대해 아린다. 2. 정경하라는 호령(定更號令)을 하시기를 아린다. 3. 밤 2경이 될 즈음에 이경 호령(二更號令)을 하시기를 아린다. 4. 전경할 때 주화호령(走火號令)을 하시기를 아린다. 5. 함성을 지르도록 호령하시기를 아린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은 징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2.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고 천아성을 불도록 한다. 경을 알리는 복을 한 번 친 다음 방(梆)⁵⁹을 쳐서 소리를 낸다. 3.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고 천아성을 불도록 한다. 4.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한 번 발포하고 가지 하나에 불을 당겨 올린다. 5.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쓰고 천아성을 불고 함성을 모두 3차례 지르도록 한다. 징이 그 치면 이전의 수경(守更)⁶⁰ 때와 같이 한다.
개성문 (開城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문을 열라는 호령을 하시기를 아린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도록 한다. 징을 2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면 성문을 열고 징을 쳐 끝낸다.
수복로 (收伏路)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복로의 호령을 하시기를 아린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도록 한다. 나팔을 분다. 수복로를 다 하면 징을 쳐서 끝낸다.
하성 (下城)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성의 호령을 하시기를 아린다. 2. 1호를 주관하시기를 아린다. 3. 2호를 주관하시기를 아린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도록 한다. 징을 2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한다. 각 병사들은 성을 내려오면 징을 쳐서 끝낸다. 2. 나팔수를 불러 거행한다. 징 주변을 울리고 깃발을 3줄로 나누어 세운다. 3. 나팔수를 불러 거행한다.

비고 : 모든 훈련은 각 면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굵은 글씨는 소리를 나타냄.

59 방(梆) : 박자를 맞추는 나무의 일종으로 석자 나무를 깎아 속을 뚫어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 관아 등에서 관원들을 소집할 때 사용하였다.

60 수경(守更) : 밤중에 경(更)을 나누어 경비를 서는 일이다.



〈그림 8〉〈서장대야조도〉상단

이처럼 〈서장대야조도〉에는 나팔, 신포, 응포, 징, 북, 대취타, 천아성, 함성, 팽과 리, 방으로 구성된 9개의 소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소리들은 훈련의 신호음 이상의 깊은 의미도 담겨 있다. 훈련의 소리는 백성들에게는 왕의 위엄이나 노론에게는 심기 불편한 소리였을 것이다. 정조와 노론은 정치적 갈등이 깊었는데 과거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죽음으로 이르게 된 사건과 더불어 자신까지도 당쟁 속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정조는 사도세자의 복권과 자신의 왕권 강화라는 일념을 가지게 되었다.⁶¹

정조는 정치적 세력이 큰 노론을 등질 수는 없었기에 회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조와 노론은 서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어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⁶²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주도권 확보에 몰두한 정조는 왕권 강화, 민생안정 도모 및 지지기반 확충, 군권 장악을 위해 호위기구 장용위(壯勇衛)를 먼저 만들었다. 물론 반대 세력에서는 장용위를 설치한 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군제개혁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기에 견제가 심했다. 그러나 후에는 1788년 장용영(壯勇營)으로 확대 개편되며 1793년 내·외영제가 성립되기 전까지 정조의 관심과 지원으로 군제개

61 김준혁, 2018. 『정조가 만든 조선의 최강 군대 장용영』, 더봄, 133쪽.

62 이방섭, 2010, 「정조(正祖)의 장용영(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48-50쪽.

혁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⁶³ 결국, 장용영이 강화되며 군사력의 집중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오군영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노론의 정치적·군사적 세력이 비교적 약화하였다.⁶⁴

화성은 정조의 큰 꿈이었다. 정조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34개월 동안 화성을 축조하였다. 화성을 건설하려 한 진정한 목적은 분명치 않지만, 대외적 이유로는 사도세자의 원소(園所)를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기며 원소를 보호할 배후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⁶⁵ 동시에 상업 도시로서의 의미도 있었는데 모자와 인삼 등에 대한 무역독점권을 주어 한양에 있는 상인들과 부호들을 유치하였고 정부 지원으로 규모가 큰 시장과 상점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화성은 정조시대 이후에도 전국적인 상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초반 화성축조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는 큰 자금이 들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 등의 악재가 나오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기도 하였다.⁶⁶

〈서장대야조도〉는 장용외영의 야간 군사훈련을 그린 것이지만 악기나 포와 같은 소리는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림 속에는 다른 것들이 그려져 있다. 바로 장용외영 군사들의 모습과 신하들, 밝혀져 있는 횃불 그리고 백성들의 집이다. 이 군사훈련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 합동 훈련이었다. 그림 속에서는 바로 횃불을 올리는 ‘연거’훈련이 특징적으로 그려졌다.⁶⁷ 연거훈련은 서장대의 군사들부터 1,000여 가구의 백성들의 집까지 모두가 일제히 횃불을 켜다가 끝나면 횃불을 꺼 침묵과 어둠으로 들어간다.⁶⁸ 침묵은 고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냉엄하며 무게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으나 침묵이 나오는 순간은 ‘폐성문’, ‘전경’, ‘낙등’훈련 때도 있었을 것이다. 훈련에 징, 대취타, 고함, 북, 팽과리 소리가 들린 후 낙등이 된 후에는 다시 냉엄한 침묵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63 김준혁, 2018, 『(정조가 만든 조선의 최강 군대) 장용영』, 더봄, 133쪽.

64 이방섭, 2010, 「정조(正祖)의 장용영(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57쪽.

65 한영우, 2000, 「正祖의 華城건설과 華城행차」, 『民族文化』 23, 44쪽.

66 박현모, 2001, 『(정치기) 정조』, 푸른역사, 317~324쪽.

67 김준혁, 2007, 「朝鮮 正祖代 壯勇營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3쪽.

68 김준혁, 2007, 「朝鮮 正祖代 壯勇營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6~347쪽.



〈그림 9〉 〈서장대야조도〉의 휴식 중인 군사들

사회 전체에 의해 계획적으로 침묵이 행해진다면 숨 막힐 듯 장중하고 엄숙할 것이다.⁶⁹ 특히, 소리가 난 후에 이어지는 침묵은 발음체와 함께 음파처럼 울려 퍼지며 머릿속으로 소리를 담아 놓고 있는 동안 이어진다. 즉, 어렵풋하지만 침묵은 울려 퍼지는 것이다.⁷⁰ 침묵은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함성과 침묵은 서장대에 올라선 정조를 위엄 있게 보이게 하며 노론 세력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분명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서장대야조도〉는 냉엄하고 무거운 훈련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 안의 가운데 군사들이 휴식하는 소리도 존재한다.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나눠 주고 먹으며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무에 핀 꽃을 감상하는 군사도 있다. 훈련 중의 군사 소리는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군사 소리는 자유롭고 가벼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앞의 훈련 소리와 대비된다.

〈서장대야조도〉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소리가 담겨 있으며 보이지 않아도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침묵의 소리도 담겨 있다. 휴식을 취할 때는 편안한 소리가 들렸겠지만 침묵 소리에서는 장용영의 기세와 정조의 위엄 그리고 백성들의 함성

69 머레이 셰이퍼, 한명호·오양기 옮김, 2008,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제1판, 그물코, 387쪽.

70 머레이 셰이퍼, 한명호·오양기 옮김, 2008,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제1판, 그물코, 391쪽.

이 보이는 모습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백성들의 소리

《화성능행도병》속 백성들의 소리가 보이는 작품으로는 〈화성성묘전배도〉, 〈낙남헌방방도〉, 〈낙남헌양로연도〉,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가 있다.

〈화성성묘전배도〉는 수원향교에 있는 대성전에 정조가 왕립하여 묘알(廟諱)한 광경을 그린 것이다. 대성전에는 공자의 신위가 모셔 있는데 공자를 모신 이 사당을 문묘(文廟) 또는 성묘(成廟)라고 한다.⁷¹ 대성전과 명륜당에서는 참배 의례가 시작되어 엄숙한 기운이 돌고 담장 밖에는 의장과 호위 군병이 기립해 있으며 백성들의 모습은 하단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백성들은 대성전과 명륜당의 무거운 분위기와 대비되게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림 속에서 여러 소리를 볼 수 있는데 행인들에게 엿을 팔고 있는 엿장수들의 소리, 행궁 밖 호위병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구경꾼들끼리의 대화 소리, 엿장수에게 말을 거는 소리 등이 있다.

〈낙남헌방방도〉는 낙남헌에서 본 문무과 별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이 행사에는 정조와 종친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참석했다. 실제 합격자는 문과 5인, 무과 56인이지만 〈낙남헌방방도〉에는 합격자가 더 많이 그려졌다. 이 자리는 가족들과 친척들도 참관할 수 있었다.⁷² 그림에서는 같이 시험을 봤던 유생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들, 구경꾼들의 모습이 섞여 있어 문무과 별시와 관련된 여러 소리를 볼 수 있다. 왼쪽에는 시험을 본 유생들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보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유생들은 짐을 챙겨 돌아가며 한숨을 쉬는 듯 보인다. 그 옆에는 불합격한 유생을 한심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땅바닥에 앉아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유생도 있다. 옆 사람은 뒷짐 지며 바라보고 있다. 또한 구경꾼들 사이로 들어가 장사를 했을 엿장수의 소리도 보인다. 바로 앞에는 어린아이가 엿을 먹고 싶은지 같이 온 어른의 옷깃을 잡고 엿장수 쪽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다른 쪽에서는 유생이

71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18~19쪽.

72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19쪽.



〈그림 10〉〈화성성묘전배도〉 하단 백성들의 모습



〈그림 11〉〈낙남헌방방도〉의 백성들의 모습



〈그림 12〉〈낙남헌양로연도〉의 백성들의 모습

합격하여 기분이 좋은 듯한 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웃고 있다.

〈낙남헌양로연도〉는 낙남헌에서 열린 양로잔치를 그린 그림이다. 이 행사에는 수원부 노인 중 관료는 79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서(士庶)는 80세 이상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정 관료나 사서 중 61세인 사람은 참석할 수 없었다.⁷³

〈낙남현양로연도〉에서는 여러 백성의 소리를 볼 수 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싸움하는 소리이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싸움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도 보인다. 그 오른쪽에는 구경하는 행인들도 보이는데 싸움을 보며 같이 설전이 오가는 소리도 있고 어떡하냐는 듯이 옆 선비의 옷자락을 당기며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역시나 이번 그림에도 행사만 있으면 빠지지 않는 엿장수들이 있다. 엿을 파는 소리와 엿을 구매하려고 하는 말소리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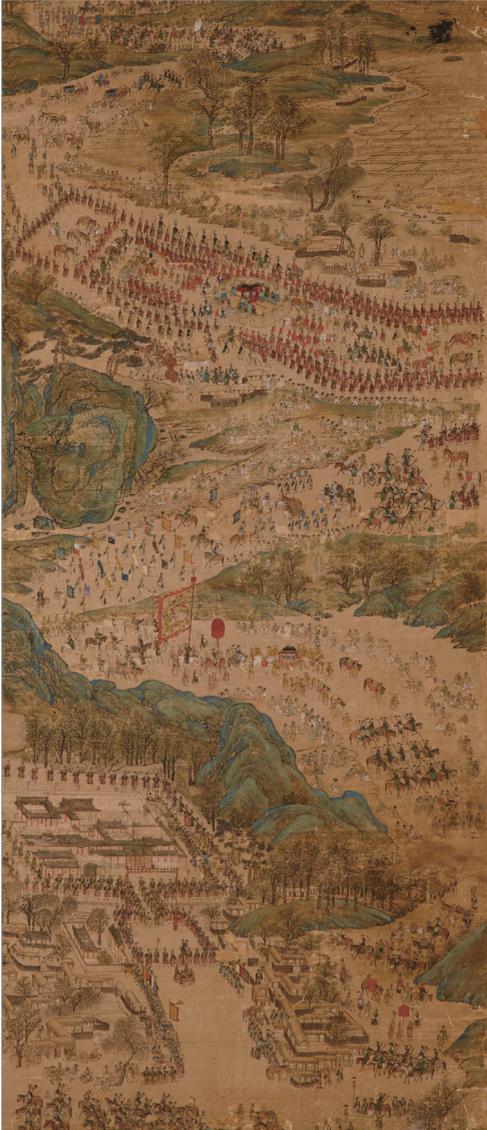
〈득중정어사도〉는 득중정에서 활쏘기와 매화포를 터트리는 광경을 그려 놓은 그림이다. 이날 정조는 낮의 활쏘기에서 25발 중 24발을 명중시켰다.⁷⁴ 〈득중정어사도〉 중앙에는 매화포가 터지는 광경이 활쏘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고 백성들이 이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다. 백성들은 매화포가 터지는 소리에 놀란 건지 그 광경이 신기한지 놀란 듯 쳐다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매화포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매화포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더는 가지 말라 말하는 듯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있다. 또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교졸로 보이는 사람은 매화포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며 경고하는 듯하다. 어린아이는 큰 소리에 무서운지 지팡이를 가지고 온 어른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다. 아마 무섭다고 가자며 조르지 않았을까



〈그림 13〉 〈득중정어사도〉의 백성들의 모습

73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18쪽.

74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19쪽.



〈그림 14〉〈환어행렬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 많이 보인다. 행렬을 구경하려 각자 자리를 잡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

추측된다. 매화포 소리에는 사람만이 놀란 것은 아니다. 큰 소리에 놀란 말이 말을 구르며 소리를 내는데 옆의 사람은 말을 달래 주는 소리도 보인다. 행사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먼저 도착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시작했으니 얼른 오라고 말하며 손짓하는 듯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옛장수는 매화포 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힐까 열심히 소리치며 돌아다녔을 것이다. 폭죽에는 관심 없는 교졸들은 이때다 싶은지 막사 뒤에 숨어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환어행렬도〉는 8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어가행렬을 그린 것이다. 당시에는 화성에서 한양까지 2일이 걸렸으며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나이가 많아 빠르게 가기가 힘들었다.⁷⁵

〈환어행렬도〉에는 자유로운 백성들의 소리가 전체적으로

75 유재빈, 2016,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4쪽.



〈그림 15〉〈한강주교환어도〉의 상단



〈그림 16〉〈한강주교환어도〉의 하단

각각이다. 행렬이 신기한지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도 보이고 벌써 행렬관람 1열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미 짝 차 있다. 술을 팔고 있는 아낙은 바빠 보인다. 그 주변에는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멀리서 술독을 발견하고 급하게 오는 소리도 보인다. 한쪽에는 술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도 등장한 옛장수는 오늘이 대목일 것이다. 열심히 옛을 팔며 돌아다닌다. 그저 기분이 좋은 아이는 막 달려가는 중이다. 저 멀리에는 행렬을 한 박자 놓친 노인과 아이가 멀리서 보고 있는데 아이는 마음이 급한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빨리 가자고 말하는 듯하다.

〈한강주교환어도〉는 정조가 현릉원에 행차하기 위해 노량진에서 배다리를 사용하여 건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배다리는 부교(浮橋)로 배를 엮어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천묘한 뒤에 그곳에 자주 행차를 하고 주교제(舟橋制)를 행하였다.⁷⁶

〈한강주교환어도〉속 백성들의 모습은 상단과 하단에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상단에는 어가행렬을 보러 온 백성들의 들뜬 소리가 보인다. 멀리서라도 보려고 몰린 구경꾼들은 바위 위로 올라가 밑을 내려다보며 열심히 구경 중이다. 선창(船艙) 가까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행사를 이미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기며 음식 냄새를 풍긴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저 멀리에서는 대목인 오늘 떡장수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열심히 인파 쪽으로 가까이 오는 소리도 보인다. 하단은 상단과 비교하면 좀 차분하다. 유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렬로 기립해 있으며 조용하며 엄숙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그 뒤로 구경을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같이 온 사람끼리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배 근처에서는 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냄새나게 담배를 피운다. 어떤 아이는 신나게 북을 치고 있는데 그 옆 선비는 북소리가 좋은지 귀여운 아이를 보고 웃고 있다.

《화성능행도병》속 백성의 소리는 편안하며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백성들의 회로애락이 담겨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잘 표현되었다. 또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시청각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이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정조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정조의 애민정신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곳곳에서 보인다. 권1 전교(傳敎)에서는 이번 원행을 검소하게 준비하려고 한 내용이 나온다.⁷⁷ 원행에서 아낀 생긴 4만 냥 중 2만 냥을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한 곡식을 마련하였고 1만 냥은 화성의 둔을 설치하는 데 쓰고 남은 1만 냥은 제주도의 굶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봉수당진찬 날에는 화성의 백성들에게 양미(糧米)를 지급하였으며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⁷⁸

76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20쪽.

77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233쪽.

78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40쪽.

정조의 애민정신은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 노력한 것에서 더욱더 깊게 느껴진다. 환궁하는 16일에는 행차 시에 문성동(文星洞) 앞길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청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하였으며 백성의 청을 들은 정조는 호역(戶役)⁷⁹과 요역을 감면해 주고 지난해 가을 환국을 당감하는 방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였다.⁸⁰

백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은 영조 대부터 시작되어 정조대에 서 강화되었다. 대민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경제·사회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세기 말에 사족 지배체제가 흔들리면서 백성들이 사회·경제의 침탈에 맞서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정조의 통치 방향이 합쳐지면서 상언(上言)과 격쟁(擊箚)이 발전되었다. 상언과 격쟁은 백성들의 억울함이 왕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었다. 이처럼 정조는 애민정신으로 대민에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이처럼 《화성능행도병》에는 많은 백성의 소리가 있으며 그 안에 정조의 대민접촉과 애민정신에 대한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다.

4. 결론

소리풍경은 캐나다 작곡가인 머레이 셰이퍼가 처음 제창하였으며 ‘소리’와 ‘경관’의 복합어로 주변 환경의 모든 소리를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리풍경에 한국화를 접목하여 정조대 작품인 《화성능행도병》속의 소리풍경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먼저 소리풍경의 개념과 《화성능행도병》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봉수당진찬도>에서는 봉수당진찬연의 의례 분석을 통해 진찬연에 담긴 뜻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송축, 나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것, 올바른 음악을 추구하는 의미, 자식의 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속 인물들의 배치를 보아 소리의 전달 방향도 볼 수 있어 소리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장대야조도>에서는 야조식의 절목을 통해 나팔, 신포, 응포, 징, 북, 대취타,

79 호역(戶役) : 집마다 나서서 하는 부역이다.

80 수원시, 1996,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98쪽.

천아성, 함성, 팽과리, 방으로 9개의 소리가 있고 그중 악기와 포, 함성을 신호음 역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장대야조도>의 소리에는 훈련의 신호음 이외의 다른 의미도 담겨 있었다. 자신을 위협하는 반대 세력에게 자신의 입지를 보여 주기 위한 훈련을 한 것이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백성을 선택하고 군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을 만들었으며 화성을 세웠다. <서장대야조도>에서는 침묵, 신호음뿐만 아니라 편하고 자유로운 휴식 소리도 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과 음식을 먹거나 꽃냄새를 맡는 등은 훈련 소리와 대비되며 부드러운 분위기가 잘 느껴지도록 표현되었다.

《화성능행도병》속 백성들의 모습은 궁중 기록화임에도 정겹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이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인다. 작품 속 백성의 소리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참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시험에 떨어져 우는 소리, 담배 냄새, 가족이 시험에 합격하여 웃는 소리, 달콤한 엿이나 술을 파는 장사꾼들의 소리, 봄이 온 듯 향기로운 꽃냄새, 행사와 상관없이 싸움이 일어난 소리, 임금이 지나가는 순간에도 편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구경하는 소리 등 맛, 냄새, 소리와 백성들의 풍부한 감정들이 담겨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잘 표현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것은 정조의 애민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정조는 원행 비용을 절약해 생긴 4만 냥 중 을묘정리곡에 2만 냥을 썼으며 1만 냥은 화성의 둔을 설치하는 데 쓰이고 1만 냥은 제주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썼다. 또한, 봉수당진찬 날에 화성의 백성들에게 양미(糧米)를 지급하고 백성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물질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직접 현장에 나가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가 행차 시에 백성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정조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화성능행도병》에 담긴 소리를 통해 정조의 정치적 의도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게 되었으며,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으며 정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감성, 오감 등을 통해 소리문화를 부분적으로 밝힐 수 있었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준혁, 2018, 『(정조가 만든 조선의 최강 군대) 장용영』, 더봄.
- 머레이 셰이퍼, 한명호 · 오양기 옮김, 2008, 『사운드시케이프 ‘세계의 조율’』 제1판, 그물코.
- 박정혜, 2006,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 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 송방송, 2008, 『의계속의 우리 춤과 음악을 찾아서』, 보고서.
- 수원시, 1996, 『원행음묘정리의계 역주』.
- 수원시, 2005, 『장용영고사』.
- 여운필, 2011,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
- 이혜구, 2000, 『신역 악학계법』, 국립국악원.
- 장사훈, 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 전인평,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악』, 현암사.
- 토리고에 게이코, 한명호 옮김, 2015,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그물코.
- 한영우, 2006,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 小島美子, 藤井知昭 編著, 1994, 『日本の音の文化』, 東京 第一書房.

학위 논문

- 강민영, 2004, 「奉壽堂進饌과 南軒養老宴의 音樂的 考察 -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수, 2007, 「사운드시케이프 연출에 따른 음악치료클리닉 공간인식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혁, 2007, 「朝鮮 正祖代 壯勇營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옥, 2010, 「正祖의 經世思想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재빈, 2016,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주, 2005, 「華城陵幸圖와 정조의 대민정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여진, 2002, 「華城陵行圖에 대한 繪畫性 研究」, 홍익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 김문식, 1997, 「18세기 후반 正祖 陵行의 意義」, 『한국학보』 23(3).

- 박진태, 2002, 「당악정재의 연극적·희곡적 측면-헌선도와 오양선을 중심으로-」, 『나랏말쌈』 17.
- 성기숙, 2000, 「궁중정재에 나타난 사대사상 연구 '조선전기 정재의 창사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5.
- 성기숙, 2010, 「교방가요 소재 선악(仙樂)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2).
- 성영애, 2018, 「동동(動動)의 장르적 속성과 원형 모색」, 『한국문학과 예술』 28.
- 이명성, 2014, 「조선후기 궁중공연예술의 공연형태」, 『동양문화연구』 18.
- 이방섭, 2010, 「정조(正祖)의 장용영(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 이성주, 2003, 「水原地域의 商業發達史에 관한 研究-場市를 中心으로」, 『한국전통사학연구』 17(1).
- 이희병, 2002, 「조선조 17~18세기의 악무 정책과 실현 과정 - '무용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6.
- 장정수, 2004, 「당악정재 <포구락>의 역사적 전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0.
- 조경아, 2012, 「무고(舞鼓) 정재의 가무악 요소에 담긴 의미와 그 역사성」, 『한국무용사학』 13.
- 조경아, 2012, 「정재(呈才)의 가무악(歌舞樂) 요소에 담긴 상징과 비유」, 『무용예술학연구』 32.
- 한명호·박현구, 2020, 「조선후기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묘사된 소리풍경」,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7(2).
- 한명호·오양기·황혜주, 2008, 「우리나라의 소리문화 창조를 위한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와 실천 전략」,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8(5).
- 한영우, 2000, 「正祖의 華城건설과 華城행차」, 『民族文化』 23.

참고사이트

e-뮤지엄 홈페이지(<http://www.emuseum.go.kr>).

요 약

본 연구는 을묘년(1795년) 혜경궁 홍씨와 정조가 함께 화성에 행차한 8일 동안의 주요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화성능행도병(華城陵行圖屏)》속의 당시의 소리풍경을 찾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 의례, 군사, 백성들의 소리로 구분해 어떤 소리가 있는지 또한 소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담긴 소리 문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봉수대진찬도〉에서는 정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효, 송축의 의미, 나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 올바른 음악을 추구하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조가 정재와 음악 소리를 통해 대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소리가 정치적 메시지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장대야조도〉는 야조식의 절목에 나팔, 대취타, 방, 북, 신포, 응포, 징, 천아성, 함성, 팽과리로 9개의 소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림 속에는 장용외영 군사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집 그리고 ‘연거’훈련 때 사용한 햇불도 그려져 있었다. 또한 다른 의미도 담겨 있었는데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백성을 선택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장용영을 만들었다. 서장대 훈련은 백성과 군사들의 합심이 필요한 훈련도 넣어 노론 세력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침묵, 신호음뿐만 아니라 휴식 소리도 볼 수 있었는데 훈련 소리와 대비되며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표현되었다.

백성의 소리는 편안하고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시험에 낙방하여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담배 냄새, 꽃향기, 임금이 행차하는 순간에도 편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엿이나 술을 파는 장사꾼들의 소리 등 소리와 향기 그리고 맛으로 백성들의 회로애락이 담겨지도록 잘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화성능행도병》에 담긴 소리를 통해 정조의 정치적 의도, 백성들의 생활 모습, 시대적 감성, 오감 등을 통해 정조시대의 소리문화를 부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주제어 : 소리풍경, 사운드스케이프, 원행음묘정리의궤, 화성능행도병, 정조

ABSTRACT

A Study on the Soundscape in Hwaseongneunghaengdobyong (Eight-Fold Screen Painting of Royal Procession to the Ancestral Tomb in Hwaseong)

Do, Ji-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meaning of the soundscape in Hwaseongneunghaengdobyong and interpreted it by dividing it into the sounds of rituals, soldiers, and the 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essage Jeongjo wanted to convey as a recording. The sound culture of that era was also studied.

In 〈Bongsudangiinchando〉, the message Jeongjo wanted to convey was included in the jeongjae (dance), the music, and the chang (song), and this was determined through the ritual analysis of Bongsundanjinchanyeon. It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 the meaning of blessings, wishing for the nation's prosperity, seeking the right kind of music, and of filial piety toward one's mother. Jeongjo intended to deliver a message to the ministers through jeongjae and the sound of music, showing that sound could be a means of delivering political messages.

〈Seojangdaeyajodo〉 was found to contain nine sounds : the trumpet, daechwita, bang, drum, shinpo, eungpo, jing, cheonahseong, shout, and kkwaenggwari. Furthermore, instruments, cannon shots, and shouting were used as signals during training. However, more important than the sound of musical instruments, cannon shots, or shouting; figures of the soldiers of Jangyongoeyoung, the people's houses, and a lit torch illuminating these houses were also depicted in the picture. The sound of 〈Seojangdaeyajodo〉 has meanings other than the

training signals, indicating that the training involved dealing with threats from the Noron forces that killed the Crown Prince Sado. Believing that his royal authority should be strengthened, King Jeongjo personally chose the people to serve as his base of support and created the Jangyongoeyoung to take control of the military. The training at Seojangdae made the opposing forces uneasy and afraid by including the parts that needed unity between the people and the soldiers. In 〈Seojangdaeyajodo〉, not only silence and the sound of signals, but also the sound of free rest can be seen. Scenes of people eating food, smelling flowers, and talking are clearly expressed in a manner that contrasts with the sound of training and evokes a sense of reality.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work is its free and energetic depiction of the voice of the people of the people in Hwaseongneunghaengdobyong. the sound of someone crying after failing a test and the sound of a fight that is irrelevant to the event and the smell of cigarettes and spring flowers and the of merchants selling sweet candy or liquor, people sitting comfortably and laughing as the king passes by—the general sound, smell, and taste of the people’s joys and sorrows—are well expressed to give a vivid sense of reality.

Through the sounds contained in Hwaseongneunghaengdobyong, Jeongjo’s political intentions and the sound culture of the King Jeongjo era was partially revealed through the era’s social situation, people’s daily lives, the sensibility of the era, and the five senses.

Keywords : soundscape, Eulmyojeongriugwe, Hwaseongneunghaengdobyong, Jeongjo.

일제강점기 수원군의 일본종교 침투 양상

문혜진*

1. 머리말
2. 1910년대 전후 일본종교 현황
3. 1920년대 일본종교 현황
4. 1930~1945년 일본종교 현황
5. 맺음말

1. 머리말

수원에 일본인이 최초로 들어온 것은 1900년으로 경기도의 인천항이나 경성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수원으로 일본인 이주가 본격화한 것은 1903~1904년경으로 수원에 식민농장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인 농학자들을 파견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고 일본인 지주회사들의 농장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수원은 일본인들의 주요 이주지로 성장하였다. 경기도의 도공진사(道供進社) 인천신사, 부공진사(府供進社) 개성신사, 읍공진사(邑供進社) 수원신사라는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위계서열화 구도에서 나타나듯이 인천, 개성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적인 근대도시로 발전하였다.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원(Researcher of Japan Research Center, Dongseo University),
E-mail : shlove0315@hotmail.com Tel : 010-7767-2934

근대도시 수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거류민의 이주 및 도시의 발전에 대해 다룬 성주현의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2005), 김백영의 「일제하 식민지 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2012)가 있다. 수원의 근대도시 공간의 구조에 대한 연구로는 안국진의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2018)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수원면의 주요 종교시설의 위치 및 분포를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다. 일제의 종교시설 분포에서 한층 더 나아가 김병희의 「구한말~일제강점기 전주와 수원의 경관 변화」(2015)에서는 근대도시 수원에 외래종교, 즉 천주교와 기독교, 수원신사가 유입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근대도시 수원의 성장에는 일제의 식량자원 수탈과 이를 위한 일본인들의 이주가 역사적 배경에 있으며, 수원군에서 일본인의 삶에서 종교문화가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다. 즉, 재조일본인들은 해외 이주생활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민족 종교 의례의 공간이 필요했으며, 종교적 기관을 통해 민족 공동체와의 편안함의 추구, 새로운 이민사회의 적응을 위한 정보·기술의 공유, 관습적·종교적 의무의 수행을 영위하였다.¹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일제강점기 수원군의 일본종교의 유입은 일본거류민의 진출 및 식민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본불교·일본기독교·교파신도(敎派神道)²는 조선에서의 전도의 대상이 재조일본인이었지만 그 선교의 목표는 ‘조선인의 일본화’였으며, 특히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국가신도의 경우 신사참배를 통한 민족말살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한 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의 종교정책, 즉 1910년대 전후로 일본거류민의 이주로 인한 일본종교 침투기, 1920년대 문화정책기에 교파신도 등 통제의 완화기,³ 1930년

-
- 1 Peggy Levitt, 2001, *The Transnational Villager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61쪽.
 - 2 강호(江戶) 막부 말기부터 농상공인들 사이에서 강신 체험을 토대로 현세구복적인 경향을 가진 민간신앙들이 나타났다. 이들 중 13교파가 메이지 정부가 신도국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교의(敎義)를 황조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조상숭배적 국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담긴 교의로 바꾸어 교파신도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교파신도는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체제 속에 편입되어 ‘신사비종교론’에 의해 그 종교성이 거세된 국가신도를 대신하여 ‘신도’를 조선 등 해외에서 포교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최석영, 1997,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86~90쪽).
 - 3 1920년대 종교정책은 소위 ‘문화정책기’에 해당되는데,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같은 해 8월에 조선총독부의 관제개혁과 동시에 총독부의 학무국에 종교과가 신설되었다. 1920년 4월에는 1915년 8월 공포된 「포교규칙」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가 있게 되어

대부터 해방 전까지 황민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신흥종교(교파신도 포함)의 탄압과 종교보국 강화기⁴로 나누어 수원군의 일본종교 진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기재된 수원군의 일본종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그 종교현황을 파악하고,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단, 일제강점기 일본종교의 설립 허가는 1915년 8월 「포교규칙」 이후부터 시행되어 『조선총독부 관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는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수원(水原)』(1923) 등의 지역 간행물을 참고하고자 한다. 본고는 수원군의 일본종교 시설의 유입현황과 시기별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1910년대 전후 일본종교 현황

1) 한일병합 이전 일본거류민과 일본종교의 유입

수원에 최초로 들어온 일본인은 1900년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였다. 그는 최초의 일본인 해외 기독교 선교사로서 1887년 일본 메이지학원대학(明治學院大學) 신학부에 재학 중 영국의 프리머스에서 파송한 브렌트(H.G.Brient)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프리머스 형제교회로 이적하면서 한국 선교를 위해 1896년 12월 인천에 입항하였다. 서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1900년 수원군 북부면 장안동에 정착하여 성서강론소(聖書講論所)를 세워 포교사업을 전개하였다.⁵ 노리마츠는 영국 프리머스 형제교회의 선교를 위해 수원에 들어온 최초의 일본인 포교사였다. 이후 그는 1909년 신도들의 지원을 받아 수원천변에 한옥으로 건축된 ‘수원 성서강당’을 세웠으며, 1917년 ‘기독교동신회’라고 교회 명칭을 변경하여 종교단체 등록을 하면서 수

있던 것을 총독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4 1930년대 황민화정책의 실시와 함께 일본국민 의식의 고양에 방해가 되는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1932-1933년에 걸친 미신 취제안의 공포, 1935년 일본大本교(大本教)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신흥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치병을 통해 포교를 전개하는 교파신도 등에 제재가 가해졌다.

5 도히 아키오 저, 김수진 역, 1991, 『일본기독교사』, 기독교문사, 292-293쪽.

원에서의 기독교신회 교세를 이어 갔다.⁶

이후 수원으로의 일본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3~1904년경이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수리관계시설 등 농업기반이 구축되어 있던 지역으로, 일제는 당시 수원에 식민농장을 구축하기 위해 조선에 일본인 농학자들을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농학자 이노하라(猪原)를 비롯하여 기타자와(北澤), 고노(小野), 곤도 오토라노스케(近藤虎之助), 호소가와(細川), 아마자키(山崎), 이마무라 우타이로(今村卯太郎) 등과 같은 인물들이 수원에 정착하면서 일본인촌이 형성되고 일본인회가 설립되었다.⁷ 1905년 러일전쟁의 승전 당시 수원지역의 일본인 인구는 1백여 명으로 증가하였다.⁸

수원군으로의 일본인 이주와 더불어 일본인 거류지에는 교육기관이 조성되고 일본종교가 유입되었다. 1905년 수원면 일본인들은 일본인회를 설립하여 학교조합(學校組合)으로 개편되었고, 1906년 9월에는 심상고등소학교가 설립되었다.⁹ 1901년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선교활동에 이어 수원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일본종교는 일본불교 즉, 1905년 12월 정토종(淨土宗)이었다.¹⁰ 개항 이후 일본종교 중 종군(從軍) 수도승을 비롯하여 일본 불교계가 가장 빨리 조선에 진출하였기에 수원군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일본불교가 유입되었을 것이다.

1906년 4월 26일 칙령 제11호에 의해 통감부권업모범장제가 발표되어, 같은 해 6월 15일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개설되었다.¹¹ 이를 계기로 수원에서 일본인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수원에 이주해 온 일본인 대부분은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수원역 방면에 거주하며 수원역 주변으로 일본인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906년 황량한 서둔대(西屯垞)에 직물공장이 들어서면서 수원역과 구시가지를 연결시켜 궁

6 기독교신회 서울중앙교회 홈페이지(www.brethrenkorea.org) 참조.

7 성주현, 2005,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190쪽.

8 酒井政之助, 1923, 『水原』, 酒井出版部, 11쪽.

9 酒井政之助, 1923, 『水原』, 酒井出版部, 16쪽.

10 酒井政之助, 1923, 『水原』, 酒井出版部, 22쪽.

11 김도형, 1995,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3, 140~146쪽. 권업모범장은 식민 농정의 대표적 기관으로 농사개량사업을 추진했으며, 경종법(耕種法)의 개선 및 품종개량을 통한 수도(水稻)유량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1929년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바뀌게 된다.

극적으로는 새로운 수원의 중심가를 형성하게 되었다.¹²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로 기술)에 따르면, 1911년 수원군의 일본인은 399호, 1,442명으로 수원군 전체 인구 78,443명 중 1.8%를 차지하였다. 1910년대 초 수원에 정착한 일본인은 사가현(佐賀縣)과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이 가장 많았다.¹³

이주한 일본인들은 주로 건축토목업·양잠업¹⁴·제지업·정미업 등에 주력했는데, 특히 권업모범장 주변에는 일본인 지주회사들의 농장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06년 12월에 국무합명회사(國武合名會社)에서 운영하는 국무농장이, 1907년에 동산(東山)농사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산농장이, 그리고 1910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에서 운영하는 동척(東拓)농장이 차례로 설치되었다.¹⁵ 이와 같은 일본인 이주민의 증가세에 힘입어 1909년 5월에 진언종(眞言宗) 고야산파(高野山派), 같은 해 9월에 진종(眞宗) 대곡파(大谷派)가 각각 포교를 하고 남부면¹⁶에 포교소를 세웠다. 남부면은 1914년 행정개편 때 수원면으로 통합되는데, 당시 일본 불교 정도종, 진언종, 진종 대곡파 포교소의 정확한 위치는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수원역에서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수원의 중심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1910년대 일본종교 현황

1910년 8월에는 일본불교에 이어 교파신도 신리교(神理敎)¹⁷가 북부면¹⁸에 포교

12 김백영, 2012,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19쪽.

13 酒井政之助, 1923, 『水原』, 酒井出版部, 8~9쪽.

14 1910년, 1914년 여자잠업강습소와 원잠종(元蠶種)제조소가 수원에 설립되었다.

15 김백영, 2012,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18쪽.

16 수원군의 남부면은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남창동·남수동·매향동·구천동·산루동·교동·하류천·장지촌·향목정·독산리·상류천·하지장포·상지장포·벌리·세동리·권동·천동·내동·우만리·신곡 등이었다. 1914년 남부면은 수원면으로 통합되었다(수원시, 2004, 『수원도시변천사』, 38쪽).

17 신리교는 1880년 사노 츠네히코(佐野經彦)가 신리교회(神理敎會)를 설립하며 시작했으며, 1894년 교규(敎規) 인가를 얻었다. 독립적인 한 교파로서 인정받기 위해 신리교는 신도(信徒)에게 경신애국(敬神愛國)·천리인도(天理人道)·황상봉대(皇上奉戴) 및 조지준수(朝旨遵守)라는 교부성의 국민교화 3조 규칙을 받들도록 하였고, 제례에도 황실제사와 관련된 국가신도 제의를 많은 부분을 포함하게 되었다.

18 수원군 북부면은 14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보시동·복수동·장안동·군기동·신평동·관길동·역촌·용연동·지소동·광교동·서둔동촌·고양동·화산동·서둔촌 등이다. 1914년 북부면은 수원면으로 통합되었다(수원시, 2004,

소를, 1912년 천리교(天理教)¹⁹가 북부면에 선교소를 조성하였다.²⁰ 조선에 침투한 일본의 신도는 메이지유신 이래 국가의 종사(宗祀)가 된 국가신도(國家神道)와 국가의 제사로서 그 종교성을 배제당한 국가신도를 대신하여 해외포교 등 종교적 임무를 부여받은 교파신도가 있다. 교파신도는 신도적 요소를 가진 잡다한 교회 및 강사들이 일정 부분 조직화된 것을 하나의 교파로 인정한다는 메이지 정부의 방침 하에 1873년 8월 교부성에 의해 흑주교(黑住教)가 공인된 이후 신도수성파(神道修成派), 출운대사교(出雲大社教), 부상교(扶桑教), 실행교(實行教), 신습교(神習教), 신도대성교(神道大成教), 어악교(御嶽教), 신도대교(神道大教), 계교(禊教), 신리교, 금광교(金光教), 천리교 순으로 공인을 받은 신도계 신종교 13교파이다.²¹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의 일본종교를 정비하기 위해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공포하여 신도·일본불교·일본기독교 등과 같이 종교 일반의 포교 활동에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1910년대 관보에 기록된 수원군 일본종교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910년대 수원군 일본종교 현황

종교·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출처-관보)
국가 신도	邑供 進社	水原神社	1917. 10.29.	수원군 수원읍	宮永博顯 (주석시장)	- 1915.12.16. 수원군 수원면에 水原神社 설립의 건 近藤虎之助 외 48명 출원(1915.12.20. 1014호)
교파 신도	金光教	京城教會 水原布 教所	연대미상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342	巖井三木 三	- 1916.12.05. 巖井三木三 포교담임자 선정(1917.02.02. 1347호) - 1929.03.26. 포교소 폐지 (1929. 09.25. 832호), 참고로 폐지 당시의 주소가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216으로 기재되어 있음.

『수원도시변천사』, 38쪽.

19 천리교는 1838년 나카야마 미키(中山美伎)가 강신의 체험을 통해 개교하였으며, 주술행위로 탄압을 받아 오다가 1880년대에 들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삼가면서 1888년 신도본국의 6등 직할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이 합법화된다. 1903년 '명치교전(明治教典)'을 만들어 국가신도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고, 1908년 12월 개별교파로 독립한다.

20 酒井政之助, 1923, 『水原』, 酒井出版部, 22~23쪽.

21 이노우에 노부타카 외, 박규태 옮김, 2010, 『신도, 일본 태생의 종교시스템』, 제이앤씨, 310~311쪽.

종교·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출처-관보)	
교파 신도	天理教	水原布 教所	1912. 10.11.	수원군 수원면	高島喜 代治	- 1915.12.23. 既成設置届, 수원군 수 원면 신평리 205 (1916.01.22. 1038호) - 1915.12.23. 高島喜代治 포교담당자 선정(1916.01.22. 1038호) - 1918.03.22. 高島喜代治 → 進藤彌助로 포교담당자변경 (1918.04.12. 1702호) - 1934.02.20. 水原宣教所 → 朝鮮水原宣教所로 포교소명칭변경 (1935.04.05. 2466호)
일본 기독교	日本組 合基督 教會	南陽基督 教會	1918. 02.12.	수원군 송산면 용포리 123		- 1918.02.12. 포교소 설립 허가 (1918.02.15. 1656호) - 1921.12.15. 포교 폐지 (1922.01.25. 2833호) - 1923.07.15. 포교소 폐지 (1923.09.18. 3332호)
일본 불교	日蓮宗	水原布 教所	1917. 08.14.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12	北村大成 岡本潮照, 黒田秀明	- 1917.08.14. 포교소 설립 허가 (1917.08.17. 1512호) - 1923.07.01. 포교소소재지변경계 산 루리 412 →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 57(1923.09.28. 3340호)
	淨土宗	水原教 會所	1915. 12.28.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河西秀蓮 江崎權定	- 1915.12.28. 기설포교소계(1916. 02.07. 1051호)
	眞言宗	高野山 大師教會 水原支部 法隆寺	연대미상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232	金武順道, 津山眞龍, 津山眞澄	- 1915.12.25. 기설포교소계 (1917.02.5. 1349호) - 1918.10.03.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232 → 수원군 수원면 장현리 692로 포교소위치 변경 (1918.10.07. 1850호) - 1919.04.10. 수원군 수원면 남 수리 115 → 同里 232로 이전 (1919.04.14. 2001호) - 1923.01.23. 金武順道 → 津山眞龍 로 주직 이동(1923.03.16.3177호) - 1937.12.25. 津山眞龍 → 津山眞澄 로 주직 이동. 당시의 주소지가 수원군 수원읍 남창정 126번지로 기재되어 있음(1938.11.12. 3546호)

종교·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출처-관보)
일본 불교	眞宗大谷派	연대미상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217	前田鐵心, 長崎阿彌也, 木戸等觀, 邑靜惠, 木戸廣觀	- 1915.12.26. 기설포교소계 (1916.01.24. 1039호) - 1918.12.25. 진중 대곡파 포교소 → 대곡파 본원사 수원포교소로 명칭 변경(1918.12. 28. 1918호)
	眞宗本願寺派	1918. 03. 18.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25	松原舍藏, 靑柳恒忍, 佐々木弘教, 杉本正雄	- 1918.03.18. 포교소 설립 허가 - 1918.05.08.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25 →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21로 포교소위치 변경(1918.05.13. 1728호) - 1931.09.01. 포교소폐지계 제출 (1932.04.19. 15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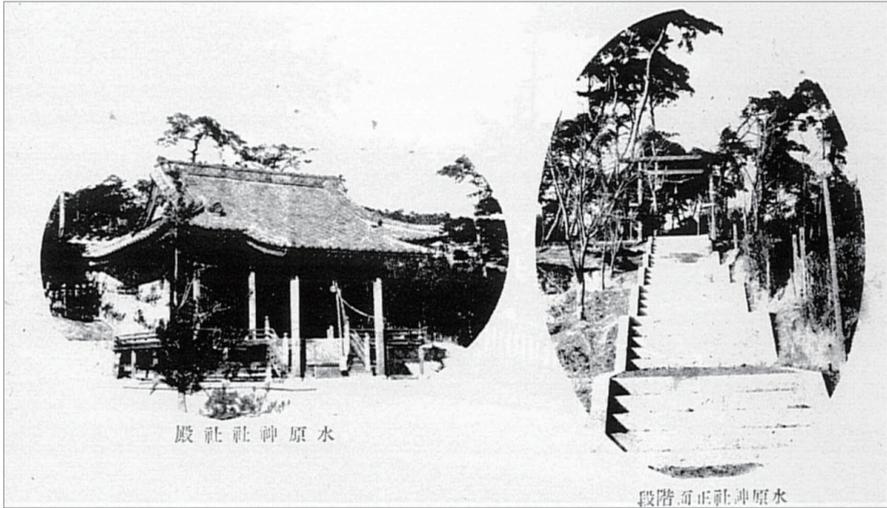
〈표 1〉에 따르면, 수원신사는 1915년 12월 16일 수원군 수원면에 곤도 오토라노스케 외 48명이 수원신사 설립의 건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 신사의 건립이 추진되게 되었다. 곤도는 한성은행 수원지점 상담역, 학교조합관리자, 전기회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1915년에 수원신사 설립을 청원한 49명의 대표자로서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보면 1928년까지 면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1922년에 군수와 경찰서장을 동원해 목재업자 차기형과 윤태정이 소유한 남수리 273번지의 대지 237평을 반강제적으로 수용하여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이듬해 7월 낙성식을 감행한 인물이다.²²

1913년경 수원역 주변에는 2,657호, 11,39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본인이 381호, 1,303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원역 주변에는 수원군청, 경찰서, 구(區)재판소, 헌병분대, 우편국, 수비대, 권업모범장, 경기도 수원묘포 등 관공서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²³ 이렇게 수원역 주변에 일본거류민의 인구가 증가하자 일본 민족의 세시풍속과 일생통과의례를 수행할 의례공간이 필요하였다. 수원신사와 같은 거류민신사의 창립 목적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국조숭배를 위시한 일본 거류민들의 내적인 단결 도모²⁴ 혹은 일본인 사회의 정

22 「水原面所新築地內定」, 『동아일보』 1922년 8월 29일; 「水原面事務所落成」, 『동아일보』 1923년 6월 29일.

23 朝鮮總督府鐵道國, 『朝鮮鐵道驛勢一般』, 1914, 94쪽을 성주현, 2005,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196쪽에서 재인용.

24 김승태, 1987, 「일본 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神社問題」, 『한국사론』 16, 286쪽.



〈그림 1〉 수원신사

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²⁵이 거론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역할도 거류민 신사 창건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본 신사는 씨족과 지역공동체라는 특정 집단과 관련된 의례 공간으로 식민지 초기 일본거류민 신사는 민중의 관습적 연행의 목적으로 창건되었다고 봐야 한다.²⁶

신사와 관련된 일본의 세시풍습으로 1월에는 신년을 맞이해 신사에 인사하러 가는 하치모우데(初詣で)²⁷와 콩을 뿌리는 액막이 행사, 3월에는 여아의 행복을 비는 모모노셋쿠(桃の節句),²⁸ 5월에는 남아의 무병장성을 비는 단오행사, 6월에는 역병의 재액을 씻는 나고시노하라에(夏越の祓),²⁹ 7월에는 칠월칠석 행사와 역병퇴치 기원제, 10월에는 수확을 맞이해 전국신사에서 열리는 대제, 11월과 12월에는 한 해

25 김대호, 2001,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88쪽.

26 辻子実, 2003, 『侵略神社』, 新幹社, 72쪽.

27 1월 1일의 하치모우데는 정초에 신사를 참배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례이다.

28 3월 3일은 '모노노셋쿠'라고 하여, 종이인형에 부정을 옮겨 강에 흘려보내거나 혹은 인형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여아가 잘 성장하도록 기원하는 의례이다.

29 6월 30일의 나고시노하라에는 여름에 유행하는 역병의 재액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모초로 만든 큰 고리를 통과하는 행사이다.

를 마무리하는 시모츠키사이(霜月祭)³⁰가 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얻고,³¹ 시조신(氏神)에게 참배하고,³² 무사하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³³ 성인식, 신전결혼식, 60세·70세 등의 장수를 축하하는 일본인의 일생 통과의례는 신사의 시조신이나 지역수호신 앞에서 행해진다.

이와 같이 수원군 내에 일본 거류민의 세시풍습과 일생통과의례를 수행할 공간의 필요성에서 지역 유지인 곤도 오토라노스케를 중심으로 신사창건을 위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일정한 금액이 모이자 「포교규칙」의 일원인 「신사사원규칙」³⁴이 공포된 직후인 1915년 12월 16일 수원신사 설립의 건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 1917년 일본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체(神體)를 모셔 와서 1917년 7월 24일 가천궁식(假遷宮式)을 거행하였다. 일본 이세 지역으로부터 궁대공(宮大工)을 불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지는 공립심상고등소학교 뒷산의 중턱에 경내를 300여 평으로 하였다.³⁵ 같은 해 10월 19일에 수원신사의 낙성식을 올렸고, 30일에는 신령천좌식(神靈遷座式) 추계 대제(大祭)를 집행하여³⁶ 수원신사를 완공하였음을 알렸다. 수원신사 대제는 매년 10월에 이틀간 행해졌으며, 첫날은 일본인 씨름과 조선인의 씨름이 행해졌는데 조선인 씨름에는 특등상으로 송아지 한필이 있었고 그다음 날은 사전(社殿)에서 제사를 올린 후 여흥으로 일본인 기생 가무와 조선인 기생 가무의 연주가 있었다.³⁷

교파신도는 1910년 8월 신리교가, 1912년 천리교가 수원에 진출하였다. 교파신도는 국가신도 체제 속에 편입되어 포교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아 일제의 지배 이

30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모츠키사이는 수확제와 진혼제를 본의로 하는 제사이다. 11월부터 정월에 걸쳐서 행해지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신에게 올리는 제사로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31 메이메이(命名)는 탄생 7일까지 신생아의 이름을 지어 종이에 이름을 써서 가미다나에 올리는 의례이다.

32 미야마이리(宮參り)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32일 여자는 33일이 지난 다음 모친과 조모가 아기를 안고 신사를 참배하여 건강한 발육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33 시치고산(七五三)은 아이가 3세(남녀 공통), 5세(남아), 여아(7세)가 되는 해의 11월 15에 신사를 참배하고, 지금까지의 성장을 감사하고, 무사하게 성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축하하는 의례이다.

34 신사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창립에 필요한 송경자총대(崇敬者總代)를 3명 이상 선출하고, 송경자(崇敬者) 수는 30인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또한 神社에 신직을 두어야 했으며, 신전 및 배전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였다(조선총독부령 제82호 「神社寺院規則」(1915년 8월 16일)).

35 「수원신사 천궁(遷宮)」, 『부산일보』 1917년 7월 28일.

36 「수원: 수원신사 낙성식」, 『매일신보』 1917년 10월 20일.

37 「수원신사의 대제」, 『매일신보』 1919년 10월 9일.

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총독부의 종교를 통한 지배전략에 이용되었지만, 치병활동을 중심으로 한 주술적 성격으로 인해 미신으로 간주되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³⁸ 신리교는 북부면에 포교소를 세워 전도를 시작하였으나, 1915년 「포교규칙」이 공포된 이후 기설 종교시설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포교 성과가 미흡하여 이후 포교를 중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천리교는 1912년 북부면에 선교소를 세워 포교를 진행하다가, 1915년 「포교규칙」이 공포된 이후 기설 종교시설에 대한 신고로서 1912년 10월 11일 「수원포교소」를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원포교소는 수원면 신평리 205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에 소재하였으며, 1934년에는 수원선교소를 「조선수원선교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금광교³⁹도 수원면에 1910년대 초에 유입된 것으로 유추되나 포교소의 창립연대가 관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1916년 12월 5일 포교담당자 선정계에서 금광교 포교소 명칭이 「경성교회수원포교소」로서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342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위치하였다. 금광교의 경우 포교가 원활하지 못해 1929년 3월 26일 포교소를 폐지하였으며, 당시에는 포교소 소재지가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216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기독교는 일본조합기독교회⁴⁰가 수원에 가장 먼저 진출하였으며, 1918년 2월 12일 수원군 송산면 용포리 123번지에 남양기독교회를 건립하였다. 일본조합기독교회는 재조선 일본인을 대상으로 포교를 전개하였지만, 그 전도의 목적은 “이주 식민 팽창이 아브라함 이래 기독교 신도의 일대 특색으로 조선으로의 선교는 ‘동양의 문명화’를 지향하지만 만주, 조선인의 일본화를 최대의 급선무로 ‘동화’를 위한 지도”가 중요한 전도의 과제이기도 했다.⁴¹ 이후 일본조합기독교회는 그 포교 성과

38 이원범, 1998, 「일본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 天理教와 金光教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23, 270쪽.

39 금광교는 금광대신(본명 赤澤文治)가 제창한 것으로 1875년 오사카에서 개교, 1885년 신도본국의 소속교회가 되었으며, 1900년에 별파교단으로의 독립을 공인받았다. 금광교는 교파신도로 공인을 받은 후, 천황제에 어울리게 교의 조직 의식을 변경하며, 1912년부터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신충효일본(信忠孝一本)’이라는 신앙이해를 전개하였다.

40 미국 최초의 해외전도조직인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에 의해 일본에 전파된 기독교 교회이다. 전전 일본 기독교교회의 주류파 중 하나로 1905년 2월 11일 아키모토(秋元茂雄) 목사가 부산으로 파견되어 재조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41 양현혜, 1996, 「일본 기독교의 조선 전도」, 『한국기독교와 역사』 5, 187~190쪽.

가 좋지 않아 1923년 7월 15일 포교소 문을 닫게 된다.

일본불교는 한일병합 이전 수원에 진출한 일본종교로서, 1905년 12월 정토종, 1909년 5월에 진언종 고야산파, 같은 해 9월에 진종 대곡파가 남부면에 포교소를 설립하였다. 1915년 8월 「포교규칙」이 공포된 이후 정토종이 같은 해 12월 28일 기설포교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포교소명은 '수원교회소'이며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소재하였다. 또한 한일병합 이전 이미 진출해 있던 진언종도 1915년 12월 25일 기설포교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포교소명은 '고야산대사교회 수원지부 법륜사'였으며,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232(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 위치하였다. 1918년 10월 3일 법륜사는 수원군 수원면 장현리 692번지,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232로 이전하였으며, 1937년에는 주소가 수원읍 남창정 126번지로 되어 있다.

수원에 이미 진출해 있던 진종 대곡파 역시 1915년 12월 26일 기설포교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포교소명은 진종 대곡파 본원사 수원포교소였으며,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217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 소재하였다. 1918년 12월 25일에는 포교소 명칭을 '대곡파 본원사 수원포교소'로 변경하였다. 1917년 8월 14일에는 일련종이, 1918년 3월 18일에는 진종본원사파가 수원에 새롭게 진출하여 포교소 설립허가를 받았다. 일련종의 포교소명은 '수원포교소', 위치는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12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였다. 1923년 7월 1일에는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 57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으로 이전하였다. 진종본원사파의 포교소 명칭은 '수원포교소'였으며,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25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위치하였다. 진종본원사파는 포교 상황이 좋지 않아 1931년 9월 1일에 포교소를 폐지하였다.

요컨대 1910년대 수원면에는 국가신도의 제사기관인 수원신사를 위시하여 일본 불교 포교소 5개소, 교파신도 포교소 3개소, 일본기독교 교회 1개소가 수원역에서 팔달산에 이르는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 분포하였다.

3. 1920년대 일본종교 현황

192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원군 호수는 25,668호, 인구는 137,811명이었으며, 일본인 호수는 785호, 인구는 3,108명으로 전체 수원군 인구의 2.25%를 차지하였다. 1910년대 이래 일본인 이주는 증가 추세였고, 1911년에 비해 일본인 호수는 118호, 인구는 667戶, 700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원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1910년대 이래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본인의 농업이민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이에 1920년대에 이르면 수원지역 일본인 이주 농민의 호수가 184호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인 지주들은 1920년대 초부터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리관개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 1920년대 수용수리조합(水龍水利組合)은 동산농장, 동척농장, 국무농장 등의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하며 1928년에는 여천(麗川), 신대(新垓)의 양 저수지를 축조하기도 했다.⁴²

이와 같이 수원 거주 일본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농장을 경영했으나 부업으로 상업에 종사하면서 상권을 확대해 나갔다. 일본인 상인들은 수원역-남문 앞에 이르는 신시가지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하였다. 1920년대 수원의 상업계는 점포수가 500여 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상인들을 중심으로 실업협회가 조직되어 회두(會頭) 1명, 부회두 2명, 상의원 5명, 평의원 20명과 상담법률 및 고문 등을 둘 정도로 발전하여 수원의 상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⁴³ 수원에서의 상업이 일본인들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 반면, 1920년대까지 공업 부문의 발전은 조선제지류와 도자기류, 기와류 정도에 그쳐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⁴⁴

1920년대의 종교정책은 소위 ‘문화정책기’에 해당되는데,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같은 해 8월에 조선총독부의 관제 개혁과 동시에 총독부의 학무국에 종교과가 신설되었다. 1920년 4월에는 1915년 8월 공포된 포교규칙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가 있게 되어

42 김백영, 2012,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21쪽.

43 酒井政之助, 1923, 『水原』, 酒井出版部, 50쪽.

44 「巡廻探訪 百九十八 停車場近處부터 日人이 蠶食(3)」, 『동아일보』 1927년 1월 16일.

있던 것을 총독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⁴⁵ 이에 대해 교파신도 천리교측은 “포교규칙의 개정은 신교자유의 원칙에 기해서 교회설치의 자유의 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조선민족 동화를 위해 (중략) 구제지도(救濟指導)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⁴⁶ 조선총독부 정책의 공인종교인 국가신도·불교·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1910년대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유사종교로 분류되는 교파신도에 대한 정책은 ‘문화정책’의 표방 하에 경찰의 단속과 통제가 느슨해졌다. 1920년대 관보에 기재된 수원군 일본종교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920년대 관보에 나타난 수원군 일본종교 현황

종교·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관보)
교파신도	神理教	神理教布教所	1929.12.25.	수원군 태장면 진안리 822	1929.12.25. 포교소설치계 (1930.05.02. 996호)
	黑住教	水原講義所	1927.09.10.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 16-2	1927.09.10. 포교소설치계 (1927.11.26. 273호)
일본불교	法華宗	本門法華宗 水原講義所	1928.05.12.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193	1928.05.12. 포교소설치계 (1928.09.19. 520호) 1940.04.20. 포교소폐지계 (1940.08.29. 4083호)
	曹洞宗	大覺寺	1928.04.27.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10	大西健三 1928.04.27. 사원창립허가 (1928.05.04. 402호)

<표 2>에 따르면, 1920년대 문화정책기에는 신사참배의 강제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수원신사에 더하여 신사(神社)나 신사(神祠)의 창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신사는 1925년 11월 23일 일본 황실의 안산(安産)기원제를 올렸고,⁴⁷ 1926년 12월 13일에는 일본 천황의 병환의 쾌차를 기원하는 의례를 올리는 등⁴⁸ 여전히 재조일본인의 구심점이자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5년 10월 추계 대제

45 文智炫, 2013,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과 신종교단체」, 『한국사연구』 114, 240~246쪽.
 46 春野喜市, 「朝鮮布教規則の改正と鮮民教化の急務」, 『미찌노도모(道乃友)』 1920년 5월호.
 47 「御安産祈禱, 水原の健兒團」, 『京城日報』 1925년 11월 25일.
 48 「聖上, 御平癒祈願, 水原神社で」, 『조선신문』 1926년 12월 16일.

에서는 각 정(町)에서 출전한 가장옥대(假裝屋臺)⁴⁹를 심사하여 상을 주기도 하고⁵⁰ 1926년 10월 추계 대제에서는 전야제로 수원극장에서 봉납(奉納)비과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선에서의 일본종교생활을 영위하였다. 수원신사 추계 대제에서는 전야제로 신에게 예능을 봉납한 후 당일 제식집행을 하고 어여(御輿)⁵¹ 행렬로 아마테라스 제신을 모시고 수원 시내를 한 바퀴 돌렸다.

그 코스는 수원신사에서 출발, 수원역 앞 어여소(御旅所)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문외 및 성내 종로를 둘러 다시 수원신사로 돌아와 어환행식(御還幸式)을 행하는 것이었다.⁵²

교과신도의 경우 포교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며 조선총독부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1927년 9월 흑주교⁵³가 새롭게 수원군에 진출하였으며, 1929년 12월 신리교가 재차 유입되었다. 1927년 9월 10일 설립된 흑주교의 포교소명은 '수원강의소'였으며,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16-2번지에 소재하였다. 1910년 8월에 들어와 포교를 중지한 후 재차 선교를 재개한 신리교의 포교소명은 '신리교포교소'였으며, 소재지는 수원군 태장면 진안리 822(현 화성시 진안동)였다. 이는 일본종교가 처음으로 수원면을 벗어나 포교를 한 사례로 당시 화성시에도 재조 일본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았음을 나타낸다.

일본불교의 경우 1928년 4월에는 조동종이, 같은 해 5월에는 법화종이 새롭게 수원군에 진출하였다. 조동종의 포교소 명칭은 '대각사'였으며,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10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위치하였다. 법화종의 포교소 명칭은 '본문법화종 수원강의소'였으며,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193(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소재하였다.

49 마츠리 때 보조를 맞추어 가며 천천히 끌고 다니는 수레로 수레 위에 큰 북을 올려놓고 치기도 하고 변장한 이들이 타고 가기도 한다.

50 「水原神社秋祭」, 『조선신문』 1925년 10월 27일.

51 마츠리 때 신위(神位)를 모시고 메는 가마

52 「수원신사(神社) 추제」, 『부산일보』 1930년 10월 23일.

53 흑주교의 교조는 구로즈미 무네타다(黒住宗忠)이다. 무네타다는 원래 신사신도(神社神道)의 풍토 안에서 성장했는데, 독특한 종교체험을 거쳐 1815년부터 강석과 금염(禁厭)를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日自家内心得の事'라는 7개조의 간단한 마음 수양서 외에 정리된 교의는 없고, '떠오르는 대로의 설법'이라 하여 마음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강석이 특징적이었다. 그의 사후 육고제(六高弟)의 활동에 의해 교세가 중국·사육·근기 지방으로 확장되며, 막말기에는 가장 세력이 큰 신종교로 성장하였다.

요컨대 1920년대에는 교파신도 후주교와 일본불교 조동종 및 법화종이 수원군에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신리교가 수원면을 벗어난 태장면에 재차 유입되었다. 1920년대 일본종교 현황은 국가신도 수원신사 1개소, 일본불교 포교소 7개소, 교파신도 포교소 4개소(1929년 3월 26일, 금광교 포교소 폐지), 일본기독교 교회 0개소(1923년 7월 15일, 일본조합기독교교회 포교소 폐지)로서 신리교의 포교소를 제외하고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 분포하였다.

4. 1930~1945년 일본종교 현황

1) 1930년대 일본종교 현황

193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원군 호수는 30,294호, 인구는 169,773명으로 일본인 호수는 819호, 인구는 3,408명으로 전체 인구의 2%였다. 즉, 1920년 일본인 인구에 비해 호수는 34호, 인구는 3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1931년 만주침략 이후 조선이 중일전쟁의 지원을 위한 후방이 되면서, 총독부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물질·인적·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1931년 부임한 우카키 총독은 일본과 조선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결합하는 ‘내선융화’, 즉 ‘조선인의 동화’방침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내선융화 통치방침을 구체화한 것이 1932년부터의 민심작흥운동과 1935년에 제창된 심전개발운동⁵⁴이다. 민심작흥운동은 1932년부터 관공서, 학교, 신사 등의 행사에 조선인을 동원하여 근대 국민정신을 교육시켜, 전시체제에서 일본 국내외의 난국에 대한 공동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조선인에게 ‘일본국민’의식을 심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⁵⁵

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중에게 근대 국민정신을 계몽시키고 ‘일본국민’의식의 이식에 방해가 되는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1932~1933년에 걸쳐 각 지방 경찰 당

54 심전개발운동은 교파신도를 제외한 조선의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공인종교나 그 외 이용 가능한 신앙·교화단체의 협력을 끌어내어 조선인에게 신사 신앙심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靑野正明, 2010, 「朝鮮總督府の「心田開發運動」と「類似宗教」彈壓政策」, 『동국대학교 일본학』 31권, 169쪽).

55 최석영, 1999,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137~138쪽.

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미신 취체안을 공포하고 강력히 미신 행위를 엄금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 다시 교파신도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심화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 수원군에서 교파신도의 새로운 유입이나 증설은 단절되었다. 관보에 나타나는 1930년대 수원군 종교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930년대 관보에 나타난 수원군 일본종교 현황

종교·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관보)	
국가신도	神明神祠 神明神祠	神明神祠	1930. 11.27.	수원군 안릉면 송산리		- 1930.11.27. 수원군 안릉면 송산리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糸永五郎 외 9명 출원 (1930.12.05. 1178호)
		神明神祠	1932. 06.10.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		- 1932.06.10.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武市保藏 외 20명 출원 (1932.06.22. 1636호)
일본기독교	日本メソヂスト教會	日本メソヂスト水原教會	1932. 06.21.	수원군 수원읍 매산리		- 1932.06.21. 포교소 설치 (1932.08.27. 1693호) - 1940.09.01. 수원군 수원읍 세유정 268로 포교소 소재지 변경 신고 (1940.10.29. 4131호)
	神の教會	水原神の教會	1937. 05.22.	수원군 수원읍 본정 2정목 78		- 1937.05.22. 포교소설치계 (1937.07.08. 3143호) - 1943.07.08. 포교폐지계 (1943.08.24. 4969호)
일본불교	日蓮宗	徳智布教所	1936. 06.29.	수원군 양감면 고령리 산48-2	寺澤日晷	- 1936.06.29. 포교소설치계 (1936. 07.24. 2859호)
	曹洞宗	曹洞宗布教所	1933. 04.08.	수원군 수원읍 산루리		- 1933.04.08. 포교소설치계 (1933.05.27. 1912호)
	眞宗興正派	鳥山布教所	1937. 12.27.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443-1	中村教進	- 1937.12.27. 포교소설치계 (1938.03.05. 3338호) - 1938.12.07. 포교소폐지계 (1939.02.06. 3613호)

<표 3>에 따르면, 국가신도의 경우 1930년 11월 수원군 안릉면 송산리에 이토 나가고로(糸永五郎) 외 9명이 일본의 황조신(皇祖神)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명신사의 창립을 신청하였으며, 1932년 6월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에 다케이치 호조(武

市保藏) 외 20명 또한 신명신사의 창건을 신청하였다. 즉, 수원면을 벗어나 일본거류지가 형성된 곳에 일본거류민 유지들의 주도로 신사가 조성된 것이다.

신사(神祠)는 신사(神社)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간소히 신사(神社)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사에 관한 건(神祠に關する件)」에 따르면, 신사(神祠)라고 칭하는 것은 신사(神社)가 아니며 공중(公衆)에 참배시키기 위해 신사(神祠)를 봉합사(奉合祀)하는 것을 말한다. 신사(神祠)를 설립하려면 승경자가 될 만한 10인 이상이 연서(連署)해야만 하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신사(神祠)는 신사(神社)에 비하여 제반의 설비를 간단하게 하여 지방주민의 사정에 따라 일반 신사(神社)의 형식을 구미한 신사(神祠)를 창립하기 어려운 곳에 한해서 그 지방주민에게 경신(敬神)상 만족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든 것이다. 신사(神祠)의 칭호는 될 수 있는 한 제신과 신명(神名)이 부합하는 보통명사를 선택해야 했으며(예를 들어 아마테라스를 제신으로 할 경우는 神明神祠라고 함), 담당 신직을 정해 제사를 위탁하도록 했다.⁵⁶

1930년 10월 17일에는 수원신사의 우지코(氏子) 다카하시 유우이치(高橋友一), 다케다 다쥬로우(竹田多十郎), 와타나베 신타(渡邊辰太)가 사이토(齋藤) 총독의 필로 쓴 수원신사 사호석(社號石)을 기증하였다.⁵⁷ 1934년 11월 13일에는 10월 추계 대제의 전야제 여흥이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하여 입장료의 잉여금으로 금폐(金幣)를 봉납하였다.⁵⁸ 1935년 6월 23일에는 수원신사 춘·추계 대제에서 신에게 봉납하는 활쏘기 대회를 연행할 활터(射場)를 수원궁도회에서 수원신사에 봉납하여 개장식을 한 후 활쏘기 예식을 연행하였다.⁵⁹ 1935년부터는 성내, 문외, 역전, 서둔리에서 33세 이상의 관민유지로 15명 내외로 야구팀을 조직하여 수원신사 추계 대제 때 동조야구대회(東組野球大會)를 봉납하였다.⁶⁰

또한 1935년은 수원신사 창립 20주년으로 경내를 확장하고, 사무소와 신고(神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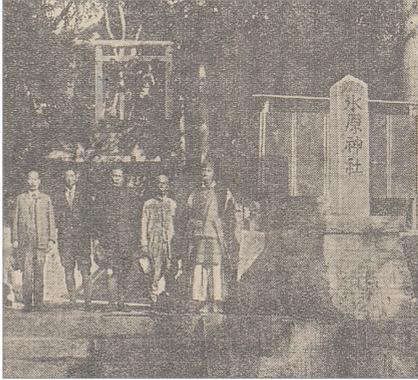
56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공포된 「신사에 관한 건(神祠に關する件)」(1917년 3월 22일)

57 「水原神社へ社號石寄進」, 『조선신문』 1930년 10월 17일.

58 「水原神社金幣奉納式」, 『조선신문』 1934년 11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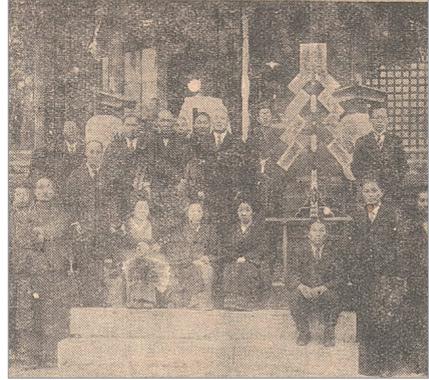
59 「水原神社に射撃奉納, 水原弓道會で」, 『조선신문』 1935년 6월 25일.

60 「東組野球大會」, 『조선신문』 1935년 10월 11일.



〈그림 2〉 수원신사 사호석

(「水原神社へ社號石寄進」, 『조선신문』 1930년 10월 17일)



〈그림 3〉 수원신사 봉납 대금폐

(「水原神社金幣奉納式」, 『조선신문』 1934년 11월 16일)

를 이전하고 재건축하였다.⁶¹ 1936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수원신사 내에서 전쟁의 승진을 기원하는 武運長久祈願祭,⁶² 출정군마무운장구기원제,⁶³ 전몰장병 위령제⁶⁴ 등의 군사적 성격의 제전이 집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정신 총동원을 위한 근로보국대⁶⁵와 각종 협회(연맹)의 기념식⁶⁶이 수원신사에서 연행되었다.

한편 수원신사는 참배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역이 좁고 그 건축물이 신사규정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군에서 새로 건축하고자 1938년 12월 23일 군청회의실에 관민 100여 명이 모여 수원신사봉찬회발기회를 개최하고 봉찬회를 조직하여 수원심상소학교 왼쪽편의 팔달산 산록에 총공비 9만 원으로 새로운 사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⁶⁷ 1939년 4월 29일 수원신사조영봉찬회에서 매산정 3정목 1번지

61 「廿周年記念事業に水原神社の改修、大竹社掌は語る」, 『조선신문』 1935년 12월 21일.

62 「武運長久祈願 水原神社에서」, 『매일신보』 1937년 9월 12일.

63 「말先頭로旗行列」, 『조선일보』 1939년 4월 29일.

64 「聖戰一週年記念行事」, 『조선일보』 1938년 7월 9일.

65 「수원읍근로보국단」, 『조선일보』 1938년 7월 14일.

66 「朝鮮防共協會 水原支部結成」, 『조선일보』 1938년 10월 1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 1939년 7월 30일; 「수원방공협회 일주년기념식」, 『조선일보』 1939년 8월 18일; 「一日愛國日에 勤勞流汗奉仕」, 『조선일보』 1939년 9월 3일; 「水原防護團解團式」, 『조선일보』 1939년 10월 4일.

67 「水原神社 造營코저 奉贊會 組織活動 總工費九萬圓 豫定」, 『매일신보』 1938년 12월 25일.

(수원소학교 뒤편)로 부지를 선정하고 수원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유지 10여 명이 회의하여 새로운 신사 터의 전답의 가격을 협의·결정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그 협정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여,⁶⁸ 수원신사의 신축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의 경우 1932년 6월 일본메서디스트교회⁶⁹가, 1937년 5월 신의 교회⁷⁰가 수원군에 새롭게 진출하였다. 일본메서디스트교회의 포교소명은 '일본메서디스트수원교회'였으며, 수원읍 매산리(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소재하였다. 신의 교회의 포교소명은 '수원 신의 교회'로 수원군 수원읍 본정 2정목 78번지에 위치하였다. 앞서 기술했듯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점진적으로 황민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1931년, 일반국민에게는 1932년 민심작흥운동을 통해 신사참배가 강제되었다. 이에 1938년 5월에는 수원기독교신자를 중심으로 신사참배와 국기계양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서⁷¹ 목사 등 3명은 불기소 석방되고 신자 4명이 보안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공판에 회부되는 사건⁷²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 거부는 기독교계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을 뿐, 1930년대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일본종교뿐만 아니라 조선 종교 일반에서도 종교보국이란 명목으로 일제의 인적·물적 자원통제에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종교 의례에서도 국기계양, 기미가요·황국신민서사의 제창을 의무적 식순으로 행하였다.⁷³

마지막으로 일본불교에서는 1930년대 조동종이 교세를 확장하여 1933년 4월 수원군 수원읍 산루리(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조동종포교소'를 설치하였다. 일련종 또한 교세를 확장하여 1936년 6월 수원군 양감면 고령리 산48-2번지(현 평택시 충북읍 고령리)에 '덕지포교소'를 증설하였다. 즉, 일련종이 수원군 외부로 교세를 확장하는 한편, 1937년 12월 진중흥정파가 수원에 새롭게 진출하여 오산포교소를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443-1번지(현 오산시 중앙동)에 설립하였다.

요컨대 1930년대 수원군에는 수원군민의 총진수로서 신사참배를 하기에는 수원

68 「水原神社域內 土地價格協定」, 『매일신보』 1939년 4월 29일.

69 일본메서디스트교회는 일본 개신교 교파의 하나로 1907년 설립되어, 1941년 일본기독교단원이 성립될 때 흡수되었다.

70 신의 교회는 일본 개신교 복음파 단체이다.

71 「水原署事件 基督教徒送局 一黨七名, 京城으로」, 『동아일보』 1938년 5월 11일.

72 「神社不參拜로 四名公判回附」, 『동아일보』 1938년 5월 22일.

73 김재득, 2003, 「일제의 종교정책과 가톨릭교회」,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4, 142~143쪽.

신사의 경내가 협소하여 사전을 이전, 신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30년 안릉면과 1932년 향남면에 신사(神祠)가 건립되었으며, 수원면 외부로도 일본인 사회의 종교적 필요성에 의해 신사가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1930년대 이래 황민화 정책을 단행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미신타파 정책을 펼침으로서 교파신도는 크게 위축되어 새롭게 유입되거나 확장되지 못하였다.⁷⁴ 일본기독교의 경우 일본메서디스트교회와 신의 교회가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일본불교의 경우 조동종과 일련종이 교세를 확장하였다. 특히 일련종의 경우 양감면으로 교세를 확대하였다. 1930년대 수원군에는 국가신도 3개소, 일본불교 포교소 9개소(1938.12.07. 진중흥정과 포교소 폐지), 교파신도 포교소 4개소, 일본기독교 포교소 2개소가 수원군을 중심으로 안릉면, 향남면, 양감면, 성호면으로 확장되었다.

2) 1940년대 일본종교 현황

194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원군 호수는 27,191호, 인구는 149,086명으로 일본인 호수는 949호, 인구는 3,571명으로 전체 2.4%였다. 즉, 1920년대 일본인 구에 비해 호수는 164호, 인구는 16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 태평양전쟁으로 전시동원체제가 강화되며 일본종교들의 종교보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강화되었다. 1940년대 관보에 기재된 수원군 일본종교 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1940년대 신사(神祠)의 창건이 16개소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이는 1931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와 관련이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1936년 8월 5일 미나미 지로 총독은 새로 부임하자마자 신사제도의 정비 및 확대를 통해 내선 일체에 기반한 황민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1936년 8월 1일 「신사제도 개정」에 대한 칙령을 통해 ‘1도((一)道) 1열격사(一列格社)’·‘읍면 1신사(神祠)’를 공포·설치하여, 식민정권의 제사 지원을 받는 국폐소사(國幣小社)를 지정하고,

74 「祈禱中죽은 것은 凍死로 判明되나 이면에 복잡한 사정이있나? 天理教에 새로운 注目」, 『매일신보』 1935년 12월 20일; 「天理教事件 兩巨頭收監」, 『조선중앙일보』 1935년 12월 28일; 「怪祈禱로 治病한다고 多數金品 詐取」, 『매일신보』 1936년 9월 30일.

동년 8월 11일 도부읍면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供進)⁷⁵을 받는 도공진사(道供進社), 부공진사(府供進社)를 지정한 것이다.⁷⁶ 그 결과 수원신사도 읍공진사로 승격되었으며, 관폐대사 조선신궁을 위시한 국폐사 이하 도·부·읍공진사라는 위계화된 국가제사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표 5〉 1940년대 관보에 나타난 수원군 일본종교 현황

종교-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관보)
국가신도 神祠	神明神祠	1940.06.22	수원군 은덕면		- 1940.06.22. 수원군 은덕면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前田隆 외 9명 출원 (1940.06.27. 4029호)
	神明神祠	1941.01.29	수원군 장안면		- 1941.01.29. 수원군 장안면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豊永正義 외 10명 출원 (1941.02.04. 4209호)
	神明神祠	1941.02.03	수원군 우정면		- 1941.02.03. 수원군 우정면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松本一成 외 10명 출원 (1941.02.08. 4213호)
	神明神祠	1941.03.24	수원군 팔달면		- 1941.03.24. 수원군 팔달면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成木正義 외 10명 출원 (1941.03.28. 4252호)
	神明神祠	1941.03.27	수원군 매송면		- 1941.03.27. 수원군 매송면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柳城基德 외 10명 출원 (1941.04.04. 4257호)
	神明神祠	1941.04.10	수원군 서신면		- 1941.04.10. 수원군 서신면에 神明神祠 설립의 건 竹本泰勳 외 10명 출원 (1941.04.21. 4271호)
	神祠	1941.04.17	수원군 대장면		- 1941.04.17. 수원군 대장면에 神祠 설립의 건 松岡春吉 외 11명 출원 (1941.04.24. 4274호)
	神祠	1941.06.16	수원군 마도면		- 1941.06.16. 수원군 마도면에 神祠 설립의 건 白川松平 외 9명 허가 (1941.06.24. 4324호)

75 관폐사는 제례 시 황실(궁내성)에서 신찬폐백료를 공진받는 신사이며, 국폐소사는 국고에서, 도공진사·부공진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폐백료를 공진받았다.

76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고시 제434호, 1936년 8월 1일;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고시 제440호, 1936년 8월 11일.

종교·종파명	포교소명	설립일	주소	포교자명	비고(관보)	
국가신도	神祠	神祠	1941.07.11	수원군 일왕면		- 1941.07.11. 수원군 일왕면에 神祠 설립의 건 李鳳萊 외 9명 출원 (1941.07.17. 4344호)
		神祠	1941.07.11	수원군 동탄면		- 1941.07.11. 수원군 동탄면에 神祠 설립의 건 右川秀雄 외 9명 출원 (1941.07.17. 4344호)
		神祠	1941.08.08	수원군 송산면		- 1941.08.08. 수원군 송산면에 神祠 설립의 건 金村炯世 외 9명 출원 (1941.08.13. 4367호)
		神祠	1941.09.11	수원군 반월면		- 1941.09.11. 수원군 반월면에 神祠 설립의 건 靑水玄太郎 외 9명 출원 (1941.09.16. 4396호)
		神祠	1941.11.04	수원군 비봉면		- 1941.11.04. 수원군 비봉면에 神祠 설립의 건 松原鍾燦 외 11명 출원 (1941.11.08. 4437호)
		神明神祠	1941.11.06	수원군 정남면		- 1941.11.06. 수원군 정남면에 神祠 설립의 건 竹成茂一 외 12명 출원 (1941.11.13. 4441호)
		神明神祠	1941.11.06	수원군 양감면		- 1941.11.06. 수원군 양감면에 神祠 설립의 건 梁本基煥 외 9명 출원 (1941.11.13. 4441호)
		神明神祠	1941.11.06	수원군 봉담면		- 1941.11.06. 수원군 봉담면에 神祠 설립의 건 井上文雄 외 9명 출원 (1941.11.13. 4441호)
일본불교	法華宗	本門法華宗 妙壽寺水原 布教所	1940.06.13	수원군 수원읍 북수정 72		- 1940.06.13. 포교소설치계 (1940.07.04. 4035호)
	曹洞宗	池之觀音布 教所	1942.04.01	수원군 수원읍 지야정 354	大西 健三	- 1942.04.01. 포교소설치계 (1942.05.06. 4578호)
		曹洞宗布 教所靑龍庵	1942.10.03	수원군 수원읍 북수정 238	大西 健三	1942.10.03. 포교소설치계 (1943.02.06. 4803호)

또한 ‘1읍면 1신사(神祠)’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의 말단 행정구역에까지 신사(神祠)를 설치하여 신사참배를 거행할 의례 공간을 마련하였다. 1931년 이후 신사참배⁷⁷는 매월 초에 대표학생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사에서 중요한 제사가 있는 날이나 일본의 각종 기념일에도 신사참배가 강제되었다.⁷⁸ 이후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체를 강화하기 위해 1938년에 창건된 조선연맹과 협력하여 신사참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조선연맹은 지역적으로는 중앙연맹과 지방연맹, 학교를 포함하는 직업별 각종 연맹, 이하 행정말단구역이나 부인들을 포함하는 애국반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한 관·민 전시통제 기구였다. 그리고 이들 각종 연맹 및 애국반에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신사참배 외에도 공식적인 신사의 제전에 신사참배가 의무로 지워졌다.⁷⁹

이에 수원군 수원면 이외의 면으로도 신사참배를 거행할 신사(神祠)가 창건되어 은덕면·장안면·우정면·팔달면·매송면·서신면·대장면·마도면·일왕면(일형면과 의왕면 통폐합)·동탄면·송산면·반월면·비봉면·정남면·양감면·봉담면으로 확대되었다. 즉, 수원군에서 오산면(옛 성호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신사(神祠)가 건립된 것이다.

특히 1941년 7월 11월 수원군 일왕면의 신사(神祠) 창건 신청자는 조선인 이봉채(李鳳菜)로 나타난다. 신사 설립 신청자의 경우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1936년 ‘읍면 1신사’정책 실시 이후로는 조선인 신청자도 증가하는데, 이는 신사가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조선인 거주구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 거주구역에서 신사 신청자는 90% 이상이 읍·면장으로 신사정책에 직접적 압박 혹은 일제에 대한 충성의 과시로 신사가 신청·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36년 이후 조선인 거주구역에 창건된 신사는 소학교 교장이 신관(神官)을 맡고 사무소는 학교 직원 숙소에 두었으며, 청소나 의례 참석 등 신사 운영에 소학교 학생들이 동원되며⁸⁰ 신사의 행정과 학교 교육이 공조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77 북수리는 1936년에 북수정으로 개편되었다.

78 「水原署事件 基督教徒送局 一黨七名, 京城으로」, 『동아일보』 1938년 5월 11일.

79 山口公一, 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會」, 一橋大學大學院 社會學研究科 博士論文, 155쪽.

80 히우라 사토코, 이연숙 옮김, 2016, 『신사·학교·식민지: 지배를 위한 종교·교육』,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편 수원신사의 경우 1939년 4월 29일 새로운 사전 부지를 매입한 이후, 1940년 5월 1일 관민유지 수백여 명이 모여 수원신사 신조영봉고제(新造營奉告祭)를 올린 후 수원신사의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⁸¹ 1942년 11월 28일에는 조선인 징병제도 실시 70주년기념제를 수원신사에서 집행하였으며,⁸² 1943년 8월 1일에는 징병제도실시에 대한 감사봉고(感謝奉告)와 필승기원제(必勝祈願祭)를 집행하였다.⁸³ 1943년 9월 13일에는 수원신사 상동식(上棟式)이 시라카와(白川)군수 이하 관민유지 200여 명의 참석 하에 열렸다.⁸⁴ 그러나 수원신사 신축에 관련된 신문기사가 그 이후 없는 것으로 보아,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수원신사 신축사업의 추진과 신사의 팽창 속에서, 수원군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불교가 교세를 확장하였다. 법화종이 1940년 6월 13일 '본문법화종묘사수원포교소'를 수원군 수원읍 복수정 72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 설치하였다. 조동종은 1933년 4월 8일 '조동종포교소'를 수원군 수원읍 산루리(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1942년 10월 3일 '조동종포교소청룡암'을 수원군 수원읍 복수정 238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법화종의 경우 1940년 4월 20일 기준에 복수리 193에 있던 본문법화종수원강의소를 폐지하고 복수리 72번지에 다시 포교소를 개설한 것이어서 교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유일하게 조동종이 국가신도를 제외하고 일본종교 중 1940년대 교세를 확장해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1945년 8월 해방 전까지 수원군의 일본종교 현황은 국가신도 19개소, 일본불교 포교소 11개소(1930년 4월 20일, 법화종 포교소 폐지), 교파신도 포교소 4개소, 일본기독교 포교소 1개소(1943년 7월 8일, 신의 교회 포교소 폐지)가 소재하였으며, 국가신도의 경우 수원군을 중심으로 오산면(옛 성호면)을 제외한 모든 면으로 확장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211쪽, 231쪽.

81 「水原神社御造營 工事不遠着手」, 『동아일보』 1940년 5월 5일.

82 「記念祭嚴肅執行, 各地의 徵兵制七十周年」, 『매일신보』 1942년 1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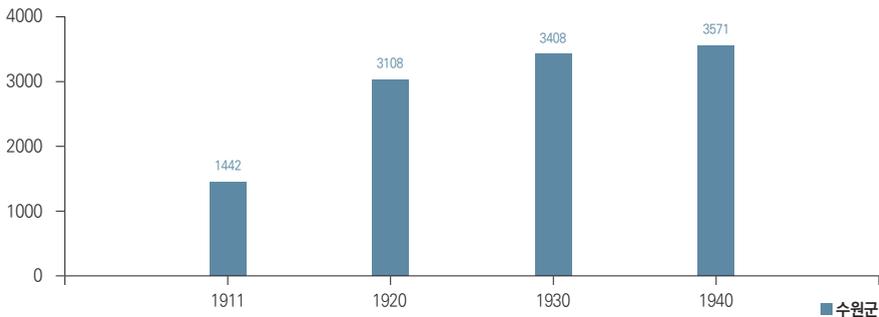
83 「神兵旣榮譽에感激 各地徵兵記念行事盛大舉行」, 『매일신보』 1943년 8월 4일.

84 「水原神社의 上棟式盛大」, 『매일신보』 1943년 9월 15일.

5. 맺음말

지금까지 수원군의 일본종교 유입양상을 연대별로 살펴보았다. 수원군에 최초로 유입된 일본인 선교사는 1900년 노리마츠 마사야스로 영국 프리머스 형제교회의 선교를 위해 들어온 이래 1909년 ‘수원 성서강당’을 세웠으며, 1917년 ‘기독교신회’라고 교회 명칭을 변경하여 교세를 이어 갔다. 수원군에 최초로 유입된 일본종교는 일본불교로 1905년 12월 정토종, 1909년 5월에 진언종 고야산파, 같은 해 9월에 진종 대곡파가 수원면에 진출하였다. 즉, 한일병합 이전 수원에 진출한 일본종교는 일본불교였다.

1915년 수원면의 일본인 인구가 719명(총인구 10,714명의 6.7%)⁸⁵에 이르자 같은 해 12월 16일 수원신사 설립의 건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고, 1917년 10월 19일 완공되었다. 1915년 8월「포교규칙」의 공포에 의해 기설 일본종교 시설들은 총독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수원군의 경우 정토종의 ‘수원교회소’, 진언종의 ‘고야산대사교회 수원지부 법륜사’, 진종 대곡파의 ‘진종 대곡파 본원사 수원포교소’가 수원군 수원면에 소재하였다. 이 외 일본불교 일련종이 1917년 8월, 진종본원사파가 1918년 3월 수원면에 새롭게 진출하였다. 그리고 일본불교에 이어 교파신도 천리교와 금광교가 1912년과 1910년, 일본기독교 일본조합기독교회가 1918년 수원면에 진출하였다.



〈그림 4〉 일제강점기 수원군 일본거류민 인구 추이

85 성주현, 2005,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191쪽.

1920년대에는 수원군에 교파신도 흑주교가 1927년 9월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신리교가 1929년 12월 재차 유입되었다. 또한 일본불교 조동종이 1928년 4월, 법화종이 같은 해 5월에 진출하였다. 특히 1920년대는 위의 도표와 같이 일본거류민 인구가 191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일본종교가 수원면을 벗어나 태장면(현 화성시)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는 신사(神祠)가 1930년 안룡면과 1932년 향남면에 건립되며 교파신도 신리교에 이어 수원면 바깥으로 확대되었다. 1930년대에는 점진적으로 황민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교파신도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심화되어 수원부로의 교파신도의 새로운 유입이나 증설은 단절되었다. 반면 일본기독교 일본메서디스트 교회가 1932년 6월, 신의 교회가 1937년 5월 수원군에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일본불교 진종흥정파가 1937년 12월 새롭게 진출하였다. 조동종과 일련종의 경우 교세를 확장하였는데, 특히 일련종은 양감면(현 평택시), 진종흥정파는 오산면(옛 성호면, 현 오산시)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1940년대에는 ‘읍면 1신사’ 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의 말단 행정구역에까지 신사참배를 거행할 의례 공간을 마련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맞물려 총 16개소의 신사가 수원군 오산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설립되었다. 1940년대는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신사참배를 강제할 국사신도의 확장 외에 일본불교 조동종이 교세를 확대해 나갔을 뿐 수원군 일본종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수원군의 일본종교 현황의 추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일제강점기 수원군 일본종교 시설

일제강점기 수원군 전반에 있어서 국가신도 신사의 확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불교가 교세를 많이 확장하였다. 교파신도의 경우 1920년대 이래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본기독교의 경우 1930년대 이래 감소 추세이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참고문헌

고문헌 및 신문

『京城日報』;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신문』;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미찌노도모(道乃友)』.

酒井政之助, 1923, 『水原』, 酒井出版部.

논문 및 단행본

김대호, 2001,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김승태, 1987, 「일본 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神社問題」, 『한국사론』 16.

김백영, 2012,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7~48쪽.

김재득, 2003, 「일제의 종교정책과 가톨릭교회」,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4, 125~150쪽.

도히 아키오(김수진 역), 1991, 『일본기독교사』, 기독교문사.

文智炫, 2013,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과 신종교단체」, 『한국사연구』 114, 319~416쪽.

성주현, 2005,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185~214쪽.

수원시, 2004, 『수원도시변천사』.

靑野正明, 2010, 「朝鮮總督府の「心田開發運動」と「類似宗教彈壓政策」」, 『동국대학교 일본학』 31권, 164~185쪽.

안국진, 2018,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양현혜, 1996, 「일본 기독교의 조선 전도」, 『한국기독교와 역사』 5, 184~207쪽.

이노우에 노부타카 외, 박규태 옮김, 2010, 『신도, 일본 태생의 종교시스템』, 제이앤씨.

이원범, 1998, 「일본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天理教와 金光教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23.

히우라 사토코, 이연숙 옮김, 2016, 『신사·학교·식민지: 지배를 위한 종교-교육』,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최석영, 1997,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山口公一, 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會」, 一橋大學大学院 社會學研究科 博士論文.

辻子実, 2003, 『侵略神社』, 新幹社.

Peggy Levitt, The Transnational Villager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요 약

일제강점기 수원은 일제의 식민농정을 구축하기 위해 1906년 권업모범장, 그리고 그 일대에 일본인 지주회사들의 농장이 대규모로 설치되며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거류민들은 수원역 방면에 거주하며 수원역 주변으로 신시가지를 형성하였으며, 1905년 12월 정토중, 1909년 5월 진언중 고야산과, 같은 해 9월에 진중 대곡파가 진출하여 수원역에서 팔달산에 이르는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 포교소가 분포하였다. 1917년 10월 19일 수원신사가 팔달산 남쪽 문묘가 안치된 향교 위에 창건되었으며, 1920년대 이후로는 일본거류민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원면 이외의 지역으로도 일본종교가 확대되었다. 수원군 일본거류민의 삶에서 종교문화가 그 구심점의 역할을 했으며, 일본불교·일본기독교·교파신도가 그 전도의 대상을 재조일본인으로 하였지만 선교의 목표를 조선인의 ‘일본인화’로 내세운 점에서, 그리고 국가신도가 황민화 정책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점에서 수원군의 일본종교의 추이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및 일제강점기 간행된 신문 기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수원군의 일본종교 유입현황을 1910년대, 1920년대, 1930~1945년으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일본종교의 유입, 수원신사, 일본불교, 일본기독교, 교파신도

ABSTRACT

Japanese Religion's Introduction And Activities In Suwon Under Japanese Occupation Period

HEAJIN MUN

During Japanese occupation, Suwon established Kwonup Mobeomjang(Model Farm) in 1907; Around it, a large-scale farms of Japanese holding companies were built, and then Japanese migration began in earnest. Japanese inhabitants formed a new town living in the direction of Suwon Station. Jōdoshū in December 1905, Singon Kouyasan sect in May 1909, and Shinshū Ōtani sect in September 1909 came into Suwon. Their churches were located in Paldal-gu, Suwon-si, where extended from Suwon Station to Paldal mountain. On October 19, 1917, Suwon Shinto Shrine was built in the upper of Hyanggyo, in where a Confucian shrine was located in the south of Paldal mountain. The number of Japanese inhabitants had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20s; as a result, Japanese religion begun to be introduced beyond Suwon-myeon. Religious cultur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lives of Japanese inhabitants in Suwon-gun. Although Japanese Buddhism, Japanese Christianity, and Kyoha shinto set the target of evangelism to Japanese people, the goal of the mission was 'becoming Japanese'. In addition, State Shinto served as the outpost of the Japanization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lluminate how Japanese religion was introduced in Suwon-gun and carried on their religious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how Japanese religion in Suwon-gun had changed, dividing the period into the 1910s, 1920s, and 1930~1945.

Key Words : Introduction of Japanese Religion, Suwon Shinto Shrine, Japanese Buddhism, Japanese Christianity, Kyoha shinto

일제강점기 오산 출신 변기재의 생애와 사회운동

- ‘오산그룹’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동민*

1. 머리말
2. 변기재의 가계와 가족관계
3. 변기재의 수학시절과 오산그룹의 형성
4. 일제강점기 오산지역과 변기재의 사회운동
5. 맺음말

1. 머리말

변기재(邊基在, 1904~ ?)는 일제강점기 오산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운동가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석정(孔錫政, 1902~1936), 박승극(朴勝極, 1909~?)과 더불어 수원지역 사회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기재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대개 박승극을 비롯한 수원지역 청년운동과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프로미전 및 수진농민조합과 신간회 활동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¹ 이러한 경향은 지역사 연구를 집대성하는 성격의 수원시의 『수원시사』를 비

* 수원화성박물관장(Director, Suwon Hwaseong Museum), E-mail : kaha21@korea.kr, Tel : 010-3218-8079

1 조성운, 1997, 「일제하 수원지역의 농민조합운동」, 『동국역사교육』 5; 조성운, 2000,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조성운, 2001,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수원문화사연구』 4; 조성운, 2001, 「박승극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기타 에미코, 2003, 「수원프롤레타리아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11,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이동근, 2007,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못하여 오산시의 『오산시사』에서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에서 변기재가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²

특히 공석정은 1933년 이후 지역을 떠나 만주로 망명한 후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박승극과 변기재는 해방 이후 북쪽을 선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세 명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1988년 북쪽으로 간 문학인들의 작품이 해금되면서 문학인으로서 박승극은 재조명될 수 있었다. 이에 수원지역 사회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박승극은 『박승극문학전집』 1~2집으로 소설과 수필집이 발간되었고,³ 그의 문학작품과 활동에 대한 연구⁴ 및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편이다.⁵ 이에 비해 함께 활동했던 공석정과 변기재에 대한 연구는 수원지역 사회운동 및 수원청년동맹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박승극이 수필과 소설 및 문학평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발언을 한 반면 공석정과 변기재는 그들의 사상과 활동을 드러내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당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구술채록이라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활발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조성운, 2016, 「남상환의 활동을 통해 본 수진농민조합」, 『일제하 경기도의 민족운동과 증언』, 선인.

- 2 『수원시사 8-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2014)에는 「수원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조성운),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와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조은정),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과 활동」(조성운), 「수진농민조합의 결성과 활동」(조성운) 등을 통해 변기재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오산시사 2』(2020)의 「일제강점기 오산」(이동근)은 오산의 독립운동에서 오산노농학원사건을 다루면서 변기재의 활동을 조명하였다.
- 3 박승극문학전집편집위원회, 2001, 『박승극문학전집-소설』 1, 학민사; 박승극문학전집편집위원회, 2011, 『박승극문학전집-수필』 2, 학민사.
- 4 민현기, 1988, 「일제하 한국소설에 나타난 독립투사의 성격 연구; 감옥체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15,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정영진, 1992, 「〈정치문인〉 박승극의 궤적」, 『현대문학』 3; 조남현, 2000, 「박승극의 실천·비평·소설」, 『한국문화』 2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전기철, 2001, 「박승극소설고」, 『숭의논총』 25, 숭의여자대학; 권영미, 2007, 「박승극의 문학연구」, 『수원문화사연구』 6, 수원문화원; 오양호, 2008, 「떠들다 떠나버린 한 지식인의 내면 풍경- 박승극의 〈다여집〉론」, 『수필과 비평』 96, 수필과비평사; 우대식, 2012, 「박승극의 생애와 소설」, 『수원학연구』 9,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 김재용, 2013, 「국가로부터 독립된 개인과 사회는 불가능한가?- 박승극론」, 『수원역사문화연구』 3, 수원박물관.
- 5 김시중, 2001, 「내가 만난 박승극 형」, 『박승극문학전집 1』1; 조성운, 2007, 「한 지식인의 삶과 수원- 박승극」, 『춘담 류준기 박사 정년퇴임기념논총 - 한국근현대인물강의』, 국학자료원; 성주현, 2009,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숭실사학』 22, 숭실대학교사학회; 조성운, 2018, 「화성출신 지식인 박승극의 사회주의적 민족운동」; 한동민, 2019, 「일제강점기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의 삶과 투쟁」, 「참담하고 노여웠던 우리들의 시대」, 수원학연구센터.

행인 것은 화성시에서 독립운동 후손들의 증언채록 사업에서 변기재의 딸 변주현과 아들 변순용의 구술을 통해 변기재의 또 다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⁶

근대 수원지역 사회운동사에서 큰 축을 차지한 변기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지만 자료의 한계 때문에 삶과 활동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변기재의 삶과 사회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변기재로 대표되는 ‘오산그룹’의 형성과 수원지역 사회운동에서 그들의 선도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변기재의 가계와 가족관계

변기재는 오산리 출신으로 오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592번지에서 아버지 변용환(邊容煥, 1863~1941)과 어머니 남원양씨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⁸

변기재는 원주 변씨 감찰공파(監察公派)이다. 조선 전기에 사헌부 감찰을 역임한 변상동(邊尙同, 1400~1453)을 파시조로 하고 있다. 부친 변용환과 조부의 묘는 안성군 원곡면에 있으나 그 위 선대의 묘소는 진위군 송탄에 위치하고 있어 세거지가 진위군 송탄면 중곡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부친 변용환은 일제강점기 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1927년 7월 1일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603번지에 합자회사 오산운수(烏山運輸)를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1만 5,000원으로 대표는 변용환(3,500부)을 비롯하여 무한책임 사원 김학배(金鶴培, 3,500부)와 윤용섭(尹龍燮, 4,500부) 및 유한책임 사원 김근수(金根洙, 3,500부) 등이었다.¹⁰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 가운데 윤용섭이 가장 많은 돈을 출자했으나 대표는 변용환이었다. 철도역과 연결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운송업은 조선인들도 있었지만 대개 일본인들이 장악한 사업 영역 중 하

6 소현숙·이혜영, 2017,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한다』, 화성시.

7 『原州邊氏監察公派譜』, 회상사, 1999; 원주변씨학우회, 2012, 『원주변씨대동보』.

8 일제의 「수형자 카드」에는 본적과 주소가 오산리 689번지로 되어 있으나 1930년 일제의 「변기재 판결문」에 본적과 주소지가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592번지로 되어있고, 「김양배 민적부」에도 남편 변기재 본적이 오산리 592번지로 되어 있다.

9 변기재 아들 변순용(변양일) 선생 인터뷰(2015. 7. 5. 발안 자택).

10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9, 東亞經濟時報社.



〈그림 1〉 변기재 가계도

나였다. 동그라미안에 별이 그려져 있는 마루보시(丸星)라는 운송업이 대표적이였다. 이러한 운송업 대표였던 변용환은 오산의 지역유지로 평가받았다.¹¹

변용환은 부인을 3명 두었는데, 첫 번째 부인인 전주 이씨(1868~1946) 사이에 장남 변기선(邊基善, 1871~1919)이 태어났고, 둘째 부인 남원 양씨 양계영(1871~1952) 사이에서 변기태와 변기재 형제가 태어났다. 변기재의 동복형인 변기태(邊基泰, 1898~1960)는 은행에서 근무하여 해방 후 은행 중역으로 활동하였다.

변기재는 1927년 전주 이씨 이정진(李貞珍, 1909~1942)과 결혼하여 아들 우현(宇鉉, 1928년생), 성현(星鉉, 1932년생)과 가운데로 딸 주현(1930년생)을 낳았다. 이정진은 기독교 집안 출신의 전주 이씨 이종운(李鍾雲)의 장녀로 태어났다.¹²

1919년 3월 오산공립보통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몇 년 뒤 다시 오산공보 5학년에 편입하여 1926년 3월 6년제를 졸업하였다.¹³ 변기재는 같은 마을의 오산공보 후배였던 이정진을 어린 시절부터 서로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진은 이

11 수원시, 2001, 『김시중 인터뷰』, 『수원근현대증언자료집』 1, 83쪽.

12 이종운(李鍾雲)의 직업은 농업이었지만 1919년 3·1운동 당시 오산장에 살던 지주 이치홍(李致弘)의 서기(書記)로 일할 만큼 똑똑한 인물이었다(李舜基 신문조서, 『예심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삼일운동 XIV). 김시중 선생은 이정진을 목사의 딸로 기억하고 있듯이 이종운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인물이다.(수원시, 2001, 『수원근현대증언자료집』 1)

13 『오산공립보통학교 졸업명부』는 이입분(李立分)이라는 이름으로 4학년제 졸업 명부와 6년제 졸업 명부 2개가 전한다. 본적은 오산리 313번지이고 아버지는 이종운(李鍾雲, 농업)이다. 이이븐은 이후 이정진으로 개명한 것이다.

화여고보를 나오고 서울로 기차 통학을 했다고 한다.¹⁴ 이들이 연애 결혼한 것은 이정진이 오산공보를 졸업한 1년 뒤, 변기재가 일본에서 귀국한 1927년 봄으로 추정된다. 변기재 나이 23살이었고 이정진은 18살이었다. 결혼 후 변기재는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와 운송점 직원 등 오산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변기재가 형무소에 들어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정진은 오산에서 원도우가 있는 양품점을 운영하였으나 장결핵에 걸렸다. 변기재는 아내의 병을 고치려 수원과 서울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끝내 1942년 초에 사별하게 되었다.¹⁵

30대의 나이로 어린 3남매를 남기고 부인 이정진이 세상을 떠나자 변기재는 막내아들이 11살일 때인 1943년 1월 수원읍의 김양배와 재혼하였다. 두 번째 부인 김양배(金良培, 1915~1979)는 수원의 유력한 김해 김씨 출신으로 김영식(金永植, 1870~1942)의 2남인 김현갑(金顯甲, 1893~1954)과 차석순(車石順)의 장녀로 남수리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차석순도 수원을 대표하는 유력한 연안 차씨 집안으로 차석완(車錫完)의 장녀이자 수원누룩회사와 소화직물을 운영한 차재윤(車載潤, 1896~1964)과 차정윤(車正潤)의 누나이기도 하다. 또한 김양배의 큰아버지 김석환(金皙煥, 1888~1918)은 나기원의 3녀이자 나중석(羅重錫)의 동생인 나정석(羅貞錫)과 결혼하였다. 나정석은 나혜석과 사촌 언니로 큰딸 김숙배(金淑培, 1904~1997)가 니혼여자고등사범을 다닐 때 나혜석의 도움을 받았다. 김숙배는 졸업 후 고재욱(전 동아일보사 사장)과 결혼하였고, 동생 김원배(金元培, 1910~?)는 일본 메이지(明治) 대학을 졸업하고 수원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다. 변기재가 김양배와 결혼하게 된 이유도 사촌 오빠 김원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김양배는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유학해 1933년 서울 숙명여고(제24회)를 졸업하였다. 김양배는 변기재와 결혼하여 양일(洋一), 즉 변순룡(邊順龍, 1943년생)을 낳았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뒤 수원 읍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방 직후 수원 연무동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양배는 1948년 12월 변기재와 협의 이혼계를 제출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수원에서 고아원 자유동원(自由童園)을 운영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14 이화여고보를 나오고 서울로 통학한 것은 이정진의 여동생 이세희(李世熙, 1918~?)로 추정된다. 이세희는 1931년 오산공보(6년)를 졸업하고 이화여고를 거쳐 일본 유학을 한 듯하다.

15 화성시, 「변주현 구술」,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한다』, 2017, 93쪽.

3. 변기재의 수학시절과 오산그룹의 형성

1) 명신학교와 오산공립보통학교

근대 오산지역의 역동적 변화의 중심인물들은 오산동 출신이다. 오산장이 위치한 오산동은 상오산과 하오산의 위아래 마을, 즉 성호면 4동과 성호면 5동을 합쳐 200여 호가 되는 큰 마을이었다. 특히 오산리 사립 명신학교와 오산공립보통학교를 나온 사람들로 이들은 오산지역 사회에서 강한 결속력을 갖고 활동하였다. 변기재는 형 변기태의 뒤를 이어 사립 명신학교와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는 오산지역에서 커다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오산리의 사립학교는 1905년으로 오산장의 정한교(鄭漢敎)가 사숙(私塾)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한문, 산술 등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다.¹⁶ 이후 정한교와 정재호가 200원의 출연금으로 교사를 새로 짓고,¹⁷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학생수가 늘었다. 이것이 '명진학교(明進學校)'이다.

1907년 오산리에 일신학교(一新學校)가 학생 50여 명을 모집하여 개설되었다.¹⁸ 일신학교는 1908년 학생수가 증가하여 주간 4개 반(갑·을·병·정)과 야간 1개 반으로 이루어진 규모가 큰 학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08년 8월 공포된 「사립학교령」으로 두 학교의 통합 논의가 1908년 말 본격화되어 1909년 4월 1일 '명신학교(明新學校)'로 통합하여 개교하였다.¹⁹ 명진학교와 일신학교의 한 글자씩을 취한 것이다. 명신학교 개교 당시 학생은 보통과 남녀 100명이었다.²⁰ 1910년 5월 현재 교감 이용묵(李容默)과 학감 김진태(金鎭台)였다.²¹

그러나 1910년 나라가 망하면서 명신학교의 운명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 신교육을 통한 민족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던 사립 명신학교는 결국 1913

16 「鄭氏熱心」,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0일.

17 「明校將就」,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0일.

18 「김씨연보」,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5일; 「捐帽斷髮」,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5일.

19 「明校壹新」,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10일.

20 「明校壹新」,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10일; 「烏校更新」, 『황성신문』 1910년 5월 17일.

21 「烏校更新」, 『황성신문』 1910년 5월 17일.

년 4월 1일 개교한 오산공립보통학교(烏山公立普通學校)로 통합되었다. 사립 명신학교 재학생 76명이 오산공립보통학교로 인계되어 개교한 것이다.²² 오산공립보통학교(오산공보)는 이후 1941년 성호국민학교, 1996년 성호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성호초등학교에 소장된 『졸업자 학적부』를 통해 사립 명신학교 출신으로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46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1914년 제1회 졸업생 13명, 제2회 8명, 제3회 11명, 제4회 12명, 제5회 2명 등이다.

학적부에 주소가 청호면과 성호면 및 4동·동과 4리·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혼란으로 생긴 것이다. 또한 명신학교임에도 신명학교로 오기된 것도 있다. 한편 명신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오산장 부근의 4동, 5동 출신들이고 몇몇이 인근의 갈곶, 금곡리, 은포리 등지에서 왔다. 오산장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자제들이 중심이었고, 다른 학교들과 달리 강한 결속력이 특징이었다.

1914년 3월 오산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은 변기태·김기선·박경천 등 13명이었다. 변기재는 사립 명신학교를 3년 수료한 뒤 1913년 4월 오산공립보통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이후 1916년 3월 26일 당시 4년제인 오산공보 제3회 졸업생이 되었다. 이들 오산공보 출신들은 1919년 오산 3·1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하였고 3·1운동을 경험한 3·1운동 세대, 즉 기미(己未)세대들이 되었다. 이들이 1920년대 이후 오산지역 사회운동을 비롯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주체들이었다. 즉 박경천·김기선·이오남(1회), 강우형(2회), 이봉의·변기재(3회) 등 명신학교 출신 이면서 오산공보를 졸업한 이들이 오산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어 갔던 오산그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표 1〉 사립 명신학교 출신 오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 현황

이름	생년	주소	종전 교육	입학	비고
김순천(金順天)	1896	성호면 4동	사립 명신학교 4년	1913. 5.	1914 제1회 (13명)
변기태(邊基泰)	1898	성호면 4동	사립 명신학교 졸업	1913. 5.	
나현성(羅賢成)	1898	성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4년	1913. 4.	

22 한동민, 2020, 「대한제국기 오산」, 『오산시사』 2.

이름	생년	주소	종전 교육	입학	비고	
박대흥(朴大興)	1898	성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졸업	1913. 5.	1914 제1회 (13명)	
강철수(姜哲秀)	1899	성호면 4동		1913. 5.		
유재혁(劉載赫)	1899	성호면 5동		1913. 5.		
임만수(林萬壽)	1899	성호면 5동		1913. 5.		
김기선(金基宣)	1899	성호면 5동		1913. 5.		
박경천(朴敬天)	1899	성호면 5동		1913. 5.		
조순출(趙順出)	1899	성호면 5동		1913. 5.		
이오남(李五男)	1899	성호면 5동		1913. 5.		
고수봉(高壽鳳)	1900	성호면 5동		1913. 5.		
조덕흥(趙德興)	1901	성호면 5동		1913. 5.		
김한경(金漢卿)	1897	성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3년	1913. 4.	1915 제2회 (8명)	
강우형(姜友馨)	1898	진위 북면 갈곶리	사립 명신학교 4년	1913. 5.		
김학배(金鶴培)	1899	진위 북면 갈곶리		1913. 4.		
정광(鄭鐘)	1900	성호면 4동	사립 신명학교 3년	1913. 4.		
이덕진(李德鎭)	1901	성호면 5동	사립 신명학교 4년	1913. 4.		
김조필(金朝弼)	1902	성호면 4동		1913. 4.		
장하진(張夏鎭)	1903	성호면 4동		1913. 4.		
유길남(劉吉男)	1903	성호면 5동		1913. 4.		
지종원(池鍾琬)	1899	동탄면 송리	사립 명신학교 3년	1913. 4.		1916 제3회 (11명)
김은출(金隱出)	1899	진위 일북면 소청호리	사립 명신학교 2년	1913. 4.		
김도감(金道甘)	1901	성호면 4동	사립 명신학교 3년	1913. 4.		
이노마(李魯馬)	1902	성호면 5리	사립 명신학교 1년	1913. 4.		
김흥석(金興錫)	1902	성호면 4리	사립 명신학교 2년	1913. 4.		
이육남(李六男)	1903	성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3년	1913. 4.		
강덕희(姜德喜)	1903	성호면 5리	사립 명신학교 1년	1913. 4.		
박수남(朴壽男)	1903	성호면 독리(篤里)		1913. 4.		
임무경(林舞敬)	1903	성호면 5리	사립 명신학교 3년	1913. 4.		
이봉의(李鳳儀)	1904	성호면 5리		1913. 4.		
변기재(邊基在)	1904	성호면 4리		1913. 4.		
지원설(池遠尙)	1899	동탄면 송촌리	사립 명신학교 2년	1913. 4.	1917 제4회 (12명)	
이원동(李元童)	1901	성호면 5리		1913. 4.		
안선영(安善永)	1902	성호면 4리	사립 명신학교 1년	1913. 4.		
김억룡(金億龍)	1905	청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2년	1913. 4.		
이형재(李衡載)	1905	청호면 5동		1913. 4.		

이름	생년	주소	종전 교육	입학	비고	
이백흥(李百興)	1905	청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2년	1913. 4.	1917 제4회 (12명)	
박상덕(朴尙德)	1905	청호면 5동		1913. 4.		
김영순(金永順)	1904	성호면 4리	사립 명신학교 1년	1913. 4.		
김이남(金二男)	1904	청호면 4동		1913. 4.		
김흥남(金興男)	1904	성호면 결리		1913. 4.		
김덕기(金德器)	1903	성호면 4리		1913. 4.		
신상룡(辛祥龍)	1902	동탄면 금곡리		1913. 4.		
이완근(李完根)	1900	성호면 5동		1913. 4.		
박경범(朴敬凡)	1902	성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2년	1913. 4.		1918 제5회 (4명)
강금동(姜今童)	1905	청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1년	1913. 4.		
김귀남(金貴男)	1906	어탄면 은포리		1913. 4.		
정수남(鄭壽男)	1906	성호면 5동	사립 명신학교 1년	1913. 4.	1919 제6회	
이원재(李元載)	1905	청호면 5동		1913. 4.		

2) 오산그룹의 형성과 변기재

1919년 3·1운동 경험은 오산지역 사회운동을 격동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사립 명신학교와 오산공립보통학교 출신자들은 오산 3·1운동의 주역이었고, 이후 지역의 청년운동을 주도하는 일꾼으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오산리 출신으로 사립 명신학교를 졸업하고 오산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인 김기선과 박경천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920년대 오산지역 청년운동을 이끌었던 쌍두마차였다. 김기선(金基宣, 1899~1927)은 1923년 오산 원리에서 시작된 대성학원(大成學院)을 오산리로 옮기는 데 노력하였고, 오산 최초의 단체인 갑자단(甲子團) 단장, 오산사·청년회 문예부장, 혁성단 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오산지역 청년운동을 이끌었다. 김기선은 오산시장에서 김기선 이발관을 운영하며 지역청년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다. 또한 같은 마을에서 나서 함께 자라며 사립 명신학교와 오산공보 동기동창인 박경천(朴敬天, 1899~1926)도 오산상조회 위원장, 갑자단 총무와 혁화청년회(華華靑年會) 위원장 및 동아일보사 오산분국 기사를 역임하며 함께 오산지역 청년운동을 이끌었다.

‘오산에서 유일한 단체인 갑자단’이라는 평가처럼 갑자단은 오산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단체였다. 오산갑자단은 1924년 8월 김기선을 비롯한 청년들의 발기로 체육을

보급 및 장려하기 위한 소년운동 단체로 갑자단을 조직하였다.²³ 우선 정구부터 시작하여 야구와 축구도 점차 보급하며 이후 완전한 운동장의 설비를 목표로 하였다.

오산갑자단은 1925년 3월 29일 조운원 집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의 소년운동단체를 탈피하여 문예부, 운동부, 소년부를 신설하여 회지 발간과 강연과 토론회를 조직하였다. 임원은 <표 2>와 같은데, 변기재는 박상덕과 엄익홍과 함께 문예부 간사를 맡았다.²⁴

〈표 2〉 오산갑자단 임원

구분	성명
단장	김기선(金基宣)
총무	박경천(朴敬天)
서기	박상덕
회계	임홍만
문예부 간사	박상덕(朴商憲) 엄익홍(嚴翼鴻) 변기재
운동부 간사	김오룡(金伍龍) 이덕만(李德萬)
소년부 간사	임홍만(林洪滿) 한용록(韓用錄)

이듬해 1926년 3월 14일 갑자단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 개선이 있었다. 단장은 김기선이었고, 총무는 김재덕(金在德)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조직 개편이 되었는데, 운동부는 존치하면서 문예부와 소년부가 폐지되어 교양부로 축소되었다. 이에 교양부 간사는 김용식(金容式)·장봉운(張鳳雲)·한용록, 운동부 간사는 김학준(金學俊)·김오룡이 맡았다.²⁵

한편 수원 유일의 사상단체 혁성단(革成團)이 오산에서 출현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성단은 1925년 가을 회원 15명으로 조직되었다.²⁶ 변기재 역시 혁성단

23 『甲子團組織』, 『조선일보』 1924년 8월 26일.

24 『烏山甲子團總會』, 『조선일보』 1925년 4월 1일.

25 『甲子團定期總會』, 『조선일보』 1926년 3월 16일.

26 『停車場 近處부터 日人이 蠶食』,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기존의 연구 및 근대사연표는 이 신문 기사를 근거로 혁성단이 1926년에 조직되고, 오산사-궤청년동맹이 1927년에 조직된 것으로 잘못 쓰고 있다. 이 기사는 1927년 1월 20일자 신문에 실렸지만 내용은 1926년 말에 작성된 것이다. 이에 기사의 '작년'은 1926년이 아닌 1925년이다. 따라서 혁성단은 1925년 가을에 조직되었고, 오산사-궤청년동맹은 1926년 봄에 조직된 것이다.

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혁성단 활동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어 수원지역 사회운동에서 끼친 역할을 온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상단체를 표방한 최초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함으로써 ‘오산그룹’의 근간을 형성하였던 셈이다. 혁성단 출범도 김기선과 박경천의 노력과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오산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혁화청년회(革華靑年會)도 1925년 비슷한 시기에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11월 2일 대성학원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변기재 역시 혁화청년회 회원이었다. 설립 당시 혁화청년회 사무소는 조선일보 오산지국이었다. 변기재가 조선일보 오산지국 기자였기에 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사무실은 1925년 11월 오산리 422번지 가옥을 혁화청년회 위원장 박경천이 제공하여 이전하였다.²⁸ 회관에는 신문잡지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혁화청년회 제3차 정기총회가 1926년 2월 27일 최병찬 집에서 개최되었을 때 변기재는 공석정, 이남수(李南壽)와 함께 집행위원이 되었다.²⁹ 그러나 1926년 3월 9일 혁화청년회 위원장 박경천의 죽음은 지역사회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혁화청년회와 갑자단 공동으로 1926년 3월 15일 ‘박경천 추도회’가 대성학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김기선·변기재·공석정 등이 주도한 행사였다. 김기선의 개회사, 변기재의 추도문 낭독, 공석정의 언행록 낭독이 진행되었다.³⁰

‘혁화청년회’는 1926년 『중외일보』와 1927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革華’를 ‘草華’로 오식하면서 ‘초화청년회’로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革華靑年會’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오산지역 사회운동 상황을 잘 아는 변기재가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을 병기한 중외일보사 기사 역시 ‘혁화청년회 위원장(革華靑年會委員長)’이라 분명히 적고 있기 때문이다.³¹

한편 「변기재 판결문」(1933)에는 변기재가 1925년 7월 도일하여 1927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1925년 말~1926년 초 오산지역의 사회운동의 중요

27 「革華靑年會懇親會」, 『조선일보』 1925년 11월 4일.

28 「篤志美行」, 『조선일보』 1925년 11월 21일; 「革華靑年會館移轉」, 『조선일보』 1925년 11월 22일.

29 「革華靑年定總」, 『조선일보』 1926년 3월 1일.

30 「朴敬天君追悼會」, 『시대일보』 1926년 3월 17일.

31 「朴敬天氏追悼會 심오일 대성학원에서」, 『시대일보』 1926년 3월 13일.

한 변화를 감추기 위한 변기재의 진술에 따른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즉 변기재의 진술에 따르면 1925년 가을 혁성단 창립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변기재는 1926년 2월 27일 혁화청년회 제3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집행위원이 되었고, 1926년 3월 8일 혁화청년회 위원장 박경천 추도회에 참석하여 추도문을 낭독하였다. 따라서 변기재의 일본행은 1926년 3월 8일 이후 일이 되는 셈이다.

당시 변기재는 1925년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오산갑자단, 혁화청년회, 오산상조회, 오산동창회 등 오산지역의 다양한 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로서 변기재는 1925년 4월 조선기자대회에 동아일보사 오산분국 엄익홍(嚴翼鴻)과 참여를 표명하고 있다.³² 또한 5월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에서 오산부인견학단 27명을 조직하여 서울 조선일보 본사와 경복궁, 총독부 건물 공사현장 및 창덕궁 비원 탐방을 안내한 것도 변기재였다.³³

변기재의 또 다른 활동무대는 오산상조회였다. 오산상조회(烏山相助會)는 1924년 6월 오산리 마을 청년들이 상호부조와 지식향상을 목적으로 20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었다.³⁴ 이들은 친목도모를 위하여 설날을 맞이하여 1925년 1월 25일 장경준(張敬俊) 집에서 회원 20여 명이 모여 윗놀이를 하고, 2월 7일 김경태(金慶泰) 집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 결산과 규칙 및 임원을 개선하면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오산상조회는 1925년 6월 단오날을 맞이하여 청학리 야산에서 창립1주년 기념식 및 제2회 정기총회를 거행하였다. 이때 오산상조회 위원장은 박경천이었고, 위원으로 변기재를 비롯하여 이성우·공석정·박근실·이명섭 등이었다.³⁵ 이미 변기재와 공석정은 1924년부터 오산상조회 회원이자 오산상조회 운영위원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오산리에 근거를 둔 혁화청년회와 갑자단은 1926년 7월 20일 두 단체의 위원간 담회에서 합동을 결의하고, 1926년 8월 4일 갑자단 사무소에서 합동대회를 개최하

32 「參加人員-제1회」, 『동아일보』 1925년 4월 6일.

33 「금일에 래도한 오산부인 견학」, 『조선일보』 1925년 5월 12일.

34 「烏山相助會總會」, 『조선일보』 1925년 2월 10일; 「懇親擲柶大會」, 『조선일보』 1925년 1월 29일.

35 「總會兼 紀念式, 烏山相助會가」, 『동아일보』 1925년 6월 27일.

여 ‘오산사-궤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³⁶ 위원장 공석정을 비롯한 서무부(박근실·김재덕), 조사부(김기선·이남수), 운동부(김용식·한용록), 교양부(공석정)를 조직하였다.

오산사-궤청년동맹의 우선 과업은 군 단위 수원청년동맹을 조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단체중앙위원회 참가를 전제하면서 군 단위 청년조직을 우선적으로 결성한 다음 이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오산을 넘어 수원군 전체의 청년조직을 이룰 오산그룹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성이 추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교양을 위한 독서회와 여성 교양을 위한 강연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체육대회, 즉 기호정구대회를 개최하며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1927년 오산사-궤청년동맹 위원장은 공석정에서 김기선으로 교체되었다. 공석정이 강원도 철원으로 갔기 때문이다. 오산청년동맹 회원은 40여 명으로 주요 사업은 대성학원 경영이었다.³⁷ 오산청년동맹은 공석정을 비롯한 오산리 및 오산공립보통학교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공석정을 비롯한 오산리 및 오산공립보통학교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변기재가 일본으로 떠난 뒤였다.

오산지역에서 오산공보 제1회 졸업생인 김기선, 박경천 이외에 제2회 졸업생이 오남·강우형과 제3회 졸업생으로 변기재와 이봉의 등이 오산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오산공보 제2회 졸업생 강우형(姜友馨, 1898년생)은 갈곡리 출신으로 1928년 동아일보사 오산분국 기자 및 오산청년동맹 위원이자 수진농민조합에 관여하였던 인물이다. 오산공보 3회 졸업생 이봉의(李鳳儀, 1904년생)는 변기재와 같은 오산리 출신의 동갑나기 동기동창으로 1923년 오산 대성학원 교사로 무료 봉사하였고, 1928년 대성학원중건기성회 서기로 활동하였다.

갑자단은 변기재의 후배들로 오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오산공보 제6회(1919년) 졸업생으로 성호면 청학리 출신의 김용식(金容式, 1905년생), 오산리 김오룡(金伍龍, 1905년생),³⁸ 오산리 출신의 장봉운(張鳳云, 1906년생) 등이다. 이들은 오산공보를 1학년에 입학하여 4학년을 온전히 마친 4년제 첫 졸업생

36 『革華, 甲子團 兩團體合同』, 『조선일보』 1926년 8월 3일.

37 『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 대오를 요할 우리』,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38 오산공보 졸업명부에는 김오룡(金五龍)으로 되어 있다.

이기도 하다. 오산공보 제7회(1920년) 졸업생으로 오산리 391번지 한용록(韓用錄, 1909년생), 오산공보 제8회(1921년) 졸업생으로 오산리 389번지의 김학준(金學俊, 1909년생)과 오산리 308번지 임홍만(林洪滿, 1909년생) 등이다. 갑자단의 임원은 완전히 오산공보 출신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라 할 것이다. 이들 오산공보 출신들이 오산그룹을 형성하며 이후 오산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 성장하였던 셈이다.

한편 오산공보 졸업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립 명신학교 출신으로 추정되는 안준식과 김봉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산지역 사회운동, 특히 무산아동 교육에서 무산아동 잡지를 표방했던 『별나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잡지 『별나라』를 운영한 안준식은 오산이 아닌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그의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³⁹ 잡지 『별나라』는 안준식이 1926년 6월 1일 창간하여 1935년 2월까지 통권 79호로 중단된 소년소녀잡지였다.

안준식(安俊植, 1901~1951)은 오산리 출생으로 1913년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일제 측 자료는 안준식이 오산공립보통학교 졸업연도를 소화 2년(1927)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대정 2년(1913)의 오기로 보인다.⁴⁰ 그러나 오산공립보통학교(현 성호초등학교) 개교 연도가 1913년이라는 점에서 안준식이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오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 명부에 안준식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립 명신학교를 졸업하고 오산공보로 진학하지 않았거나, 진학했으나 졸업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준식은 같은 마을 변기태·변기재 형제와 잘 아는 사이였고, 변기태의 3년 후배이자 변기재의 3년 선배였다. 안준식은 학교 졸업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918년 서울로 올라가 잡지 조선공론사 잡급으로 취직했다. 2년 뒤인 1920년 동아출판인쇄주식회사(東亞出版印刷株式會社)에서 외근직으로 일하며 고학하여 1924년 중앙기독교청년회학관 고등과(중등과정)를 졸업하였다. 1925년 9월 동아출판인쇄주식회사를 퇴사하고 동아사인쇄소(東亞社印刷所)를 창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39 한동민, 2019, 「일제강점기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의 삶과 투쟁」, 『참담하고 노여웠던 우리들의 시대』, 수원학연구센터, 143~144쪽.

40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우리동무事件)』, 京城地方檢事局(1932. 12. 15), 22~23쪽.

1926년 6월부터 어린이 잡지 『별나라』를 창간하여 출판, 경영하였다.⁴¹ 1926년 6월 어린이 잡지 『별나라』를 창간하고 주필로 활동하면서 1927년 박세영, 송영과 등과 함께 잡지 『별나라』를 카프 아동문학부의 기관지로 개편하고 프로문학 출판물 발간에 힘썼다.⁴² 1931년부터 어린이 잡지 『별나라』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이끌었다. 안준식은 무산아동 교육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즉 1925년 8월 서울야학교가 보광(普光)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무산아동을 교육할 때 조명재와 함께 무급 교사로 활동하였고, 1926년 1월부터 보광학교 운영비로 매달 10원씩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오산노동학원에서 활동한 조명재(趙明載)가 이미 서울에서 안준식과 무산아동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안준식과 오산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안준식은 1926년 4월부터 신광소년회(新光少年會)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27년 1월 꽃별회 회원으로 소년운동을 펼쳤다. 오산노동학원에서 교재로 『별나라』 잡지 내용을 활용하고, 수원과 양감면에 『별나라』 지사가 자리 잡고 소년운동을 이끌었던 것도 안준식이 오산 출신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또한 성호면 켄리 156번지 출신으로 변기재보다 3살 아래인 김봉희(金鳳喜, 1907~?)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봉희는 오산에서 심상소학교 3학년 정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하는데 오산공립보통학교를 다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28년경 공석정의 소개로 수원 신간회에 가입하고 차례로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수원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8년 12월 이래 신간회 총무간사 공석정과 함께 간사로 활동하였고,⁴³ 1929년 6월 수원노동조합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노동운동에 관계하다가 1930년 2월경 일본으로 도항하여 선동기(宣東基)의 지도를 받아 좌익문헌을 열독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 5월말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에 가입하였고, 1932년 일본반제동맹, 일본공산당,

41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우리동무事件)』, 京城地方檢事局(1932. 7), 21~22쪽.

42 박태일, 2019, 「수원지역 어린이문학가 안준식의 삶과 문학」, 『한국문학논총』 81-1, 한국문학회. 박태일은 안준식을 안평원과 다른 인물이자 수원지역 문학인임을 최초로 밝혔다. 그러나 배재고보를 중퇴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오산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못했다.

43 「新幹 水原支會 定期大會」, 『조선일보』 1928년 12월 23일.

노동계급사(勞動階級社),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일본출판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노동계급사는 조선의 노농대중에게 계몽적 출판물 제공을 위한 출판사 설립을 목표로 김치정, 김두정이 주도하여 1932년 6월 일본 동경에서 설립되었다. 김두정이 작성한 「노동계급사 창립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여 노동계급사의 역할과 계급적, 대중적 출판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기관지 『노동계급』 임시호 200부를 인쇄하여 일본과 국내 각지에 배송하였다.⁴⁴

변기재가 『노동계급』을 오산노동학원 교사들과 회람하며 토론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계급사에 참여한 김봉희가 변기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봉희는 1935년 10월 김치정 등 7명과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운동)으로 일본 도쿄형사지방법관소에서 예심종결 결정을 받았다.⁴⁵ 이들 8명 가운데 향남면 발안리 58번지 출신 최두환(崔斗煥, 24세)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⁶ 김치정(金致廷, 1906~1936)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병을 얻어 1936년 2월 7일 30살의 나이로 이국땅에서 순국하였다.

안준식과 김봉희를 포함한 오산공보 출신들은 오산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분위기와 오산공보라는 학연 및 오산리라는 지연의 끈끈한 결속력을 통해 오산그룹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3) 오산지역과 공석정의 대성학원

오산에서 공석정과 대성학원을 빼놓고 지역 사회운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때 오산지역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인물은 공석정(孔錫政, 1902~1936)이었다. 공석정은 곡부 공씨로, 아버지 공재헌은 곡부 공씨 집성촌인 성호면 켄리에서 서당 훈장을 지낸 한학자였다.⁴⁷ 『조선일보』 기사에는 공석정이 켄리 출신으로 되어 있다.⁴⁸ 곡부

44 김인덕·김도형, 2009,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5 : 1920년대 이후 일본 동남아지역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138~140쪽.

45 「勞動階級社(3), 豫審決定書全文」, 『매일신보』 1935년 11월 9일.

46 『思想彙報』 제6호.

47 조성운, 2003, 『일제하 수원군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57쪽.

48 「水原 孔錫政氏 永眠」, 『조선일보』 1936년 11월 2일.

공씨들의 집성촌인 궐리 출신으로 오산리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석정은 공자를 모신 사당인 궐리사 강학에 참여해 논어를 공부하는 등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럼에도 근대적 학교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공석정은 1923년 성호면 원리에 대성학원(大成學院)을 개설하였다.⁴⁹ 대성학원은 나이가 많아 보통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과 학비가 없는 무산아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대성학원은 오산지역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대성학원이 왜 원리에 개설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천도교 교리강습소가 위치했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대성학원은 1925년 5월 오산장 및 오산리 출신으로 구성된 오산상조회(烏山相助會)와 오산리 이덕흥(李德興)이 100여 원의 기부금으로 오산리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대성학원은 오산리에 신축교사로 이전한 뒤 1925년 5월 23일 낙성식 겸 학예회를 개최하면서 찬조를 받았다. 이날 공석정의 사회로 경과 및 결산보고와 학예회를 진행하여 지역유지 이덕흥을 비롯한 52명이 190여 원과 목목 50주 및 오산상조회(5원), 조선일보사 오산지국·광성학원(3원), 삼미의숙·화진학원(2원) 등의 기관이 찬조하였다.⁵⁰ 대성학원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근 사립학교의 찬조가 눈에 띄는데, 광성학원(光成學院)은 오산 세교리에 위치하였고, 삼미의숙(三美義塾, 1923. 4. 윤학영)은 외삼미리, 화진학원(華振學院)은 오산 원리에 위치하였다.

대성학원이 오산 원리에서 오산리로 이전한 것은 같은 마을의 화진학원의 성장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화진학원(華振學院)은 성호면 원리에서 심상돈(沈相敦)·심상우(沈相瑀) 등이 1924년 4월경 청호학원(淸湖學院)으로 시작하였다. 경영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925년 봄 학부형 연대로 300원을 차용하고 일반 유지들의 기부금과 원리 마을 주민들의 노력 원조로 교사를 새롭게 신축하면서 명칭을 화진학원(華振學院)으로 바꿨다. 70명의 아동을 무보수로 교양하는 동시에 남녀노동야학도 설치하였다. 신축 집행위원 유병록(劉炳祿)·정태익(鄭泰翊) 등의 노력과

49 「정거장부근부터 일인이 잠식」(『동아일보』 1927년 1월 19일) 기사는 대성학원이 1923년 봄 이덕흥 외 23명이 발기하여 창립한 것으로 쓰고 있다. 이는 1925년 오산리로 이전할 때의 상황인 듯하다.

50 「烏山大成學院, 落成兼學藝會」, 『동아일보』 1925년 5월 25일.

무보수 교원으로 심상무(沈相茂)·심상우 등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였다. 화진학원 원장은 한필호, 학감 정형기, 회계 김현숙이었고, 원리산림계에서 산림 3만평과 이웃마을 청호리에서 30원을 기부하여 학원의 장래가 유망케 되었다.⁵¹

원리에서 화진학원이 지역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신축 개학함으로써 대성학원의 입지가 악화되었던 셈이다. 이에 오산리 출신 공석정은 같은 마을의 오산상조회와 손잡고 대성학원을 오산리로 이전하였던 것이다. 이에 1924년 조직된 오산상조회는 오산 대성학원과는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1925년 7월 22일부터 오산지역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오산상조회 교양부’가 주최하고 ‘대성학원(大成學院)’후원으로 대성학원 교실에서 오산노동야학회(烏山勞動夜學會)를 개강하였다는 점이다. 노동야학회는 매일 오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조선어·일어·산술 등을 무료로 가르쳤다. 강사는 공석정·박경천·이봉의·이명섭·이성우(李成宇)·변기재 등이었다. 더욱이 오산노동야학을 위해 정대련(2원 50전), 이남수·엄태섭·김태룡·대성학원(각 2원), 이성우(1원 50전), 박경천·무명씨·박근실·조병희·이회근·박덕삼(각 1원), 서상규(50전) 등 오산상조회 회원 등이 의연하고 있다.⁵²

대성학원에 노동야학을 설치한 것은 오산리 출신들의 오산상조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더욱이 대성학원 노동야학회의 실질적 운영은 오산상조회 교양부가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변기재와 공석정은 1924년 오산상조회 회원으로 밀접한 연결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고, 변기재는 대성학원 노동야학회 강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성학원이 1926년 1월 30일 불의의 화재로 전소되면서 대성학원은 인근의 궐리(關里)에 집을 빌려 겨우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김기환의 발기로 오산사-궐청년동맹의 후원으로 혁성단(革成團)을 만들어 연극 공연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혁성단 단장은 김기환(金基桓)과 총무 장경준(張敬俊)의 인솔로 각 방면을 순회하고자 하였다.⁵³

그러나 대성학원을 이끌었던 공석정은 1927년 봄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 승양리

51 「華振學院有望」, 『조선일보』 1925년 5월 2일.

52 「烏山夜學盛況」, 『조선일보』 1925년 7월 26일.

53 「大成學院曙光」, 『조선일보』 1926년 11월 7일.

에 있는 동일학원(東一學院) 교사로 초빙되어 갔다. 철원 동일학원은 1924년 창립 이래 3년 동안 운영비 문제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것을 최두녕(崔斗寧)·이범오(李範五) 등 철원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오산 대성학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공석정을 초빙했던 것이다. 공석정과 여교사 나영숙(羅玲淑)을 새로운 교사로 초빙하고 여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하여 학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⁵⁴ 공석정은 철원 동일학원 교사로 근무하며 철원지역 사회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1927년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철원지역도 사회운동 고양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공석정은 철원에 간 지 몇 달 뒤인 6월에 철원교육협의회(鐵原教育協議會) 발기인 총회 기초위원이 되었고, 7월에 철원청년회(鐵原青年會)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특히 철원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1927년 6월 26일 일본인(藤澤暢太郎)의 8세 조선소녀(오순득) 린치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공석정의 역할과 노력은 매우 컸다.⁵⁵ 철원 시민대회를 조직하고 공석정은 일본인 불매운동을 통한 퇴출을 제안하고, 피해자 오순득을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공석정은 1927년 6월 29일 철원경찰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철원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을 두려워한 탓이다.⁵⁶

그러나 공석정은 1927년 9월 9일 철원청년동맹 결성을 앞두고 철원청년회에서 ‘철원청년운동의 과거와 장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정도로 공석정은 조직이론가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⁵⁷ 철원 사회운동의 영수였던 박용준(朴龍駿)·전상덕(全相德)·조덕오(趙德五)·김순익(金順益) 및 공석정 등이 제창하여 당시 표현단체인 철원청년회를 비롯한 철성(鐵城)청년회·무산청년회·오일(五一)청년회 등을 규합하여 9월 11일 철원 중리에서 철원청년동맹(鐵原青年同盟)을 결성하였다.⁵⁸ 공석정은 철원청년동맹 집행위원 7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⁵⁹ 이렇게 공석정은 철원청년동맹을 결성하여 이를 조선청년총동맹 기치 아래 합류시키고, 철원 청년운동의 활성

54 「東一學院, 童話劇大會」, 『중외일보』 1927년 3월 18일.

55 「鐵原日本人, 少女私刑事件眞狀」, 『동아일보』 1927년 6. 29일.

56 「孔錫政氏를 警察이 退去命令, 사건을 확대시킬까 무서워」, 『조선일보』 1927년 7월 3일.

57 「회관저당이 문제」, 『동아일보』 1927년 9월 9일.

58 「단일청년 철원에서 준비」, 『조선일보』 1927년 9월 4일;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위반 피해사건 검거에 관한 건」, 『사상에 관한 정보』, 鐵高秘 제2484호, 1933년 5월 24일.

59 「철원청년동맹, 9월 11일 창립」, 『조선일보』 1927년 9월 13일.

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공석정은 1927년 9월 철원청년동맹을 결성되자 고향 오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27년 10월 17일 조직 개편된 오산사-궤청년동맹 위원장이 되면서 다시 오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오산사-궤청년동맹 위원장 공석정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긴 사업은 오산 대성학원 중건이었다. 오산사-궤청년동맹을 통해 대성학원 복구 방안을 거듭 논의한 끝에 이를 뒤인 1927년 10월 19일 대성학원중건기성회(大成學院復校期成會)를 조직하였다.⁶⁰ 이에 수원읍 복수리 천도교 교당에 중건위원회 사무실을 두고 모금활동을 펼쳤고, 오산시장에 석유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대성학원 중건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에 1928년 2월부터 공석정은 박규희 등은 명함을 제작하여 판매하러 지방으로 직접 돌아다녔다. 1928년 2월 12일 각각 충남 홍성에서 당진, 광천, 청양 등지로 돌아다니며 명함을 판매하였다.⁶¹ 그럼에도 일제의 탄압은 지속되어 1928년 5월 9일 수원 복수리 천도교회 내에 설치된 대성학원 중건위원회의 서기 이봉의와 교사 유기현(柳基賢) 및 공석정이 검속되고, 동시에 가택수색과 중요 서류를 압수해 갔다. 결국 대성학원은 일제의 방해로 중건되지 못했다. 대성학원 문제해결은 오산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는 이후 변기재를 중심으로 한 오산청년동맹의 오산노동학원으로 수렴되어 갔던 셈이다.

4. 일제강점기 오산지역과 변기재의 사회운동

1) 변기재의 귀국과 오산지역 사회운동

『변기재 판결문』에 따르면 변기재는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인천공립상업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집안 형편으로 1학년 때 중퇴하였다고 한다. 또한 1925년 7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서 약 1년간 신문배달 등 고학을 하다가 1927

60 「大成學院復校? 사-궤靑年活動」, 『동아일보』 1927년 10. 28일.

61 「大成學院重建會, 委員兩氏來洪」, 『중외일보』 1928년 2월 18일.

년 4월 귀국하였다고 쓰고 있다.⁶² 이에 따르면 1925년 7월 일본으로 건너가 1927년 4월 귀국할 때까지 약 2년간 일본생활을 한 셈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원지역의 첫 사상단체 혁성단(革成團)은 1925년 가을 오산에서 15명으로 조직되었고, 오산사-궤청년동맹은 1926년 봄에 조직되었다. 변기재는 1925년 7월에 일본으로 가서 1927년 4월에 귀국한 것이 사실이라면 오산지역의 청년조직의 중요한 두 단체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지는 못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 체제 중이라던 1926년 봄 변기재의 국내활동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혁화청년회 제3차 정기총회가 1926년 2월 27일 최병찬 집에서 개최되었을 때 변기재는 공식정, 이남수와 함께 집행위원이 되었고,⁶³ 1926년 3월 15일 밤 8시부터 대성학원 강당에서 진행된 혁화청년회(革華青年會) 위원장 박경천(朴敬天) 추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혁화청년회와 갑자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박경천 추도회에서 갑자단 단장 김기선의 개회사와 변기재의 추도문 낭독이 진행되었다.⁶⁴ 변기재 활동에 대한 신문기사는 1926년 3월부터 1927년 내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기재의 일본행은 1925년이 아니라 1926년으로 3월 15일 이후라 봐야 할 것이다.

한편 1927년 4월 변기재는 일본에서 귀국하였다. 몇 달 뒤인 1927년 7월 1일 오산리 603번지에서 아버지 변용환을 대표로 하는 합자회사 오산운수(烏山運輸)가 설립되었다. 대표 변용환(邊容煥, 3,500부)과 사원으로 김학배(金鶴培, 3,500부), 윤용섭(尹龍燮, 4,500부), 김근수(金根洙, 3,500부) 등 1만 5,000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 오산운수는 무한책임의 변용환·김학배·윤용섭과 유한책임의 김근수가 출자한 합자회사였다. 대표 변용환보다 윤용섭이 가장 많은 출자를 하고 있다. 당시 변용환의 나이는 64세에 이르고 사원들은 아들 변기태, 변기재 형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김학배(1899년생)는 진위군 북면 갈곶리 출신으로 사립 명신학교 및 오산공립 보통학교 출신으로 변기태의 1년 후배였고, 변기재보다 나이는 5살 많지만 학교로는 1년 선배였다. 오산에서 해륙산물 도산매를 하는 공영상회(共榮商會)를 해방 후

62 「邊基在判決文」, 昭和七年 刑控 第五一九號, 1933년 1월 23일.

63 「革華青年定總」, 『조선일보』 1926년 3월 1일.

64 「朴敬天君追悼會」, 『시대일보』 1926년 3월 17일.

1947년에도 운영하였다.⁶⁵ 김근수(金根洙)는 1925년부터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오산분국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따라서 오산운수는 변기재 형제가 아버지를 내세워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세운 운송회사로 볼 수 있다. 변기재가 귀국 직후 마루보시운송점(丸星運送店) 고용인으로 일했다는 것은 오산운수가 마루보시운송점(丸星運送店) 오산영업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지정 운송업체인 마루보시운송점(丸星運送店)은 전국적으로 주요한 기차역마다 화물운송을 독점적으로 취급하였다. 운송점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화물을 기차에서 내리고 싣는 작업과 하차한 화물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시내 등지로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유력한 철도역이 아닌 지역의 중소 기차역은 조선인들도 마루보시운송점을 운영하고 있다. 즉 1931년 2,000원으로 함경남도 고원 마루보시(丸星)운송합자회사, 1935년 자본금 5만 원으로 황해도 신천 마루보시(丸星)운송 합명회사가 조선인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다.⁶⁶ 또한 1933년 밀양 마루보시운송부에서는 조선인 회원 44명이 금주회(禁酒會)를 조직하여 매일 5전씩 저축을 하고 있다.⁶⁷ 이는 각지에서 마루보시(丸星)라는 이름을 달고 지역적 특색을 지닌 운송점을 운영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에 1927년 아버지 변용환의 오산운수의 설립과 변기재의 오산 마루보시운송점에서 직원으로 일한 것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귀국해 변기재는 곧 오산공보 후배 이정진과 혼인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28년부터 오산지역 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오산의 변기재 시대를 열어 갔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오산에서 조선일보사 기자로 활동했던 전력으로 변기재는 1928년 4월부터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이 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박승극이 1928년 3월 배재고보 4년을 수료하고 일본으로 유학, 도쿄 니혼대학 예과를 다니다가 8월 여름방학을 계기로 귀국한 뒤 더 이상 일본에서 배울 것이 없다며 국내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같은 시기 박승극도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의 변기재와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박승극은 동일 업종에서 일하며 서

65 「광고」, 『漢城日報』 1947년 1월 7일.

66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 동아경제시보사.

67 「禁酒會 創立, 毎日5錢貯蓄, 密陽丸星運送部서」, 『동아일보』 1933년 2월 9일.

로 친밀해졌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상적 동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등 한글 신문사의 본사 기자와 각 지국장과 지국 기자들은 사회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신문사 지국장과 지국의 주재 기자가 된다는 것은 근대적 지식과 사회적 기반을 갖는 지역유지로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었고,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의식이 상당하였다. 따라서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이 되었다는 것은 오산지역에서 변기재의 역할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오산분국 시절(1925~1932)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아일보』가 1920년 창간된 뒤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오산분매소(烏山分賣所)가 오산역 앞에 설치된 것은 1920년 8월 30일이다. 오산분매소 주임은 심상갑(沈相甲)이었다. 1925년 3월 30일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오산분국이 설치되면서 오산분국장은 김근수(金根洙), 총무 겸 기자는 박상덕(朴商憲), 기자 엄익홍(嚴翼鴻)·김용식(金容式)이었다. 그리고 12월 13일 오산분국 업무를 확장시키기 위해 기자 박경천(朴敬天)과 집금원(集金員) 김학수(金學洙) 등 2명의 직원을 더 뽑았다.⁶⁸

김용식은 1926년 8월 7일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로 자리를 옮겼으나,⁶⁹ 곧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은 이원섭(李元燮)이었고, 총무 겸 기자 김기환(金基桓), 회계 겸 기자 김정태(金正泰), 집금원 겸 기자 홍순기(洪淳璣), 기자 이겸구(李謙九), 고문 임승국(林承國)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인 8월 17일 기자 김기환이 사직하고, 대신 9월 4일 구직회가 기자로 임용되었다. 구직회(具直會, 1910년생)는 양감면 용소리 출신으로 박승극의 강력한 동지였다.

1927년 12월 13일 오산분국장으로 김현태(金顯台), 기자 김근배(金根培)로 바뀌었다. 1928년 2월 7일 강우형(姜友馨)이 오산분국 기자가 되었고, 다시 1928년 3월 8일 김근배와 박정오(朴正五)가 기자로 임명되었다. 9월 25일 강우형 기자가 사임하였다. 1928년 11월 8일 사진기자 공석환(孔錫煥)이 임용되어 1929년 7월 8일 공석환이 사임하고, 임두식(林斗植)이 임명되었다. 같은 날 분국장 김현태가 사임하

68 「社告」, 『동아일보』 1925년 12월 13일.

69 「社告」, 『조선일보』 1925년 8월 7일.

고 임종식(林宗植)이 분국장이 되었다. 1930년 10월 1일 조명재(趙明載)가 기자가 되었다. 이들 동아일보사 오산분국 기자들 가운데 박경천, 강우형, 박정오, 조명재 등은 변기재와 더불어 청년운동을 함께 했던 인물들이다.

1920년대 중반까지 오산지역 사회운동은 변기재의 마을 선배이자 학교 선배였던 박경천과 김기선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1926년 박경천과 1927년 김기선의 죽음 이후 공백을 공식정이 일정하게 대신하다가 변기재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산사-궤청년동맹을 이끌던 김기선의 죽음 이후 오산사-궤청년동맹은 ‘공식정 체제’로 잠시 유지되었다. 즉 1927년 10월 3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혁신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⁷⁰ 10월 17일 혁신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직 혁신과 대성학원 운영 등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청년동맹을 이끌었던 김기선의 삶을 추모하며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날 새롭게 조직된 오산사-궤청년동맹은 공식정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공식정이 김기선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적 권위와 더불어 대성학원을 운영했던 오랜 경험과 해결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구성된 오산사-궤청년동맹 조직은 위원장 공식정을 비롯하여 서무부 한용록(韓用祿), 조사부 이남수(李南壽)·박한실(朴漢實)·장봉운(張鳳云), 운동부 김용식(金容式), 교양부 김지영(金知營) 등이 선임되었고, 대성학원에 대한 임시조사위원으로 공식정·한용록·장봉운·서창덕(徐昌德) 등이 선출되었다. 이남수와 박한실·김지영·서창덕 등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오산사-궤청년동맹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대성학원 중건이었다. 이때까지 변기재는 오산지역 운동의 중심은 아니었다. 변기재의 시대는 1928년을 기다려야 했다.

2) 오산청년동맹과 위원장 변기재

변기재는 1928년 4월 20일 개최된 오산청년동맹 제1회 정기총회에서 청년동맹 위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오산지역 사회운동의 중심부로 진입하였다. 이날 오후 7시 오산리 한필호(韓弼鎬) 집에서 열린 청맹 제1회 정기총회는 대성학원중건회 간부와 유지들 및 경찰관 입회 아래 30여 명의 맹원들이 참석하였다. 위원장 공

70 「水原 島山사-궤靑年同盟, 革新總會 開催」, 『조선일보』 1927년 10월 13일.

석정의 개회사와 임시집행부로 의장 변기재, 서기 이봉의, 사찰 강우형을 선거하고 의사를 진행하였다.

이때는 변기재가 일본에서 귀국한 지 1년이 되는 상황이었고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이었다. 변기재는 오산공보 동기 이봉의와 선배 강우형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주요 토의사항은 수원청년동맹 조직 축성과 수원 신간지회 사업 촉진 및 대성학원 중건 등이었다. 오산청맹 임원은 위원장 공석정, 위원으로 변기재를 비롯하여 이남수·박건실(朴建實)·김기환(金基桓)·한용록·강우형이 선임되었다.⁷¹ 이로써 변기재는 오산청맹의 위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이날 오산청년동맹이 조직적으로 논의한 것은 오산 대성학원 중건과 더불어 오산을 넘어 수원청년동맹의 조직과 수원 신간지회의 사업 활성화였다. 이는 오산지역을 넘어 수원 사회운동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원지역 사회운동의 방향과 내용에서 오산청년동맹의 오산그룹의 역할이 강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후 수원청년동맹 결성에서 오산청년동맹의 오산그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1928년 이후 조선청년총동맹의 조직원칙에 따라 군 단위 청년동맹을 조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박승극이 이끌었던 양감의 반도청년회가 1928년 7월 23일 수원청년동맹 조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반도청년회 명칭을 양감청년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⁷²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원청년회도 1928년 8월 4일 화성학원에 모여 권순증(權舜增)의 사회로 수원군 청년동맹을 위한 조직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기존 수원청년회 간부 7명 전원이 조직준비위원이 되어 수원군 내 남양, 발안 등으로 각 청년단체를 방문하기로 하였다.⁷³ 이러한 흐름 속에 군 단위 청년동맹 결성이 드디어 오산청년동맹에 의해 실현되었다. 즉 1929년 6월 1일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수경·박정오·이덕만(李德萬)을 새로운 위원으로 뽑고, 오산청년동맹 명칭을 새롭게 수원군청년동맹(오산본부)으로 변경하였다.⁷⁴ 즉 군 단위 청년동맹을

71 「烏山青年同盟定總」, 『동아일보』 1928년 4월 27일.

72 「楊甘面 半島青年 집행위원회」, 『중외일보』 1928년 7월 30일.

73 「水原青年同盟組織準備委員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8일.

74 「烏山靑盟臨總」, 『중외일보』 1929년 6월 4일.

오산에서 발기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청년동맹의 명확한 조직 결성을 위해 1929년 6월 9일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 사무실에서 수원청년동맹 제1회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비로소 수원청년동맹이 조직되었고,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였다.⁷⁵ 즉 박승극을 중심으로 하는 수원청년동맹 체제가 출발하게 된 것인데, 오산그룹의 조직적 역량을 잘 보여 주는 사례였다.

〈표 3〉 1929년 수원청년동맹 임원

구분	성명
위원장	박승극
위원(14)	권순증, 엄익홍, 김도생, 표덕중, 이연적, 박정오, 방구현, 황은석, 임범진, 이덕만, 장주문, 한창수, 홍정현, 장봉운
검사위원(3)	박봉득, 공석정, 변기재

수원청년동맹이 오산에서 개최되어 조직되었다는 점은 오산그룹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뜻한다. 이에 수원청년동맹 신입 임원 18명 가운데 검사위원 변기재·공석정을 비롯하여 엄익홍·박정오·이덕만·장봉운 등 오산의 오산청년동맹 출신이 6명이 포함되었다. 양감면 반도청년회 출신은 박승극을 비롯하여 장주문, 한창수 등 3명이다. 양감면은 실제 생활이 오산권이라 할 수 있어 범오산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을 합치면 범오산권은 9명에 달하는 셈이다. 수원읍내 출신은 권순증·김도생·표덕중·이연적·방구현·임범진·박봉득 등 7명이다. 나머지 황은석·홍정현은 삼괴 및 남양지국 기자들이다. 따라서 수원청년동맹은 오산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범오산권이 주도하고 수원읍내 세력의 연합적 성격을 지닌다. 수원군 전체 20개 면에서 수원면과 성호면(오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그 가운데 오산그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부선이 지나는 철도를 따라 사회운동의 주요한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29년 6월 9일 수원청년동맹 임시대회가 끝나자마자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가 출범되었다.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위원 선거와 기호소년정구대회 개최 건을 논의하였다. 새롭게 선임된 수원청

75 「水原靑盟大會」, 『조선일보』 1929년 6월 12일.

년동맹 성호지부 임원은 <표 4>와 같다.⁷⁶

<표 4> 1929년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임원

구분	성명
집행위원장	변기재
집행위원	박정오(朴正吳) 이덕만(李德萬) 김오룡(金伍龍) 박을용(朴乙龍) 엄영득(嚴英得)
검사위원	공건수(孔建洙)

변기재가 본격적으로 조직의 지도자로 지역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1929년 6월 9일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위원장이 되면서부터였다. 수원청년동맹 창립총회가 오산에서 개최되어 오산그룹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일제가 수원청년동맹 결성이 공식정과 박승극의 공모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⁷⁷ 수원청년동맹의 취지와 목적은 조선 청년대중의 정치·경제적 이익 획득과 의식적 교양 훈련 및 이를 통하여 공고한 조직을 완성하는 것이다.⁷⁸ 일제의 기록은 변기재가 1929년경부터 공산주의자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승극, 집행위원 공식정과 교류하는 한편 좌익서적을 섭렵하며 현재의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고 공산사회 실현을 꿈꾸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활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즉 1929년 8월 30일 오산역 앞에 있는 수원청년동맹 성호(오산)지부 제3회 정기위원회 개최 예정되었으나 일제 경찰에 의해 집회금지를 당했다. 위원장 변기재는 금지 이유를 경찰에 질의했으나 상부에 질문하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무리한 금지를 당하였다. 당시 1929년부터 1930년까지 일제의 집회금지 등을 통한 요시찰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1929년 8월 10일 수원학생친목회 창립 12주년 기념으로 수원극장에서 주최된 음악극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내빈으로 변기재가 참석하여 열렬한 축하를

76 「水原靑年同盟 城湖支部 創立, 烏山同盟은 解體」, 『조선일보』 1929년 6월 12일; 「水原靑年同盟, 제 1회 임종」, 『중외일보』 1929년 6월 15일. 중외일보는 위원 중 朴乙龍, 嚴○變으로 『조선일보』와 차이가 난다.

77 「附表」, 『昭和9年 3月 治安情況』 1934년 4월 24일.

78 『思想彙報』 제9호, 1936년 12월 1일, 30쪽.

하였다.⁷⁹ 수원학생친목회는 1925년부터 창립 기념대회를 개최해왔다. 학생친목회의 가장 큰 연례 행사였는데, 주간에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야간에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날 음악극의 축사는 오산의 변기재(邊基在)와 수원무도관 권충일(權忠一)이 하였다. 그만큼 수원의 청년학생들이 오산청년동맹 위원장 변기재에 대한 기대와 역할 및 그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원학생친목회는 1917년 창립된 수원의 중등 이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친목 모임으로 당시 사회단체의 중요한 인력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⁸⁰

3) 수원지역 사회운동의 리더 변기재와 오산그룹

변기재는 1930년 조선일보 오산지국 기자로서 수원기자동맹 감사위원, 경기기자연맹 집행위원 및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 수진농민조합 임원, 수원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맹원, 오산 신간지회 집행위원, 수원 신간회 집행위원 및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수원지역은 1929년 6월 9일 수원청년동맹이 결성되고, 수원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결성되면서 활기찬 운동의 고양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에 1930년 수원에서는 각급 단체의 각종 회의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상황이었다.

변기재는 1930년 3월 20일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열흘 뒤인 3월 30일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성호면의 성호지만 오산으로 더 널리 알려졌던 까닭이었다. 이는 이웃의 향남면의 향남보다 발안으로, 우정면이 우정보다 조암으로 더 많이 불렸던 것과 같다. 오산지부로 명칭 변경과 함께 주요 결정은 노농학원을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노농학원 운영은 이후 청맹 오산지부의 주요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변기재의 가장 확실한 우군은 오산리 출신과 명신학교와 오산공립보통학

79 '수원', 「내 고향 위하여 유학생들의 활동, 하기휴가의 선물」, 『동아일보』 1929년 8월 14일.

80 한동민, 2020, 「일제강점기 수원의 학생 조직과 활동- 수원학생친목회와 수원학생회를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17.

교 출신들이던 오산그룹이었다. 이에 변기재는 오산공립보통학교 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오산지역 사회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즉 1930년 4월 13일 오산공립보통학교 후원회(회장 金鍾斗)와 농잠실수학교 후원회 제9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변기재는 신현철과 함께 간사로 선출되었다. 감사는 김현봉과 외삼미리 윤학영이었다.

변기재는 1930년 4월 25일 신간회 수원지회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신간회 오산지회(위원장 김기환) 제1회 정기대회에서 신간회 오산지회 집행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수원지회로 활동을 넓혀 간 결과였다.

한편 변기재를 비롯한 오산지역 사회단체의 노력으로 1930년 오산리에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이 마련되었다. 단체연합회관은 1927년 함경도 단천에서 사회단체연합회관 건립 결의 이후 1928년 사회단체연합회관 건립기성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전국화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단천·함흥·원산을 비롯한 함경도 지역이 사회운동이 강세였고 모범적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오산에서도 이를 본받아 1929년 사회단체연합회관 건축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이듬해 1930년 5월 5일 공사비 800원으로 건평 23평의 아담한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이 준공되었다. 이는 변기재를 중심으로 하는 오산청년동맹의 주요한 활동무대로 활용되었다.

또한 변기재는 1930년 6월 23일 수원청년동맹 임시대회에서 11명의 집행위원이자 교양부장 및 전국대회 대의원 후보로 선임되었다.⁸¹ 새로 선출된 임원은 <표 5>와 같다.

<표 5> 1930년 수원청년동맹 임원

구분	성명
위원장	박승극
위원	김도생, 변기재, 장주문, 김정원, 박정오, 이수경, 조명재, 홍경표, 차재화, 임범진, 신충
검사위원	공석정, 이용성
전국대회 대의원	박승극
전국대회 대의원 후보	변기재

81 「水原靑盟의 年齡制限延長 三十歲까지로」, 『중외일보』 1930년 6월 25일.

구분	성명
서무부장	김도생, 홍경표
재무부장	김정원, 차재화
조직부장	이수경, 장주문
교양부장	변기재, 임범진
조사부장	홍경표, 신충
여자부장	(결원), 박정오

한편 변기재는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집행위원장이자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으로서 활동하며 역할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에서 수시로 검속을 당하며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다.⁸² 동시에 수원청년동맹에도 박승극·장주문 등 양감면 출신들과 오산그룹의 변기재를 비롯하여 박정오·이수경·조명재 등이 참여함으로써 범오산그룹과 수원 읍내 출신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변기재는 지역 언론활동을 펼치며 기자동맹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오랫동안 일제의 집회 금지 등의 탄압을 뚫고 1930년 6월 28일 경기기자연맹을 조직하였다. 즉 1930년 6월 28일부터 평택 진위청년회관에서 경기기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조선일보사 평택지국장 홍정헌(洪貞憲) 사회와 조선일보사 평택지국 기자 남상환(南相煥)의 회원 심사를 마치고 변기재는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고, 12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한명으로 선임되었다.⁸³ 이들 지역 주재기자들은 지역 청년운동을 비롯하여 지역 신간회 운동의 중심적 인물들이었다. 변기재는 박승극·공석정·남상환·우성규·심인택 등과 더불어 기자동맹의 사회주의 불력을 형성하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변기재는 초창기 신간회 조직에 관여하지 않은 듯하다. 1929년 신간회 수원지회 성호반은 1929년 8월 5일 오산리 이치홍(李致弘) 집에서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선된 임원은 분회장 김웅섭(金雄燮), 서기장 김기환, 재무부 임종식(林宗植)·이남수·이명환(李明煥), 조사부 이수경·박근실, 교육부 이은경(李銀庚)·공건수(孔建洙), 조직부 이원식(李元植)·엄태섭(嚴泰燮) 등이었다.⁸⁴

82 『水原社會團體 幹部檢舉取調』, 『조선일보』 1930년 5월 6일.

83 『京畿道 記者大會第一日 京畿記者聯盟創立決議』, 『중외일보』 1930년 7월 1.

84 『新幹城湖班大會』, 『조선일보』 1929년 8월 8일.

그러나 변기재는 이듬해인 1930년부터 신간회에 참가하면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1930년 4월 4일 신간회 오산지회(위원장 김기환) 제1회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과 대의원이 되었다. 변기재가 신간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1930년 4월 25일 신간회 수원지회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이 되었다.⁸⁵ 그리고 1930년 8월 31일 신간회 수원지회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이 됨으로써 신간회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날 변기재는 전국대회 대의원 및 경기도대회 대표 3명(변기재·김병호·박승극)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⁸⁶

1930년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오산그룹은 변기재를 비롯하여 김기환·이수경·공석정·이원식·조명재·김재덕·박근실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들은 변기재를 중심으로 한 오산그룹의 오산 청년동맹 구성원들이다. 범오산그룹의 양감면 출신의 박승극·장주문까지 포함하여 수원 읍내의 우성규·이용성·박봉득 및 향남면 박해병 등이 사회주의 계열이었다.

남양지역의 민홍식·박상훈·황응선 등은 수원의 김세환·김병호·이창용 등과 더불어 기독교와 천도교 등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천도교 세력 가운데 남양 수화리 박상훈(朴商勳)을 제외하고 홍종각·이연숙은 오산지역 출신들이다. 따라서 1930년 수원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은 물론이고 천도교를 포함한 오산지역 출신-오산그룹들이 대거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공석정과 변기재와 천도교 홍종각·이연숙이 자리하고 있다.⁸⁷ 더욱이 변기재는 1930년 8월 31일 수원 신간회 제4회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 박선태가 사임함에 따라 신임 집행위원장이 되었다.⁸⁸ 박선태·공석정·박승극이 동시에 사임을 제출하였는데, 박선태 집행위원장의 사표만 수리되고 공석정·박승극의 사임은 보류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수원 신간회에 신임 집행위원장 변기재를 중심으로 오산그룹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85 조성운, 2014,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과 활동」, 『수원시사 8-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239쪽.

86 『조선일보』 1930년 9월 3; 『동아일보』 1930년 9월 5일.

87 수원군 천도교강습소 가운데 오산에 자리한 제544강습소(성호면 원리), 제634강습소(성호면 세교리)를 중심으로 한 오산지역 천도교 세력의 성장과 지역운동과의 관계는 다음 논문으로 준비 중이다.

88 「水原新幹委員會」, 『동아일보』 1930년 9월 5일.

〈표 6〉 신간회 수원지회 주요 임원

시기	부서 및 간부진	비고
설립대회 1927.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 김노적 - 서무부 : 총간 김병호, 상무 박영식 - 재무부 : 총간 이각래, 상무 최신복 - 조사연구부 : 총간 공석정, 상무 우성규 - 조직선전부 : 총간 홍종각, 상무 박봉득, 간사 이연숙·김현설 	조선 1927.10.20. 동아 1927.10.20.
1회 정기대회 1927.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간 : 김병호 - 서무부 : 총무 김병호, 상무 박봉득 - 재무 : 총무 이각래, 상무 박영식 - 조사연구 : 총무 공석정, 상무 최신복 - 조직선전 : 총무 홍종각, 상무 우성규, 간사 이연숙·윤준흠 	조선 1927.12.21.
1회 임시대회 1928.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의장 : 박승극 - 지회장 : 김세환 - 상무간사 : 공석정 등 	동아 1928.8.22.
2회 정기대회 1928.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회장 : 김세환 - 부회장 : 엄석주 - 서무부 : 총간 공석정, 간사 김봉희·김상근 - 재무부 : 총간 이건상, 간사 엄익홍·김용준 - 조직선전부 : 총간 홍종각, 간사 박승극·이연숙 - 조사연구부 : 총간 김병호·김현조 - 기타 간사 : 김도생·곽병준 	조선 1928.12.23.
2회 임시대회 192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회장 : 이각래 - 부회장 : 엄석주 - 서무재정부 : 박승극·이건상 - 정치문화부 : 공석정·김봉희, - 조직선전부 : 이연숙 - 조사연구부 : 김병호·김재덕 	조선 1929.4.10. 중외 1929.4.10.
신간회 경기도 小區域대표회 1929.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각래·엄석주·공석정·김병호·박승극 	동아 1929.5.
임시대회 1929.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원장 : 엄석주 - 서무부장 : 박승극 - 회계 : 이건상 - 조직부 : 엄익홍 - 조사부 : 김병호 - 교육부 : 공석정·이연숙·홍정현·박해병·김기환·황은석, 후보 이윤식·박상창·박상훈 - 감사위원 : 나천강·홍종각·이근실, 후보 이수경·장주문 	조선 1929.7.26.

시기	부서 및 간부진	비고
임시대회 1930.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원장 : 박선태 - 위원 : 김병호·홍종각·김기환·민홍식·장주문·이수경·우성규·박상훈·황응선·이연숙·변기재·박봉득·박해병·박승극·공석정·이원식 - 후보위원 : 조명재·김재덕·이용성 - 감사위원 : 김세환·나천강·이창용·박근실·이각래 - 전국대회 대표회원 : 공석정·박승극, 후보 민홍식 - 서기장 : 민홍식 - 재정부장 : 김병호 - 조직부장 : 홍종각 - 조사부장 : 우성규 - 선전부장 : 공석정 - 교육부장 : 박봉득 - 연락부장 : 박승극 - 감사위원장 : 이각래 	<p>중외 1930.4.27.</p> <p>조선 1930.5.3.</p>
4회 집행위원회 193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원장 : 결원 - 서기장 : 변기재 - 회계 : 김병호 - 조직부장 : 홍종각 - 교육부장 : 박봉득 - 조사부장 : 우성규 - 연락부장 : 박승극 - 전국대회 대의원 : 김병호·박승극, 후보 변기재 - 경기도연합회 대표 : 김병호·변기재·박승극, 후보 박해병 	<p>조선 1930.9.3.</p> <p>동아 1930.9.5.</p>

4) 변기재의 오산노동학원 운영과 활동

(1) 문자보급운동에서 노동학원까지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이었던 변기재는 오산에서 문자보급운동을 제창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는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항학열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20년대 각 지역에서는 야학 설립을 통해 한글 보급과 민족정신 고양에 노력하였다. 1923년 오산에서 공석정이 대성학원을 설립 운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이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문자보급운동(문맹퇴치운동)을 시작하였고, 동아일보사는 브나로드 운동을 펼쳤다. 조선일보사는 192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자보급운동을 펼쳤다.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보급운동으로 우리글인 한글을 보급해 민족의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인의 문맹률은 90%에 이르렀는데, 방학을 이용해 고향에 내려간 학생들이 일반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참가한 학생은 1929년에 409명, 1930년에 900여 명으로 46개교 학생들이었다. 조선일보사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가르치자 나 아는 대로’라는 구호가 박힌 『한글원본』이라는 책을 배포했고, 1930년 문자 보급가까지 공모해 신년호에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1931년 조선어학회에서는 전국 순회 조선어 강습회를 열었다.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은 1929년 여름부터 1934년까지 6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민족 교육운동으로 확대되어 가자 일제는 1935년 문맹퇴치운동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기재는 1929년 8월 오산리에서 가옥을 빌려 문자보급반을 운영하였다. 당시 통학생이었던 연희전문학교 1년생 이성모(李星模)와 실업전수학교 2년생 황경후(黃慶厚) 등이 교사로 참여하였다. 당시 문맹의 무산아동 약 50명을 모아 ‘한글강습’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9월이 되자 변기재는 오산의 의식있는 청년들인 조명재(趙明載)·이원식(李元植)·박정오(朴正吳)·이수경(李秀經)·박부산(朴富山) 등과 상의하여 조선일보 문자보급반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명칭을 ‘노동야학(勞動夜學)’으로 바꾸고 기존의 문자보급운동을 넘어 민족과 계급의식을 갖춘 미래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하였다.

이에 연희전문 학생 이성모를 수원청년동맹 맹원으로 획득하여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집행위원 겸 교양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변기재는 문자보급운동을 넘어 사회의식이 있는 투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과서를 『노동독본』, 『노동산술』, 어린이 잡지 『별나라』 등을 이용하여 가르쳤다.

이후 변기재는 1930년 3월 20일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집행위원회(위원장 변기재) 개최하였다. 조명재는 노동야학을 청년동맹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변기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기대회에 주요 안건으로 붙였다. 변기재는 열흘 뒤 3월 30일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를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오산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동야학을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에게 경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야학의 교양을 철저하게 심화할 것을 논의하여 1930년 3월 30일 청맹 오산지부 정기대회에서 노동야학을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의 부속사업으로 경영하기로 결정하고 장소도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으로 옮겼다. 그리고 8월 14일 집행위원회에서 변기재의 제안으로 이름을 ‘노동학원(勞農學院)’으로 개칭하였다. 노동학원은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교양부의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본격적인 청맹 오산지부의 노동학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무산아동 110여 명을 수용하여 조명재, 이원식 등 청년동맹 간부들이 교편을 잡았다. 일제는 노동학원을 무인가 서당으로 파악하고 있다.⁸⁹ 그러나 오산노동학원의 교육방침은 현실에 기반하여 눈앞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이다.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었고, 이러한 노동야학을 위한 노력은 청년동맹의 리더들과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오산지국의 의연금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⁹⁰

1929년 8월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 건축기성회를 조직하고 찬조와 회원들의 의연금으로 충당하였다. 단체는 신간회수원지회 오산분회,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수진농민조합, 수원소년동맹 오산지부 등 5개 단체였다. 총공사비 800원으로 23평의 아담한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이 1930년 4월 5일 준공됨에 따라 총회 겸 낙성식이 6월 1일 거행되었다. 회관은 일반 집회를 위해 제공되며 더욱이 오산노동학원을 연합회관으로 이전하여 개설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아동 교육이 가능해졌다.

연합회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잡지 『별나라』 오산지사 주최로 중외일보사·조선일보사 오산지국과 수원소년동맹 오산지부 후원으로 1930년 6월 8일 동화대회를 무료로 개최하였다. 연사와 주제는 송영의 「피터 판」과 안준식의 「광수나물장수」 등이었다.⁹¹

89 水警高秘 제3709호, 『勞農學院赤化事件 檢舉에 관한 건』, 『思想에 관한 情報 4』, 1932년 9월 11일.

90 「烏山有志同情, 烏山勞農夜學에」, 『조선일보』 1929년 12월 6일.

91 「烏山童話大會」, 『조선일보』 1930년 6월 5일.

(2) 오산노동학원사건과 구속

오산노동학원 제1회 운동회가 1931년 9월 27일 비행장에서 관중 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오산노동학원 생도를 비롯하여 세교리 광성학원(光成學院), 금릉학원(錦陵學院), 수월암리아학(水月岩里夜學), 정신야학(正新夜學), 모곡야학(茅谷夜學) 등 학생 350명이 47종의 운동경기를 펼쳤다.⁹² 이는 오산노동학원이 운동경기를 통한 인근의 각 야학들과 대대적인 연대 사업을 펼쳤던 셈이다. 일제경찰은 평소부터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와 노동학원을 예의주시하던 차에 이날 운동회에서 소비에트 마크가 들어간 붉은 기를 만들어 학생들이 들고 나온 것에 크게 주목하였다.

또한 비합법 출판물을 교재로 학생들에게 투쟁의식의 고취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장래의 전위분자로 양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오산지역 운동의 지도자였던 변기재는 1932년 8월 초순 비합법출판물 『노동계급(勞動階級)』을 입수하여 조명재, 이원식 등 노동학원 교사들과 이를 연구하였다. 『노동계급』은 앞에서 보았듯이 오산 출신 김봉희가 일본 동경에서 관여하여 만든 것이었다. 일제는 이를 학생들에게 노동자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고 여기며 검거의 기회를 노렸다. 드디어 일제의 경찰은 1932년 8월 3일 변기재의 집을 수색하여 「공산당선언」, 「프롤레타리아 카툰 만화집」, 「전농뉴스(토지와 자유)」, 「격문」 등의 출판물을 압수하고 변기재를 구속하였다. 「공산당선언」, 「프롤레타리아 카툰 만화집」 등은 1930년 7월 일본 동경의 좌익서방에서 주문한 것이었다.

일제는 변기재가 박승극의 지도를 받아 1929년 6월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를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비합법단체를 결성하여 표면으로는 청맹 오산지부 집행위원장이자 이면에서는 청맹 오산지부에서 경영하는 노동학원의 책임자로서 현재의 자본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공산사회 실현의 일단계로서 무산아동에 대하여 공산주의적 계급의식의 교양훈련을 위한 것으로 몰고 갔다. 동시에 오산노동학원 교사로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집행위원인 조명재, 이원식, 박정오, 이수경, 이성모, 박부산 및 교사 황경후 등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모두 변기재의 지도 아래 그 목적을 의식

92 「烏山勞農學院 運動大會盛況」, 『조선일보』 1931년 9월 29.

해서 노농학원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다는 죄목이었다.

1932년 8월 3일부터 수원경찰서에서 변기재의 가택수택과 함께 이들에 대한 검속을 시작함으로써 소위 오산노농학원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의 가혹한 신문 조사 이후 9월 8일 변기재 등 9명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고, 9월 19일 5명은 불기소 처분이 되고 주동자로 지목된 변기재·조명재·이원식 등 3명은 기소되었다.

〈표 6〉 오산노농학원 사건 관계자 현황

이름(연령)	직업	본적	주소	검사처분
변기재(29)	丸屋운송점원	성호면 오산리 592	성호면 오산리 592	기소
조명재(29)	잡화상	태장면 지리 558	성호면 오산리 327	기소
이원식(30)	농업	성호면 오산리 35	성호면 오산리 35	기소
박정오(26)	무직	평북 용성군 이현면 길상리	성호면 오산리 316	불기소
이수경(28)	치과의 조수	시흥군 남면 금정리 468	용인군 외서면 백암리 435	불기소
이성모(27)	무직	경성부 가회동 81	경성부 계동 112-3	불기소
박부산(24)	정미업	성호면 오산리 468		불기소
황경후(24)	잡화상	수원읍 남수리 252	성호면 오산리 316	불기소

이에 이들 3명은 12월 10일 경성복심법원 1심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변기재와 조명재는 징역 1년6개월, 이원식은 1년 2개월이 구형되었다. 이들은 당연히 공소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뀐 이듬해 1933년 1월 23일 경성복심법원 2심에서는 ‘공소 이유 없음’으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 변기재는 징역 1년 6개월형(미결구류 통산 60일 산입)이 확정되면서 당일 서대문형무소에 입감되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3월 28일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대전에서 수형생활을 이어갔다.

1932년 오산노농학원사건은 1928년 이래 고조되어 가는 수원지역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미 1930년 수원격문사건으로 대대적인 탄압국면을 조장했던 일제 경찰은 1931년말 수진농조사건을 만들어 내고 그 연장선상에서 1932년 오산노농학원 사건을 일으켰다. 수진농조사건으로 1년 반이 넘도록 박승극 등 관련자들을 수감했다가 경찰의 조작이 들통 나면서 1933년 모두 무죄 방면된 것처럼 1932년 오산노농학원 사건은 수원지역 사회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

제의 고도의 술책 가운데 하나였다. 오산노동학원사건은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다는 죄목을 들썩였고, 식민지적 상황으로 이러한 혐의를 끝내 벗기지 못했을 뿐이다.

5) 1930년대 전시체제기와 출옥 후 변기재의 활동

변기재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1934년 4월 1일 대전형무소에서 만기 출소하였다.⁹³ 변기재의 출소는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뉴스로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역의 사회운동은 1930년 10월 수원격문사건을 시작으로 일본경찰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었다. 합법적 신간회의 활동조차 여의치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대륙침략이 고조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더욱이 1931년 11월 수진농조사건, 1932년 8월 오산노동학원사건 등으로 일제는 폭압적 탄압 국면을 만들어 나갔다. 이는 박승극을 비롯하여 김영상·장주문·이원섭 등 수진농조사건으로 구속된 4명이 1933년 3월 28일 무죄 석방되었다.⁹⁴ 이는 수원경찰서를 비롯한 일제 당국의 감시와 탄압이 지극히 공작적이었던 것을 반증한다. 이즈음 오산노동학원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변기재가 1934년 4월 1일 대전형무소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1934년 4월 변기재가 오산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바뀌어 있었다. 운동의 퇴조기에 들어섰던 것이다. 당시 변기재의 믿을 만한 동지는 오산의 공석정과 양감의 박승극이었다. 변기재가 출감하기 직전인 1933년 공석정은 만주로 망명하였고, 박승극은 1933년 봄부터 사회운동을 대신하여 문필활동으로 돌아섰다.

공석정은 1930년 즈음 수원의 3대 지주로 일궈졌던 차유순의 딸과 두 번째 결혼하였다. 차유순(車裕舜, 1878~1938)에게는 딸이 두 명이 있다. 큰 딸 차복동(車福童, 1898년생)과 둘째딸 차강녕(車康寧, 1901년생)이다. 장남 차준담(車濬潭, 1915년생)의 누나들이다. 차복동은 차정식(車靜軾)으로 개명하였는데, 수원의 유력한 유

93 『烏山農組赤化事件 邊基在氏 出獄』, 『동아일보』 1934년 4월 6일; 『변기재씨 출감』, 『조선중앙일보』 1934년 4월 8일.

94 『鐵窓呻吟一年半, 證據입서 無罪言渡, 水振農組四名判決』, 『중외일보』 1933년 3월 28일.

지집안인 김해 김씨 김현동(金顯東)과 1915년 결혼하였다. 이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 김경배(金慶培)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둘째 딸 차강녕은 황해도 출신 이윤세(李允世)와 1919년 결혼한 적이 있는데, 공석정과 두 번째 결혼한 인물로 추정된다.

공석정은 1932년 중앙일보사 분규와 휴간에 따라 주식회사 창립기성회를 조직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지의 지국장으로 발기인을 모아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창립기성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수원의 공석정이 중심이 되어 상주의 강응, 철산의 이면, 함흥의 윤식, 김천의 석태형 등과 함께 주식응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⁹⁵ 그러나 공석정은 1933년 일제 탄압과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두 번째 부인을 동반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가 1936년 11월 34세를 일기로 이역 만주에서 영면하였다.

일찍이 수원지방 사회운동의 선구자였던 공석정 씨는 34세를 일기로 얼마 전 이역만주에서 영면하였다고 한다. 씨는 수원군 성호면 켄리(關里)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역경에서 자랐는데 오산 대성학원, 갑자단, 오산살청년동맹을 창립 활동하였고, 강원도 철원 등택 인치사건(藤澤事件)에 관련 퇴거를 당한 후 소화 2년(1927년) 이래 수원읍에서 신문지국을 경영하는 한편 신간회, 청년동맹, 노동조합 등의 위원 혹은 위원장, 신간회 본부 해소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소화 8년(1933년)부터 만주 등지에서 방랑하다가 그와 같이 요절한 것인데 그의 친지들은 애석해 하지 않는다고 한다.⁹⁶

한편 박승극은 1933년 4월부터 사회운동에서 문학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이듬해 1934년 9월 수원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수원노동조합, 수원출판노동조합 등 수원지역 8개 단체 해소계를 수원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미 1931년 이후 일제의 합법적 회의조차 일제에 의해 거부되고 감시되는 상황이었고, 사회단체들은 하릴없이 파괴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박승극은 1936년부터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학활동에 전념하는 은둔의 세월을 보냈다. 특히 박승

95 「中央日報社에 관한 건」, 『思想에 관한 情報 3』, 1932년 6월 6일.

96 「水原 孔錫政氏 永眠」, 『조선일보』 1936년 11월 2일.

극은 1934년 9월 독단으로 수원지역 단체 해소계를 수원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수원지역 합법적 사회운동 공간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공석정과 박승극이 합법적 공간에서 퇴장하면서 수원지역 사회운동의 양상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즉 1930년대 중반 이후 사회운동은 합법적 대중운동에서 비합법 조직운동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중적 운동에서 개별적이고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혁명적 농·노조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또한 낙서투쟁과 의열투쟁 등 개별적 운동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변기재는 1935년 3월 17일 동아일보 오산지국 기자가 되었다.⁹⁷ 오산지역을 근거로 언론 활동을 선택한 셈이다.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오산분국은 1932년 4월 25일 동아일보사 오산지국으로 승격되었다. 오산분국이 설치된 지 12년만의 일이었다. 첫 오산지국장은 1925년 오산분국 기자로 활동하였고, 오산분국장을 역임했던 김용식(金容式)이었다. 이후 지국장은 최봉수(崔鳳洙)·김갑순(金甲順) 등이었고, 오산지국 기자로는 홍정현(洪貞憲)·김연두(金淵斗)·변기재·이영우(李永宇)·청송원화(靑松源和)와 사진기자로 박원영(朴元永)·강남희(姜南熙)·이상달(李相達)·김형래(金溍來) 등이 활동하였다.

변기재가 기자로 활동하던 시기 처음으로 오산지국에 고문 제도를 두었다. 즉 1937년 6월 18일 동아일보사 오산지국 고문으로 심세택(沈世澤)과 김현준(金鉉俊)을 임명하였고,⁹⁸ 1940년 2월에는 오산지국장을 그만둔 김용식이 고문이 되었다.

변기재는 김연두(金淵斗)의 뒤를 이어 1935년 3월 17일 동아일보사 오산지국 기자가 됨으로써 지국장 김용식, 기자 변기재, 사진기자 이상달(李相達) 체제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1940년 2월 이영우(李永宇)로 기자가 바뀔 때까지 오산지국 기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변기재는 1935년 3월부터 1940년 2월까지 5년 동안 동아일보사 오산지국 기자로 활동한 셈이다. 1940년 3월 31일 오산지국장은 김갑순(金甲順)으로 바뀌었고, 7월 4일 청송원화(靑松源和)가 기자로 임명되었다. 이제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폭압의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결국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함께 폐간되었다.

97 「社告」, 『동아일보』 1935년 3월 17일. 변기재와 함께 사진반 이상달 기자가 임명되었다.

98 「社告」, 『동아일보』 1935년 6월 18일.

〈표 8〉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사 오산분국 및 오산지국 운영 현황

연도	구분	고문	분국장·지국장	총무	기자	사진기자	
1920. 4. 1.	창간						
1920. 8.30.	오산 분매소		주임 심상갑(沈相甲)				
1925. 3.30.	오산 분국		김근수(金根洙)	박상덕 (朴商憲)	엄익홍(嚴翼鴻) 김용식(金容式)		
1927.12.13.			김현태(金顯台)		김근배(金根培)		
1928. 2. 7.				강우형(姜友馨) (9월 25일 사임)			
1928. 3. 8.				김근배(金根培) 박정오(朴正五)			
1928.11. 8.					공석환(孔錫煥)		
1929. 7. 8.			임종식(林宗植)		임두식(林斗植)		
1930.10. 1.					조명재(趙明載)		
1931.12.17.			김용식 (1932.4.25.해임)				
1932. 4.25.		오산 지국		김용식		박상덕	
1932.10.14.						홍정헌(洪貞憲) (1933.8.8. 해임)	
1933. 1.13.						박원영(朴元永)	
1933. 8. 8.						강남희(姜南熙)	
1934. 5. 3.					김연두(金淵斗)		
1935. 3.17.					변기재	이상달(李相達)	
1937. 6.18.	심세택 김현준					김형래(金滢來)	
1939. 9. 3.			최봉수(崔鳳洙)				
1940. 2.11.	오산 지국		김용식			이영우(李永宇)	
1940. 3.31.			김갑순(金甲順)				
1940. 7. 4.					靑松源和		
1940. 8.10.	폐간						

1935년부터 1940년까지 5년간 동아일보사 오산지국 기자였던 변기재의 활동이 눈에 띄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일제가 군국주의로 치달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31년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 중국대륙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

을 일으켰다. 이로부터 조선의 문화를 탄압하는 정도를 넘어 말살하는 민족말살기였다. 1940년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조선어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기 직전인 1940년 2월 변기재의 동아일보사 오산지국 기자 직책도 사라졌던 셈이다. 이후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일제는 패망의 길로 매진하면서 더욱 가혹한 탄압의 국면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 이래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정국은 군국주의적 민족말살기에 접어들었다. 일제는 1920년대 초반부터 ‘국민정신작흥(國民精神作興)’이라는 이름의 강연을 실시해왔다. 이에 더하여 ‘국민정신작흥 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을 설정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로 운영한 것은 1933년부터였다. 1주일 동안 신사참배일(神社參拜日), 경로애유일(敬老愛幼日), 생활개선일(生活改善日), 극기인고일(克己忍苦日), 공덕함양일(公德涵養日), 시국인식일(時局認識日), 건강증진일(健康增進日), 보은감사일(報恩感謝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강연과 행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경기도는 1938년 10월 7일부터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작흥주간 행사에서 부인강사 10명을 동원한 순회강연회를 개최하였다.⁹⁹ 이렇듯 시대가 엄혹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기재와 박승극 등에게도 굴종의 시간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변기재는 박승극과 함께 1939년 11월 11일 국민정신작흥주간 제5일 시국인식일을 맞아 수원군에서 개최한 수원 현상 웅변대회에 참여하였다. 수원읍 공회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조선방공협회 수원지부와 전선사상보국연맹(全鮮思想輔國聯盟) 수원분회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일보 수원지국과 수원읍이 후원한 행사였다. 변기재는 박승극과 함께 연사로 동원된 셈이다. 이는 조선일보사와 맺은 인연 때문일 것이다. 한때 박승극은 수원지국 기자였고 변기재는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이었다. 이날 경성의 유현국(劉賢國)이 「흥아(興亞)의 요체」, 그리고 양감 박승극이 「흥아와 방공」 그리고 수원 이동안(李同安)이 「방공에 대한 반도청년의 각오」, 오산 변기재가 「방공과 정신작흥」이라는 주제로 웅변을 하였다.¹⁰⁰ 이들은 모두 똑같이 상을 받았다.

경성의 유현국은 경성기독교청년회연합회 관계자로 연희전문학교 강사였고, 수원

99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의 기본양식 제정」, 『조선일보』 1938년 10월 30일.

100 「大盛況으로 終幕한 懸賞雄辯大會, 本社水原支局後援下」, 『조선일보』 1939년 11월 14일.

의 이동안(李同安)은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낯선 이름이다. 다만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衡平靑年前衛同盟) 사건으로 이름이 있는 형평사 운동을 했던 이동안(李同安)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오산의 변기재와 양감의 박승극은 지역에서 중심적인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원군에서 의도적으로 동원한 측면이 강하다. 이미 시대가 변하면서 변기재와 박승극에게 지속적인 회유와 전향 공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변기재는 1943년 수원읍의 김양배와 결혼을 하면서 근거지를 수원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기재는 지조를 잃지 않고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5. 맺음말

변기재의 활동을 통해 수원지역 사회운동에서 오산그룹의 역할이 확대 강화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변기재의 생애와 다양한 활동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04년 출생부터 1926년까지 수학기 및 청년기이다. 고향 마을인 오산리의 사립 명신학교와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인천공립상업학교로 진학했다가 중퇴하며 진로를 모색했던 시기이다. 1905년 경부철도의 부설에 따라 전통적인 오산장에 더하여 오산역에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근대 오산지역의 변화는 급격한 것이 되었다. 수원군 전체에서 수원역과 더불어 가장 빠른 변화 속에서 물류 이동이 증가하면서 오산장을 기반으로 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1905년 명진학교와 1907년 일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909년 사립 명신학교로 통합되었다가 나라가 망한 뒤 1913년 오산공립보통학교가 되었다. 이들 명신학교와 오산공립보통학교 출신들은 3·1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이후 오산지역 사회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오산지역의 근대적 변화 속에서 변기재는 사립 명신학교를 거쳐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오산그룹’의 핵심적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인천상업학교로 진학했다가 일본 동경에서 고학을 하며 민족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오산지역 사회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제2기는 1927년 일본에서 귀국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며 1932년 8월 농학원사건으로 구속되고 1934년 4월 대전형무소에서 출감할 때까지 적극적 사회운동기이다.

1925년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로 활동하며 오산의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년간의 일본생활을 마치고 1927년 귀국하여 결혼과 함께 조선일보 오산지국 기자 및 운송업에 종사하며 한 사람의 당당한 성인으로 인정받고 사회운동을 펼치며 뜨거운 울트라를 삶을 살았던 시기이다.

3·1운동 이후 청년단체가 조직되면서 1920년 수원청년구락부, 1923년 팔탄청년회, 1924년 오산갑자단과 혁화청년회 및 정남청년회 그리고 1925년 사상단체로 오산혁명단이 조직되어 활동함으로써 오산지역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변기재는 1926년 즈음 일본으로 가서 동경에서 신문배달 등 고학하며 민족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보다 명료히 하고 귀국하였다.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수원지역도 1927년 신간회 조직 이후 사회운동의 고양기를 맞이하였다. 1927년 봄 일본에서 귀국한 변기재는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로 복귀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변기재는 1928년부터 오산청년동맹 등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1929년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이후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위원장으로서 청년운동과 무산아동에 대한 교육운동, 기자로서 기자동맹 활동과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프로미전 참가 및 수원지역 신간회 집행위원장 등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던 시기였다. 이는 동시에 오산그룹을 중심으로 수원지역 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일제의 탄압으로 오산농학원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 간 옥고를 겪었던 고난의 시기이기도 했다. 1932년 오산농학원사건은 1930년 수원격문사건과 1932년 수진농조사건과 더불어 일제가 당시 수원지역 사회운동을 탄압한 대표적 사례였다. 이에 변기재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다.

제3기는 1934년 출소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민족말살기를 맞이하여 사회운동 퇴조기의 삶이다. 오산농학원 사건으로 출소 뒤 1935년부터 1940년 동아일보사 오산지국 기자로 활동하였다. 이에 수원이 아닌 오산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1940년 한글 신문의 폐간과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군국주의적 민족말살기에 변기재는 사상전향과 친일을 강요를 받았다. 그럼에도 일제의 유혹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살았다 할 수 있다.

제4기는 1945년 해방 이후 죽을 때까지의 후반기 삶이다. 해방정국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운동을 펼치며 활동하였지만 한국전쟁과 9·28수복 이후 월북으로 인해 이후 남한의 역사에서 망각을 강요받았던 시기이자 이북에서의 정확한 행적과 연보조차 확인하지 못한 후반기 생애가 그것이다. 해방 후 변기재는 사회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 왔던 이력과 당대 지역민들의 신망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에 1945년 11월 10일 조직된 경기도 인민위원회(위원장 박형병)의 재정부 차장을 맡았고, 1945년 11월 25일 수원군농민조합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위원장 변기재는 부위원장 정덕상(鄭德祥)과 송기용(宋基鎔)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원농민조합을 통해 수원지역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한편 변기재는 한국전쟁 때인 1950년 9·28수복 당시 북쪽을 선택하였다. 오랜 동지였던 박승규가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수원읍내의 동지들인 김원배·홍달선·김대균·이승화·차도순 등이 갔던 길이기도 하다. 이에 수원지역사에서 변기재를 비롯한 이들은 역사와 기억에서 지워졌다. 따라서 변기재의 후반기 삶에서도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기 남한에서의 활동과 월북 이후 북한에서의 삶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한 인간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남북분단에서 오는 사상에 의한 왜곡과 생애 전체에 대한 온전한 자료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온당한 평가는 더욱 곤란한 일이다. 그럼에도 최소한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민족의 시련기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는 점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근대시기 오산을 대표하는 인물로, 더 나아가 수원지역 사회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변기재는 아직도 자료발굴이 필요한 존재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인 것이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변기재 연보

시기	활동
1904.	-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592번지에서 2남으로 출생
1913. 3.	- 사립 명신학교(明信學校) 3년 수료
1913. 4.	- 오산공립보통학교 2학년 편입
1916. 3.26.	- 오산공립보통학교(4년제) 제3회 졸업
1916. 4.	- 인천공립상업학교 입학, 1학년 중퇴
1919.12. 6.	- 큰형 변기선 사망
1924.	- 오산갑자단, 혁화청년회 결성
1925.	-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기자
1925. 가을	- 사상단체 오산 혁성단 결성
1926. 3.15.	- 혁화청년회 위원장 '박경천 추도회'
1926. 3. 이후	- 도일, 동경에서 신문배달 등 고학
1926. 8. 4.	- 오산사-궤청년동맹 결성
1927. 4.	- 귀국, 오산리 이종운(李鍾雲)의 장녀 이정진(李貞珍)과 결혼
1928. 2.26.	- 큰아들 우현(宇鉉) 출생
1928. 4.	-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 마루보시운송점(丸星運送店) 오산영업소 점원
1929. 6. 9.	- 수원청년동맹 결성(집행위원장 박승극), 검사위원이 됨
1929. 6. 9.	-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집행위원장 변기재) 조직, 집행위원장이 됨
1930. 3.20.	-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집행위원회(위원장 변기재) 개최
1930. 3.30.	-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정기대회,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로 명칭 변경 - 농농학원을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에게 경영하기로 결정
1930. 4. 4.	- 신간회 오산지회(위원장 金基桓) 제1회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 대의원
1930. 4.13.	- 오산공립보통학교후원회(회장 金鍾斗), 농잡실수학교후원회 간사
1930. 4.25.	- 신간회 수원지회 임시대회, 집행위원
1930.	- 수원기자동맹 검사위원
1930. 5. 5.	-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 준공(건평 23평, 공사비 800원)
1930. 6.23.	-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 교양부장, 전국대회 대의원 후보
1930. 6.28.	- 경기기자연맹 집행위원
1930. 8.28.	- 딸 주현(宙鉉) 출생
1930. 8.31.	- 신간회 수원지회 집행위원, 서기장 - 전국대회 대표 후보, 경기도대회 대표(변기재, 김병호, 박승극)
1932. 6.28.	- 둘째 아들 성현(星鉉) 출생
1932. 8. 3.	- 수원경찰서에서 가택수색, 검속(오산농학원 사건)
1932. 9. 8.	- 변기재 등 9명,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

시기	활동
1932. 9.19.	- 변기재, 조명재, 이원식 등 3명 기소, 나머지 5명 불기소
1932.12.10.	- 경성복심법원 1심, 치안유지법위반(오산노동학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변기재, 조명재, 이원식 등 공소함
1933. 1.23.	- 경성복심법원 2심에서 공소 이유 없음으로 원심 확정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 통산 60일 산입), 당일 서대문형무소 수감
1933. 3.28.	- 대전형무소로 이감
1934. 4. 1.	- 대전형무소에서 출감 (출소 예정일 1934. 5. 24)
1935. 3.17.	- 동아일보 오산지국 기자
1942. 3.27.	- 부인 이정진 사망
1943. 1.28.	- 수원읍 김양배와 재혼
1943.12.18.	- 셋째 아들 순용(順龍), 초명 양일(洋一) 출생
1945.11.10.	- 경기도 인민위원회(위원장朴衡秉) 재정부 차장
1945.11.25.	- 수원군농민조합 위원장
1947. 9. 9.	- 넷째 아들 호일(豪一) 출생
1948.12.22.	- 부인 김양배, 이혼계 제출
1950. 6.25.	- 화성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950. 9.28.	- 9·28수복 때 월북(김시중 증언)

참고문헌

- 『原州邊氏監察公派譜』, 1999., 회상사.
- 원주변씨화수회, 2012, 『원주변씨대동보』.
- 소현숙 · 이혜영, 2017,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한다』, 화성시.
- 수원시, 2001, 『김시중 인터뷰』, 『수원근현대증언자료집』 1,
- 김시중, 2001, 『내가 만난 박승극 형』, 『박승극문학전집 1』.
- 조성운, 2000,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 조성운, 2001,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수원문화사연구』 4.
- 이동근, 2007,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성주현, 2009,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숭실사학』 22, 숭실대학교사학회.
- 조성운, 2014,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과 활동』, 『수원시사 8-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 조성운, 2018, 『화성출신 지식인 박승극의 사회주의적 민족운동』.
- 한동민, 2019, 『일제강점기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의 삶과 투쟁』, 『참담하고 노여웠던 우리들의 시대』, 수원학연구센터.
- 한동민, 2020, 『대한제국기 오산』, 『오산시사』 2.
- 이동근, 2020, 『일제강점기 오산』, 『오산시사』 2.

ABSTRACT

Japanese colonial era The Life and Social Movement of Byun Ki-jae from Osan

Han, Dong Min

Byun Ki-jae(1904~?) is not only a social activist who represents Osan but also a figure who led the social movements in Suwon, along with Park Seung-geuk(1909~?). He is from Osan-ri where Osan traditional market and Osan Station are located and graduated from Myeongshin Private School and Osan Public School. The people from Osan-ri and Osan Public School le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and later became the central powers of social movements in Osan. The representative of the Osan Group was Byun Ki-jae. Along with Gong Seok-jeong, he led the youth movements in Osan and further the social movements in Suwon. His activities were the process to expand the role and the influence of Osan Group within the social movements in Suwon.

Byun Ki-jae, the main figure of the Osan Group, carried out vigorous activities through the youth movements, educational movements, Journalist Alliance, and KAPF(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in Suwon. As a result, he spent one and a half years in prison under the oppres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educating poor children. After his release from the prison in 1934, he served as a reporter of Osan branch of Dong-A Ilbo and lived a life of an intellectual who rose above the pressure and temptation from Japan.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he actively campaigned by serving as a chairman of the Suwon Labor Union. Then, he defected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settled in North Korea. Therefore, the evaluation of Byun Ki-jae was not properly done due to the distortion of the facts and lack of data following his defection to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evaluation of Byun Ki-jae, who

continued to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of the colonial period and work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unified government after liberation, will continue.

Keywords : Byun Ki-jae, Gong Seok-jeong, Park Seung-geuk, Osan Group, Osan Youth Alliance, Osan Academy of Labor and Agriculture Incident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화성 모범 농촌마을 방문 고찰

이신재*

1. 서론
2. 존슨 대통령의 한국방문 배경과 일정
3. 존슨 대통령의 화성 모범 농촌마을 방문
4. 존슨 대통령 방문 결과
5. 결론

1. 서론

외국 국가원수의 방문은 국가적 행사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친선과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외교관계를 격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특별하게 다루어졌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방문은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60년 6월 제34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였다. 그는 당선인 신분으로 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12월 처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E-mail : sjlee@mnd.go.kr, Tel : 02-709-3184

음 한국을 방문한 바 있었고, 1960년 6월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1박 2일간 한국을 찾았다.¹ 이후 두 번째로 1966년 10월 제36대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방한하였다.² 존슨의 방한 이후 8년 뒤인 1974년 포드(Gerald R. Ford, Jr), 그리고 1979년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외국 국가원수의 방한은 대체로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문의 격이 가장 높은 ‘국빈방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³ 공항에서의 환영 및 환송 행사, 국립묘지 참배, 정상회담 및 만찬,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화된 일정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해당국의 문화나 산업시설, 그리고 군부대 등을 시찰하거나 해당국에 거주하는 자국민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곤 한다.

외국 국가원수의 방한 기간 중 말과 행동, 그리고 방문 장소 등에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Message)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방문하는 장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일종의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방문을 준비하는 국가와 방문국 간에는 사전에 상호 조율을 통해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1966년 10월 방한한 존슨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인상적인 측면이 있었다. 44시간이라는 짧은 방한 일정 속에서 서울 이외에 경기도의 두 지역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한 곳은 의정부의 한국군과 미군 부대였고, 다른 한 곳은 현재 화성시 태안읍의 농촌마을이었다.⁴ 의

1 「Eisenhower, Dwight D 미국 대통령 방한, 1960.6.19-20」(외교사료관 등록번호 842).

2 Johnson 대통령 이름의 한글 표기와 관련 당시 공식문서에는 ‘존슨’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논문에는 당시 기록물이나 문헌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국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존슨’으로 표기하였음.

3 외교 의전상으로 외국 국가원수의 방문은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등으로 방문의 격이 구분되며, 이 중에서 국빈방문(State Visit)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가 이루어진다. 외교부(www.mofa.go.kr).

4 존슨 대통령의 화성군 방문에 대해 당시 한국정부 기록에는 ‘화성’ 대신 ‘수원’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정부의 존슨 대통령 영접계획과 결과에도 ‘수원 모범농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존슨이 방문한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였다. 수원군 수원읍이 1949년 8월 15일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수원군의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으로 독립하였다. 태안면은 1963년 태장면과 안릉면이 통합되면서 생겨났다.(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화성시사Ⅱ : 충·효·예의 고장(坤)』, 화성시, 828쪽)

정부의 군부대 방문은 1960년 6월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방문했던 곳으로 한미 간의 군사협력을 대내외에 보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성군의 '모범 농촌마을' 방문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특히 하루 동안에 서울에서의 일정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서울의 북쪽과 남쪽이라는 정반대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을 방문한 것은 '강행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촌 마을에서 자신의 헬리콥터에 마을 노인을 태워주고 미국에 초청까지 한 존슨의 행보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 하였다.

그렇다면 존슨 대통령은 왜 짧은 방한 일정 중에 화성의 농촌마을을 방문한 것일까? 1966년 존슨 대통령의 화성 방문은 미국 대통령의 일반적인 방한 일정을 고려해 볼 때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존슨에 관한 연구는 그의 대통령 재직기간 한미관계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에 주목한 거시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 한미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⁵ 1966년 존슨 대통령의 화성 농촌방문에 대해서는 당시의 언론 보도나 지금도 화성에 남아있는 '존슨동산'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⁶

이 점에서 이 연구는 1966년 11월 1일 미국 대통령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을 재구성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접근보다 지역사(地域史) 측면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한국 정부 문서와 언론보도, 그리고 미국 존슨 대통령 기념관(Lyndon B. Johnson Library)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존슨 대통령의 화성 방문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존슨 대통령의 방한과 화성 농촌방문의 주요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왜 화성이 존슨 대통령의 방문지로 선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존슨의 한국방문과 화성 시찰의 의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5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배, 2011, 「베트남전쟁과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80호, 249~285쪽; 박태균, 2013,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군사』 89호, 331~361쪽; 이상현, 2014, 「베트남 참전국 정상회의와 60년대 한국외교」, 『사회과학연구』 53권 1호, 295~335쪽; 장준갑, 2018, 「베트남전쟁 시기 미국 외교정책, 1954-1968」,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47호, 85~117쪽; 조진구, 2003, 「존슨정권 후반기 한미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19권 3호, 83~110쪽.

6 박환, 2016, 「한국과 미국의 만남, 안녕리 존슨 동산」, 『물고을』 16호, 20~23쪽. 박환은 당시 국내 언론보도를 토대로 존슨 대통령의 안녕리 방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2. 존슨 대통령의 한국방문 배경과 일정

1) 존슨 대통령의 방한 배경

존슨 대통령의 방한은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존슨이 방한하기 1년 전인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의 초청에 의해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한 바 있었다. 1965년 5월 16일 서울을 출발한 박 대통령은 5월 27일 귀국하기까지 워싱턴, 뉴욕, LA 등을 둘러보았다.⁷ 1965년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기 위한 미국의 제의가 배경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1965년 5월 18일 양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와 경제원조의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⁸ 1966년 존슨 대통령의 방한은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1953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1960년 케네디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1960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통령 자격으로 처음 만난 적이 있었다.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로 대통령직을 승계 받았고, 이후 1964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 되었다.

1966년 존슨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7개 아시아 국가 순방 일정 중 하나였다. 존슨은 1966년 10월 17일 미국을 출발해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남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귀국길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았다.⁹ 총 17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 목적 중에는 필리핀 마닐라(Manila)에서 개최된 베트남전쟁 참전 7

7 대한민국 공보부 저, 이현표 역, 2011, 『박정희 대통령 방미일기』, 코러스.

8 전사편찬위원회, 1981, 『국방조약집 제1집(1945~1980)』, 국방부, 708~710쪽.

9 미국 존슨 대통령 기념도서관(Lyndon B. Johnson Library)에는 존슨의 대통령 재직 당시 기록물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1966년 10~11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일지와 사진자료를 참고하였다. 자료의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① 월별 주요활동 (<http://www.lbjlibrary.net/collections/on-this-day-in-history/october.html>), ② 일자별 주요일지 (<http://www.lbjlibrary.net/collections/daily-dairy.html>). 본 논문에서는 ②번 사항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이하에는 'LBJ Library Daily Dairy(월, 일, 년)'으로 표기하였다.

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¹⁰

필리핀 정상회담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참가하였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한 국가였다. 박정희는 1966년 10월 21일 서울을 떠나 남베트남 다낭(Da Nang)과 꾸년(Quy Nhon)의 한국군 수도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뒤 10월 23일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마닐라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존슨과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10월 26일 귀국하였다.¹¹ 귀국 후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의 방한에 관심을 갖고, 숙소였던 워커힐(Walker Hill)까지 사전에 찾아가 준비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일권 국무총리로 하여금 존슨이 방문하는 김포공항, 의정부, 수원 등의 방문지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지시하는 등 존슨의 방한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¹²

2) 존슨 대통령의 방한 일정

존슨 대통령의 방한 기간은 196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이었다. 10월 31일 한국에 도착한 존슨의 첫날과 셋째 날의 일정은 공항 도착과 환영식,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 국립묘지 참배, 국회연설 등 다른 외국 국가원수의 통상적인 방한 일정과 유사하였다. 이에 반해 둘째 날의 일정은 서울을 벗어나 의정부와 화성군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존슨 대통령의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10월 31일 오후 3시 김포공항에 도착 직후 공항에서 환영식을 가진 뒤 연도에 나온 180만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시청에 도착하였다. 4시 50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 3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민 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저녁 8시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뒤 함께 중앙청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하였

10 「주비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외무부 등록번호 1808).

11 공보부, 1966,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신기원』, 공보부, 22쪽. 당시 마닐라 정상회담에 참가한 7개국 정상은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을 비롯해 홀트(Harold Edward Holt) 호주 수상, 홀리요크(Keith Holyoake) 뉴질랜드 수상,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필리핀 대통령, 띠띠카쵸(Thanom Kittikachorn) 태국 수상, 그리고 남베트남의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과 키(Nguyen Cao Ky) 수상이었다.

12 「존슨, 방한하면 잘 환영하겠소」, 『동아일보』 1966년 10월 29일.

13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다. 이후 밤 10시 30분부터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민속예술의 밤을 관람한 뒤 숙소인 워커히 호텔에서 첫날을 보냈다.

방한 2일째인 11월 1일의 일정은 더욱 강행군이었다. 서울, 의정부, 화성 등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세 곳에서 일정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동수단도 차량, 헬리콥터, 기차 등이 모두 이용되었다. 이날 아침 숙소인 워커히에서 헬기를 이용해 청와대를 다시 찾은 존슨은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계획보다 길어진 회담으로 인해 이어진 덕수궁 방문은 생략되고, 당초 예정보다 50분 늦게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12시 03분 박 대통령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의정부의 한국군 제26사단으로 이동해 전시된 장비와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였다. 이어서 베트남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운 이춘근 대위, 이종세 상사, 그리고 故 이인호 해병 소령의 미망인에게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한국군 부대방문 이후에는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Camp Stanley)를 방문해 부대 식당(Mess Hall)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였다.¹⁴ 이후 헬기를 이용해 경기도 화성의 농촌마을을 방문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는 숙소인 워커히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위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방한 3일째이자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국회를 방문해 연설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러 박 대통령과 인사하고 함께 헬기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향하였다. 공항에서 환송식을 갖고 11시 알래스카(Alaska)를 향해 출국하면서 44시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3. 존슨 대통령의 화성 모범 농촌마을 방문

1) 화성 방문 일정

1966년 11월 1일 의정부에서의 일정을 마친 존슨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용고등공민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였다.¹⁵ 이후 계획되었던 일

14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15 존슨 대통령의 태안면 도착과 체류시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기록에는 15:51

정을 마친 뒤 타고 온 헬리콥터를 타고 다시 서울 워커히로 돌아갔다. 도착부터 돌아갈 때까지 1시간 24분의 방문이었다.

이것은 당초 한국 측에서 준비했던 영접계획 상의 45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었다.¹⁶ 이날 오전 일정이 길어진 정상회담으로 50여 분 정도 지연되고, 계획했던 덕수궁의 제2차 5개년계획 전시회 참석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 대통령의 화성방문 시간이 계획보다 늘어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존슨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에 대해 한국정부의 보고서, 미국 백악관의 한국 방문기록물,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해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⁷

<표 1> 1966년 11월 1일 존슨 대통령 화성 방문 활동

구분	주요 일정(시간은 미국자료 기준)
도착	의정부 미군 캠프 헬리콥터 이륙(15:28)
	태안면 안용고등공민학교 운동장 착륙(15:51)
농촌 시찰	브리핑 장소 이동(차량)
	농촌개발계획 브리핑 청취(16:03)
	선물 교환식(16:18)
	존슨 동산 명명 및 제막식(16:32)
	헬리콥터 탑승장 이동(도보, 16:50)
	헬리콥터 탑승/마을 상공 비행(존슨, 최시중 노인)(17:03~17:10)
복귀	헬리콥터 이륙(17:15)/서울 워커히 착륙(17:30)

출처: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비고: 한국정부 기록은 도착과 복귀 시간만 기록되어 있으나, 미국 백악관 자료에는 대통령의 활동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도착, 17:15 복귀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국 정부 기록에는 15:45~17:05으로 되어 있다.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국내언론에서도 존슨 대통령의 화성 도착시간을 경향신문 3시 40분, 조선일보 3시 45분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 「존슨 대통령 태안면 시찰 영접 준비 세부계획서」(국가기록원 BA0844343).

17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존슨 동산에 올라」, 『경향신문』 1966년 11월 2일; 「존슨 초청받은 최노인의 주변」, 『경향신문』 1966년 11월 3일; 「안녕리에 존슨 신화」, 『조선일보』 1966년 11월 2일; 「사모관대도 선물」, 『동아일보』 1966년 11월 2일.

존슨 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는 오후 3시 51분(이하 미국 기록) 화성군 태안면 안용고등공민학교(현 안용중학교) 운동장에 착륙하였다.¹⁸ 존슨과 함께 러스크(Daved D. Rusk) 국무장관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대사 등 7명이 수행하였고, 이 중에는 경제부총리이자 존슨 대통령 영접위원장인 장기영 부총리도 함께 탑승하였다.¹⁹

존슨을 태운 헬리콥터가 도착하자 미리 대기해 있던 정일권 국무총리와 박태원 경기도지사가 영접하였다. 이들은 준비된 5대의 지프(Jeep)에 나눠 타고, 800m 거리를 5분가량 이동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하였다.²⁰ 이 전망대는 이날 브리핑이 있던 곳으로, 당시까지 '진장부리'로 불렸으나 이날 '존슨 동산'으로 명명된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영접위원장), 농림부 장관, 경기도지사, 농촌진흥청장, 의전실장, 권오석 국회의원, 농림부 농정국장, 화성군수, 태안면장 등이 참가했다. 미국 측에서는 미 대외원조처(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처장, 부처장, 농업국장 등이 참가하였다.²¹ 또한, 행사장에는 3만여 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운집하였다.²² 이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존슨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였다.

이날 존슨의 방문은 경기도와 화성군에서 준비하였다. 당시 경기도에서 작성해 영접위원회에 보고한 '영접 준비 세부계획'을 보면, 이 준비는 10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행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헬리콥터 착륙장 정비, 전망대 건립, '존슨동산' 기념비 제작, 착륙장에서 전망대를 비롯해 병점-안녕-황계-송산 간 도로 보수도 이

18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19 당시 한국정부는 장기영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정부 부처와 관광공사 등의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존슨 대통령 영접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준비하였다. 장기영 부총리는 존슨의 전 방한일정을 수행하였다.

20 차량 이동시 존슨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기도지사가 함께 탔고, 존슨의 자리는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한다.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안녕리에 존슨 신화」, 『조선일보』 1966년 11월 2일.

21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22 당시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 10,800명(수원 5,000명, 화성 5,800명)과 학생 9,200명(수원 7,000명, 화성 2,200명)을 동원하기로 계획하고, 경기도 교육감과 수원시장의 협조, 그리고 화성군 관내 읍·면장 책임아래 국방부에서 지원한 차량 73대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존슨 대통령 태안면 시찰 영접 준비 세부 계획서」(국가기록원 BA0844343).

루어졌다. 수원에 주둔한 한국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협조로 지프도 준비하였다.²³

오후 4시 3분, 존슨이 전망대에 도착하자 이득룡 농림부 농정국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브리핑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정부 문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농촌근대화에 대한 것이었다.²⁴ 미국 자료에도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rogram)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한국과 미국과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²⁵ 존슨은 브리핑을 받은 뒤 마을의 협동조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브리핑을 담당했던 농정국장이 답변하였다.

오후 4시 18분, 브리핑에 이어서 선물 교환식(Gift exchange)이 있었다.²⁶ 박태원 경기도지사가 태안면 농촌마을 풍경을 자수(刺繡)로 만든 그림 액자, 마을의 농민 대표인 최시종 노인이 활(弓) 세트, 학생대표 진은숙이 안용고등공민학교 전교생들의 서명이 담긴 족자, 4H클럽 대표 차창분이 4H기를 선물하였다. 그리고 태안면장이 이재덕이 한국의 전통의상 사모관대를 선물하였다.

이어서 4시 32분 존슨이 방문한 이 언덕을 ‘존슨동산(Johnson Hill)’으로 명명하는 행사를 가졌다.²⁷ 경기도지사가 “존슨 대통령의 양해에 의거 전망대를 존슨동산으로 명명한다.”고 선포한 뒤 참석한 존슨과 정일권 총리가 제막(除幕)하였다. 이에 존슨은 연설을 통해 감사를 표하였다.²⁸

당시 연설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관심 있게 보도하였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존슨 대통령은 자신도 미국 텍사스의 농촌마을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고향도 과거에는 잘 살지 못했는데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향후 시간이 된다면 이 태안마을에서 마음 놓고 자고 갈 생각이라고 하였다.²⁹ 연설 이후 존슨은 마을에 TV 한 대를 선물하였다.³⁰

23 「존슨 대통령 태안면 시찰 영접 준비 세부계획서」(국가기록원 BA0844343).

24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25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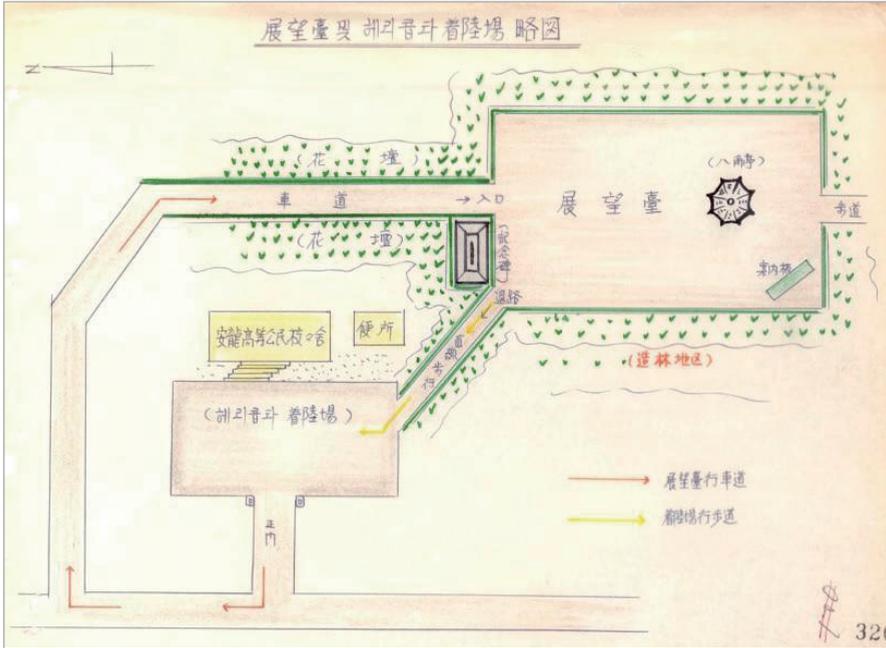
26 「존슨 대통령 태안면 시찰 영접 준비 세부계획서」(국가기록원 BA0844343); 「사모관대도 선물」, 『동아일보』 1966년 11월 2일; 「안녕리에 존슨 신화」, 『조선일보』(1966. 11. 2);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27 당시 기념비에는 ‘존슨’으로 기재되어 있다.

28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29 「존슨 동산에 올라」, 『경향신문』 1966년 11월 2일; 「안녕리에 존슨 신화」, 『조선일보』 1966년 11월 2일.

30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그림 1〉 전망대 및 헬리콥터 착륙장 약도

(『존슨 대통령 태안면 시찰 영접 준비 세부계획서』(국가기록원 BA0844343))

〈그림 1〉은 당시 존슨 대통령이 방문하였던 안용고등공민학교와 존슨동산 일대의 행사배치도이다. 이날 주목을 받은 일은 존슨 대통령과 이 마을 농민대표였던 최시중 노인과의 만남이었다.³¹ 마을 대표로 활을 선물했던 최시중 씨를 존슨 대통령이 자신의 헬기에 태워 마을 상공을 약 7분 정도 비행한 것이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노인에게 대통령 휘장과 'LBJ'라는 글자가 새겨진 주머니 칼,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펜을 선물하며 미국 방문을 초청한 것이다.³² 당시 최 노인과 존슨의 만남

31 당시 최시중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언론에서는 다양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시중 노인(66세, 태안면 화리 380)은 독자로 태어나 오평순 씨와 사이에 다섯 형제를 두고 있는데, 현재 넷째 아들은 베트남에 파병 중인 군인이다. 8천여 평 남짓한 전답을 경작하고 있으며, 한자 권위자로 동네에서는 최 노인을 ‘선생님’이라 부른다.”는 것이었다.(『존슨 초청받은 최노인의 주변』, 『경향신문』 1966년 11월 3일)

32 이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국 백악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존슨이 노인에게 헬기를 타고 싶다고 했고, 노인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5시 3분부터 10분까지 두 사람은 헬기를 탑승했

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최 노인과의 만남과 헬기 탑승으로 존슨의 체류 시간은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 노인과의 헬기 탑승을 끝으로 존슨의 화성군 방문은 마무리되었다. 존슨은 오후 5시 15분 타고 온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워커히로 돌아갔다. <사진 1~10>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당시 존슨 대통령의 화성 농촌 방문 사진들이다.³³



〈사진 1〉 헬기로 도착하는 존슨



〈사진 2〉 전망대로 이동하는 존슨



〈사진 3〉 농정국장 브리핑 청취



〈사진 4〉 마을그림 자수 액자 선물

다. 존슨이 노인에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자 노인은 '당신과 함께 있는데 뭐'라고 했다. 착륙 후 존슨은 노인을 언덕까지 에스코트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노인에게 미국 방문을 초청했다고 되어 있다.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그러나 최 노인의 미국 방문은 성사되지 못했다. 최 노인이 고령인데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이 패하였기 때문이다. 존슨은 퇴임 후 고향 텍사스로 돌아가 1973년 1월 사망하였다.

33 국가기록원 사진화일 CET0025792, CET0025793, CET0026030.



〈사진 5〉 한복 선물 증정



〈사진 6〉 존슨동산 제막식



〈사진 7〉 연설하는 존슨 대통령



〈사진 8〉 논길을 걷는 존슨 대통령



〈사진 9〉 마을노인과 존슨 대통령



〈사진 10〉 헬기를 함께 탄 존슨과 최시중

2) 존슨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 과정

대통령의 공개 활동은 상징성과 의미를 지닌다. 특히 1960년대 한미동맹 관계에서 방한한 미국 대통령의 방문 장소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존슨 대통령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존슨 대통령의 방한 전인 1966년 10월 10일 한국정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간에 사전 협조 회의가 개최되었다.³⁴ 한국정부의 영접위원장인 장기영 부총리와 주한 미국 대사대리 간에 존슨 대통령의 한국 도착시간, 예상인원, 숙소문제, 환영행사, 환영장식, 방문일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백악관에서 파견된 방한준비 담당자도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존슨의 숙소는 조선포텔, 반도호텔, 워커힐 세 후보지 중 워커힐로 결정되었다.

이날 한국정부는 존슨 대통령이 방한기간 중 방문해 줄 장소를 선정해 미국 측에 전달하였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장소와 일정은 서울운동장에서 시민환영대회, 정상회담 및 만찬, 민속예술 공연관람, 일선 군부대 시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덕수궁에 있는 5개년계획 전시장 시찰, 국립묘지 참배 및 기념식수 등이었다. 한국정부의 당초 계획에 화성 농촌마을 방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존슨의 짧은 체류 시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제안한 일정의 반수 이상이 삭감될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보나, 우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다 확실한 일정은 10월 15일 존슨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이 도착하면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10일 뒤인 10월 20일 외무부에서 추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10일 논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논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서 “수원 모범농촌 시찰”이 처음 확인된다는 점이다.³⁵ 당시 수원과 화성을 혼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수원 모범농촌은 화성 모범 농촌을 지칭하는 것이다. 4일 뒤인 10월 24일 영접위원회는 해당 정부부처 및

34 「미(대사관)측과의 회의결과 보고」(국가기록원 BA0844344).

35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르는 한미 양실무자 회의내용」(국가기록원 BA0844344).

기관에 ‘행사준비 현지답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하달하였다. 이 문서에는 10월 29일 의정부의 26사단과 ‘수원 모범농촌’방문을 현지 답사한다고 되어있다.³⁶ 다음날인 10월 25일에는 존슨의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시찰에 소요되는 내무부 예산 105만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³⁷ 10월 27일에는 영접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존슨 미국 대통령께서 모범농촌을 시찰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일 15:15 귀도관하 태안면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공식 전달하였다.³⁸

한편, 10월 3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농업한국의 근대화 노력을 보여 주기 위해 당초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시험장을 방문지로 계획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이 농촌개발계획에 일찍이 조예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생생한 농촌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기로 했다.”고 하였다.³⁹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0월 10일까지 없었던 농촌 방문계획은 10월 15일 방문 예정이던 존슨 대통령 공보비서관의 도착이후 새롭게 논의되었고, 10월 20일 ‘수원 모범농촌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었다. 경기도와 화성군에서 존슨 영접 준비를 시작한 것도 10월 18일이었다. 최초 계획에서 변화된 것은 국회 방문이 추가되고, 서울시민 환영대회 장소가 서울운동장에서 시청 앞 광장으로 조정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은 생략되었다.⁴⁰ 그 대신 화성 농촌마을 방문이 추가된 것이었다. 또한 수원의 농촌진흥청 시험장이 고려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화성군 태안면의 농촌마을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왜 존슨의 농촌마을 방문 일정이 추가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10월 30일자 국내 언론보도에서는 존슨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기했다. 존슨이 30년 전 의원 생활의 첫 실적으로 농촌개

36 「행사 준비 현지답사」(국가기록원 BA0844344).

37 「FY1966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미국 존슨 대통령 영접경비)」(국가기록원 BA0084483).

38 「존슨 미국 대통령 영접 행사」(국가기록원 BA0844344).

39 「린든 B. 존슨 서울의 2박 3일」, 『조선일보』 1966년 10월 30일.

40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재의 KIST)는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 방미 당시 존슨 대통령이 지원한 것으로, 현재 KIST는 이것을 기념해 대강당의 이름을 존슨 홀(Johnson Hall)로 부르고 있다. 존슨 방한 직전인 1966년 10월 9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1월 1일 오전 박 대통령은 존슨과의 회담에서 KIST 모형도를 증명하였다.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사진 11〉 존슨의 필리핀 농촌 방문 모습

(LBJ Library(<http://www.lbjlibrary.net/collections/photo-archive.html>, S/N: C3606-20))

발 관계 법안을 제안했고, 이것을 통해 미국 농촌이 부흥했으며 한국의 농촌개발계획은 30년 전에 법제화한 존슨의 아이디어와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존슨이 태안의 모범농촌을 방문하게 되면 감회에 잠길 것이라는 것이다.⁴¹

다른 하나는 존슨 대통령이 한국방문 직전 필리핀의 농업시설을 방문하였다는 점이다. 존슨 대통령은 10월 26일 필리핀 대통령 부부의 안내로 농업시설을 방문하였다. 존슨이 방문한 곳은 수도 마닐라에서 약 60km 떨어진 로스 바노스(Los Banos)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였다. 이곳에서 존슨은 연구 상황과 농민들의 모내기 모습, 그리고 물소 등을 보고 매우 흥미로워 했다.⁴²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존슨 대통령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은 필리핀 농업시설 방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도 처음에는 필리핀의 농

41 「린든 B. 존슨 서울의 2박 3일」, 『조선일보』 1966년 10월 30일.

42 LBJ Library Daily Diary(October 26, 1966). 1977년 수원 농촌진흥청에 건립된 '녹색혁명성취' 기념비에는 한국이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협력해 벼씨 개량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업시설과 유사한 수원의 농촌진흥청 시험장을 구상했지만, 한국의 11월 날씨를 고려할 때 이보다는 근대화로 나아가는 실제 농촌마을, 즉 ‘모범농촌’을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농촌 출신인 존슨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물론 고려되었다.

3) 모범 농촌마을 화성

존슨이 화성군 태안면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농촌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⁴³ 이곳이 한국 농촌 중에서 농업근대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농촌’, ‘모범부락’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범부락 육성 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추진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다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다. 1952년 11월 농림부에서는 모범농촌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⁴⁴ 1954년도에는 한국정부가 유엔 한국재건단(UNKRA)과 협약을 체결해 ‘합동농촌진흥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각도에 1개씩의 ‘모범농촌부락’을 설치해 농촌진흥사업을 195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⁴⁵

그러나 모범부락 육성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해서였다.⁴⁶ 이것은 농촌근대화를 독려하기 위해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시도였다. 각 지자체별로 모범부락 심사위원회와 모범부락 기준표를 만들어 일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모범부락을 선정하였다. 심사평가 항목은 경제성장과 부락 조성 등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1961년 5·16 이후부터 1963년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⁴⁷

존슨이 방문한 화성군 태안면은 당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모범부락사업의 시범마을이었다. 태안면은 1964년부터 정부와 경기도 및 화성군의 지원을 받

43 1953년 기준 화성군의 농가는 26,300호로 경기도 농가 23만 345호의 11.4%를 차지하는 전형적 농촌이었다.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화성시사 I : 충·효·예의 고장(乾)』, 478쪽)

44 「모범농촌 건설」, 『경향신문』 1952년 11월 5일.

45 「모범농촌부락 설치 본격화」, 『동아일보』 1954년 6월 4일.

46 5·16 이후 추진된 ‘모범부락 조성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만웅, 박수영, 2013, 「5·16 군정기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모범부락조성사업에 대한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20권 3호, 646~678쪽을 참고.

47 「승주군(면) 모범부락 심사위원회규정」(국가기록원 BA0086756).



〈그림 2〉 태안면 복지마을 종합개발계획도
 (『특정지에 꾸며본 농촌 '모델-케이스', 『경향신문』 1965년 5월 3일)

아 전국 최초로 '복지마을 건설'을 위한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⁴⁸ 1964년 11월 정부는 교통의 편리함과 주민들의 의욕 등을 고려하여 태안면을 종합개발지역 육성의 첫 대상으로 선정하고 2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지정리, 수리시설, 지력증진, 생활개선 등이었다. 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30정보의 경지정리공사를 예정보다 앞당겨 끝냈고, 계단식 개간, 저수담 준설, 양수장 설치, 농로 확장, 퇴적장 설치, 둔사개량, 뽕나무 식재, 사방사업, 황구지천 개수공사, 교량가설공사, 전기가설, 지붕개량, 기와공장 설치, 공동우물 개수, 부역 개량, 변소 설치, 전화 시설, 구관장, 정비소 등의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2〉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태안면의 복지마을 종합개발계획도이다.

존슨이 방문한 안녕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범마을로 선정된 바 있었다. 1961년에는 화성군에서 군내의 모범부락 19개소를 선정해 소 30마리와 돼지 560

48 『특정지에 꾸며본 농촌 '모델-케이스', 『경향신문』 1965년 5월 3일. 미국 백악관 자료에는 한국의 모범농촌부락을 영어로는 'Agricultural Demonstration Area'로 표기하고 있다. LBJ Library Daily Diary(November 1, 1966).

마리를 배당한 바 있고, 안녕리와 송산리 부락민들이 농업협동조합, 신용조합 공동 구매 및 판매부, 성인학교 수리계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었다.⁴⁹

또한 1963년에는 정부에서 추진한 ‘제대군인 시범개척장’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였다. 제대군인 20세대가 이곳의 땅 15만 평을 개간해 각종 작물을 파종하고, 과 수원 등의 조성 계획도 추진하였다. 1963년 7월 20일 개최된 입주식에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원호처장 등이 참석하기도 하였다.⁵⁰

결과적으로 당시 태안군은 5·16 이후 추진된 군사정부의 모범부락 육성 사업의 선두에 있었고, 이미 1964년 11월부터 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둔 상태였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서울과 멀지 않았고, 인접한 수원은 한국 근대농업의 메카이기도 하였다. 그 역사적 현장에 태안면의 모범농촌이었던 것이다.

4. 존슨 대통령 방문 결과

1)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미국의 지원 약속

외국 국가원수가 방문국의 농촌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모두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은 충분히 주목받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단순한 시찰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존슨의 화성 농촌방문은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입장과 한미동맹과 베트남 참전국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이 상호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존슨의 방한 당시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개발 문제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1966년에 마무리되고, 1967년부터 제2차 계획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1961년 5·16으로 등

49 「모범부락 선정」, 『경향신문』 1961년 8월 3일; 「모범농촌-화산부락을 찾아서」, 『동아일보』 1961년 10월 26일.

50 「제대군인시범농장 어제 입주식」, 『조선일보』 1963년 7월 21일.

장한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의 공업화 정책'과 '농민이 잘사는 정책'을 경제정책의 2대 지주로 삼았다. 그리고 농토의 지력 향상,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을 역설하고, 1960년대 이래 농촌근대화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갔다.⁵¹ 그 결과 1962~66년 기간에 농가 경제는 통계상으로는 최하층의 농가에도 잉여가 생길 만큼 향상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농가 경제가 1950년대에 비해서 안정되었다고는 해도 그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불과했다. 정부는 1차 5개년계획의 성과에 고무되어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증산을 통한 식량 자급 이외에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근대화를 위한 농공병진을 표방하였다.⁵²

존슨 대통령의 방한 2개월 전인 1966년 9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4회 리·동 농업협동조합 업적경진대회'치사를 통해 "인구 6할이 농민인 우리의 경우, 농촌의 근대화 없이 조국의 근대화가 이룩될 수 없으며, 농가의 자립경제 없이 국가의 경제자립이 이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민의 왕성한 개발의욕에 의한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다. 1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식량증산의 초석을 마련한 점에서 확실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중농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농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⁵³

당시 존슨의 방한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 행사의 주안점을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미국 및 존슨 대통령에 대한 환영과 국민적 관심도 표명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장래 의욕에 대한 이해 촉구'였다.⁵⁴ 곧 경제 발전에 대해 한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 결과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었다.

존슨 방한 전인 1966년 10월 10일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 경제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책자 및 각종 사진이 포함된 소개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⁵⁵ 존슨 대통령이 시간관계상 한국의 경제 개발상을 시찰하기 어렵다는

51 김정림, 2006,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랜덤하우스중앙, 196~198쪽.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국농정50년사 I』, 농림부, 44~45쪽.

53 대통령비서실,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대한공문사, 775~778쪽.

54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부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55 「미(대사관)측과의 회의결과 보고」(국가기록원 BA0844344).

이유에서였다. 당초 한국은 11월 1일 일정에 덕수궁에서 전시 중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전시장 시찰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러스크 국무장관과 수행원만 참관하였다.⁵⁶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한국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1966년 9월부터 대미 교섭안을 만들고 군사와 경제 원조와 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⁵⁷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11월 2일자로 체결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반영되었다. 성명서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을 명문화하였다. 성명서 제7, 8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동안의 경제발전 성과와 제2차 경제개발계획 목표를 존슨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존슨은 이에 대해 ‘높은 찬양의 뜻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⁸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목적이 성사된 것이었다.

그러나 선후 관계로 볼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지원 약속은 이미 11월 1일 오전에 이루어졌다. 당시 한미공동성명서에는 11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양국 대통령 간에 상호 관심사가 교환되고, 이어서 서울역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협의를 체결하였다고 되어있다. 존슨이 화성군을 방문하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존슨 대통령이 화성의 농촌을 방문하기 직전 한국에 대한 경제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화성의 농촌에서 존슨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 매우 돈독했던 한미관계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이동원의 표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찰떡궁합’이었고, 1966년 10월 존슨의 방한 때가 두 대통령의 관계에서 최고의 시기였다고 평가한다. 이동원은 그 덕에 존슨 재임 기간 중 한국은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조국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⁵⁹

56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57 「Johnson, Lyndon B. 미국 대통령 방한, 1966.10.31-11.2」(외교사료관 등록번호 1826).

58 전사편찬위원회, 1981. 앞의 책, 711~713쪽.

59 이동원, 1992,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149~154쪽

한편, 미국 입장에서도 존슨 대통령의 방한은 중요하였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베트남전 수행을 지원하는 가장 큰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4년 9월 140명 규모의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처음 파병한 이후 1965년 2월에는 2,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인 건설지원단(비돌기부대)을 파병하였다. 이어서 1965년 10월에는 전투부대인 수도사단(맹호부대)과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그리고 1966년 4월에는 1개 보병연대를 추가 파병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제9사단(백마부대)을 파병한 상태였다.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던 반전여론으로 곤혹스러워하던 존슨에게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이미 1966년 3월 주한 미국대사 명의로 한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이른바 브라운각서(Brown Memorandum)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바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1월 1일 오전 존슨 대통령의 의정부 한국군 부대 방문과 오후 화성 농촌방문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와 경제에 관한 협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였던 셈이다. 특히 화성 농촌마을 방문은 한국입장에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전 지원에 대한 감사와 추가 파병을 기대하는 친한화(親韓化)행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존슨 귀국 직후인 11월 17일 백악관의 아시아지역 경제담당 특별고문인 유진 블랙(Eugene R. Black)과 국무성 극동경제담당 부차관보 등을 한국에 보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게 하였다.⁶⁰

한편, 존슨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으로서도 성공적이었다. 언론들뿐만 아니라 존슨 자신도 한국 국민들의 열띤 환영에 대단히 고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66년 11월 2일자 대통령 일일보고서(The President's Daily Brief)에서도 존슨 대통령의 방한성공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Outstanding Success)이라고 평가하였다.⁶¹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베트남전의 반전여론으로 도전받던 상황에서 존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60 「한미경제회담」, 『대한뉴스』 제598호, 1966년 11월 29일.

61 한국학술정보, 2017, 『CIA 기밀해제 총서 제27권 존슨 대통령 일일보고서 1966.10-12』, 한국학술정보. 166쪽.



〈사진 12〉 2015년 12월 4일 촬영 모습



〈사진 13〉 2019년 12월 11일 촬영 모습

2) 존슨 대통령 방문의 흔적들

1966년 존슨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를 다녀간 뒤 이곳에는 존슨과 관련된 두 개의 기념물이 건립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 중 하나는 존슨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명명했던 ‘존슨동산’기념비이고, 다른 하나는 존슨 방문이후 ‘존슨스쿨’로 불렸던 현재의 안용중학교이다.

‘존슨동산’은 존슨 대통령이 태안면 방문 당시 농촌개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마을을 내려다보았던 언덕에 새로 명명된 이름이다. 존슨이 방문했던 1966년 11월 1일 경기도지사는 존슨 대통령에게 직접 ‘양해’를 얻은 뒤 이 언덕의 이름을 ‘존슨동산’으로 명명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당시 건립된 존슨동산 기념비는 현재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곳이 체육공원으로 이용되다 2017년 화성시 현충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위치는 조금 변화되었다.

이 기념비에는 ‘존슨동산(JOHNSON HILL)’이라는 이름과 함께 “미 합중국 린든 비. 존슨 대통령의 이곳 방문을 영원히 기념하는 뜻에서 우리는 이곳을 존슨동산으로 이름함. 서기 1966년 11월 1일 도민을 대표하여 :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박태원”이라는 한글과 함께 같은 의미의 영어 설명이 새겨져 있다.

〈사진 12〉는 2015년 12월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을 당시 기념비의 모습이고, 〈사진 13〉은 현충공원이 조성된 뒤 위치가 이동한 모습이다. 큰 틀에서 보면 당시 존슨이 방문했던 위치 내에서 약간의 위치 이동이 있었던 것이다. 기념비 하단의



〈사진 14〉 신축교사 준공식 모습



〈사진 15〉 '존슨스쿨' 앞에서 한·미 관계자

받침대도 2015년까지는 1966년 건립될 당시의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새로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함없이 이곳이 '존슨 동산'으로 명명된 배경을 보여 주고 있다.

존슨스쿨은 존슨의 헬기가 이·착륙했던 당시 안용고등공민학교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었다. 이 학교는 1955년 안용성인학교로 개설된 이후 1963년 안용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었다.⁶² 1950년대 화성군 지역에는 초등학교 5개교, 초등학교 분교 8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4개가 개교한 상태였다.⁶³ 그러나 전쟁이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학교의 교육환경도 열악해 4개의 천막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6년 11월 1일 미국 대통령 존슨이 헬기를 타고 이 학교를 다녀간 것이다. 존슨의 방문 당시 이 학교의 전교생들은 자신들의 서명이 담긴 족자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존슨이 다녀간 뒤부터 이 학교는 '존슨스쿨(Johnson School)'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헬기가 이·착륙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존슨 대통령 방문 이후 이 학교에 대한 각계의 지원이 이어졌다. 1967년에는 각계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교사(敎舍)가 건립되었다. 교사 신축에는 박태원 경기도지사, 196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태제과 등 각계의 찬조금 127만 7천 원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오산에 주둔하던 주한 미 공군에서도 대민원조자금으로 시멘트 1,520부대를 지원해 주었다.⁶⁴ 이

62 안용중학교 홈페이지(<http://www.anyong.ms.kr>).

63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I : 충·효·예의 고장(乾)』, 478쪽.

64 「존슨 공민교 낙성」, 『경향신문』 1967년 10월 21일.

것을 2개월 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신축교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존슨 방문 1년 뒤인 1967년 10월 21일 88평짜리 신축 교사(敎舍) 헌납식이 열렸다.⁶⁵ <사진 14~15>에서 보듯 당시 헌납식에는 주한 미공군 관계자도 참석했고, 행사장에는 미국 성조기도 함께 게시되었다.⁶⁶ 이를 통해 당시 220명의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그리고 안용고등공민학교는 1969년 1월 학교법인 안용학원을 설립하고 안용중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⁶⁷

5. 결론

지금까지 존슨의 화성 모범 농촌마을 방문을 재조명하고, 이 마을이 존슨의 방문지로 선정된 배경과 방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966년 존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고, 방한 일정 중 경기도 화성의 농촌마을을 찾았다. 대통령 활동의 상징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국빈방문 중이던 존슨의 화성 농촌 방문은 많은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1966년 존슨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베트남전쟁 참전 7개국 정상 회담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1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이었다. 존슨의 화성 모범 농촌방문은 방한 기간 중 유일한 경제 현장 시찰로서 한국 농촌의 근대화과정을 살펴보는 기회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미국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통해 형성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추가 파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모범부락 육성사업에서 두각을 보인 태안면의 농촌 마을이 존슨의 방문지로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농촌 출신으로 농업

65 「존슨 공민교 낙성」, 『경향신문』 1967년 10월 21일; 「안녕리 존슨 스킨축교사 낙성」, 『동아일보』 1967년 10월 21일; 「존슨 스킨 헌납식」, 『조선일보』 1967년 10월 22일.

66 국가기록원 사진화일 CET0059098.

67 안용중학교 홈페이지(<http://www.anyong.ms.kr>): 「안용중학교 설립인가(사립)」(국가기록원 BA0234304). 그러나 이 학교가 '존슨스쿨'로 불렸다는 내용은 언론보도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에 관심을 가졌던 존슨 대통령의 개인적 배경도 고려되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화성은 한미관계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 대통령의 한국 농촌방문이라는 흔치 않은 사례를 통해 1960년대 한미관계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역사 전개 속에서 화성의 농촌 마을이라는 미시적인 사례를 살피고, 지역사적 측면에서 당시의 역사를 정리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통해 1960년대 화성군 태안면 농촌 마을의 발전에 관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의 농업발전 현황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시도하지 못했다. 이 당시 안녕리 모범부락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1950~1960년대 농업발전사 측면에서 좋은 사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미국의 아시아 농촌근대화 전략과 박정희 정부의 농업 발전정책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 또한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채워지길 기대한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참고문헌

1차 사료

- 「미(대사관)측과의 회의결과 보고」(1966.10.11)(국가기록원 BA0844344).
「승주군(면) 모범부락 심사위원회규정」(1961)(국가기록원 BA0086756).
「안용중학교 설립인가(사립)」(1969)(국가기록원 BA0234304).
「존슨 대통령 영접 준비」(1966.10.27)(국가기록원 BA0844344).
「존슨 대통령 화성군 태안면 시찰 사진」(국가기록원 CET0025792, CET0025793, CET0026030).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르는 한미양실무자 회의내용」(10.20)(국가기록원 BA0844344).
「존슨 미국 대통령 영접 행사」(1966.10.27)(국가기록원 BA0844344).
「존슨 대통령 태안면 시찰 영접 준비 세부계획서」(1966.10)(국가기록원 BA0844343).
「존슨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행사결과 종합보고서」(국가기록원 BA0844344).
「행사 준비 현지 답사」(1966.10.24)(국가기록원 BA0844344).
「FY1966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미국 존슨 대통령 영접경비)」(1966.10.25)(국가기록원 BA0084483).
「주미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외교사료관 1808).
「Eisenhower, Dwight D. 미국 대통령 방한, 1960.6.19-20」(외교사료관 842).
「Johnson, Lyndon B. 미국 대통령 방한, 1966.10.31-11.2」(외교사료관 1826).
「The White House President Lyndon B. Jonhson Daily Diary November 1, 1966」(LBJ Library).

단행본 및 논문

- 공보부, 1966,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신기원』, 공보부.
김정림, 2006,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랜덤하우스중앙.
김정배, 2011, 「베트남전쟁과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80호, 249~285쪽.
대통령비서실,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대한공론사, 775~778쪽.
대한민국 공보부 저, 이현표 역, 2011, 『박정희 대통령 방미일기』, 코러스.
박동운, 1966, 「아세아를 영도하는 한국: 존슨 대통령 방한의 낙수」, 『지방행정』 15권 157호, 25~32쪽.
박태균, 2013,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군사』 89호, 331~361쪽.
박 환, 2016, 「한국과 미국의 만남, 안녕리 존슨 동산」, 『물고을』 16호, 20~23쪽.
서만용·박수영, 2013, 「5·16 군정기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모범부락조성사업에 대한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20권 3호, 646~678쪽.

- 수원문화원, 1986, 『수원시사』, 수원시.
- 외교통상부, 2009, 『한국외교 60년』, 외교통상부.
- 이동원, 1992,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 이상현, 2014, 「베트남 참전국 정상회의와 60년대 한국외교」, 『사회과학연구』 53권 1호, 295~335쪽.
- 장준갑, 2018, 「베트남전쟁 시기 미국 외교정책, 1954-1968」,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47호, 85~117쪽.
- 전사편찬위원회, 1981, 『국방조약집 제1집(1945-1980)』, 국방부.
- 조진구, 2003, 「존슨정권 후반기 한미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19권 3호, 83~110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국농정50년사 I』, 농림부.
- 한국학술정보, 2017, 『CIA 기밀해제 총서 제27권 존슨 대통령 일일보고서 1966.10-12』, 한국학술정보.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화성시사 I : 충·효·예의 고장(乾)』, 화성시.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화성시사 II : 충·효·예의 고장(坤)』, 화성시.

신문 및 인터넷, 기타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농경지정리」, 국립영화제작소(1964).
- 「한미경제회담」, 『대한뉴스』 제598호(1966).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안용중학교 홈페이지(www.anyong.ms.kr).
- 미국 존슨 대통령 기념도서관 홈페이지(www.lbjlibrary.net).
- K-TV e영상역사관(www.ehistory.go.kr).

요 약

1966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존슨은 방한 기간 중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의 모범 농촌마을을 방문하였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이례적인 농촌방문이었다. 이 연구는 1966년 존슨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당시 존슨 대통령의 방한 배경과 화성 방문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화성의 농촌 마을이 존슨 대통령의 방문지로 선정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당시 존슨의 한국방문과 화성 시찰의 의미를 도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당시 한국정부 기록물과 언론보도 및 미국 존슨 대통령 도서관의 한국 방문기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존슨은 1966년 10월 아시아 6개국의 순방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간의 방문일정 중 11월 1일 오후 화성의 농촌마을을 방문하였다.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헬리콥터로 안용고등공민학교에 도착하였다. 이후 안녕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농촌개발현황에 관한 브리핑과 선물을 받았다. 마을의 농민대표를 자신의 헬기에 태워주고 미국에 초청하는 친한화 활동도 하였다. 존슨의 방문으로 마을에는 '존슨 동산'이 생기고 안용고등공민학교는 '존슨 스쿨'로 불리기도 하였다.

당시 존슨의 화성 농촌마을 방문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시 화성의 농촌마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모범부락사업의 시범마을이자 전국 최초로 '복지마을 건설'을 위한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이었다. 존슨의 화성 방문은 1960년대 한미관계의 상징적 사건이자, 화성이 당시 한국 농촌의 모범사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존슨, 모범농촌마을, 존슨동산, 존슨스쿨, 수원, 화성, 태안, 경제개발 5개년계획

ABSTRACT

A Study on US President Lyndon B. Johnson's Visit to Hwaseong Model Rural Village in 1966

Lee Sin-Jae

In 1966, President Johnson was the second US president to visit Korea. During his visit to Korea, Johnson visited a rural village in Hwaseong-gun. It was an unusual visit to rural areas for foreign lea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ree points related to Johnson's visit to Hwaseong rural village in 1966. First, it is to reconstruct the background of Johnson's visit to Korea at the time and the historical facts of his visit to Hwaseong. Second, we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Hwaseong rural villages selected as the site of President Johnson's visit. Third, it is to derive and evaluate the meaning of Johnson's visit to Korea and visit to Hwaseong at the time.

As a result of the study, Johnson visited Korea as the last schedule after visiting six Asian countries in October 1966. He visited a rural village in Hwaseong on the afternoon of November 1st. He was welcomed by a large crowd and arrived at An-yong Higher Civil School by helicopter. Afterwards, He received a briefing about rural development program and exchanged gift on the hill. He took the farmers representative on his helicopter, and he invited him to the United States. Johnson's visit created a "Johnson Hill" in the village, and An-yong High School was called "Johnson School."

At that time, Johnson's visit to the Hwaseong rural village was under the inten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obtain continued US support for the 2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the rural village of Hwaseong at that time was a pilot village of the model village project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firs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village was promoted in the country.

Johnson's visit to Hwaseong was a symbolic event of ROK-US relations in the 1960s, and it can be said to be a good example of confirming that Hwaseong was an exemplary case in rural Korea at the time.

Keywords : Johnson, Model Rural Village, Johnson Hill, Johnson School, Suwon, Hwaseong, Taeon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원왕갈비통닭의 온라인 인식 연구

김세훈*

- 1. 서론
- 2. 연구방법
- 3. 분석결과
- 4. 논의
- 5. 결론

1. 서론

수원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수원왕갈비통닭이다. 전통적으로 수원을 대표하던 음식인 수원왕갈비¹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메뉴인 치킨을 접목시킨 수원왕갈비통닭은 영화 <극한직업>의 엄청난 흥행으로 그 존재감이 급부상되었다. 수원왕갈비통닭을 맛보기 위한 수원통닭거리의 맛집 탐방은 수원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되었으며, SNS를 통한 그 리뷰와 후기는 또 다른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며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²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 박사(Doctor of Culture and Art, Dankook University), E-mail : kim39kr@naver.com, Tel : 010-5712-0693

1 이종수, 2018, 「수원향약과 왕갈비문화 스토리텔링」, 『강원문화연구』 38, 93~94쪽; 김철규, 2020, 『음식과 사회 - 사회학적으로 먹기』, 세창출판사, 103쪽.
2 정수희·이병민, 2020, 「콘텐츠 투어리즘의 구성요소와 한국형 모델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18, 235~236쪽.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지역관광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방문자의 인식과 재방문의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³ 먹방, 요리, 맛집 투어 등 음식 관련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관광 활동 중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려는 음식관광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행의 목적 또한 지역 명소 방문이나 체험보다 오히려 음식이 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⁴ 2019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객들의 주요참여활동으로 자연 및 풍경감상(74.4%)에 이어 음식관광(51.9%)은 2위를 차지하였고,⁵ 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외국인의 방한 고려요인으로 쇼핑(66.2%)에 이어 음식/미식탐방(61.3%)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⁶

최근의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은 대한민국 역대 영화 흥행 2위이자 1,6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한 영화 <극한직업>의 흥행으로 인해 널리 알려졌다. 이 점에서 흥보의 이점을 가지며, 수원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⁷ 영화의 흥행 이후 각종 예능을 통해 수원왕갈비통닭 관련 콘텐츠가 재생산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영화의 재방송은 대중의 기억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⁸ 다양한 영상매체 중 영화는 가장 대중적이며 과급력 높은 매체로 장소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영화가 제공하는 내용과 소재는 시청자로서 하여금 관광 목적지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숙성, 방문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잠재 관광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⁹ 근래 들어 드라마

3 이상미, 2010, 「음식관광의 참여활동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연구지』 10(8), 421~422쪽.

4 정규선·최성기, 2021, 「올림픽 개최지 이미지가 음식관광·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연구 - 평창올림픽 강릉특구를 중심으로 -」, 『호텔리조트연구』 20(1), 88~89쪽.

5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통계편』, 300쪽.

6 문화체육관광부, 2019, 『외래관광객조사』, 186쪽.

7 오민재·이후석, 2012, 「영화감상 전후의 관광이미지와 방문의도에 대한 비교분석」, 『관광연구저널』 26(6), 79쪽.

8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30회>(MBC TV / 2019. 3. 12.), <전지적 참견 시점: 57회>(MBC TV / 2019. 6. 22.), <슈퍼맨이 돌아왔다: 294회>(KBS 2TV / 2019. 9. 8.), <밤블레스유: 시즌2 15회>(Olive / 2020. 6. 25)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26일 tvN을 시작으로 1월 30일과 2월 12일에 OCN에서 영화가 방영되었다.

9 Hyounggon Kim, Sarah L Richardson, 2003, "Motion picture impacts on destination imag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0. No. 1. pp.216~237.

나 영화와 같은 영상 촬영 배경 장소가 관광명소로 발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영상미디어를 통한 관광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⁰ 나아가 한류 현상, 신드롬으로 인해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익 증대, 홍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점에서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트렌드와 대중의 인식을 진단함으로써 수원 대표 먹거리의 이미지 구축과 홍보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 나아가 수원 관광의 매개체로 활용함으로써 수원 경제에 기여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대중의 인식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미래기술의 원천으로 국가 및 기업의 성패는 물론, 학문과 정책 분야에서도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또한 관광·레저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와 성과가 입증된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 본 연구의 객관성과 성과를 높일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음식 관련 관광 빅데이터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익근·이태숙·전채남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중심의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진단은 관광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였다.¹² 이에 반현정·김학선은 부산지역 레스토랑의 온라인 리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이슈를 확인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요인과 만족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산지역 레스토랑 운영방식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다.¹³ 문지영·김학선·이종호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음식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현주소를 확인하였으며 음식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¹⁴ 양인하와 정순여는 소셜미디어에서 제주 음식에 관련된 이슈와 요인이 어떻게 형성되며 변화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기초데

10 이후석·이승곤·오민재, 2006, 「드라마 촬영지 관광객의 관광동기와 이미시간 관련성 연구: 대장금, 해신,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 관광객을 사례로」, 『관광학연구』 30(1), 271~293쪽.

11 박은숙·최해수, 2013, 「한류가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7(6), 57~73쪽.

12 오익근·이태숙·전채남, 20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9(10), 107~126쪽.

13 반현정·김학선, 2019, 「온라인 리뷰 분석을 통한 부산지역 레스토랑 인식에 관한 연구 2: 국문 리뷰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5(2), 185~207쪽.

14 문지영·김학선·이종호, 2020,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36(2), 135~153쪽.

이터를 도출하였다.¹⁵ 한편 박예림·강영욱·김동은·이주윤·김나연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방문 외국인의 인식을 도출하고 이에 합당한 관광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¹⁶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행동 관련 선행 연구로는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은희·안정국(2021)의 연구와,¹⁷ 제주 여행과 서울여행에 대한 중국 관광객의 인식을 비교한 도지윤·수능비·고경재·서주환의 연구,¹⁸ 관광객들의 관광 정보 탐색행동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박득희·강상훈·이계희의 연구¹⁹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SNS 및 인터넷 등 온라인에 나타난 대중의 인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관광객의 행태와 관심 및 인식을 분석하여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원 왕갈비통닭에 관한 연구는 시도한 바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매우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원 관광에 관련된 연구는 화성 콘텐츠에 과도히 치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수원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시키는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²⁰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해 온라인에 나

-
- 15 양인하·정순여, 2020, 「제주 음식관광 관련 의미연결망 분석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연구』 20(1), 85~95쪽.
- 16 박예림·강영욱·김동은·이주윤·김나연, 2019, 「플리커 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이미지 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7(1), 11~23쪽.
- 17 안은희·안정국, 2021, 「관광 빅데이터 기반의 용인시 관내 관광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4), 207~216쪽.
- 18 도지윤·수능비·고경재·서주환,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인식 및 유형 분석 - 서울·제주를 중심으로」, 『휴양및관광연구』 14(1), 49~58쪽.
- 19 박득희·강상훈·이계희, 2017,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탐색 행동의 구조적 특징 - 메르스 발생 이전과 이후 비교」, 『서울도시연구』 18(2), 145~158쪽.
- 20 김창혁·송기수·백승현·김진영, 2018, 「수원 화성 증강현실(AR) 관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8), 87~94쪽; 송화성·윤자연, 2015,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화(specialization) 개념 적용에 대한 연구 - 수원화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 『관광학연구』 39(6), 185~203쪽; 이혜미, 2019,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원화성 관광 현황 연구 : 연도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3(7), 103~115쪽; 이지훈, 2020,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교육성, 역사성, 관광성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1), 61~73쪽.

타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수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수원 관광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함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최신 기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연구의 결과는 수원 관광 정책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적 의미도 가진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통닭에 관련된 대중의 인식과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텍스트롬(TEXTOM)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 키워드는 ‘수원왕갈비통닭’으로 지정하고, 수집 기간은 수원왕갈비통닭의 관심을 촉발시킨 영화 <극한직업>의 개봉일인 2019년 1월 23일부터 본 연구의 시점인 2021년 4월 17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 채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의 블로그, 뉴스, 카페, 웹 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제를 위해 분석언어는 한국어, 분석품사는 체언으로 한정하였으며 ‘Espresso K’분석기를 활용하여 상위 10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표 1〉 분석 데이터

구분	내용	
채널	네이버	- 블로그 864건 295KB - 카페 1,001건 543KB - 뉴스 857건 360KB - 웹문서 1,500건 850KB
	다음	- 블로그 979건 520KB - 카페 300건 165KB - 뉴스 732건 256KB - 웹문서 929건 567KB
검색어	수원왕갈비통닭	
분석기간	2019. 1. 23. - 2021. 4. 17.	
분석도구	TEXTOM	
키워드	100개	

2)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N-gram 분석,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다. 빈도분석의 목적은 대중의 관심 단어 순위를 도출하기 위함이며, N-gram 분석의 목적은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단어간의 상관 정도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CONCOR 분석은 핵심 단어의 동시 출현 정도에 따라 집단을 범주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중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핵심 단어를 추출 및 정제하고, 이를 토대로 단어의 빈도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시행하였다. 빈도분석에 있어 단순 빈도를 측정하기보다는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측정하였다. 이는 여러 문서군을 분석할 때 문서 속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로, 핵심 단어의 판단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²¹ 이와 함께 단어 간의 연관성 및 동시 출현 정도, 그리고 연쇄하는 단어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N-gram 분석을 시행하였다.²² 다음으로 Ucinet-6 통계 프로그램의 NetDraw 기능을 활용하여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단어 간의 연관성에 따른 군집을 확인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3. 분석결과

1) 핵심 단어 빈도분석

수원왕갈비통닭을 검색어로 하여 추출한 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핵심 단어의 빈도와 TF-IDF를 측정하였으며, 세부 결과는 <표 2>와 같다. 빈도의 순위는 수원왕갈비통닭(9816), 영화(3379), 수원(3301), 극한직업(3254), 통닭(2487), 남

21 이은정,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크린스포츠 현황 추이 및 인식 분석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2), 19쪽.

22 정은진·장은재, 2018, 「빅데이터를 통한 2010년과 2015년의 다이어트 실태 비교 및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3(2), 130~1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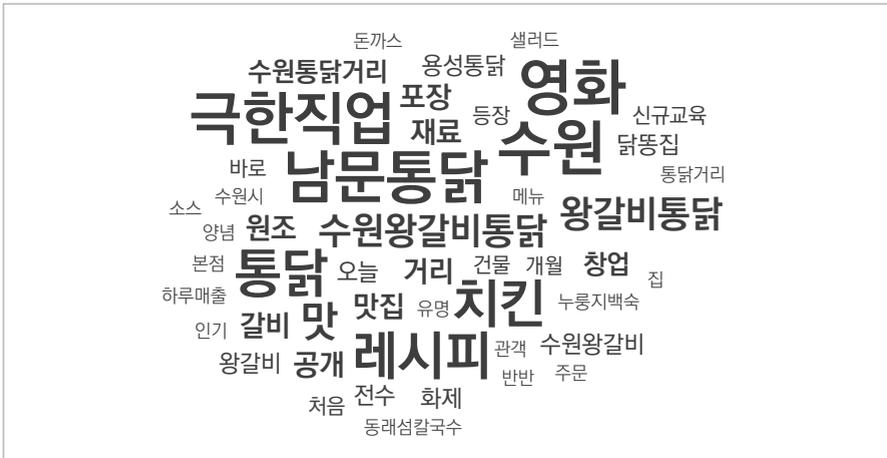
문통닭(1987), 맛(1854), 치킨(1720), 레시피(1294), 왕갈비통닭(927)순으로 나타났다. TF-IDF의 순위는 수원(4066.526), 영화(3904.242), 남문통닭(3618.81), 극한직업(3457.034), 통닭(3147.27), 맛(2902.807), 레시피(2846.915), 치킨(2763.837), 수원왕갈비통닭(2143.206), 왕갈비통닭(2082.0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TF-IDF 상위 50개 단어의 빈도와 크기를 비례하여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핵심 단어의 빈도 및 TF-IDF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	단어	TF-IDF	순위	단어	빈도	단어	TF-IDF
1	수원 왕갈비 통닭	9816	수원	4066.526	51	위치	284	유튜브 교육	910.2467
2	영화	3379	영화	3904.242	52	지금	282	위치	909.6227
3	수원	3301	남문통닭	3618.81	53	치킨집	270	치킨집	906.9033
4	극한직업	3254	극한직업	3457.034	54	흥행	264	지금	902.1744
5	통닭	2487	통닭	3147.27	55	판매	263	쇼핑	899.0973
6	남문통닭	1987	맛	2902.807	56	시작	261	판매	893.8427
7	맛	1854	레시피	2846.915	57	통닭 거리	257	청하	882.5877
8	치킨	1720	치킨	2763.837	58	생각	251	흥행	868.003
9	레시피	1294	수원왕갈비 통닭	2143.206	59	제일	249	롯데 백화점	866.1733
10	왕갈비 통닭	927	왕갈비 통닭	2082.007	60	이렇게	249	시작	850.8745
11	거리	835	거리	1987.047	61	형사	226	선택	837.4148
12	갈비	834	갈비	1793.967	62	롯데 백화점	224	생각	830.3726
13	원조	745	맛집	1791.195	63	쇼핑	224	진미통닭	829.8265
14	맛집	720	원조	1775.301	64	이것은	217	밥	827.5029
15	포장	642	재료	1670.742	65	소개	212	주차	822.9341
16	공개	554	공개	1637.004	66	먹어 봤는데	210	팔달문	822.9341
17	수원 통닭거리	542	포장	1605.342	67	한번	209	제일	819.6907
18	창업	523	수원 통닭거리	1395.532	68	추가	208	이렇게	817.6826

순위	단어	빈도	단어	TF-IDF	순위	단어	빈도	단어	TF-IDF
19	수원 왕갈비	490	창업	1393.059	69	선택	206	후추	813.7743
20	재료	487	용성통닭	1352.323	70	밥	204	찜닭	807.9363
21	왕갈비	481	수원 왕갈비	1327.904	71	마리	203	통닭 거리	806.8866
22	오늘	461	왕갈비	1303.514	72	간장 치킨	203	망포역	805.3231
23	전수	449	오늘	1258.798	73	주차	202	식용유	788.4577
24	화제	410	화제	1248.686	74	팔달문	202	과정	786.1491
25	처음	403	전수	1248.353	75	진미통닭	201	형사	775.3339
26	개월	398	처음	1245.629	76	청하	198	먹어 버려 닭발 튀김	770.3155
27	등장	395	닭똥집	1220.902	77	후추	198	주먹밥	767.9922
28	닭똥집	395	건물	1200.134	78	마음	197	짜는데	763.3448
29	신규교육	384	개월	1147.205	79	통닭 거리	195	매니저	755.617
30	바로	379	등장	1134.333	80	약간	194	이것은	748.533
31	하루 매 출	374	신규교육	1121.582	81	찜닭	193	소개	739.4799
32	돈까스	371	바로	1106.978	82	경기	192	가마솥	730.4958
33	양념	369	메뉴	1097.935	83	이제	192	마리	730.2544
34	메뉴	359	양념	1095.722	84	루소 팩토리	191	한번	726.9666
35	유명	358	하루매출	1093.42	85	망포역	191	먹어봤는데	725.3844
36	용성통닭	358	돈까스	1080.516	86	가마솥	191	추가	723.4883
37	본점	331	유명	1071.557	87	갈비양념	189	루소팩토리	715.309
38	샐러드	329	본점	1052.884	88	팝업 스토어	188	간장치킨	711.1093
39	누룽지 백숙	327	샐러드	994.7863	89	식용유	187	팝업스토어	695.8731
40	주문	311	누룽지 백숙	990.77	90	과정	186	마음	693.0687
41	동래정 칼국수	310	관객	978.4576	91	후라 이드	184	경기	690.684
42	관객	309	주문	972.8067	92	무뼈닭 발튀김	180	후라이드	686.7643
43	수원시	306	수원시	970.0528	93	음식	179	약간	686.494
44	집	305	집	956.1421	94	주먹밥	179	이제	680.4141

순위	단어	빈도	단어	TF-IDF	순위	단어	빈도	단어	TF-IDF
45	기본	301	동래정 칼국수	956.1303	95	돌파	178	갈비양념	673.7618
46	건물	299	통닭거리	954.4267	96	갈거	178	돌파	655.6319
47	인기	296	소스	950.3688	97	짬계	177	음식	652.9969
48	반반	296	인기	939.4146	98	수원맛집	175	수원맛집	644.5819
49	소스	295	반반	939.4146	99	시간	174	갈거	644.2773
50	유튜브 교육	291	기본	931.3568	100	요즘	172	방송	641.0498



〈그림 1〉 TF-IDF 상위 50개 단어의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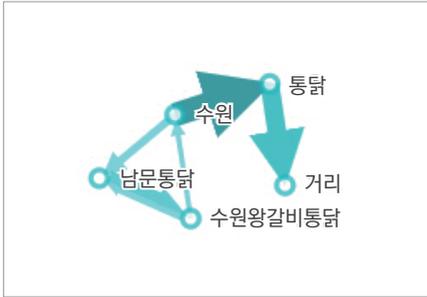
2) N-gram 분석

핵심 단어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쇄하는 단어의 구조와 방향성을 측정하는 N-gram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어 1에서 단어2의 방향으로 연결되는 N-gram 분석의 결과 ‘영화 < 1631 > 극한직업’, ‘극한직업 < 1631 > 수원왕갈비통닭’, ‘극한직업 < 939 > 수원왕갈비통닭’, ‘수원왕갈비통닭 < 922 > 레시피’, ‘수원 < 865 > 통닭’, ‘통닭 < 767 > 거리’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위까지의 N-gram 순위를 <표 3>에 제시하였고, N-gram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3〉 N-gram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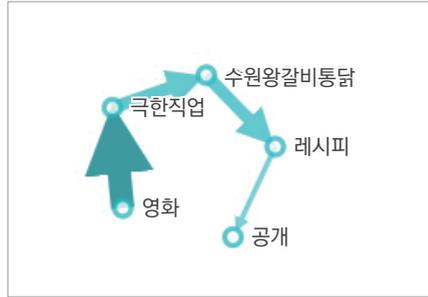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
1	영화	극한직업	1631	26	남문통닭	수원	203
2	극한직업	수원왕갈비통닭	939	27	거리	남문통닭	201
3	수원왕갈비통닭	레시피	922	28	수원	팔달문	189
4	수원	통닭	865	29	수원왕갈비통닭	포장	188
5	통닭	거리	767	30	등장	수원왕갈비통닭	186
6	남문통닭	수원왕갈비통닭	621	31	이것은	갈비	186
7	수원	남문통닭	537	32	처음	수원왕갈비통닭	183
8	수원왕갈비통닭	남문통닭	498	33	통닭거리	처음	178
9	수원왕갈비통닭	수원	479	34	팔달문	통닭거리	178
10	레시피	공개	453	35	영화	수원왕갈비통닭	177
11	수원왕갈비통닭	원조	403	36	무뼈닭발튀김	주먹밥	177
12	전수	창업	400	37	화제	맛집	176
13	창업	신규교육	384	38	지금	맛	174
14	신규교육	바로	379	39	왕갈비	통닭	142
15	바로	개월	376	40	수원왕갈비통닭	치킨	129
16	개월	하루매출	374	41	수원왕갈비통닭	영화	129
17	하루매출	돈까스	352	42	수원	통닭거리	129
18	돈까스	수원왕갈비통닭	350	43	수원통닭거리	수원왕갈비통닭	128
19	원조	누룽지백숙	327	44	치킨	맛	127
20	누룽지백숙	동래정칼국수	310	45	수원	수원왕갈비통닭	125
21	갈비	통닭	308	46	수원왕갈비통닭	수원왕갈비통닭	124
22	동래정칼국수	유튜브교육	291	47	레시피	영화	122
23	통닭	수원왕갈비통닭	252	48	극한직업	통닭	121
24	수원왕갈비	통닭	235	49	극한직업	등장	120
25	거리	수원왕갈비통닭	212	50	수원왕갈비통닭	수원통닭거리	115

〈표 4〉 주요 연쇄 단어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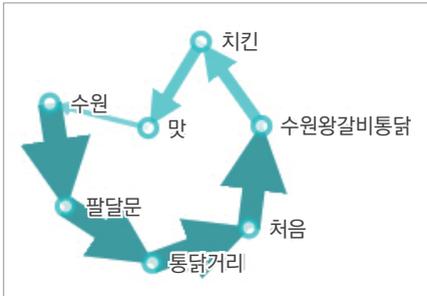
남문통닭 이슈

수원 < 537 > 남문통닭 < 498 > < 621 > 수원왕갈비통닭 < 479 > 수원 < 865 > 통닭 < 767 >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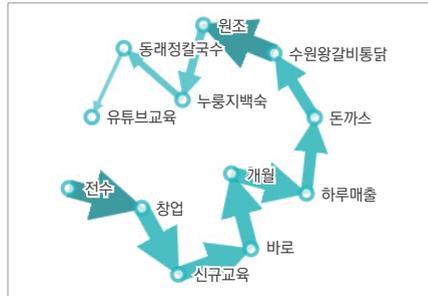
영화 '극한직업' 이슈

영화 < 1631 > 극한직업 < 939 > 수원왕갈비통닭 < 922 > 레시피 < 453 > 공개



위치 이슈

수원 < 189 > 팔달문 < 178 > 통닭거리 < 178 > 처음 < 183 > 수원왕갈비통닭 < 129 > 치킨 < 127 > 맛



창업 이슈

전수 < 400 > 창업 < 384 > 신규교육 < 379 > 바로 < 376 > 개월 < 374 > 하루매출 < 352 > 돈까스 < 350 > 수원왕갈비통닭 < 403 > 원조 < 327 > 누룽지백숙 < 310 > 동래정갈국수 < 291 > 유튜브교육

3) 네트워크 및 CONCOR 분석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매트릭스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Ucinet-6 프로그램의 Netdraw 기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과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시각화의 결과는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러드, 수원, 인기, 먹어 봤는데, 주차, 수원통닭거리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영화 <극한직업>’그룹은 극한직업, 영화, 레시피, 치킨, 흥행, 갈비, 공개, 루소팩토리, 형사, 화제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수원 전통 통닭’그룹은 수원맛집, 용성통닭, 진미통닭, 통닭거리, 팔달문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창업’그룹은 창업, 전수, 원조, 재료, 하루매출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CONCOR 분석을 통한 각각의 그룹에 대한 세부 정보는 <표 5>와 같다.

〈표 5〉 CONCOR 분석 세부 결과

구분	그룹	단어
주요 인식	수원왕갈비통닭	수원왕갈비통닭, 수원왕갈비, 통닭, 남문통닭, 샐러드, 수원, 인기, 먹어 봤는데, 주차, 수원통닭거리
	영화 <극한직업>	극한직업, 영화, 레시피, 치킨, 흥행, 갈비, 공개, 루소팩토리, 형사, 화제
주변 인식	수원 전통 통닭	수원맛집, 용성통닭, 진미통닭, 통닭거리, 팔달문
	창업	창업, 전수, 원조, 재료, 하루매출

4. 논의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원왕갈비통닭에 관련된 트렌드와 대중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핵심 단어 TF-IDF 분석결과

TF-IDF의 빈도 순위는 수원, 영화, 남문통닭, 극한직업, 통닭, 맛, 레시피, 치킨, 수원왕갈비통닭, 왕갈비통닭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해 대중은 수원이라는 지역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영화 <극한직업>이 뒤를 잇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수원왕갈비통닭을 맛볼 수 있는 남문통닭에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따라서 TF-IDF의 빈도를 통해 수원왕갈비통닭은 수원 지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원왕갈비통닭은 영

화 ‘극한직업’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다시 말해, 영화 <극한직업>의 이슈에 큰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를 통해 관심도가 크게 상승한 수원왕갈비통닭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대중은 이 메뉴를 판매하는 남문통닭 점포 방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2) N-gram 분석결과

N-gram 분석을 통해 핵심 단어의 연결과, 단어간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남문통닭 이슈, 영화 ‘극한직업’이슈, 위치 이슈, 창업 이슈 등 4가지의 주목할 만한 단어 연쇄를 확인하였다. 남문통닭 이슈는 ‘수원 → 남문통닭 ↔ 수원왕갈비통닭 → 수원 → 통닭 → 거리’등의 단어가 연쇄되고 있는데, 수원왕갈비통닭과 남문통닭은 그 의미가 서로 등치되고 있으며 수원이라는 지역적 관심과 직결될 뿐 아니라, 방문을 위한 수원통닭거리에 대한 관심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극한직업’이슈는 ‘영화 → 극한직업 → 수원왕갈비통닭 → 레시피 → 공개’순의 단어가 연쇄되며, 극한직업 영화의 인기로 촉발된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관심은 그 요리의 비법인 레시피의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치 이슈는 ‘수원 → 팔달문 → 통닭거리 → 처음 → 수원왕갈비통닭 → 치킨 → 맛’순의 단어가 연쇄로 구성된다. 이는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관심을 맛봄으로써 체험하기 위해, 수원 팔달문 인근의 통닭거리라는 구체적인 위치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준다. 창업 이슈는 ‘전수 → 창업 → 신규교육 → 바로 → 개월 → 하루매출 → 돈까스 → 수원왕갈비통닭 → 원조 → 누룽지백숙 → 동래정갈국수 → 유튜브교육’등의 단어가 연쇄되며 수원왕갈비통닭의 인기에 따라 외식업계의 창업관련 정보가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타의 이슈에 비해 창업 이슈가 가장 많은 단어로 연결되는 것은 신규 창업자를 모집하는 동일한 콘텐츠가 다량으로 반복되어 인터넷상에 게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창업 이슈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기보다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한 광고가 다량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CONCOR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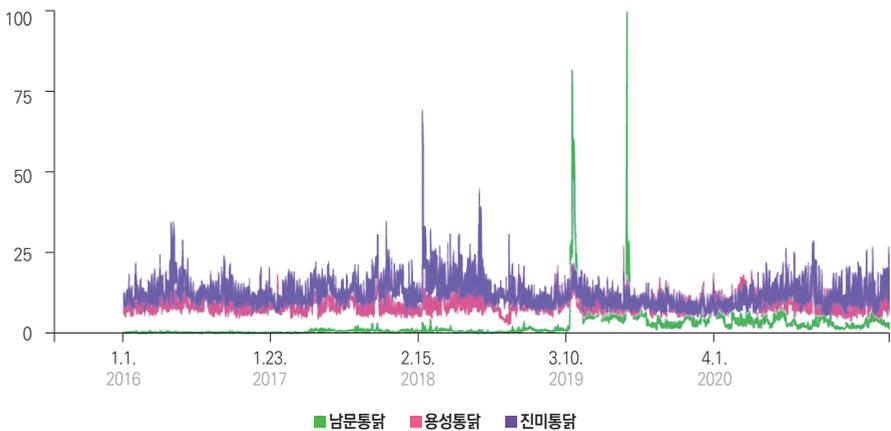
CONCOR 분석을 통해 ‘수원왕갈비통닭’과 ‘영화 <극한직업>’등 2개의 주요 인식 그룹과, ‘수원 전통 통닭’ 및 ‘창업’등 2개의 주변 인식 그룹이 발견되었다. 먼저 수원왕갈비통닭, 수원왕갈비, 통닭, 남문통닭, 샐러드, 수원, 인기, 먹어봤는데, 주차, 수원통닭거리 등의 단어로 구성된 ‘수원왕갈비통닭’ 그룹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수원왕갈비통닭이라는 요리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수원왕갈비통닭은 애당초 수원을 대표하는 요리는 아니었으나, 영화의 소재를 위해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왕갈비와 수원통닭거리를 접목시킴으로써 창조되었다.²³ 그러나 엄밀히 말해 수원왕갈비통닭은 수원통닭거리에 위치한 남문통닭에서 영화 개봉 2년 전 이미 출시된 바 있다. 물론 당시는 크게 각광 받지 못하고 2개월 만에 메뉴에서 제외되었으나, 영화의 흥행과 함께 2019년 2월 메뉴를 부활시켰고 영화 속 수원왕갈비통닭을 맛보고 싶어 하는 대중의 큰 관심으로 인해 남문통닭은 수원왕갈비통닭을 먹을 수 있는 통닭집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²⁴ 실제로 네이버 데이터랩(NAVER Datalab)의 검색어 트렌드 분석을 통해 수원통닭거리의 원조통닭집인 용성통닭, 진미통닭과 남문통닭의 검색량(2016. 1. 1.~2021. 4. 18.)을 비교한 결과 2019년 2월 및 6월의 급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용성통닭과 진미통닭이 상당수준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문통닭의 검색량이 급등한 2019년 2월은 영화 ‘극한직업’의 개봉과 함께 남문통닭에서 수원왕갈비통닭을 출시했기 때문이며 2019년 6월의 급등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원왕갈비통닭 먹방이 방영됨으로 인해 그 장소인 남문통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²⁵ 그러나 수원왕갈비통닭을 판매하는 남문통닭이 기존의

23 영화 ‘극한직업’의 각색을 담당했던 배세영 작가는 수원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며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을 접목하였다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아주 단순하게 제 작업실이 수원이다(웃음). 함께 각색에 참여한 허다중 작가랑 맨날 영화 잘되면 실컷 먹자, 했던 게 수원통닭골목의 통닭, 그 비싸다는 수원 왕갈비였다.” 「지금껏 이런 맛은 없었다’ 극한직업 찰진 말맛 만든 주인공, 『중앙일보』, 2019년 2월 12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365058>

24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 레시피… 소상공인들과 공유하겠다, 『국민일보』, 2019년 2월 10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055448>

25 MBC TV <전지적 참견시점> 57회(2019. 6. 22.)에서 가수 청하가, 채널 Olive의 <밤블레스유 시즌2> 15회(2020. 6. 25)에서 배우선수 김연경을 비롯 박나래, 송은이, 김숙 등이 남문통닭에서 수원왕갈비통닭을 먹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가마솥 통닭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용성통닭과 진미통닭에 비해 낮은 검색량을 보이는 것은 정작 수원왕갈비통닭의 맛이 그 명성과 인기에 미치지 못함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이슈로 인해 단기간에 관심이 급부상한 수원왕갈비통닭이 수원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메뉴의 맛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5〉 남문통닭, 용성통닭, 진미통닭 검색량 비교(네이버 데이터랩)

두 번째 주요인식인 ‘영화 <극한직업>’ 그룹은 극한직업, 영화, 레시피, 치킨, 흥행, 갈비, 공개, 루소팩토리, 형사, 화제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이는 수원왕갈비통닭이라는 음식 자체가 영화 ‘극한직업’의 흥행으로 인해 대중에게 알려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화의 인기가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면서 수원왕갈비통닭 레시피와 영화제작 당시의 메뉴 개발업체 등에 관련된 콘텐츠 또한 연관되어 생산된 것이다. 수원왕갈비통닭 자체가 영화의 인기로 인해 관심이 급부상하였듯이 영화 <극한직업>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의존적인 이슈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영화 <극한직업> 관련 이슈를 잘 활용한다면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원관광 산업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변인식의 첫 번째 그룹인 ‘수원 전통 통닭’은 수원맛집, 용성통닭, 진미통닭, 통닭거리, 팔달문 등의 단어로 구성된다. 앞서 ‘수원왕갈비통닭’그룹에서 살펴보았듯 남문통닭이 영화 ‘극한직업’으로 인해 관심도가 급상승하였다면, ‘수원 전통 통닭’그룹은 오랜 세월 동안 팔달문 인근에 위치한 수원통닭거리라는 지역의 명소에서 용성통닭과 진미통닭을 비롯한 수원을 대표하는 통닭 맛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관심이 수원 지역의 대표 맛집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됨으로 인해 맛집 리뷰어에 의한 전통의 통닭거리 관련 이슈가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수원왕갈비통닭으로 인해 수원통닭거리라는 지역의 전통 맛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확대되고, 관광 활성화의 촉매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기(好期)를 선용할 지혜가 요구된다.²⁶

두 번째 주변인식은 ‘창업’그룹으로 창업, 전수, 원조, 재료, 하루매출 등의 단어로 구성된다. 이는 앞서 N-gram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중의 관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해 창업자를 모집하는 광고성 콘텐츠가 다량으로 생산되어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원왕갈비통닭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확산되는 것이 대중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원 대표 먹거리를 체험하기 위해 음식관광 목적의 수원 방문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4) 종합 분석결과

이상의 3가지 분석결과 수원이라는 지역 이슈와 수원왕갈비통닭이라는 먹거리 및 영화 <극한직업> 이슈는 공통적으로 대중의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아가 N-gram 분석을 통해서도 수원왕갈비통닭 메뉴의 원조가 남문통닭이라는 점과 수원왕갈비통닭의 인기에 따른 외식업계의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가 다량으로 양산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CONCOR 분석에서는 전통적

26 수원시의회에서 2019년 10월 발행한 「수원 관광 활성화 연구」에서도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에 수원왕갈비와 수원통닭거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원왕갈비통닭 관련 언급은 전혀 없는바, 수원왕갈비통닭은 아직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수원시의회, 2019, 「수원 관광 활성화 연구」, 76쪽.

로 수원을 대표하는 통닭 메뉴가 남문통닭의 수원왕갈비통닭 메뉴보다는 용성통닭과 진미통닭의 가마솥 통닭 메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화 <극한직업>을 통해 관심이 급부상한 수원왕갈비통닭에 관련된 트렌드와 대중의 인식을 진단하여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의 이미지 구축과 홍보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 나아가 수원 관광의 매개체로 활용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텍스트톰(TEXTOM)을 활용하여 '수원왕갈비통닭' 키워드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핵심 단어의 빈도와 TF-IDF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다음으로 연속하는 단어 사이의 연관성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N-gram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어간의 연결성에 의한 군집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Ucinet-6 프로그램의 NetDraw 기능을 통해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IDF의 빈도 순위는 수원, 영화, 남문통닭, 극한직업, 통닭, 맛, 레시피, 치킨, 수원왕갈비통닭, 왕갈비통닭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의 관심은 수원이라는 지역과, 영화 <극한직업>, 그리고 실제 수원왕갈비통닭을 맛볼 수 있는 남문통닭에 향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N-gram 분석 결과 남문통닭 이슈, 영화 <극한직업> 이슈, 위치 이슈, 창업 이슈 등 4가지 주요 단어 연쇄가 나타났다. 이는 수원왕갈비통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곧 남문통닭이라는 인식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수원왕갈비통닭과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킨 영화 <극한직업>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거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대중은 직접 수원왕갈비통닭을 맛보기 위해 위치 정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창업 모집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CONCOR 분석을 통해 '수원왕갈비통닭'과 '영화 <극한직업>' 등 2개의 주요 인식 그룹과, '수원 전통 통닭' 및 '창업' 등 2개의 주변 인식 그룹 등 총 4개의 그룹이 발견되었다. '수원왕갈비통닭'과 '영화 <극한직업>'이라는 주요인식을

통해서는 수원왕갈비통닭이라는 요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곧 남문통닭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수원왕갈비통닭이 영화의 흥행과 함께 대중에게 부각되었듯, 영화 <극한직업> 이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2가지 주변 인식, 즉 ‘수원 전통 통닭’ 및 ‘창업’ 이슈는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수원 전통의 가마솥 통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창업 홍보를 통해 전국적 프랜차이즈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지역 이미지는 물론 방문 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민·관의 유기적 협력하 수원왕갈비통닭의 홍보와 방문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겠다. 둘째, 대중매체에 의한 콘텐츠는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이며, 특히 영화 <극한직업>의 흥행이라는 호기를 획득한 만큼, 각종 예능은 물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데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수원왕갈비통닭의 지역대표 먹거리 입지 구축은 물론,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왕갈비통닭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을 정립하여 콘텐츠로 제작함은 물론, 지역 브랜드로써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에 수원이라는 지역과 수원왕갈비, 그리고 수원왕갈비통닭과 수원 통닭거리는 물론 영화 <극한직업> 등의 이슈가 자연스럽게도 긴밀하게 연상될 수 있도록 연관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원통닭거리의 접근성, 즉 주차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게시된 다수의 수원통닭거리 방문 후기에서 주차난을 언급하고 있다. 수원통닭거리는 통닭골목으로 불릴 만큼 길이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재래시장의 쇠퇴 원인은 물론, 관광지 방문 의도와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주차 문제인 만큼,²⁷ 지자체 차원에서 주차의 용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영화 <극한직업>의 사례와 같이

27 이재영·권혁찬, 2010, 「전통시장의 주차장공급이 구매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3(5), 78쪽; 전재균·김동진, 2021, 「IPA기법을 통한 현여울문화마을의 관광활성화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23(1), 453쪽.

향후에도 수원 관련 영화 및 드라마 등 방송에 대한 로케이션과 자료 제공에 있어 적극적 유치, 협조하여 수원과 홍보에 선용(善用)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수원의 대표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차례도 학문적으로 접근한 바 없는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의 추세를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최신의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최초로 확인한 유용한 연구였다. 이를 통해 수원 관광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최신 기법을 통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영화 <극한직업>으로 인해 관심과 인기가 급부상한 수원왕갈비통닭을 통한 수원관광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실무적 의의 또한 가진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텍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대중의 견해는 연구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와 설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참고문헌

- 김창혁 · 송기수 · 백승현 · 김진영, 2018, 「수원 화성 증강현실(AR) 관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8), 87~94쪽.
- 김철규, 2020, 『음식과 사회 - 사회학적으로 먹기』, 세창출판사.
- 도지윤 · 수능비 · 고경재 · 서주환,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인식 및 유형 분석 - 서울 · 제주를 중심으로」, 『휴양및경관연구』 14(1), 49~58쪽.
- 문지영 · 김학선 · 이종호, 2020,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36(2), 135~153쪽.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통계편』.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외래관광객조사』.
- 박득희 · 강상훈 · 이계희, 2017,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탐색 행동의 구조적 특징 = 메르스 발생 이전과 이후 비교」, 『서울도시연구』 18(2), 145~158쪽.
- 박예림 · 강영옥 · 김동은 · 이주윤 · 김나연, 2019, 「플리커 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이미지 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7(1), 11~23쪽.
- 박은숙 · 최해수, 2013, 「한류가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7(6), 57~73쪽.
- 반현정 · 김학선, 2019, 「온라인 리뷰 분석을 통한 부산지역 레스토랑 인식에 관한 연구 2: 국문 리뷰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5(2), 185~207쪽.
- 송화성 · 윤자연, 2015,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화(specialization) 개념 적용에 대한 연구 -수원 화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9(6), 185~203쪽.
- 양인하 · 정순여, 2020, 「제주 음식관광 관련 의미연결망 분석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연구』 20(1), 85~95쪽.
- 수원시의회, 2019, 『수원 관광 활성화 연구』.
- 안은희 · 안정국, 2021, 「관광 빅데이터 기반의 용인시 관내 관광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4), 207~216쪽.
- 오민재 · 이후석, 2012, 「영화감상 전후의 관광이미지와 방문의도에 대한 비교분석」, 『관광연구저널』 26(6), 79~95쪽.
- 오익근 · 이태숙 · 전채남, 20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

- 학연구』 39(10), 107~126쪽.
- 이종수, 2018, 「수원향약과 왕갈비문화 스토리텔링」, 『강원문화연구』 38, 85~107쪽.
- 이지훈, 2020,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교육성, 역사성, 관광성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1), 61~73쪽.
- 이상미, 2010, 「음식관광의 참여활동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연구지』 10(8), 417~425쪽.
- 이은정,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크린스포츠 현황 추이 및 인식 분석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2), 17~32쪽.
- 이재영 · 권혁찬, 2010, 「전통시장의 주차장공급이 구매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3(5), 77~92쪽.
- 이혜미, 2019,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원화성 관광 현황 연구 : 연도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3(7), 103~115쪽.
- 이후석 · 이승곤 · 오민재, 2006, 「드라마 촬영지 관광객의 관광동기와 이미지간 관련성 연구: 대장금, 해신,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 관광객을 사례로」, 『관광학연구』 30(1), 271~293쪽.
- 전재균 · 김동진, 2021, 「IPA기법을 통한 현여울문화마을의 관광활성화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23(1), 445~458쪽.
- 정규선 · 최성기, 2021, 「올림픽 개최지 이미지가 음식관광 ·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연구 - 평창올림픽 강릉특구를 중심으로 -」, 『호텔리조트연구』 20(1), 85~105쪽.
- 정수희 · 이병민, 2020, 「콘텐츠 투어리즘의 구성요소와 한국형 모델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18, 209~249쪽.
- 정은진 · 장은재, 2018, 「빅데이터를 통한 2010년과 2015년의 다이어트 실태 비교 및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3(2), 128~136쪽.
- 「지금껏 이런 맛은 없었다' 극한직업 찰진 말맛 만든 주인공」, 『중앙일보』, 2019년 2월 12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365058>).
-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 레시피... 소상공인들과 공유하겠다」, 『국민일보』, 2019년 2월 10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055448>).
- Hyounggon Kim, Sarah L Richardson, 2003, "Motion picture impacts on destination imag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1), pp.216~237.

요 약

수원왕갈비통닭은 전통의 수원왕갈비 양념에 수원통닭거리의 치킨을 접목한 음식으로, 영화 <극한직업>의 흥행과 함께 수원 대표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원왕갈비통닭에 관련된 트렌드와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여, 수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핵심 단어의 TF-IDF 분석, N-gram 분석, 그리고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TF-IDF 분석을 통해 대중의 관심은 수원 및 영화 <극한직업>, 그리고 실제 수원왕갈비통닭을 맛볼 수 있는 남문통닭에 향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N-gram 분석을 통해 남문통닭 이슈, 영화 <극한직업> 이슈, 위치 이슈, 창업 이슈 등 4가지 주요 단어 연쇄를 확인하였다. CONCOR 분석을 통해서는 '수원왕갈비통닭'과 영화 <극한직업> 등 2개의 주요 인식 그룹과, '수원 전통 통닭' 및 '창업' 등 2개의 주변 인식 그룹 등 총 4개의 그룹을 도출하였으며,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곧 남문통닭으로 직결되며, 영화 <극한직업> 이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전통의 수원통닭거리 가마솥 통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창업 홍보를 통한 전국적 프랜차이즈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통닭에 대한 트렌드와 인식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최신의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최초로 확인한 유용한 연구였다. 이를 통해 수원 관광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최신 기법을 통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학술적 의의와 함께 수원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실무적 의의 또한 가진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텍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대중의 견해는 연구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와 설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빅데이터, 수원왕갈비통닭, 극한직업, 수원왕갈비, 수원통닭거리, 남문통닭

ABSTRACT

A Study on the Online Perception of Suwon Wang Galbi Chicken Using Big Data Analysis

Kim, Sae-Hoon

Suwon Wanggalbi Chicken is a food that combines Suwon Chicken Street's chicken with the traditional Suwon Wanggalbi seasoning, and is emerging as Suwon's signature food with the success of the movie 'Extreme Job.'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and public perceptions related to Suwon Wanggalbi Chicken through big data analysis, and to present measures to revitalize Suwon tourism. For this purpose, TF-IDF analysis of key words, N-gram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big data text mining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TF-IDF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ublic's interest is in Suwon, the movie Extreme Job, and Nammun Tongdak where you can actually taste Suwon Wanggalbi Chicken. N-gram analysis also identified four major word chains: the Nammun Tongdak Issue, the movie 'Extreme Job' Issue, Location Issue, and Start-up Issue. CONCOR analysis shows that two major recognition groups, Suwon Wanggalbi Chicken and Movie 'Extreme Job,' and two neighboring recognition groups, Suwon Traditional Chicken and Start-up, are directly linked to the Nammun Tongdak. Along with this, the public's interest in Suwon Wanggalbi Chicken is expanding to traditional 'cauldron Chicken' in Suwon Chicken Street, and nationwide franchise marketing is actively promoted through start-up promotion.

This study was the first useful study to identify trends and perceptions of Suwon Wanggalbi Chicken through the latest scientific analysis method called big data analysis. Through this, it is also practical to expand the horizons of research

on tourism in Suwon and seek ways to revitalize tourism in Suwon, along with academic significance that reliable results were produced through the latest techniques of big data analysis. However, public opinion, which is passive in writing social networks and Internet text, has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reflect in research. Therefore, the follow-up study should be more concrete through direct interviews, questionnaires and field surveys.

Key Words : Big Data, Suwon Wang Galbi Chicken, Extreme Job, Suwon Wang Galbi, Suwon Chicken Street, Nammun Chicken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가구의 특성 분석 :

- 수원시 타지주택 소유 전세가구를 중심으로

김리영*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주택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필수적인 재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한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4.8%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주택소유의지에 비해 낮은 주택실소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련하여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자기 집이 있는 가구는 56.3%로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의지는 79.1%에 달하지만, 실제로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50%대에 불과해 주택 소유의지 수준과 자가 거주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

*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 of Urban Planning, Goyang Research Institute), E-mail : kimlee@gyri.re.kr, Tel: 031-8073-8374

1 조영현·전희정, 2019, 「주택실소유와 주택소유의지에 따른 주거환경만족도 및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53(3), 133~147쪽.

수원시에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2019년 기준 54%로 전국 평균 56.3%와 경기도 평균 55.9%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기집 이외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전월세로 거주하지만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축적은 매우 미흡하다.

점유형태의 선택이나 주택소유 의식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택소유 자체에 대한 의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² 청년층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낮은 이유가 청년들의 인식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지만, 청년기는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고 직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 못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주택구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처럼 가구의 주택소비 조절 과정을 주거이동이라고 하며, 이는 소득이나 가구 원수 등과 같은 가구요인과 주택시장의 여건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주택을 선택하고 주거이동이 결정된다. 주거의 조절이나 주거 선택과 같은 주거이동은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한다.³ 생애주기와 주거선택 간의 관련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생애주기는 한 인간이 미혼에서부터 결혼하여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가 해체되는 단계적 과정을 의미하며, 주거이동상 생애주기는 특수한 가구구성을 제외한 일반적인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⁴ 그리고 생애주기별 자가율 변화 행태를 분석한 연구 등 점유형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점유형태별 가구의 특성차이를 다룬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

2 최막중·강민욱, 2012,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주택연구』 20(2), 33-48쪽.

3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4 Waddell, P. 1993, "Exogenous Workplace Choice in Residential Location Models: Is the Assumption Valid in a Multinodal Metropolis?", *Geographical Analysis*, 25(1), pp.65-82.

5 Diaz-Serrano, L., 2005,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Income Uncertainty and Home Ownership",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4, pp.109-126.

택소유와 관련한 연구는 주택실소유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만족도 간의 관계나 영향을 다루는 연구와 주택실소유자가 아닌 임차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다.⁶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현재 점유형태와 타지주택 소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관련하여 주택소유와 거주 불일치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강은택·마강래⁷와 최막중·강민욱⁸의 연구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영향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가구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원시 주거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가구는 수원시 전체가구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하여 주택소유와 거주 불일치하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의 축적은 매우 미흡하며, 특히 주택시장은 하위시장별 특성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수원시에 주택 및 주거정책에 대한 함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특성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달리 임차가구유형을 전세가구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임차가구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전세가구는 자가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점유형태는 전세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주택보유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유형의 구분은 첫째, 타지주택소유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 둘째, 타지주택을 소유한 전세거주 가구와 셋째,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각 그룹에 속한 가구 간의 특성차이와 이들의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 분석하였다.

연구의 수행절차는 주거선택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집단 간의 차이와 집단 간의 선택확률을 분석해 집단 간 가구특성요인의 차이와 가구특성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로

6 조영현·전희정, 2019, 「주택실소유와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주거환경만족도 및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53(3), 133~147쪽.

7 강은택·마강래, 2009,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1), 5~22쪽.

8 최막중·강민욱, 2012,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주택연구』 20(2), 33~48쪽.

한정하며, 수원시민의 점유형태와 주택소유 구분을 종합하여 각각의 집단 간 차이와 선택확률을 분석하였다. 가구특성 요인의 선정은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력 이외, 생애주기단계, 주거비부담 수준,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점유형태나 소유 구분에 따른 각각의 유형 선택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분석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 기준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생애주기와 점유형태

주거이동은 가구의 주택소비를 조절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득수준, 가구원수와 가족구성 등 가구요인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여건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주택에 대한 소비 조절이 필요하게 되고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일반적인 가구의 주거이동은 생애주기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주거이동과 생애주기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고, 주거이동상 생애주기는 특수한 가구구성을 제외한 일반적인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가족생애주기 단계의 구분은 가구주 연령, 자녀 연령, 혼인상태나 학업단계, 가족의 규모변화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가구의 연령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생애주기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변화하며, 가구소득이 점유형태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점유형태변화를 설명한 연구들 중에서 생애주기 초기의 청년가구들은 소득이나 재산의 형성이 미약해 자기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50세 이상 생애주

9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240쪽.

10 정희수·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9쪽.

기 후기 가구의 주택소유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생애주기 후기의 노인가구의 경우도 70세 이전의 연령대까지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는 소득이나 건강상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¹

주거이동은 가구의 주택소비를 조절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소득수준, 가구원수와 가족구성 등 가구요인과 주택시장여건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택에 대한 소비의 조절이 필요하게 되면서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같이 일반적인 가구의 주거이동은 생애주기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주거이동과 생애주기간의 관련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생애주기는 한 인간이 미혼에서부터 결혼하여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가 해체되는 단계적 과정을 의미한다. 생애주기 단계구분의 기준은 가구주의 연령, 자녀의 연령, 혼인상태 및 학업단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유형, 부모의 경제력, 가족의 규모변화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구주 연령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¹²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와 점유형태간의 관계는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자가율이 변화하게 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은 취업이 되더라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장이동과 같은 주거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애주기 초기 가구는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차로 거주하게 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장이나 소득이 안정되고 자녀의 출산 등 가구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거안정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 경우, 전세나 월세보다는 자가로 거주하면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된다.

노년기가 되면서 자녀의 출가나 배우자의 사망 등 가족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택의 규모나 유형 등 주택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점유형태에서는 자가를 유지하거나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¹³

11 Viola Angelini, Agar Brugiavini and Guglielmo Weber, 2012, "The Dynamics of Homeownership Among the 50+ in Europe",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CEPR.

12 정희수·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9쪽;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240쪽; 박천규·이수욱·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 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60, 171~187쪽.

13 Viola Angelini, Agar Brugiavini and Guglielmo Weber, 2012, "The Dynamics of Homeownership Among the 50+ in Europe",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CEPR.

주택을 선택하는 데에, 생애주기보다 가구소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구가 점유형태를 선택하는 데 생애주기보다는 소득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⁴

가구의 생애주기와 점유형태변화를 설명한 연구들 중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불확실성이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¹⁵도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가구의 소득이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 초기의 젊은 가구주나, 가족해체기 노인가구들의 자가주택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의 점유형태나 주택선택이 차이를 보이며 생애주기가 주택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청년층이나 노인가구의 경우 장년층 가구에 비해 경제수준 또는 주택가격 변화와 같은 주택시장의 여건뿐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도 주거선택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 초기의 젊은 가구주나, 가족해체기 노인가구들의 자가주택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생애주기와 주택소비와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로는 정희수·권혁일,¹⁶ 정연,¹⁷ 박천규·이수욱·손경환¹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정환¹⁹은 연령과 1인당 주거면적, 매매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과 매매가격, 1인당 주거면적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으로 나타났다. 정희수·권혁일²⁰의 연구는 생애주기를 연령으로 구분하여 주택규모와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가족이 수축기에 접어들면 대형주택보다는 소형주택, 자가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소비 욕구는 선진국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

14 Doling, J., 1976, "The family life-cycle and housing choice", *Urban Studies*, 13, pp.55~58; Gober, P., 1992, *Urban housing dem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 pp.171~189.

15 Diaz-Serrano, L., 2005,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Income Uncertainty and Home Ownership",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4, pp.109~126.

16 정희수·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5~25쪽.

17 정연진, 2008, 「가족(세대주)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수요, 공급 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32(1), 31~48쪽.

18 박천규·이수욱·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 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60, 171~187쪽.

19 김정환, 1999,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및 주택가격」, 『대한부동산학회지』 17, 69~84쪽.

20 정희수·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5~25쪽.

나며, 가족 수축기에 진입해서도 더 크고 더 비싼 집을 원하고 자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30대는 소득과 자산에 제약이 있지만, 자가 및 임차거주에 대한 득실을 따져 점유형태를 결정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주택구매에 참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50대의 경우는 자산을 축적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60대는 소득변화에 따라 주택점유형태를 변화하는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와 임대료 상승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설명된다.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의 점유형태나 주택선택이 차이를 보이며 생애주기가 주택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변화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청년시기나 노인가구들의 경우에는 중장년층 가구에 비해서 경제력, 또는 주택가격 변화 등과 같은 주택시장 여건, 외부 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도 선택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 특성

구분	가구 특성과 주거선택	
20~30대 (제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과 출산 - 취업 등으로 소득 증가 - 전세나 월세로 거주 : 자가 < 전세 < 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형성 및 확대(첫아이 출산 및 연령 10세 미만의 자녀) - 취업 및 가구소득 증가,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 거주
40대 (제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집 마련가구 증가 - 소득 증가와 내 집 마련 - 전월세보다 자가 비중 증가 : 자가 > 전세 > 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안정기, 가구원수 증가 - 가구소득 계속 증가 - 주택구입 가구 증가
50대 (제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교체 - 은퇴준비, 소득감소 - 전월세 감소와 자가 증가 : 자가 > 전세 > 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출가 시작, 가족규모 축소 - 은퇴에 따른 주택 규모 축소 -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할 필요성 축소(자가 소유 욕구 지속)
60대 이상 (제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면적 감소 - 소득 감소 - 전월세 감소와 자가 증가 : 자가 > 전세 > 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축소 및 해체 -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자산 재조정 - 자가주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가율 증가

출처 :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박천규·이수욱·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 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60, 171~187쪽; 김리영, 2013, 「시기별 자가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생애주기 특성 연구」, 『국토계획』 48(2), 341~356쪽 내용을 종합

2) 점유형태 선택

점유형태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점유형태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천규 외,²¹ 강은택·마강래²² 등은 로짓모형과 같은 확률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가구특성별 점유형태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을 결합한 연구가 있다. 이 경우도 주로 다항로짓모형과 같은 확률선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여윤경·윤지영,²³ 이충기·이주석²⁴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외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변화와 주거입지 변화를 결합한 연구로 중에서, 김준형·최막중²⁵은 임차가구의 점유형태 변화와 주거입지 변화를 결합하여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이 얼마만큼 임차가구의 점유형태변화를 제약하는지, 주거입지 변화를 초래하는 지를 설명하였다. 강은택·마강래²⁶는 점유형태뿐만이 아니라 가구의 보유형태를 구분하여 가구특성에 따라 주택의 점유 및 보유형태의 선택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김리영²⁷의 연구는 점유형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세가구의 자가전환이 이루어지는 가구의 특성과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확률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김리영·김성연²⁸은 점유형태 변화 유형별 가구 특성 간 차이를 검정한 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여 점유형태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세가구의 생애주기별 추이 분석은 전세가구의 연령별 자가전환률을 추정하여 점유형태 전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21 박천규·이수옥·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 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60, 171~187쪽.

22 강은택·마강래, 2009,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1), 5~22쪽.

23 여윤경·윤지영, 2003, 「소비자의 주택 점유형태 선택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205~220쪽.

24 이충기·이주석, 2008, 「주거환경이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경제학연구』 56(3), 55~73쪽.

25 김준형·최막중, 2009, 「지역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4(4), 109~118쪽.

26 강은택·마강래, 2009,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1), 5~22쪽.

27 김리영, 2013, 「시기별 자가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생애주기 특성 연구」, 『국토계획』 48(2), 341~356쪽.

28 김리영·김성연, 2014,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요인과 생애주기별 자가선택 확률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1호.

점유형태와 주거부담을 함께 다룬 연구 중에서 점유형태별 주거부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거특성이나 경제적 특성, 가구 특성 등의 요인에 따라 어떤 차이와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대체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 주거환경이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특성의 영향이 존재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주택의 유형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주택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주택의 보유형태를 구분한 연구는 강은택·마강래,²⁹ 최막중·강민욱,³⁰ 조영현·전희정³¹의 연구가 있다. 강은택·마강래,³² 최막중·강민욱은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라는 주제로 이들 가구의 특성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서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하는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과 같은 경제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강은택 외³³의 연구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하는 반면, 최막중 외³⁴의 연구결과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실거주와 소유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는 주택에 대한 소비 수요와 투자수요의 관점에서 소유와 거주의 분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였다. 박종훈 외³⁵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하는 것은 투기적 수요와 소비적 수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경영·전희정³⁶은 주택실소유와 주택소유의지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29 강은택·마강래, 2009,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1), 5~22쪽.

30 최막중·강민욱, 2012,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주택연구』 20(2), 33~48쪽.

31 조영현·전희정, 2019, 「주택실소유와 주택소유의지에 따른 주거환경만족도 및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53(3), 133~147쪽.

32 강은택·마강래, 2009,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1), 5~22쪽.

33 강은택·마강래, 2009,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1), 5~22쪽.

34 최막중·강민욱, 2012,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주택연구』 20(2), 33~48쪽.

35 박종훈·박종찬·이성우, 2018, 「소유주택과 점유주택의 불일치 현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1), 19~31쪽.

36 이경영·전희정, 2018, 「점유형태별 주거비 부담능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3(4), 143~161쪽.

도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는 주택소유 여부와 만족도 수준을 고려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주거형태 등의 요인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가구 특성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그룹별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주거환경만족도는 주택소유의지의 유무나 실제 주택소유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택소유의지가 있는 집단은 주택 본연의 기능이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주택소유의지가 없는 집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다른 요인들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점유형태별 가구 특성 차이를 다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선택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점유형태 결정에 대한 가구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가구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미시적 가구특성 변수를 결정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는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특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졌지만, 주택보유와 점유형태의 차이 또는 주택소유와 거주 불일치를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의 축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소득을 비롯한 가구 특성에 대한 해석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소유와 거주 분리 가구 특성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수원을 포함하여 광역이나 기초 등 지역단위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며, 동일한 점유형태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전세가구인지 그렇지 않고 소유한 주택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인지, 또는 주택소유의 관점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주택을 소유했지만 거주하는 형태가 임차가구인지와 같은 주택의 점유형태와 소유를 고려한 연구의 축적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주택의 소유와 점유형태를 구분하여 가구의 특성의 차이와 유사점을 파악하고 수원시 주거정책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표 2〉 점유형태 관련 선행연구 종합

연구자	종속변수 (선택대안)	독립변수	분석모형	분석자료
정희수·권혁일 (2003)	주택구입	연령, 소득, 학력, 직업, 지역더미 등	로지분석	주택금융수요 실태조사자료
여윤경·윤지영 (2003)	점유형태	성별, 나이, 취업, 가구원수,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저축, 자산, 부채, 주택유형, 방수 등	다항로지스틱	한국가구 패널조사
김정수·이주형 (2004)	주택유형, 점유형태	나이, 학력, 직업, 가구원수, 항상소득, 자산 등	다항로지스틱	가구소비 실태조사
이상일·이창무 (2006)	점유형태	소득, 자산, 임대료, 가구원수, 결혼, 가구주 직업, 주택규모, 지역특성 등	이항로지	가구소비 실태조사
김준형·최막중 (2009)	주거이동, 점유형태	연령, 학력, 자녀, 소득, 자산, 지역주택가격 등	로지 (이항, 다항)	한국노동패널
강은택·마강래 (2009)	보유형태, 점유형태	성별, 나이, 교육수준, 이용교통수단, 통근소요시간, 직업, 혼인상태, 가구형태, 가구원수, 거주기간, 방수, 연면적 등	다항로지	인구주택 총조사
이주형 외 (2009)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주나이, 가구주학력, 노인가구원수, 고교자녀, 총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경제특성, 거주지역 등	다항로지스틱	노동패널자료
최막중·강민욱 (2012)	보유형태, 점유형태	연령, 학력, 소득, 자산, 주택가격 차이 등	이항로지	노동패널자료
김리영 (2013)	점유형태 변화	연령, 가구원수, 소득, 직업 등	이항로지	주거실태조사
박미선 (2013)	점유형태	연령, 교육수준, 결혼, 직업, 가구형태, 통근수단, 주거이동, 방수, 주택유형, 건축년도 등	다항로지	인구주택 총조사
김리영·김성연 (2014)	점유형태 (자가전환 확률)	주택유형,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소득, 직업 등	이항로지	주거실태조사
이경영·전희정 (2018)	점유형태별 주거부담	주택유형, 연령, 학력, 가구소득, 대출금, 거주지역 등	다중회귀분석	주거실태조사

3. 실증분석

1) 분석 개요

확률선택모형은 도시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개별 의사결정 주체의 주거입지의 선택, 교통수단의 선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주택의 점유형태, 또는 유형 선택과 같이 종속변수가 이분형인 경우의 선택대안을 다룰 때는 이분형 로짓모형을, 그리고 종속변수가 세개 이상인 경우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범주가 명목척도 이면서 확률 선택적 유형($\beta_0 = 0, \beta_1 = 1$)을 가지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이 경우 독립변수 X_i 가 있을 때 종속변수 값이 0이 아닌 1이 되기 위한 확률(P_i)은 누적확률 밀도함수로 비선형 형태의 회귀식으로 추정된다.

$$P_i = F(\beta_0 + \beta_1 X_i)$$

$$P_i = \frac{1}{1 + e^{-(\beta_0 + \beta_1 X_i)}}$$

β 값의 추정은 일반 회귀분석 추정방법인 최소자승법이 아닌 최대로그우도비를 이용하게 되며, 다음과 같다.

$$\log[L((\beta_0, \beta_1); Data)] = \sum_{i=1}^n Y_i (\beta_0 + \beta_1 X_i) - \sum_{i=1}^n \log[1 + e^{(\beta_0 + \beta_1 X_i)}]$$

연구에서는 점유형태의 유형(자가, 전세)과 타지주택 소유 여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대안별 확률을 분석하도록 한다. 점유형태의 유형으로 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할 수 있지만, 월세로 타지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고, 전세가구는 월

세가구에 비해 자가로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계층으로 과거에는 임차가구로 전월세를 함께 분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세가구를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점유형태와 타지주택보유 여부를 고려한 유형은 <표 3>과 같다.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타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가구(A1)와 타지보유주택 없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A0), 그리고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로 타지주택을 소유한 가구(B1)와 타지 주택소유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B0), 그리고 타지보유주택 없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A0)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로 타지주택을 소유한 가구(B1) 간의 선택확률을 분석하여 이들 유형 간의 차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표 3> 점유형태와 타지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구분

구분		점유형태	
		자가	전세
타지주택	보유	A1	B1
	없음	A0	B0

2) 분석 자료와 변수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토부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분석하는데 제한이 된다. 따라서 수원시 주거실태 조사 자료는 수원시민의 주거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 자료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기타 패널조사, 사회조사 등이 이루어지지만, 시민들의 주거실태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원시 주거실태 조사 자료는 수원시민의 주거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분석에 활용할 변수를 선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측면, 그리고 유사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정하였다. 우선 생애주기별 특성을 대표하는 연령을 변수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생애주기 단계별로 점유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앞서 살펴본 생애주기 단계별 점

유형대는 청년층의 경우 자가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년, 중년, 노인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생애주기와 관련한 연구 중에서 정희수·권혁일³⁷은 생애주기와 관련한 연구를 토대로 비선형임을 가정하였으며, 김경환³⁸과 김리영³⁹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자가 선택 확률이 비선형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청년층은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서는 정하고 있는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수원시 청년층의 연령을 39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노인층은 65세 이상의 인구로 중년층은 청년층과 노인층을 제외한 연령대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가구의 특성으로 성별과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그리고 교육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력을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대졸이상의 고학력층 여부를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가구의 특성이외에 가구의 경제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상용직 여부, 가구의 총소득과 자력으로 자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고소득층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유형과 주택면적을 포함하였으며, 가구의 주거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판단에 의한 대출상환부담수준과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대비 상환대출금을 추가하였다. 이는 동일하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 동일한 점유형태로 거주하더라도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전세가구와 소유한 주택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37 정희수·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5~25쪽.

38 김경환, 1999,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및 주택가격」, 『대한부동산학회지』 17, 69~84쪽

39 김리영, 2013, 「시기별 자가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생애주기 특성 연구」, 『 국토계획』 48(2), 341~356쪽.

〈표 4〉 변수 요약

구분	내용	단위
점유형태와 주택소유 여부	자가 타지주택 보유 (A1) 자가 타지주택 없음 (A0) 전세 타지주택 보유 (B1) 전세 타지주택 없음 (B0)	
가구원수	가구원 총 인원	명
연령	청년: ~39세	청년=1 아니면, 0
	중년: 40~64세	중년=1 아니면, 0
	노인: 65세~	노인=1 아니면, 0
직업	상용직	상용직=1 아니면, 0
교육수준	대졸여부	1: 대졸이상, 0: 고졸이하
주택유형	아파트 여부	아파트=1 아니면, 0
주택면적	전용면적 기준	m ²
소득	가구총소득	만원
대출금액	상환해야 하는 총금액	만원
소득대비 대출금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총액 ÷ 총소득	-
상환부담	주거비부담 여부(매우 부담+부담)	부담 =1, 아니면 0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 만족 여부(매우 만족+만족)	만족 =1, 아니면 0

3) 집단 간의 차이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은 보유한 주택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와 달리 가구원 수나 중년 이상 가구주 비율이 더 높고, 대출금액이 더 많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부적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 항목은 가구원수와 중년비율, 유배우자 비율,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비율, 거주주택 면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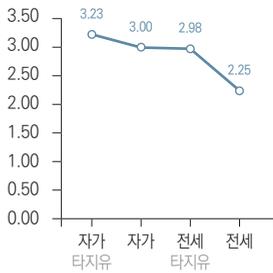
아파트거주 비율이 전세거주에 비해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타지주택소유 전세거주가 자가로 거주하는 거주에 비해 전세거주거주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 항목은 노인거주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타지주택소유 전세거주는 자가거주거주와 전세거주와 달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고소득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더 많은 특성을 보였다. 자가거주거주나 전세거주에 비해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수준이 높아 주거비 부담수준도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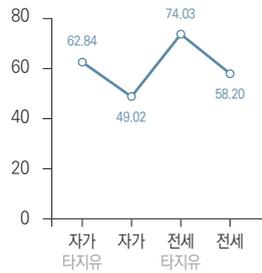
■ 가구주연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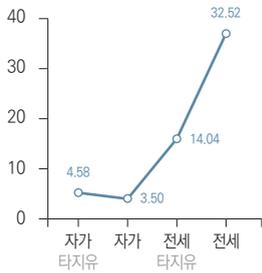
■ 가구원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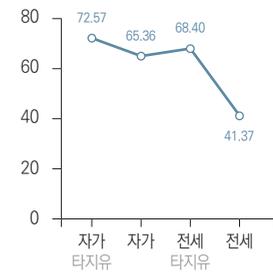
■ 대졸 이상(%)



■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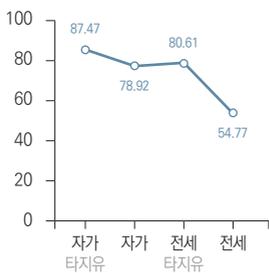
■ 중년(%)



■ 상용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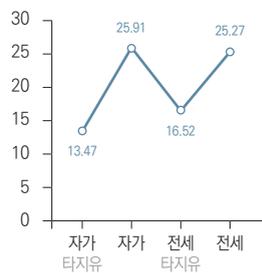
■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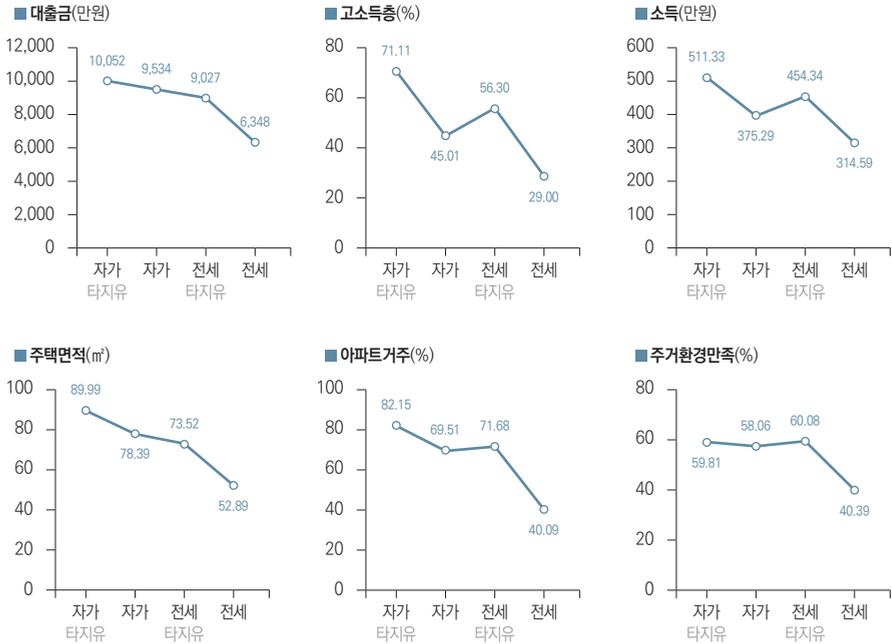


■ ltd



■ 주거비부담여부(%)





〈그림 1〉 집단 간 가구특성 비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와 자가거주가구의 유사한 점과 차이가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와 자가거주가구 간에 유사한 점은 평균가구원수가 각각 2.98명과 3명으로 근소하게 자가거주가구의 가구원수가 높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중에서 거주면적이 각각 전용면적 기준 73.5㎡와 78.4㎡로 자가가구가 근소하게 넓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라는 점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금액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9,000만 원 정도로 자가거주가구 9,5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47.9세로 자가거주가구 55세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비율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가 14%로 자가거주가구 3.5%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중년층

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가 68.4%, 자가거주가가구는 65.4%로 자가거주가가구의 중년층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가가구는 자가거주가가구가 23.7%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는 7.3%로 중년층 이하 연령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가구주의 성별에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의 87.9%가 남성으로 자가거주가가구 80.4%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외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 역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는 74%를 기록한 반면, 자가거주가가구는 49%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의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의 소득이나 상용근로자 비율의 경우,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의 소득수준이 자가거주가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평균 120만 원가량 더 높고, 상용근로자 비율도 약 17%p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비율 역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는 56%로 자가거주가가구 45%에 비해 11%p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상환부담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구입대출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주거비 지출 부담을 느끼는 가구비율은 자가거주가가구는 25.9%, 반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는 1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대비 대출금액의 수준을 살펴보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는 월소득의 21배 수준이지만, 자가거주가가구는 28.5배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와 자가거주가가구는 가구원수나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나 면적, 대출금의 규모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가구의 학력과 연령, 소득과 대출금의 이자를 포함한 주거비부담 수준 등 경제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연령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가 47.9세로 전세거주가가구 43.7세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생애주기 단계별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 비율에서 차이가 있으며,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의 청년층 비율은 14%로 전세거주가가구 청년층 비율은 32.5%로 전세거주가가구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년층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는 68.4%, 전세거주가가구는 41.4%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의 중년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노인가가구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가 7.3% 전세거주가가구는 8.7%로 근소하게 나타났다.

가구특성 중에서 가구원수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구가 2.98명으로 전세거주가가구 2.25명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비율도 90.6%와 54.8%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의 유배우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고학력 층 역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가 74%인 반면 전세거주가구는 58.2%로 낮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과 면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가 거주하는 평균주택규모는 73.5㎡, 전세거주가구는 52.9㎡로 전세거주 가구의 주택규모가 작으며, 거주하는 주택이 아파트인 비율은 71.7%와 40.1%로 30%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의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가구비중은 타 지주택소유 전세가구 67.3%와 전세거주가구 65.2%로 유사하지만, 이외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소득수준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가 전 세거주가구에 비해 월평균 140만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상 위 20%) 비중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56%로 절반 이상인 반면, 전세거주가구는 29%로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금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가 9,000 만 원 수준으로 전세가구 6,400만 원에 비해 2,000만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차이로 LTD소득대비 대출금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대출금이 총소득의 21배, 전세가구는 20배로 근소하게 나타났다. 실제 상환부담 에 대한 인식에서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 중에서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16.5%인 반면, 전세거주가구는 25.3%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여부 역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의 주 거환경에 만족을 느끼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자가거주가구 58%, 전세거주가구 40%에 비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가 구이더라도 타지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가구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실제거주하는 가구와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전세가구는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와 가구원수와 중년 비율, 유배우자 비율, 거주주택의 면적과 아파트거주 비율이 자가거주가구와 유사 한 특성이 있지만,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와 전세가구와 달리 고 소득층의 비율이 더 많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더 많은 특성을 보였다. 그 리고 주거환경의 만족도나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자가거주가구나 전세 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특성을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집단 간의 차이 검정

구분	자가 거주		전세 거주		F (x^2)	유의수준
	타지주택 有	無	타지주택 有	無		
가구주연령	53.67	54.99	47.86	43.73	F=13143.77	0.000
가구원수	3.23	3.00	2.98	2.25	F=7951.37	0.000
주택면적	89.99	78.39	73.52	52.89	F=18982.55	0.000
대출금	10,052	9,534	9,027	6,348	F=817.78	0.000
ltd	23.79	28.45	21.27	20.10	F=664.45	0.000
소득	511.33	375.29	454.34	314.59	F=5957.35	0.000
청년	4.58%	3.50%	14.04%	32.52%	$x^2=46635.25$	0.000
중년	72.57%	65.36%	68.40%	41.37%	$x^2=15015.92$	0.000
노인가구	17.10%	23.68%	7.26%	8.67%	$x^2=9054.65$	0.000
유배우자	87.47%	78.92%	80.61%	54.77%	$x^2=19484.28$	0.000
상용근로자	54.87%	50.07%	67.33%	65.19%	$x^2=5731.26$	0.000
아파트거주	82.15%	69.51%	71.68%	40.09%	$x^2=25044.96$	0.000
대출이상	62.84%	49.02%	74.03%	58.20%	$x^2=5931.88$	0.000
고소득층비율	71.11%	45.01%	56.30%	29.00%	$x^2=17249.38$	0.000
주거비부담	13.47%	25.91%	16.52%	25.27%	$x^2=2963.85$	0.000
주거환경만족	59.81%	58.06%	60.08%	40.39%	$x^2=7128.07$	0.000

4) 선택확률 분석결과

집단을 자가(타지주택소유 여부), 전세(타지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1주택자로 타지주택 소유 전세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선택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분석결과

구분	자가_타지有 = 1 자가_타지無 = 0			전세_타지有 = 1 전세_타지無 = 0			전세_타지有 = 1 자가_타지無 = 0		
	B	p	Exp(B)	B	p	Exp(B)	B	p	Exp(B)
상수항	-4.561	.000	.010	2.733	.000	15.373	-1.348	.000	.260
가구주연령	.028	.000	1.028	.040	.000	1.041	.104	.000	1.110
가구원수	-.086	.000	.918	.005	.829	1.005	.215	.000	1.239
주택면적	.011	.000	1.012	-.002	.022	.998	.004	.000	1.004

구분	자가_타지有 = 1 자가_타지無 = 0			전세_타지有 = 1 전세_타지無 = 0			전세_타지有 = 1 자가_타지無 = 0		
	B	p	Exp(B)	B	p	Exp(B)	B	p	Exp(B)
소득	.000	.000	1.000	.000	.278	1.000	.000	.389	1.000
청년가구	1.980	.000	7.243	.477	.000	1.611	-.683	.000	.505
중년층	.346	.000	1.414	-1.366	.000	.255	-.575	.000	.563
배우자	-.451	.000	.637	.032	.668	1.032	-.837	.000	.433
상용근로자	.055	.012	1.056	-.566	.000	.568	-.150	.001	.860
아파트	.679	.000	1.972	-.096	.097	.909	.482	.000	1.620
대출이상	-.284	.000	.753	-.917	.000	.400	-.750	.000	.472
고소득층	1.087	.000	2.965	-1.015	.000	.362	-.434	.000	.648
소득대비대출금	-.003	.000	.997	-.024	.000	.976	.013	.000	1.013
주거비부담	-.409	.000	.664	.779	.000	2.178	.409	.000	1.506
주거만족	-.571	.000	.565	-.384	.000	.681	-.248	.000	.780
-2 로그 우도	71,353			18,779			28,538		
Cox & Snell R^2	.078			.136			.061		
Nagelkerke R^2	.135			.220			.180		
분류 %	85.1			82.9			94.8		

우선, 자가거주가구 중 타지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유형간 확률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지주택을 보유한 자가거주가구와 자가거주가구 간 확률 분석결과,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구원수와 배우자 여부, 대출이상, 소득대비 대출금, 주거비 부담과 주거만족은 타지주택을 소유한 자가일 확률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지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자가거주자는 타지에 보유한 주택 없이 자가로 거주하는 자가거주가구에 비해 가구원수가 더 많을 확률이 더 높고, 대출이상의 고학력자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대비 대출금의 비율도 더 낮을 확률이 높다. 또한 다주택 자가거주 가구는 타지주택 소유 없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주거만족도가 더 높을 확률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비부담은 다주택 자가거주 가구에 비해 자가거주가구는 1.5배 정도 더 크며,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다주택 자가거주가구가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종합해 보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고소득층일 확률이 높고, 주거비부담이 덜하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한 집단으로 현재 점유형태가 차이가 있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거주 가구와 타지 주택소유 없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 간의 확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와 자가거주가구 간 특성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유의수준 10% 이내) 요인은 소득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모든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유의수준 1%이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가구특성 요인은 가구원수, 배우자 여부, 상용근로자 여부, 대졸 이상 학력, 성별, 청년가구 여부, 중년층 여부, 그리고 경제적 특성 중에서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고소득층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구주가 상용근로자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출금 상환부담과 소득대비대출금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면적은 유의수준 10%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거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소득을 제외한 분석에 활용한 요인들 모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요인 중에서 상용근로자여부, 배우자, 대졸이상 학력, 청년층여부와 중년층여부, 고소득층 여부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거구에 비해 상용근로자일 확률이 더 높으며, 배우자가 있을 확률이 자가거주거구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자가거주가구보다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일 확률이 높고,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거구에 비해 청년층과 중년층일 확률, 그리고 고소득층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요 요인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로 거주할 확률은 청년가구일수록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일 확률은 1.2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 확률은 2.1배, 중년층일 확률은 1.8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출상환부담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에 비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느끼는 대출상환부담이 클 확률이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

에 비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느끼는 대출상환부담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직장과 가구의 총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되어 대출상환부담에 대해서도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에 비해 자가거주가구가 더 부담을 느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나 전세거주가구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자가가구에 비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구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 간의 선택확률 분석결과 가구원수와 소득, 배우자 유무, 아파트 거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수준 10%이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가구주 연령이나 청년가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청년가구일수록 타지주택을 보유한 전세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거주주택의 특성과 관련한 주택면적, 그리고 가구특성요인 중에서 대출이상확률, 중년층 여부와 경제적 측면의 요인으로 고소득층 여부와 소득대비 대출금 비율 등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가구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 간의 선택확률은 주택면적이 넓을수록 타지주택을 소유한 전세일 확률이 더 높으며, 가구특성요인으로 고학력일수록, 중년층일수록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일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전세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고소득층일 확률이 더 높고, 소득대비 주거부담 수준이 더 낮으며, 주거의 만족도가 더 높을 확률이 높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전세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다주택 자가거주지는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고소득층 비율이 높고,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소득대비 대출금 비율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유형의 가구들에 비해 더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나 전세가구에 비해 주거비부담수준이 더 낮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다. 실제 소득대비 대출금의 비율 역시 자가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가구원수 규모나 거주주택의 환경 측면에서 면적이나 유형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가구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낮고, 대졸이상의 고등 교육자 비율이 높으며, 주거에 대한 만족도와 대출에 대한 부담은 낮게 나타났다. 즉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나 일반적인 전세 거주에 비해 주거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동일한 점유형태라 하더라도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가구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일하게 주택을 소유한 가구라 하더라도 현재의 점유형태가 다른 가구들 간에는 어떤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자가로 거주하면서 타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거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지주택소유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지주택 소유 없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타지 주택을 소유한 가구보다 대출금이 높지만,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수준이 더 낮은 특성을 보인다. 반면 소유한 주택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타지주택을 소유하거나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대출금이 낮지만 소득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하게 전세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대출금이 전세거주 가구에 비해 높지만, 소득이 더 높다는 점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더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도 타지주택을 소유한 자가점유가구는 주거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 항목은 가구원수와 중년비율, 유배우자 비율, 가구의 성별이 남성일 비율, 거주주택의 면적과 아파트거주 비율이 전세가구

에 비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반면,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가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전세거주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 항목은 노인가구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와 전세가구와 달리 고소득층의 비율이 더 많고,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더 많은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주거환경의 만족도나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자가거주가구나 전세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특성을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선택확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타지주택소유 전세거주가구와 타지 주택소유 없이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인 가구간의 확률 분석결과, 가구 특성요인 중에서 상용근로자여부, 배우자, 대졸이상 학력, 청년층여부와 중년층여부, 고소득층 여부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에 비해 상용근로자일 확률이 더 높으며, 배우자가 있을 확률이 자가거주가구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자가거주구보다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일 확률이 높고,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에 비해 청년층과 중년층일 확률, 그리고 고소득층일 확률이 더 높음을 위미한다. 주거부담과 관련하여 대출상환부담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에 비해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느끼는 대출상환부담을 느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직장과 가구의 총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되어 대출상환부담에 대해서도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에 비해 자가거주가가 더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자가거주가구나 전세거주가구에 비해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더 높다. 다음으로 전세가구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간의 선택확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청년가구일수록 타지주택을 보유한 전세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확률이 더 높다. 이외 특성으로 전세가구와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간의 선택확률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주택면적이 넓을수록 타지주택을 소유한 전세일 확률이 더 높으며, 가구특성요인으로 배우자가 있고, 고학력일수록, 중년층일수록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일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전세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고소득층일 확률이 더 높고, 소득대비 주거부담 수준이 더 낮으며, 주거의 만족도가 더 높을 확률이 높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만

족도는 타지주택소유 전세가구는 전세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4배가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거주하는 점유형태가 전세라 하더라도 타지에 내 집을 소유한 전세거주 가구는 고소득층, 또는 고학력층 비율이 높은 계층이라는 특성을 보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전세로 거주하는 타지주택소유 가구는 실거주 자가 가구들에 비해서도 소득과 주거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덜한 가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최막중·강민욱(2012)의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소유와 거주와 분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내 수원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들은 타지주택을 소유하고 전세로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화율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연평균 2%, 수원은 1.5%가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연구와 본 연구결과 간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주택하위시장 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수원시에 거주하는 타지 주택 보유 전세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와 점유형태 결정에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소유와 거주와 불일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실거주와 투자적 목적을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연구결과는 현재의 점유형태가 임차가구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투자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문항에서는 가구의 주거변화, 타지 소유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주택소유와 거주와 불일치에 대한 설명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수원시의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원시민들의 주거선택과 변화를 설명하고, 수원시 주택소유와 점유 불일치가 투자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꾸준히 수원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원시민의 주거 변화의 양상과 특성 변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술적인 기여 이외에도 시민들의 주거하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등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2017년의 주거실태조사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사항목에 대한 보완과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서는 주거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원시민들의 주거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주거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수원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주거실태 조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주거정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참고문헌

- 강은택·마강래, 2009,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1), 5~22쪽.
- 김경환, 1999,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및 주택가격」, 『대한부동산학회지』 17, 69~84쪽.
- 김리영, 2013, 「시기별 자가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생애주기 특성 연구」, 『국토계획』 48(2), 341~356쪽.
- 김리영·김성연, 2014,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요인과 생애주기별 자가선택 확률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1호.
- 김순귀·정동빈·박영술, 2008,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정수·이주형, 2004,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1), 191~204쪽.
- 김준형·최막중, 2009, 「지역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4(4), 109~118쪽.
- 문태헌·정윤영·정경석, 2008, 「주택유형 선택요인 분석 및 선택확률에 관한 연구-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3(2), 87~98쪽.
- 박미선, 2013,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26(3), 291~314쪽.
- 박종훈·박종찬·이성우, 2018, 「소유주택과 점유주택의 불일치 현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1), 19~31쪽.
- 박천규·이수욱·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 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60, 171~187쪽.
- 안준기·유지호·류한울·민영길, 2007, 「한국의 주택 소유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공공정책연구』 23(2), 61~73쪽.
- 여윤경·윤지영, 2003, 「소비자의 주택 점유형태 선택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205~220쪽.
- 오정일·이병채, 2006, 「우리나라 가구유형과 주택소유의 결합선택에 관한 다항로짓분석」, 『국토계획』 41(1), 185~194쪽.
- 유완·김인하·김영국, 1992, 「가구특성에 의한 주택선택방법」, 『국토계획』 27(4), 27~36쪽.
- 이충기·이주석, 2008, 「주거환경이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다항로

- 짓모형을 활용하여, 『경제학연구』 56(3), 55~73쪽.
- 이채성, 2007, 「가구주 특성에 따른 주택점유형태차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2), 119~127쪽.
- 정연진, 2008, 「가족(세대주)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수요, 공급 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2(1), 31~48쪽.
- 정의철, 2002, 「도시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선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0(1), 5~31쪽.
- 정희수 · 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5~25쪽.
- 조영현 · 전희정, 2019, 「주택실소유와 주택소유의지에 따른 주거환경만족도 및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53(3), 133~147쪽.
- 진홍철 · 강동우 · 이성우, 2010, 「수도권 자가점유 및 점유성향의 변화 특성」, 『국토연구』 66, 73~91쪽.
- 최막중 · 임영진, 2001,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택유형 수요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6), 69~81쪽.
- 최막중 · 강민욱, 2012,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주택연구』 20(2), 33~48쪽.
-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 Cook, D. et al., 2000, *Binary Respons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owa State University.
- Diaz-Serrano, L., 2005,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Income Uncertainty and Home Ownership",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4, pp.109~126.
- Doling, J., 1976, "The family life-cycle and housing choice", *Urban Studies*, 13, pp.55~58.
- Gober, P., 1992, *Urban housing dem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 pp.171~189.
- Jonas D. M. Fisher & Martin Gervais, 2011, "Why Has Home Ownership Fallen Among The Young?",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2(3), pp.883~912.
- Krishnan, V. and Krotki, K.J. 1993, "Life cycle effects on home-ownership in Canada", *Housing Studies*, 8(2), pp.120~127.
- Viola Angelini, Agar Brugiavini and Guglielmo Weber, 2012, "The Dynamics of Homeownership Among the 50+ in Europe",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CEPR.

Struyk, Raymond J and Sue Marshall, 1974,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Home Ownership", *Urban Studies*, 2, pp.289~299.

Waddell, P. 1993, "Exogenous Workplace Choice in Residential Location Models: Is the Assumption Valid in a Multinodal Metropolis?", *Geographical Analysis*, 25(1), pp.65~82.

요 약

주택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필수적인 재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한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4.8%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 집이 있는 가구는 56.3%로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원시의 경우,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2019년 기준 54%로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수원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유와 실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의 축적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동일한 점유 형태라 하더라도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가구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거주하는 점유형태가 전세라 하더라도 타지에 내 집을 소유한 전세거주 가구는 고소득층, 또는 고학력층 비율이 높은 계층이라는 특성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전세로 거주하는 타지주택소유 가구는 실거주 자가 가구들에 비해서도 소득과 주거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고 주거비 부담이 덜한 가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소유와 거주 분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수원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소유와 거주 불일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타지주택은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실거주 주택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 거주하는 투자와 실거주가 분리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주거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연구결과는 현재의 점유형태가 임차가구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음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가구의 주거변화나 직장 변동, 그리고 타지 소유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주택소유와 거주 불일치

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꾸준하게 수원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상기한 내용이 조사에 반영된다면, 수원시민의 주거 변화의 양상과 특성 변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술적인 기여 이외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등 다양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주택 보유형태, 주택 점유형태, 타지주택 소유,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만족도

ABSTRACT

Analysi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by Housing Ownership and Occupancy Type in Suwon City

Kim, Lee-Young

Housing is an essential commodity. Most people hope to have my own home to secure a stable home. Korea's housing supply rate stood at 104.8% in 2019. However, households with their own homes. Households that own a home can be classified as households that live on a rental basis and own a home in another regions. In housing policy, the criteria for support are set based on the type of occupation of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households that live on lease but own homes in other areas. However, there is a insufficient of research on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households living in their own homes and households that live on rent but own homes in other areas.

Therefore,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households that own a house and households that own a house that do not own a house on a rental ba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mong Suwon citizens, households who live in a jeonse and own a house in another area showed higher Income level and housing satisfaction than those who live in their own house or those who live in a jeonse and do not own a hou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proposed for housing policies in Suwon: This means that even households living on lease are not eligible for housing policy support for households that own homes. Therefore, home ownership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supporting housing policy.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housing surveys should be conducted regularly to confirm housing changes and housing needs of Suwon citizens.

Keywords : housing ownership, housing occupancy type, housing cost burden, residential satisfaction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특성분석 및 정책방향*

김숙희** / 임혜진***

1. 서론
2. 선행연구
3.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4.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행태분석
5.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인식특성 분석
6. 결론 및 향후과제

1. 서론

도시규모의 성장,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자동차 수요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의 교통정책을 통해 승용차 이외의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동편의성으로 인하여 First&Last Mile 전용 교통수단의 역할로 각광받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가¹하는 추세에서 안전사고도 함께 급증²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발생

* 본 연구는 SRI-기본-2020-04 「수원시 개인형이동수단 이용행태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kheek@suwon.re.kr, Tel : 031-220-8037)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Research, Suwon Research Institute)

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안하여 자전거 등 친환경적이면서 남과 부딪히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³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규격 신설, 이용기준, 도로이용방법, 범칙금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용수요가 증가한다면 교통사고 등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원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분석,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하여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만족도, 관련 인프라 및 제도의 필요도를 이용경험 유무로 구분하여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주행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1)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1)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개인이 이동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여 주체별 시각이 다양하며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추세로

-
- 1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 추이(한국교통연구원) : (2016년) 6만 대 → (2017년) 7만 5,000대 → (2022년) 21만 대 예상
 - 2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추이(도로교통공단) : (2017년) 117건 → (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추이(도로교통공단) : (2017년) 3건 → (2018년) 5건 → (2019년) 19건
 - 3 신희철, 2020,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월간교통』 vol 268, 한국교통연구원, 31~37쪽.

좁은 의미로는 1~2인승 개인이동기기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의 사례와 수원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역할을 바탕으로 정의하여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외발 전동휠 등 1인이 탑승 가능한 이동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1〉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구분	내용
일본국토교통성 (2012)	선진기술을 이용한 입식 전동 이륜차나 시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2인이 타는 소형 전동콘센트카 등을 포함하는 개념
전황수(2013) ⁴	근거리 및 중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개인용이동수단을 통칭하며, 소형 전기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이동수단
IRS Global (2015) ⁵	스마트한전자제어 장치가 탑재되어 별도의 수동조작 없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세밀하게 주행할 수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
도로교통공단 (2015)	1~2인이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용 이용기기
지우석·박경철 (2016) ⁶	기존 내연기관 방식을 탈피한 구동방식을 사용하고 1~2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 총칭
박종준(2017) ⁷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의미

(2) 개인형 이동장치 특징

신희철 외⁸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징을 휴대성, 이동성, 친환경, 차세대 이동수단, 레저의 성격으로 총 5개로 구분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4 전황수, 2013, 「퍼스널 모빌리티 기대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도로교통공단, 2016,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

6 지우석·박경철, 2016,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경기연구원, 1~27쪽.

7 박종준, 2017,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23, 77~106쪽.

8 신희철·이재용·김사리, 2016, 「개인용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수시 연구 16-11, 1~115쪽.

첫째, 휴대성이 좋다.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며, 다른 교통수단에 휴대하여 탑승하기 편리하며 작은 크기로 주차난 걱정 없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이동성이 좋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약 10~2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중·단거리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Last Mile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친환경적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크다

넷째, 차세대 이동수단이다. 이동이 어려운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보행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저의 성격이 강해 공원 주변에서는 레저용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세그웨이를 활용한 관광상품도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개인형 이동장치 특징

구분	내용
휴대성	- 크기 및 무게가 소형화, 경량화 되어 휴대가 용이 -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휴대 및 보관이 편리
이동성	- 약 10~20km/h의 속도로 중·단거리 이동에 편리 - Last Mile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상
친환경	-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큼 - 중·단거리 자가용 이용자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 저감 효과 기대
차세대 이동수단	-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적합 - 노약자 및 개인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
레저의 성격	- 레저용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전동휠 대여가 활성화 - 해외의 경우 세그웨이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 존재

2) 문헌고찰

(1) 관련 법·제도 및 주행환경

김재영⁹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정의 규정 마련, 이용 가능한 도로,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소비자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우석 외¹⁰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자전거도로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실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했다. 인터뷰 결과 공통적인 의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아 노면상태에 매우 민감하여 노면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자전거·보행자와의 갈등 예방을 위해 도로안 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도로 기초정비 방안, 자전거도로 유형별 정비방안, 경기도 신도시 자전거도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실험

신희철 외¹¹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다른 이동수단 간 충돌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간 충돌에 의한 상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면, 측면, 후방 충돌실험을 통해 상해 정도를 분석했으며 안전모 착용 전후 충돌 상해 정도를 비교하여 안전모가 충

9 김재영, 2017,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1~94쪽.

10 지우석·박경철·윤정은, 2018,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1~81쪽.

11 신희철·정경옥·이재용·박성용·김사리·양수정,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사업(전동킥보드 충돌 시뮬레이션)」, 한국교통연구원, 1~230쪽.

돌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도통행 금지 방안, 충격흡수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필요, 완충장치가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충돌 시 운전자의 상해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범진 외¹²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안전성 평가지표로 무게중심변화, 주행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3종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무게중심변화의 움직임으로 평가한 무게중심변화와 주행안전지수 모두 휠체어가 가장 안전하고 킥보드가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좌식 탑승의 형태가 입식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김규현¹³은 퍼스널모빌리티(1월, 2월)가 자전거 도로 또는 보행자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도로 이용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충돌해석을 통한 인체상해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보행자 도로의 경우, PM이 보행자에 정면 또는 측면 충돌시 PM보다 보행자의 복합상해가능성이 2~3배 높게 나타났고, PM과 자전거 또는 보행자 간의 충돌시 PM 운전자와 자전거 탑승자의 머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충돌 후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심한 머리 상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M 충돌 사고시 자전거도로보다 보행자도로에서 도로 이용자의 복합상해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정 외¹⁴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심각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순서형 확률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도로 및 환경적 요인은 5월, 14시, 21시, 23시, 도로가 젖은 상태, 사고발생장소가 교차로인 경우 사고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PM 대 차량, 상대차량이 자전거, 운전자

12 박범진·노창균·김지수, 2018, 「퍼스널모빌리티 주행안전성 평가지표 연구」, 「한국ITS학회논문집」 17(5), 1~13쪽.

13 김규현, 2020,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 「한국자동차학회지」 12(1), 6~14쪽.

14 한다정·김흥철·지민경, 2020, 「PM(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의 심각도 요인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38(3), 232~247쪽.

가 40~50대인 경우 사고 심각도가 높았고, PM 단독사고의 경우, 사고장소가 기타 장소(교차로, 단일로, 교량, 터널, 주차장 제외)인 경우 사고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희동 외¹⁵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행정 요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구축하여 안전정책을 제시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하위수준의 변수인 차로폭과 경사도는 사고발생과 음(-)의 관계로, 보도폭과 생활인구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 상위수준의 변수인 사업체 수는 사고 발생과 양(+),의 관계로, 버스정류장 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위의 개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확률 추정모형은 향후 사고발생 확률 예측 및 사고 취약 구간 선정 등에 활용을 제언하였다.

한상연 외¹⁶는 최근 3년간 발생한 PM사고 1,603건과 자전거 사고 14,672건을 수집하여 PM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상세 분석을 위해 제1당사자, 제2당사자로 구분하여 도로 등급별, 도로 유형별, 기상 상태별, 사고 유형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PM 사고는 2019년에 전년 대비 사고 발생은 129%, 사망자는 200%이상 증가하였으며, PM 교통사고 중 보행자와 사고 비율이 자전거 사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PM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고, PM 사망사고 20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명확히 분석하였다. PM 사망사고는 차량 단독사고가 50%이며, 단독사고 10건 중 7건이 야간에 발생하는 것을 통해 도로의 파임 또는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로 인하여 전도 또는 전복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분석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및 주행환경, 개인형 이동장치 실험, 교통사고를 다룬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제도 및 주행환경 관련

15 한희동·이은학·김동규, 2021,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발생 확률추정」,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제84회, 32~34쪽.

16 한상연·이철기·윤일수·윤여일·나재필, 2021, 「PM(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 특성 및 사망사고 발생 요인 분석」, 『한국ITS학회논문지』 20(1), 100~118쪽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주행환경(자전거도로 정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실험 관련 연구는 충돌시물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검증, 평가지표를 도출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 연구는 상해가능성, 환경·행정적 요인에 따른 영향, 유형별 사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유무에 따른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설문조사와 T-test 분석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 만족도, 필요제도에 대해 분석 및 파악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해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관련 법·제도

(1)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 처벌, 어린이 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처벌 등이 강화되었다.

〈표 3〉 개정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구분	(개정 前) 도로교통법	(개정 後) 도로교통법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X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X	○ (벌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전금지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X	○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 탑승금지	X	○ (벌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	○
처벌	X	○ (운전자 벌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구분	(개정 前) 도로교통법	(개정 後) 도로교통법
등화장치 작동	○	○
처벌	X	○ (범칙금 1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	○
처벌	X	○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 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 원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범칙금 3만 원	범칙금 3만 원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상위차로 통해)	범칙금 1만 원	범칙금 1만 원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가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 개인형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¹⁷⁾

국토교통부가 국무총리주재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0년 8월 20일)에서 개인형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동으로 '개인형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표 4>와 같다.

17 국토교통부, 2020년 8월 20일, 「개인형 이동수단(PM)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표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률 제정 추진과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진행 -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교육 실시 -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하여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 -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 예정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기준(안) 연내 마련 및 자전거 도로 설계에 반영 - 비거차식(dock-less)¹⁸으로 운영되는 공유 PM 으로 인한 보도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문제완화를 위해 PM 관리 강화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하며 대여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화와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하여 고시해야함 - 광역알뜰교통카드¹⁹와 PM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할인혜택 부여 - 광역전철 등에 PM의 탑재도 허용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 추진
PM 이용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 예정 - KC 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 불가 -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 중 불편한 내용(도로 상에 방치된 PM, 관련 시설 훼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4) 국외사례

(1)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이용 방법²⁰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허용 여부에 대해 총 11개국(대한민국 포함)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가별 이용 주행 허가 공간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차도주행을 허가하는 국가는 6개국으로 미국(캘리포니아 등),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제한적으로 주행이 허용되는 미국(뉴욕, 오리건 등), 네덜란드, 독일, 일본이 있다.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허용되는 국가는 9개국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네덜란드, 스

18 비거차식(dock-less) :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시스템.

19 광역알뜰교통카드 : 대중교통 이용 시 보험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20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 중간보고」 재구성.

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대한민국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본, 싱가포르가 있다. 보도 주행이 가능한 국가는 7개국으로 미국(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호주가 있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미국(뉴욕),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가 있고 사유지 내 주행은 모든 국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이용 방법-국외사례

국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허용 여부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사유지
미국	캘리포니아, 뉴저지	○	○	○	○
	뉴욕, 메사추세츠	△	○	△	○
	오리건, 워싱턴	△	○	○	○
	네덜란드	△	○	△	○
	스위스	○	○	△	○
	호주	X	○	○	○
	오스트리아	○	○	X	○
	독일	△	○	X	○
	일본	△	△	△	○
	싱가포르	X	△	△	○
	프랑스	X	X	△	○
	영국	X	X	X	○
	대한민국	X	○	X	○

비고 : ○ - 주행허용, △ - 제한적 주행 허용, X - 주행금지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²¹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에 대해 국외(총 6개국)사례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도로이용 방법과 동일하게 국가별 상이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한속도의 경우 25~40km/h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고, 운전 연령의 경우 독일 및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16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전장구의 경우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 안전모 착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1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 중간보고」 재구성.

〈표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국외사례

국가	종류	제한속도	주행규정	운전연령	안전장구
일본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30km/h	- 도로 좌측 통행(가장자리)	16세 이상	안전모 착용
미국 (캘리포니아)	전기개인형 이동보조장치	40km/h	- 차량 진행방향 통일, 음주/ 약물 운전 불가, 보행자 항 시 우선 -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가 되는 속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있는 도로 를 제한하지 않음	16세 이상	(주별로 상이)
독일	전기동력 이동보조수단	20km/h	- 차량이 준수해야 할 교통법 규 공통 준수(면허 등록 필 수 등)	-	안전모 착용
영국	Motor Vehicle	-	- 면허 및 등록 필요	-	안전모 착용
네덜 란드	Motor assisted bicycle	25km/h	- 자격증 필요	16세 이상	-
싱가 포르	개인형 이동수단	25km/h	- 주의의무, 위험한 방법으로 이용 불가 - 최대 너비 70cm, 최대 무게 20kg - LTA(Land Transport Authority)승인모델만 허용 - 등록번호 발생 필수(중고 구 매시재인증 필수)	16세 이상	-

3.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1)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1) 전국 교통사고 및 발생유형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생유형은 개인형 이동

장치 단독, 개인형 이동장치 대 사람, 개인형 이동장치 대 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7~2019년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 대 차의 사고 비율이 가장 높고, 2019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112.5%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 사람도 연평균 증가율 98.5%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단독 교통사고는 연평균 증가율 45.5%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유형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 (%)
	발생건수(건)	비율(%)	발생건수(건)	비율(%)	발생건수(건)	비율(%)	
PM 단독	26	22.2	23	10.2	55	12.3	45.4
PM 대 사람	33	28.2	61	27.1	130	29.1	98.5
PM 대 차	58	49.6	141	62.7	262	58.6	112.5
합계	117	100.0	225	100.0	447	100.0	95.5

(2) 교통사고 사상자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8명으로 연평균 4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부상자수의 경우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연평균 95.3%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상자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사상자수(명)	비율(%)	사상자수(명)	비율(%)	사상자수(명)	비율(%)	
사망자수	4	3.1	4	1.7	8	1.7	41.4
부상자수	124	96.9	238	98.3	473	98.3	95.3
합계	128	100.0	242	100.0	481	100.0	93.9

(3) 연령대별 교통사고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교통사고의 경우 21~30세가 2017년 28건, 2018년 74건, 2019년 156건으로 연평균 증가율 136.0%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31~40세는 2017년 21건, 2018년 40건, 2019년 97건으로 연평균 증가율 114.9%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발생건수(건)	비율(%)	발생건수 (건)	비율(%)	발생건수(건)	비율(%)	
20세 이하	16	13.7	25	11.1	59	13.2	92.0
21~30세	28	23.9	74	32.9	156	34.9	136.0
31~40세	21	17.9	40	17.8	97	21.7	114.9
41~50세	21	17.9	37	16.4	52	11.6	57.4
51~60세	15	12.8	20	8.9	46	10.3	75.1
61~64세	0	0.0	8	3.6	8	1.8	-
65세 이상	14	12.0	20	8.9	25	5.6	33.6
미분류	2	1.7	1	0.4	4	0.9	41.4
합계	117	100.0	225	100.0	447	100.0	95.5

2)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경기도 시군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살펴본 결과 수원시의 발생건수는 2017년 3건으로 2위, 2018년 5건으로 4위, 2019년은 19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151.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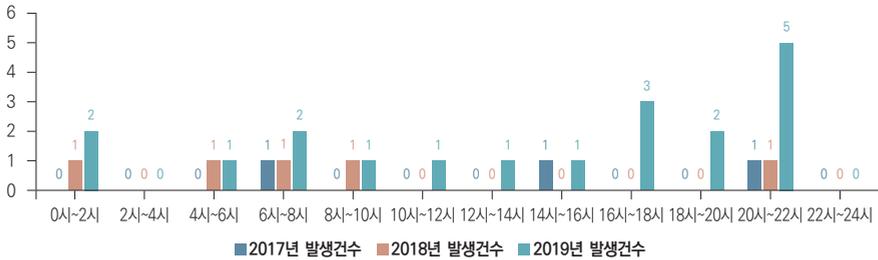
〈표 10〉 경기도 시군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발생건수(건)	비율(%)	발생건수(건)	비율(%)	발생건수(건)	비율(%)	
수원시	3	11.1	5	8.5	19	15.6	151.7
성남시	1	3.7	2	3.4	3	2.5	73.2
의정부시	2	7.4	4	6.8	2	1.6	0.0
안양시	1	3.7	-	-	5	4.1	123.6
부천시	-	-	7	11.9	10	8.2	-
안산시	2	7.4	10	16.9	17	13.9	191.5
평택시	-	-	4	6.8	1	0.8	-
광명시	1	3.7	-	-	2	1.6	41.4
구리시	-	-	1	1.7	1	0.8	-
양주시	1	3.7	1	1.7	-	-	-
여주시	-	-	-	-	2	1.6	-
화성시	2	7.4	3	5.1	11	9.0	134.5
시흥시	3	11.1	2	3.4	9	7.4	73.2
파주시	-	-	-	-	1	0.8	-
고양시	1	3.7	6	10.2	9	7.4	200.0
광주시	-	-	-	-	1	0.8	-
연천군	-	-	-	-	-	-	-
포천시	-	-	-	-	-	-	-
가평군	-	-	1	1.7	2	1.6	-
양평군	-	-	-	-	-	-	-
이천시	1	3.7	2	3.4	3	2.5	73.2
용인시	5	18.5	3	5.1	8	6.6	26.5
안성시	-	-	1	1.7	-	-	-
김포시	-	-	-	-	-	-	-
동두천시	-	-	1	1.7	-	-	-
과천시	1	3.7	-	-	-	-	-
군포시	1	3.7	1	1.7	2	1.6	41.4
남양주시	-	-	2	3.4	2	1.6	-
오산시	1	3.7	-	-	7	5.7	164.6
의왕시	-	-	1	1.7	-	-	-
하남시	1	3.7	2	3.4	5	4.1	123.6
합계	27	100.0	59	100.0	122	100.1	112.6

3)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1) 시간대별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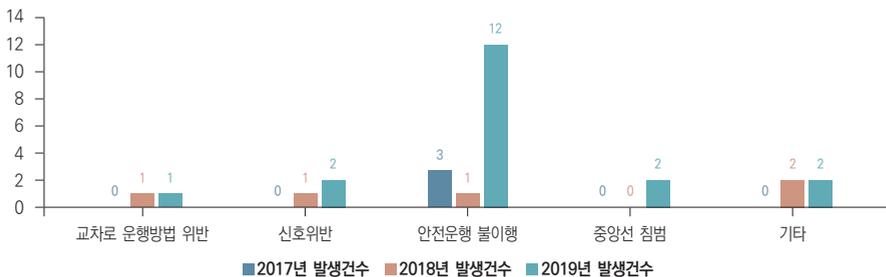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파악 결과 20~22시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주행 시 안전 주행이 가능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수원시 시간대별 교통사고(단위: 건)

(2)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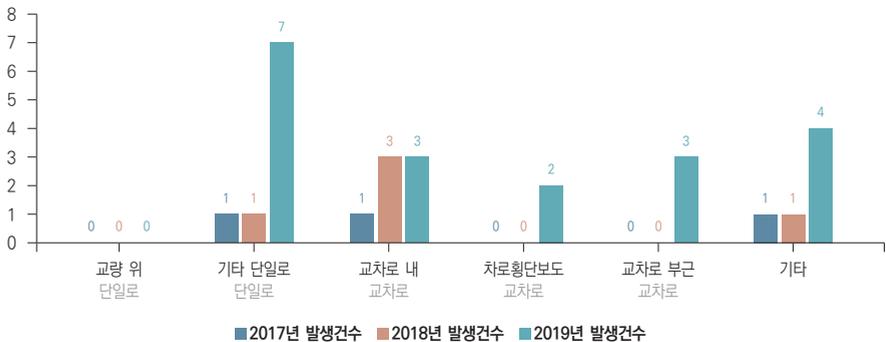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는 안전 운행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0.0%로 나타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수원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단위: 건)

(3)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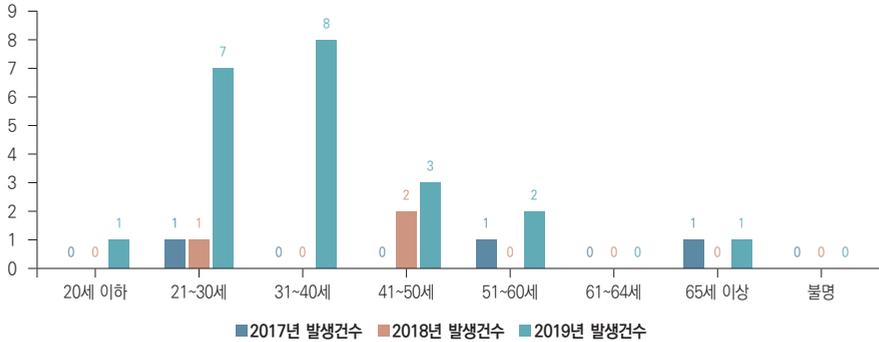
수원시 개인형이동수단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단일로는 기타 단일로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많았고 연평균 증가율 164.6%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3.2%로 나타났고, 교차로(교차로 내, 차로 횡단보도, 교차로부근)에서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부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였다.



〈그림 3〉 수원시 도로형태별 교통사고(단위: 건)

(4)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교통사고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는 20~30대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주 이용자가 20~30대이기 때문이라 보인다. 또한 50세 이상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연령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수원시 연령대별 교통사고(단위: 건)

4) 수원시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수원시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2020년 12월 기준 총연장 338.2km이며, 이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9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보행자와의 상충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표 11〉 수원시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구분	노선수	연장(km)	구성비(%)	
합계	284	338.27	100	
자전거 전용도로	14	6.78	2.0	
자전거 전용차로	11	19.06	5.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222	279.90	82.7
	비분리형	32	32.54	9.6
	소계	259	312.44	92.4

4.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행태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4일간(2020.07.10.~13.)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경험 및 통행특성,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 만족도, 필요도, 향후이용의사, 수원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역할을 5점 척도를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진행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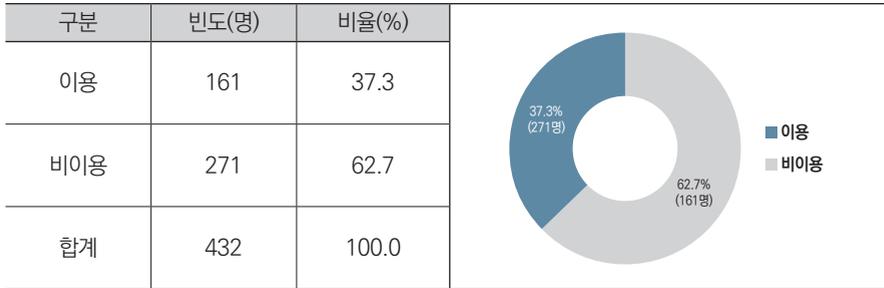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432명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161명, 비이용자는 271명으로 나타났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표 12>와 같다.

<표 12> 성별 및 연령별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12	49.1
	여	220	50.9
연령대	19세 이하	19	4.4
	20~29세	112	25.9
	30~39세	127	29.4
	40~49세	60	13.9
	50~59세	87	20.1
	60세 이상	27	6.3
거주지역	권선구	137	31.7
	영통구	119	27.5
	장안구	116	26.9
	팔달구	59	13.7
	기타	1	.2
직업	학생	68	15.7
	직장인	252	58.3
	자영업	32	7.4
	주부	56	13.0
	기타	24	5.6
자랑 보유 여부	있음	247	57.2
	없음	185	42.8
합계		432	100.0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경험 여부

〈표 1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경험 분포 그래프 다시 그리기



설문조사 응답자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37.3%, 비이용자는 62.7%로 비이용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이용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특성(이용목적, 이용사유, 이용빈도, 1회 평균 이동거리(시간)), 이용유형, 주요 이용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주로 이용했던 교통수단)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용 목적의 경우 여가(45.3%), 출·퇴근/통학(34.8%)로 여가 및 출·퇴근/통학이 가장 주된 이용 목적으로 나타났고, 이용사유의 경우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32.5%), 재미있기 때문에(25.3%), 교통비 절감을 위해(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유형은 전동킥보드(61.0%)를 가장 많이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빈도는 월1~2회(49.1%), 주 1~2회(31.7%) 순으로 나타났고, 1회 평균 이동거리(시간)은 1~3km(40.4%), 3~5km(37.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5km 이동이 77%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리임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이용 장소는 보도(32.3%), 자전거도로(31.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주로 이용했던 교통수단은 버스(44.7%), 자가용(22.4%), 도보(15.5%) 순으로 나타났고 해당 문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전

주로 이용했던 수단에 대해 묻는 문항이었으나, 응답자가 이해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환승하기 전 수단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문항의 신뢰도는 낮은 편으로 보인다.

〈표 14〉 이용자 이용특성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목적	출·퇴근/통학	56	34.8
	쇼핑	8	5.0
	여가(레저·취미)	73	45.3
	대중교통과 연계	20	12.4
	기타	4	2.5
이용사유 (복수응답)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94	32.5
	재미있기 때문에	73	25.3
	교통비 절감을 위해	58	20.1
	보관(주차)의 편리성	33	11.4
	친환경수단이기 때문에	27	9.3
	기타	4	1.4
이용유형 (복수응답)	전동킥보드	128	61.0
	전동스쿠터	35	16.7
	전동 이륜평행차	24	11.4
	전동 이륜보드	13	6.2
	전동 외륜보드	6	2.9
	기타	4	1.9
이용빈도	월 1~2회	79	49.1
	주 1~2회	51	31.7
	주 3~4회	26	16.1
	주 5회 이상	5	3.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1회 평균 이동거리(시간)	1km 이내(약 4분)	20	12.4
	1~3km(약 4~12분)	65	40.4
	3~5km(약 12~20분)	60	37.3
	5~7km(약 20~28분)	10	6.2
	7km 이상(약 28분 이상)	6	3.7
이용 장소	보도	52	32.3
	자전거도로	50	31.3
	차도	23	14.3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 장소	공로(공원)	19	11.8
	이면도로	9	5.3
	강변/천변 도로	7	4.3
	기타	1	.6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주로 이용했던 교통수단	버스	72	44.7
	자가용	36	22.4
	도보	5	15.5
	지하철	15	9.3
	자전거	11	6.8
	택시	1	.6
	오토바이	1	.6

4) 개인형 이동장치 비이용자 이용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 중 과반수인 62.7%가 비이용자였으며, 비이용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발생우려(33.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용가능도로 부족(16.7%), 타 교통수단이 편리해서(16.6%), 구입 및 대여 가격이 비싸서(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이용 방법 모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표 15〉 개인형 이동장치 비이용 사유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비이용 사유 (복수응답)	사고 발생 우려	208	33.8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가능도로가 부족해서	103	16.7
	타교통수단이 편리해서	102	16.6
	구입 및 대여 가격이 비싸서	92	15.0
	날씨 때문(기온, 눈, 비 등)	48	7.8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서	39	6.3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인지 모름	9	1.5
	기타	14	2.3
합계	615	100.0	

5) 연령대별 개인형 이동장치 비이용자 사유

연령대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 1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고발생우려가 가장 높았고, 특히 사고발생우려는 50대와 30대 비율이 높았고, 이용가능 도로의 경우 30~50대 비율이 높았고, 구입 및 대여비가 높아서는 20~30대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16〉 연령대별 개인형 이동장치 비이용 사유 분포

구분		타교통 수단 편리 해서		이용가능 도로 부족 해서		날씨 때문 (눈, 비 등)		사고 발생 우려		구입 및 대여비가 비싸서		관련법 제도 미비		PM을 잘 몰라서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비이용 사유 (복수 응답)	19세 이하	4	3.9	1	1.0	2	4.2	4	1.9	7	7.6	1	2.6	2	22.2	2	14.3
	20~29세	18	17.7	22	21.4	11	23.0	39	18.6	28	30.4	8	20.5	3	33.3	4	28.6
	30~39세	24	23.5	35	34.0	16	33.3	57	27.4	24	26.0	15	38.5	1	11.1	5	35.7
	40~49세	21	20.6	12	11.7	5	10.4	31	15.0	10	10.9	5	12.8	2	22.2	2	14.3
	50~59세	21	20.6	26	25.0	11	23.0	58	27.9	17	18.5	8	20.5	1	11.1	1	7.1
	60세이상	14	13.7	7	6.8	3	6.3	19	9.1	6	6.5	2	5.1	0	0	0	0
합계		102	100	103	100	48	100	208	100	92	100	39	100	9	100	14	100

6)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역할

개인형 이동장치의 역할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이용 전후의 이동수단이 3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First & Last Mile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는 여가(취미·레저)활동을 위한 이용수단(31.3%),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연결하는 교통수단(28.0%), 자가용 이용 후 이동수단(6.5%)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이용 후 이동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에 대한 응답률이 비슷한 비율로 도출된 것으로 보아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는 하나의 국한된 역할이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 수원시의 통행권, 여가활동 등을 책임지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이용자 이용특성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1.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연결하는 이동수단	121	28.0
2.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 전후의 이동수단	148	34.3
3. 자가용 이용 후 이동수단	28	6.5
4. 여가(취미·레저) 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135	31.3
합계	432	100.0

5.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특성 분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특성에 대해서는 인식, 주행 환경 만족도(인프라, 이용편의성, 관련 법·제도), 주행 환경 필요도(안전장치, 제도), 향후 이용 의사, 향후 사고 발생염려 수준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조사지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95% 수준에서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

이용경험여부에 따른 인식도 분석결과, 교통수단으로 유용하다, 친환경적인 수단이다, 안전한 수단이다, 조작이 간편하다, 타 교통수단 대비 비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항목에 대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한 항목 중 안전한 수단이라는 다른 항목에 비해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아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수단이라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안전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	이용자	161	4.37	.60	8.087*	.000
	비이용자	271	3.87	.63		
② 교통수단으로 유용하다	이용자	161	3.99	.74	8.211*	.000
	비이용자	271	3.36	.83		
③ 친환경적인 수단이다	이용자	161	3.96	.74	5.822*	.000
	비이용자	271	3.52	.76		
④ 안전한 수단이다	이용자	161	2.48	1.02	4.320*	.000
	비이용자	271	2.08	.74		
⑤ 조작성이 간편하다	이용자	161	3.82	.71	6.159*	.000
	비이용자	271	3.39	.70		
⑥ 타 교통수단 대비 비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이용자	161	3.50	.86	3.201*	.000
	비이용자	271	3.24	.81		

주) *p < .05

2)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환경 만족도

(1) 수원시 전체 주행 환경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자, 비이용자 만족도 모두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수원시 주행 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주행 환경 만족도> 수원시 전체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수원시 전체 주행 환경 만족도	이용자	161	2.96	.84	5.406*	.000
	비이용자	271	2.54	.75		

주) *p < .05

(2) 인프라

인프라의 주행 환경 만족도 분석 결과, 총 1개의 항목인 경사도에 대한 응답이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주행 가능 공간, 개인형 이동장치 부대시설의 유의확률은 0.051로 유의수준 범위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사도의 이용자, 비이용자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경사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주행 환경 만족도〉 인프라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경사도	이용자	161	3.07	.83	1.967*	.050
	비이용자	271	2.92	.67		
자전거도로 표식 (표지판, 안내시설 등)	이용자	161	2.86	.96	1.717	.087
	비이용자	271	2.71	.81		
자전거도로 설계 제원 (도로 폭원, 턱 높이 등)	이용자	161	2.80	1.01	1.829	.068
	비이용자	271	2.63	.79		
자전거도로 포장상태	이용자	161	2.88	1.00	-1.104	.917
	비이용자	271	2.89	.86		
자전거도로 연결성	이용자	161	2.56	.94	1.053	.293
	비이용자	271	2.46	.82		
주행 가능 공간	이용자	161	2.80	.89	1.959	.051
	비이용자	271	2.64	.80		
개인형 이동장치 부대시설 (충전, 보관, 휴게시설 등)	이용자	161	2.56	.93	1.956	.051
	비이용자	271	2.39	.78		

주) *p < .05

(3) 이용편의성

이용편의성 만족도는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접근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개인형 이동장치 경제성에 대한 항목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항목 모두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접근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이유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스테이션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21〉〈주행 환경 만족도〉이용편의성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개인형 이동장치 접근성	이용자	161	3.20	.94	3.485*	.001
	비이용자	271	2.89	.83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버스, 도시철도 등)	이용자	161	3.02	.96	2.114*	.035
	비이용자	271	2.83	.90		
대중교통 내 개인형 이동장 치 휴대 탑승 여부	이용자	161	2.71	1.00	1.935	.054
	비이용자	271	2.53	.82		
개인형 이동장치 경제성 (이용비용 등)	이용자	161	3.27	.97	3.097*	.002
	비이용자	271	2.99	.84		

주) *p < .05

(4) 관련 법·제도

관련 법, 관련 보험제도에 대해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법의 경우 이용자의 비해 비이용자의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평균 3점미만으로 만족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활성화와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기반 마련과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주행 환경 만족도〉관련 법·제도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관련 법 (통행방법, 규제 방안 등)	이용자	161	2.67	.88	3.102*	.002
	비이용자	271	2.41	.81	3.102*	.002
관련 보험제도	이용자	161	2.49	.93	2.189*	.029
	비이용자	271	2.30	.79	2.189*	.029
인센티브 제도 (환승할인 요금 지원 등)	이용자	161	2.47	.94	-.170	.865
	비이용자	271	2.49	.85	-.170	.865
자전거 도로 단속 및 정비	이용자	161	2.53	.92	1.767	.078
	비이용자	271	2.38	.79	1.767	.078

주) *p < .05

3)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환경 필요도

(1) 안전장치

속도제한장치와 안전모(헬멧)가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보다 비이용자가 안전장치의 필요도에 대해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이용자의 잠재수요를 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련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의한 항목 중 안전모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주행 환경 필요도〉 안전장치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속도제한장치	이용자	161	3.98	.88	-4.445*	0.000
	비이용자	271	4.33	.72		
안전모(헬멧)	이용자	161	4.04	.97	-4.672*	0.000
	비이용자	271	4.44	.77		
랜턴 및 헤드라이트	이용자	161	4.34	.68	-1.617	.107
	비이용자	271	4.45	.71		

주) * $p < .05$

(2) 제도

전용 면허제도 운영, 안전 및 주행교육 이수 의무화, 이용자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이용자 보험 가입 의무화 항목이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가 제도의 필요도에 대해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안전장치 필요도와 동일하게 이용자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주행 환경 필요도> 제도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전용 면허제도 운영	이용자	161	3.61	1.06	-2.680*	.008
	비이용자	271	3.88	.92		
안전 및 주행교육 이수 의무화	이용자	161	3.66	1.09	-5.101*	.000
	비이용자	271	4.17	.84		
이용자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이용자	161	3.94	1.01	-4.496*	.000
	비이용자	271	4.36	.77		
이용자 보험 가입 의무화	이용자	161	3.73	1.01	-3.824*	.000
	비이용자	271	4.09	.88		
연령제한	이용자	161	4.06	.89	-.169	.866
	비이용자	271	4.08	.93		

주) * $p < .05$

4) 향후 이용 의사

총 4개의 항목 모두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재이용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이용자의 잠재수요를 실수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향후 이용 의사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향후 이용의사가 있다	이용자	161	3.86	.86	9.833*	.000
	비이용자	271	2.96	1.03		
재이용 의사가 있다	이용자	161	3.80	.91	9.995*	.000
	비이용자	271	2.85	.99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이용자	161	3.59	.96	8.545*	.000
	비이용자	271	2.79	.93		
홍보할 의사가 있다	이용자	161	3.31	1.01	6.376*	.000
	비이용자	271	2.68	.98		

주) * $p < .05$

5) 사고 발생 염려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항목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의 사고 발생 염려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비이용자들의 이용 독려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방안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환경과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사고 발생 염려_T-test 검정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용자	161	3.80	.87	-2.302*	.022
	비이용자	271	3.99	.77		
사고의 심각도가 클 것이다	이용자	161	3.81	.95	-1.495	.136
	비이용자	271	3.94	.87		

주) *p < .05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파악과 수원시민 총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경험 및 특성,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환경 만족도, 안전장치 및 제도 필요도, 향후 이용 의사, 사고 발생 염려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비이용자의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경기도 지자체 중 수원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 순위는 2017년 2위, 2018년 4위, 2019년 1위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151.7%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시간대는 20~22시, 20~30대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37.3%,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67.2%로 아직은 비이용자의 비율이 높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특

성 분석 결과 이용목적으로는 여가(취미·레저), 출·퇴근/통학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이용자의 비이용사유는 경우,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역할에 대한 응답으로 자가용 이용 후 이동수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이동수단,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연결하는 이동수단, 여가 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수원시의 통행 및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이동장치 인식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고 ‘안전한 수단이다’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행 환경 만족도 분석결과 수원시 전체 주행 환경의 만족도는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가 높았지만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의 경우 경사도에 대한 응답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편의성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접근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개인형 이동장치 경제성에 대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항목 모두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제도의 경우, 관련 법, 관련 보험제도에 대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도는 불만족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행 환경 필요도 분석결과 안전장치는 속도제한장치, 안전모(헬멧), 법제도는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용자 보다 비이용자가 필요도에 대해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이용자의 잠재수요를 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향후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용 의사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재이용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향후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염려 분석 결과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항목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의 발생 염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 건설, 개인형 이동장치 제한속도 설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나아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도출 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진행,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캠페인, 홍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가입 독려, 정부에서 지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규격에 맞는 기기에 안전마크 부착 후 해당기기에 한해서만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적합한 주행 공간 확보,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용자의 연령대,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여부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향후 이용의사를 설문하여 분석하였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비이용자에게는 어떤 사항이 개선되었을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20, 「개인형 이동수단(PM)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보도자료.
- 김규현, 2020,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 『한국자동차학회지』 12(1), 6~14쪽.
- 김숙희, 2020, 「개인형이동수단 이용행태분석 및 정책 방향」, 수원시정연구원.
- 김재영, 2017,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도로교통공단, 2016,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
- 박범진 · 노창균 · 김지수, 2018, 「퍼스널모빌리티 주행안전성 평가지표 연구」, 『한국ITS학회 논문집』 17(5), 1~13쪽.
- 박종준, 2017,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23, 77~106쪽.
-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 중간보고」.
- 신희철 · 이재용 · 김사리, 2016, 「개인용 교통수단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 신희철 · 정경옥 · 이재용 · 박성용 · 김사리 · 양수정,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한국교통연구원.
- 신희철, 2020,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월간교통』 vol 268, 한국교통연구원, 31~37쪽.
- 전황수, 2013, 「퍼스널 모빌리티 기대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우석 · 박경철, 2016,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경기연구원.
- 지우석 · 박경철 · 윤정은, 2018, 「개인형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 한다정 · 김홍철 · 지민경, 2020, 「PM(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의 심각도 요인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38(3), 232~247쪽.
- 한상연 · 이철기 · 윤일수 · 윤여일 · 나재필, 2021, 「PM(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 특성 및 사망사고 발생 요인 분석」, 『한국ITS학회논문지』 20(1), 100~118쪽.
- 한희동 · 이은학 · 김동규, 2021,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발생 확률 추정」,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제84회, 32~34쪽.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정보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요 약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이동기기로 보급과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미흡하여 교통사고와 현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비이용자 인식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T-test 분석을 실시해 항목별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이용자가 이용자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이 낮고, 주행 환경 만족도가 낮으며 안전장치 및 제도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이용 의사의 경우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이용 의사가 높고 사고 발생 염려는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와 향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도출하는 데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행태분석, 이용경험, 주행환경, 안전환경, T-검정

ABSTRACT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 of Users/Non-Users of Personal Mobility in Suwon

Kim Sukhee / Lim Hyejin

Personal Mobility means are mobile devices for one person, and the number of accid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dissemination and use.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policies,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traffic accidents and the current situation. Accordingly, this research analyzed the direction to create and activate a safe driving environment for Personal Mobilit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ransportation users and non-user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users and non-users by question through T-test. Non-users are less aware of personal Mobility than users, are less satisfied, need more safety devices and systems, are more willing to use the system in the future than non-users, and are more concerned about accidents than users. Therefore, through this research, we will explore measures to activate Personal Mobility, and based on this, we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Personal Mobility and the creation of a comfortable driving environment.

Key Words : Personal Mobility, Usage behavior analysis, Use experience, Driving environment, Safety environment, T-test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산골시설의 장사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나을** / 백정미***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설계 및 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서론

장사문화는 한 국가·지역·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장사문화의 변화는 장사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장사문화 및 장사방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에 따른 국가차원의 화장 장려 정책과 함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소득수준의 증가 등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른 편리주의 확대로 화장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0년 65.7%, 2020년 4월 기준 89.2%로(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조선시대부터 보편적이었던 매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시 연화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2020)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전임연구원(Public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Researcher Engineer)

*** 한국평가원 연구위원(Korea Evaluanor Institute, Senior Researcher) 교신저자 E-mail : jeongmi90@hanamail.net, Tel : 010-7769-8879)

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사문화의 변화를 보여 준다.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사문화 변화에 이어 화장 후 안치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장이 일반화되면서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안치방법의 관심 증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환경 및 자연 친화, 도시인구의 증가와 가족 해체로 인한 핵가족화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묘지 혹은 봉안을 돌볼 후손 및 자손세대 부족이다. 이에 따라 봉안과 자연장 이외 산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봉안시설의 지나친 석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자연장의 토지이용 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산골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안장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 및 후손세대가 줄어들어 따라 봉안과 자연장만으로는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설장사시설은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비롯하여 봉안시설, 자연장, 유택동산(산골시설) 등 안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산골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운영과 관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인 연화장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통 산골이 법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전락되어 강과 산을 오염시키고 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아무데나 뿌리면 벌금을 낸다는 등의 근거 없는 오해가 있기도 하였다.¹ 또한, 봉안시설을 비롯하여 자연장지, 수목장립, 유택동산, 해양장, 산골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고 있지만, 자연장, 수목장립, 산골의 개념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장 및 산골의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데에 있다.² 또한 공설장사시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의 경우 이용대상, 시설의 관리문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문제 등의

1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2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³

장법(葬法)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로 화장은 거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안치방법으로 산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친환경적인 장법과 장사시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장묘시설은 기능적인 것만이 아닌 다양한 인간의 삶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시설물로,⁴ 산골도 하나의 장법으로 규정되고 장사시설로서 산자와 망자에게 의미를 갖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장사문화의 편리주의로의 변화,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장사수요의 고급화·다양화라는 흐름 속에서 봉안과 자연장의 대안으로서 산골 및 유택동산이 새로운 안치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골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보고 산골시설에 대한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수원시 공설장사시설인 연화장의 시설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인구구조와 장례인식의 변화는 장례문화와 장법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죽음의 질적 문제와 장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장사문화 중 산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는 장사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 변화 중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산골에 대한 개념과 규정, 그리고 산골에 대한 기존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수십구 유골 뒤섞여 폐기를 취급」,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2010년 7월 12일.

4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 인식과 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45(4), 45~53쪽.

1)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장사환경의 변화

장사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는 장사문화의 편리주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이어진다.⁵

(1) 고령사회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2020년 812만 명에서 2030년 1,290만 명, 2040년 1,722만 명, 2050년 1,9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망자 수도 2020년 32만 명에서 2030년 42만 명, 2040년 55만 명, 2050년 71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망자 수 증가는 장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즉, 화장수요와 함께 화장 후 안치를 위한 안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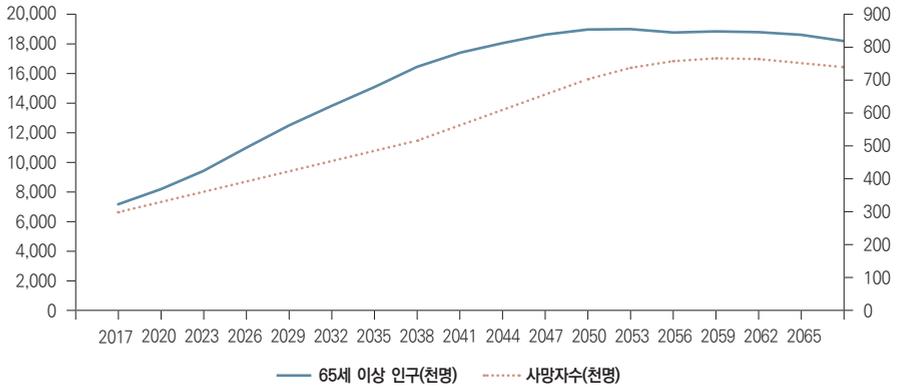
〈표 1〉 65세 이상 인구 및 사망자 수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고령자		사망자	
		65세 이상	비율	사망자수	비율
2020	51,781	8,125	15.7	323	6.2
2025	51,905	10,511	20.3	372	7.2
2030	51,927	12,980	25.0	422	8.1
2035	51,630	15,237	29.5	479	9.3
2040	50,855	17,224	33.9	549	10.8
2055	49,574	18,329	37.0	633	12.8
2050	47,745	19,007	39.8	709	14.8
2055	45,406	18,815	41.4	753	16.6
2060	42,838	18,815	43.9	764	17.8
2065	40,293	18,570	46.1	752	18.7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5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및 사망자 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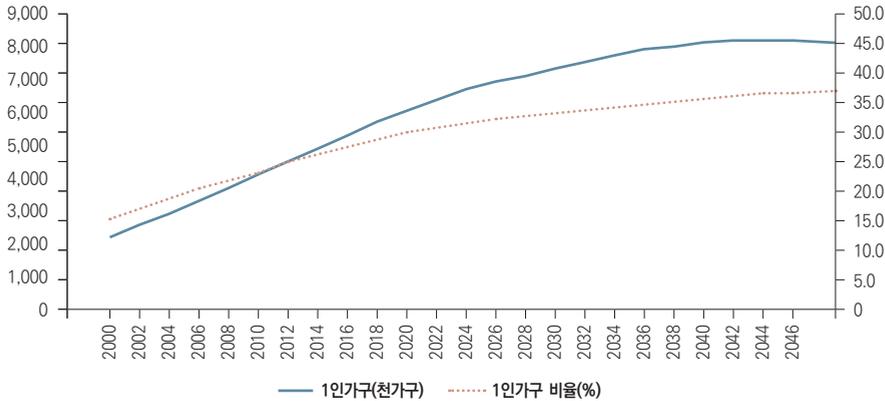
(2) 1인 가구 증가

통계청의 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5만 가구이던 것이 2020년 617만 가구로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30년 744만 가구, 2040년 824만 가구로 전망된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0%를 넘어서 2045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 중 1/3 이상이 1인 가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는 안치방식 및 장례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표 2〉 1인 가구 추이

연도	총가구 (천가구)	1인 가구		연도	총가구 (천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수 (천가구)	비율(%)			1인 가구수 (천가구)	비율(%)
2000	14,507	2,255	15.5	2025	21,342	6,897	32.3
2005	16,039	3,186	19.9	2030	22,036	7,440	33.8
2010	17,495	4,174	23.9	2035	22,497	7,923	35.2
2015	19,013	5,180	27.2	2040	22,651	8,237	36.4
2020	20,350	6,166	30.3	2045	22,456	8,324	37.3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그림 2〉 1인 가구 추계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일본을 중심으로 무연사회(無緣社會)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⁶ 고령사회의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단독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무연사회는 무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연사회를 무연사로 동치시키는 것에 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부터 논의가 필요하겠지만,⁷ 연고가 없는 무연사의 증가는 기존 안치시설을 후손세대의 단절로 지속가능한 추모 및 관리가 힘들어지고 이는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 및 관리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3) 장사환경변화와 기존 장사시설(안치시설) 문제

인간의 주검을 처리하는 방법을 장례방법, 장법(葬法)이라 한다. 장법은 주검처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그 사회의 가족 또는 사회제도의 유지를 위한 기반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다. 장법의 선택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를 반영하는데, 여기서 주요한 쟁점은 죽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6 무연사회는 무연고사회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독신 가정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7 최인택, 2013, 「현대일본의 무연사회와 장례문화의 변용」, 『일어일문학』 59, 445-460쪽.

의 문제이다.⁸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방법과 장소에 따라 봉안, 자연장, 수목장립, 산골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⁹

장사환경변화에 따라 장사시설도 변화되었는데, 묘지부족과 국토훼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화장을 장려하면서 안치시설로 봉안시설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봉안시설은 석재의 다량 사용으로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강조와 함께 친환경 장사시설로 자연장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장 또한 기존의 산림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연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이용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골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봉안시설은 화장의 장려와 함께 많이 이용되었다. 봉안은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함에 골분을 보관하고, 이를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에 안치하는 형태로 공간 소요가 획기적으로 감소¹⁰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공간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봉안 수요가 있는 한 일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매장방식과 동일하다.¹¹ 또한 봉안시설은 죽은 자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화장의 장려와 함께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시설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¹² 봉안시설은 묘지에 의한 환경훼손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봉안묘의 과도한 석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와 사설 봉안시설의 높은 분양가, 봉안당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영구적 유지로 인한 봉안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¹³ 더욱이 인공적으로 가공된 견고한 석물 등으로 자

-
- 8 이필도·김혁우·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6(2), 87~106쪽.
 - 9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 10 주호상·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933~943쪽.
 - 11 주호상·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933~943쪽.
 - 12 이필도·김혁우·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6(2), 87~106쪽.
 - 13 김경혜, 2007,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

연회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관리기간이 끝나거나 관리주체가 부실해질 경우 흉물로 방치되어 환경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 등을 보여 준다.¹⁴

이에 따라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자연장이 제시되면서, 2007년 5월 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제2조 3항 자연장과 제13항의 자연장지 항목이 신설되었다. 자연장은 지속가능한 장사제도로 이용 가능한 국토의 한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장사문화의 편의주의 확산으로 장사시설을 돌볼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와 보관의 문제¹⁵를 안고 있는 묘지와 봉안 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자연장은 기존의 매장이나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하는 장사방식과 달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으로 현대적 화장방식에 전통적 매장방식을 결합하고 자연 친화적 개념을 가미한 장사방법¹⁶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연장은 매장이나 봉안이 낳고 있는 국토잠식이나 환경피해가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에 따른 묘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¹⁷ 자연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 조성이 되면 추가적인 공간 수요의 발생 여지가 매우 적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¹⁸ 또한 최근 친환경적 가치와도 부합하는데, 자연장지를 공원화된 시설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재로 공급이 가능¹⁹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자연장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종전의 비용집중-혜택분산이

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한국노년학연구』 16, 139~156쪽;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 인식과 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45(4), 45~53쪽; 이필도·김혁우·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6(2), 87~106쪽;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14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한국노년학연구』 16, 139~156쪽.

15 김수봉, 2009, 「장사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10월호, 62~76쪽;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16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 인식과 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45(4), 45~53쪽.

17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 인식과 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45(4), 45~53쪽.

18 주호상·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933~943쪽.

19 김수봉, 2009, 「장사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10월호, 62~76쪽;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란 장사시설의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사회친화적인 자연장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자연장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²¹ 사시사철 변하는 나무, 꽃, 잔디 등의 자연을 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²² 이와 함께 별도의 자연장을 조성할 때 토지 이용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기존 봉안시설과 자연장에 대한 대안으로 산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화장의 증가와 함께 묘지의 대안으로 적극 장려된 봉안시설은 지나친 석물로 환경파괴의 문제가 크고, 자연장은 기존 산림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연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이용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골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산골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방식의 산골과 함께 현재 공설 장사시설로 설치하고 있는 산골 혹은 유택동산을 포괄하고자 한다.

2) 산골에 대한 논의

(1) 산골에 대한 개념

산골은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나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것으로 산골에 대한 기록은 불교사상과 함께 화장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던 7세기에 등장한다(한국민속백과사전). 서울특별시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실제적으로는 화장은 화장 후 납골 외의 방법으로 고인을 모시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강 또는 산 등이나 지정된 산골장소 및 시설에 뿌려 보다 빠르게 자연에 회귀시키

20 김수봉, 2009, 「장사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10월호, 62~76쪽;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21 김수봉, 2009, 「장사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10월호, 62~76쪽;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22 김수봉, 2009, 「장사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10월호, 62~76쪽.

는 방식이다.²³

산골장례는 화장문화이 확산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장례방법으로 선호되면서, 일본, 중국, 구미 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 나무장, 바다장 등 화장 후 산골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방식이 채택되어 널리 행해지고 있다.²⁴

산골의 개념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유럽 쪽에서는 수목이나 화초, 잔디 밑에 뿌리거나 묻는 것으로서, 거의 매장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자연장으로 분류되는 화초장, 잔디장, 수목장의 형태이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산골장의 전통이 있어 강이나 산에 뿌리는 산골을 포함하고 있다.²⁵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산골은 유해를 태워 자연에 뿌리는 고유 장례방법으로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왔다.²⁶ 즉, 산골은 과거부터 행해진 장례방법 중 하나로 오늘날 산골은 간편하고, 저렴하며,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⁷

화장한 골분을 아무런 표식 없이 땅에 묻거나 뿌려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산골은 유골의 장례의식에 아주 적은 면적의 토지만을 필요로 하거나 장례의식에 토지가 필요하지 않고, 석재로 된 인공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환경훼손의 문제도 거의 없다.²⁸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골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법률에 산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로만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산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강 또는 바다, 산, 공설화장시설, 사설법인 장사시설 그리고 기타장소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²⁹ 「장사법」에 산골 관련 규정이 없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의 설치규정만 언급하고, 강·산·바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법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3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isul.or.kr>).

24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isul.or.kr>).

25 안우환, 2007,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연구」, 『정토학연구』 12, 301~340쪽.

26 안우환, 2007,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연구」, 『정토학연구』 12, 301~340쪽; 이동찬, 2019, 「모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연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6, 123~144쪽.

27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한국노년학연구』 16, 139~156쪽.

28 이동찬, 2019, 「모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연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6, 123~144쪽.

29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2) 산골시설에 대한 법제도 규정

현재 장사법 제2조에 따르면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있다. 그리고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골분을 뿌리는 산골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장사법시행령」 제2조에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독자적인 장사시설인 아닌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장사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에 따르면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시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8조 1항 관련 [별표3]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에서도 사설화장장과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 및 납골당 그리고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및 납골당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장, 개인의 토지에 뿌리는 산골, 우주장, 헬기를 타고 추억의 공간에서 행하는 공중살포식으로 이루어지는 산골 따위의 다양한 장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³⁰

한편, 「장사법」과 「장사법시행령」에 따르면 산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무연고, 설치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로 규정하고 있어 화장시설에 설치된 산골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표 3〉 산골 관련 규정

법령	내용
장사법시행령 제2조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30 안우환, 2007,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연구」, 『정토학연구』 12, 301~340쪽.

법령	내용
장사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1	공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부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공설 화장시설의 경우에는 화장한 유골을 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장사법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3	사설 화장시설 가. 사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부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장사법시행령 제9조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부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장사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 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부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장사법시행령 제20조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 제2항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사설묘지의 설치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부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3) 장사서비스에 대한 논의

서비스(service)란 상대에 대한 봉사, 섬김, 배려, 욕구 충족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베푸는 행위이며 최고의 서비스는 희생정신이다.³¹ 서비스의 품질(service quality)에 대한 개념은 이용자 및 사용자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31 김경덕·황재선, 2000, 『서비스 경영문화』, 학문사.

제공하는 유·무형 제품에 대해 총체적인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사용자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³² Bagozzi(1992)가 제시한 Appraisal → Emotional response → Coping 체계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이들의 평가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이는 차례로 행동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낸다.³³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구매 전의 기대와 지각된 제품의 성과를 비교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과정을 거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을 결정하게 된다.³⁴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장사서비스에 대해 정의하자면 장사서비스는 장사를 치를 때 유족들에게 장사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그에 걸맞은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식을 치를 때를 제외하고 서비스라고 할 것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장사서비스라고 하면 주로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한 장례서비스란 장례절차를 위해 필요한 장소와 장례용품을 제공하고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각종 장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례서비스는 크게 인적서비스, 물적서비스, 시스템서비스로 구분된다.³⁵ 인적서비스란 고인, 유가족, 문상객들에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의미한다. 인적서비스는 고객들과 대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친절성, 공평성, 정확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적서비스란 고인과 관련된 시설과 유족 및 문상객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며 기본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기본시설에는 빈소(분향실), 안치실 및 염습실, 유족참관실, 예식실, 유족상당실, 장례용품 전시실이 포함되며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에는 식당, 매점, 휴게실, 주차시설, 화장실 등이 있다. 물적서비스는 적절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최대한 경건한

32 김봉남·권민숙·김근식·한은하, 2015, 「보육시설 재이용의사 결정요인 연구-보육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283~304쪽.

33 김성엽·주혜영, 2007, 「서비스품질, 이미지, 서비스가치가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국내 요가 센터서비스품질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25(1), 111~125쪽.

34 김봉남·권민숙·김근식·한은하, 2015, 「보육시설 재이용의사 결정요인 연구-보육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283~304쪽; 오상영, 2008, 「호텔 이용 의도에 따른 호텔 브랜드, 서비스 지각과 호텔 선택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5), 1422~1427쪽.

3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5,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을 위한 연구」.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물적서비스는 빈소의 청결유지, 보건위생 상태 유지와 시설이용의 편안함이 중요한 평가 요소의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서비스란 장례식장 서비스의 활동을 표준화시켜 동일한 서비스를 유가족,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일관적,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시스템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의 운영체제를 직접 구성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며 협력업체와 분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체제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장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갖는 특성뿐만 아니라 장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장사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는 사망해야만 소비가 발생한다. 또한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3일 간의 짧은 장례기간 내에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³⁶

〈표 4〉 장례서비스 구분 및 주요 가치요소

구분	내용	주요 가치요소
인적서비스	- 고인, 유가족, 문상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전문성 친절성
물적서비스	- 고인을 위한 시설과 유족 및 문상객을 위한 시설 - 기본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로 구분	청결성 심미성 편의성
시스템서비스	- 장례서비스의 활동을 표준화 -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일관적, 효율적으로 제공 - 직영 및 임대 운영 형태	간편성 경제성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5.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의 장례서비스는 소비자 중심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³⁷에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

36 이기현, 2015,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37 이기현, 2015,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협이 있는 79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2%(594명)의 응답자가 장례서비스의 불만을 가지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서비스의 진행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647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56.5%의 응답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용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하여 불만이었던다는 답변을 했으며, 21.8%의 응답자는 저품질의 용품과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⁸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사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사서비스 중에서 물적서비스와 시스템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선택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4) 산골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산골시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사시설에 대한 기존연구 중에 나타난 산골시설 논의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기존 장사시설에 대한 연구는 연구를 수행한 시기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장사시설이 다른데, 이러한 장사시설에 산골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최근 연구 경향은 자연장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연구들이 자연장에 다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³⁹

기존 연구 중에서 산골을 직접적으로 연구 주제로 한 경우는 남윤주·이필도⁴⁰가 있고, 그 외에는 장사방법 및 장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골을 다루고 있다. 산골에 대한 논의는 다시 2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장의 하나로서 산골을 논의하는 방식⁴¹이고, 두 번째는 자연장과 별개로 산골장을

38 이기현, 2015,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복수응답 포함.

39 주호상·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933~943쪽.

40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41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한국노년학연구』 16, 139~156쪽;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 인식과 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45(4), 45~53쪽; 이동찬, 2019,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연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6,

논의하는 방식이다.⁴²

먼저, 남윤주·이필도⁴³는 우리나라 공설화장시설의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도권 공설화장시설 종사자들의 산골시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토대로 산골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산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가운데, 산골시설의 개선점으로 여러 유골이 섞이는 시설상의 문제점,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 추모시설로서 부족, 산골시설의 책임관리자 부재, 유택동산이라는 이름의 부적절성, 산골시설 주변의 청소문제, 산골시설의 위치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먼저, 산골시설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강조하였다. 즉, 화장한 유골은 실내에 설치한 수변시설을 이용하여 밖의 정원에 뿌려지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의 흩뿌림을 기획하고 4차 산업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추모영상 기기를 설치하여 고인의 정보를 입력해 대상별 추모가 가능한 첨단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산골관련 법률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연장의 개념 정의에 대한 일부 개정과 산골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는 것도 매장으로 인정하고 묻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는 산골도 자연장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산골의 범제화가 이루어지면 공중, 강, 바다, 산 등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장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산골시설을 특정하지 않고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선호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연구들은 산골을 자연장에 포함시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산골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거나 산골의 자연장의 일부로 논의한다.

먼저, 김달수⁴⁴는 한국 장사제도의 특징으로 매장문화 선호의식, 화장 및 봉안시

123~144쪽; 주호상·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933~943쪽.

42 이필도·김혁우, 2018, 「장례문화 인식과 웰엔딩의 실천과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67~75쪽; 이필도·김혁우·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6(2), 87~106쪽;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43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44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한국노년학연구』 16, 139~156쪽.

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면서 우리나라 장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산골형 자연장을 강조하였다. 즉, 2007년 법 개정에 따른 자연장 도입에 따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법적 성격 명확화, 산골의 명문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개정된 장사법에서 자연장을 묘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 매장과 봉안시설의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하고 산골형 자연장지도 함께 운영되어야 친환경적이고 국토이용의 기본적 이념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

김철재⁴⁵는 자연장의 유형을 수목형, 정원형, 화초형, 잔디형, 산골형으로 구분하면서 개인특성에 따른 자연장 의도와 자연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자연장 인식이 자연장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종교, 성별에 따라 자연장 이용의도와 자연장에 대한 정보, 종교와 철학적 인식, 물리환경에 대한 인식, 보존성에 대한 인식 등 자연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 중 자연장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자연장 장법에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종교와 철학에 맞을수록, 자연장의 물리적 환경에 긍정적일수록, 자연장 보존에 긍정적일수록 자연장 이용의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연장 이용의도와 실제 이용에 있어서 괴리, 즉 자연장에 대한 수요왜곡이 존재하는데,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인식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별 자연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동찬⁴⁶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례문화 및 매장화 화장 현황을 논의하면서 묘지의 국토잡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잡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묘지면적의 과다규정에 대한 개선, 묘지설치 신고와 사망신고를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과 시한부 매장제도의 현실화, 자연장 확대 및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장의 개념에 자연으로 회귀하는 산골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연공간에 장례를 한다는 점에서 자연장과 산골이 다름이 없지만 자연장은 묻는 방식이고 산골은 골분을 뿌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자연장은 자연장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의식

45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 인식과 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45(4), 45~53쪽.

46 이동찬, 2019, 「묘지로 인한 국토잡식에 대한 개선연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6, 123~144쪽.

이 이루어지지만 산골은 산이나 강, 바다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자연장의 의미가 시신을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장법으로 이해하고 자연장이라는 명칭으로 정했다면 아무런 표식도 없이 행해지는 산골이 가장 자연장의 의미에 근접하다. 따라서 장례의식의 변화를 자연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조상 즉 선조를 추모할 수 있는 추모지점과 추모조형물로 고인이 묻힌 지점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품격 높은 산골시설 즉 자연장 시설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연장의 개념에 산골을 포함하는 등 장사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호상·최열⁴⁷은 네스티드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장사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장사유형은 매장, 봉안, 자연장으로 산골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사유형 선호에 지역의 장사시설 수, 개인특성변수는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의식, 가구특성변수 중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유형, 주택 점유형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높고 현재에 생활에 불만족할수록, 본인의 사회적 계층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자연장보다는 매장 또는 봉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자연장의 선택 확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여도 매장이나 봉안을 선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하지만 종속변수로 반영된 선호 비율은 자연장이 봉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장을 원하지만 자연장지 자체가 부족하여 자연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연장 선호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자연장지의 공급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의 장사유형은 매장보다는 봉안 또는 자연장, 궁극적으로 자연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연구유형은 장사시설 선호에 대한 연구로 산골을 자연장과 별도의 시설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필도·남상권⁴⁸에 따르면 장법으로는 매장보다는 화

47 주호상·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933-943쪽.

48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장을 선호하는 가운데, 화장 후 안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연장을 제일 선호하고, 다음으로 봉안시설, 산골인 가운데, 연령에 따라 산골시설에 대한 선호가 차이를 보이는데, 30대는 봉안시설, 40대와 50대는 자연장, 60대와 70대는 산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골에 대한 선호도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17.2%, 40대 23.9%, 50대 31.9%, 60대 37.2%, 70대 44.7%로 고령화될수록 산골장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골시설이 아닌 전체 장사시설에 대한 선호와 수급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정책적 방향, 특히 자연장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시설의 수급을 분석하여 자연장의 장점과 함께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사문화와 장사시설 설치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필도·김혁우·김수봉⁴⁹은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장사시설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우선 교차분석 결과, 장사방법으로는 매장(17.0%)보다 화장(83.0%)을 선호하는 가운데 성별, 소득, 교육수준, 경기도의 장사정책방향 인식, 거주하는 시군의 필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따라 선호에 차이를 보인다. 한편 화장 후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자연장(51.8%)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봉안시설(42.1%), 화장장의 유택동산 및 산골(6.1%)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장 후 장사시설에 대한 선호는 성별과 연령, 경기도의 장사정책방향, 거주하는 시군 필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자연장과 산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법선택에 대해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종교가, 문화환경적 요인에서는 거주지역 화장시설 유무, 경기도의 장사정책방향(화장 중심), 거주하는 시군의 필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장사 후 안치시설에 대해서는 연령, 경기도의 장사정책 방향, 거주하는 시군 필요 장사시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화장시설과 자연장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

49 이필도·김혁우·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6(2), 87~106쪽.

해야 하는데, 장사방법이 화장중심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수도권 화장시설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및 용인시의 경기남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화장시설의 확충, 그리고 화장 후 안치시설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산층이 자연장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 같은 의미는 기대여명 증가로 여성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머지않아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자연장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자연장 확충 등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필도·김혁우⁵⁰는 서울시민의 장례문화 인식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 중 장법에 대한 인식변화 측정시 봉안, 자연장, 산골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봉안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강, 산이나 지정 장소에 뿌리는 산골이 22.0%, 자연장지 안장이 19.9% 순으로 나타났다. 산골이 자연장보다 높게 선호되었다.

〈표 5〉 장사시설 선호에 대한 기존연구

구분	연구자	연도	연구명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산골에 대한 연구	남윤주 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 공설화장시설의 산골시설인 유택동산 현황 파악 및 공설 화장시설 종사자들의 산골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산골시설의 개선점으로 산골시설의 다양화 현대화를 강조하고, 산골규정 법제화 - 산골을 자연장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개정 필요
산골을 자연장의 하나로 논의한 연구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 우리나라 장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연장지에 대한 법적 성격 명확화, 산골의 명문화 및 활성화 방안 제시(산골형 자연장지)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인식과 이용의도 간 구조적 관계	- 자연장의 유형을 수목형, 정원형, 화초형, 잔디형, 산골형으로 구분 - 개인특성에 따른 자연장 의도와 자연장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자연장 인식이 자연장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 분석결과: 자연장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자연장 장법에 긍정적인수록, 자신의 종교화 철학에 맞을수록, 자연장의 물리적 환경에 긍정적인수록, 자연장 보존에 긍정적인수록 자연장 이용의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함

50 이필도·김혁우, 2018, 「장례문화 인식과 웰엔딩의 실천과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67~75쪽.

구분	연구자	연도	연구명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산골을 자연장의 하나로 논의한 연구	이동찬	2019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잠식의 개선방안으로 묘지면적의 과다규정에 대한 개선, 묘지설치신고와 사망신고 연계제도 도입, 시한부 매장제도의 현실화, 자연장 확대 및 제도화 - 특히, 자연장 개념에 산골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품격 높은 산골시설 즉, 자연장 시설 개발 보급으로 장묘문화 변화 도모
	주호상 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 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선호 영향 요인 분석 - 분석결과: 지역의 장사시설 수,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의식, 그리고 가구특성 변수 중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유형, 주택 점유형태가 장사유형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 앞으로의 장사유형은 자연장으로 전환 필요 - 산골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산골을 자연장과 별도로 논의한 연구	이필도 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법에 대한 선호: 화장 > 매장 - x^2분석: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안치시설에 대한 선호: 자연장 > 봉안 > 산골 - x^2분석: 연령, 종교,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고령화될수록 산골장 선호
	이필도 김혁우 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장사시설 선호 영향 요인 분석 → 교차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법에 대한 선호: 화장 > 매장 • 안치시설에 대한 선호: 자연장 > 봉안 > 산골 → 연령이 높을수록 자연장과 산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이필도 김혁우	2018	장례문화 인식 과 웰빙의 실천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의 장례문화 인식 조사 - 장법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봉안, 자연장, 산골로 구분함 - 분석 결과: 봉안 > 산골 > 자연장지

3.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사시설 중에서 산골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골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이미 산골에 대한 개념과 법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는 산골시설을 포함한 안치시설 전체의 설치현황과 이용현황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골은 안치방법 중 하나로 다른 안치시설과 이용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산골시설 이용현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골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산골시설 시설설치현황과 운영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산골시설의 장사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해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용한 안치방식과 선호하는 안치방식을 살펴보고, 안치시설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월평균 총소득 중심으로 이용한 안치방식과 선호하는 안치방식에 대한 영향이 다른지 검토하였다. 이후 안치방식의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치시설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고, 선호하는 안치방식이 산골방식인 시민들의 안치시설 선택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향후 산골이 안치시설로서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2) 자료의 수집 및 설문구성

안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공설 장사시설의 산골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종합 장사시설인 '연화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시민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 경험 및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수원시 거주 주민이거나 수원시에 직장을 가진 시민들로 의도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이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동 주민센터 민원인, 연화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수원시 연화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장사시설 중 안치시설 이용현황, 안치시설 선호도, 안치시설 선택시 고려기준이다. 안치시설 이용현황은 안치시설 이용경험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안치시설 선호도는 안치시설 이용경험과 관계없이 장래 이용 수요도를 확인하고자 구성하였다. 그리고 안치시설 선택 시 고려기준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⁵¹에서 제시한 장사서비스 중에서, 물적 서비스와 시스템 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으며, 접근성, 안치기간, 시설의 쾌적성, 비용, 편의시설, 고품질서비스를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근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사내용들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변수속성값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설문구성 및 변수속성

설문문항	변수속성 및 코딩값	척도	관련 연구 또는 설문내용 근거
안치시설 이용현황	-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1, - 자연장시설(수목장, 화초장, 잔디장)=2, 산골(유택동산)=3	명목 척도	이기현(2015)
안치시설 선호도	-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1, - 자연장시설(수목장, 화초장, 잔디장)=2, - 산골(유택동산)=3		
안치시설 선택 시 고려기준	- 접근성 =1 - 안치기간 =2 - 시설의 쾌적성 =3 - 비용 = 4 - 편의시설 =5 - 고품질서비스 =6	5점 척도	한국장례문화 진흥원(2015)

3) 분석방법

우선, 수원시의 연화장의 안치시설 설치현황과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는 연화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로부터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각 안

5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5,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을 위한 연구」.

치시설의 이용실적과 화장물 대비 이용률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산골시설의 설치·운영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각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비교대상은 산골시설 설치형태, 구조, 운영방식 등이다.

마지막으로 안치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엑셀(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코딩(data coding) 및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쳤으며,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안치시설 선호 요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1) 수원시 산골시설 운영 현황

여기서는 수원시 공설 장사시설의 산골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 연화장의 장사시설과 안치시설의 이용실적을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산골시설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수원시 연화장은 화장시설인 승화원과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안치시설인 봉안당(추모의 집), 봉안담, 자연장, 유택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유택동산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로 수원시는 합동 유골처리장인 유택동산과 함께 산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유택동산 이용대상은 수원시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타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내자의 유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유골이다(「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표 7〉 수원시 연화장 장사시설 설치 현황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부지	건축		
계		19,637		
승화원		2,421	화장로(9기), 분향실(8실), 접수실, 유족대기실	
장례식장		5,362	중앙제어실, 염습실(2), 빈소(10), 사무실, 식당, 매점	
추모의 집		3,906	안치실(45실, 30,528기)	
봉안담	56,612	1,526	37면(4,235기)	
주차장		6,361	481면(지상240, 지하 241)	
유택동산		-	합동유골처리장, 산골장	
자연장		842.4	6,000기, 파고라, 헌화대 등	6,300㎡
부대시설		61	경비실	

자료 : 수원도시공사 내부자료(2020년 6월 기준).

한편 안치시설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산골시설에 해당하는 유택동산의 이용건수는 2019년 기준 1,054건으로 화장 대비 이용률은 9.4%이다. 봉안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자연장 이용률(3.4%)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⁵² 한편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7년 1,031건에서 2018년 974건, 2019년 1,054건으로 다소 하락했다가 2019년 다시 증가하는데, 화장 대비 이용률도 2017년 9.2%에서 2019년 9.4%,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9.8%로 증가하여 산골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산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국에 설치된 공설화장시설은 대부분 산골시설로 유택동산 혹은 산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국 42개 화장시설에서 산골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40개소에서 산골시설의 명칭은 유택동산이었다.⁵³ 유택동산은 1993년 용미리 제2묘지에 처음 세워졌는데, 한탄강을 비롯한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52 안치시설 이용률은 안치시설의 설치규모와 잔여기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원시 연화장의 자연장 설치기수는 6,000기이고, 2020년 4월 기준 잔여기수는 4,850기이다.

53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목적으로 세워졌다.⁵⁴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남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가족공원,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수원시 연화장, 용인시 평온의 숲 모두 산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골시설은 유택동산 또는 산골장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유택동산에서 쌓인 골분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산골장에 뿌리거나 묻는 형태로 운영된다.

〈표 8〉 수원시 연화장 안치시설 운영 실적 (단위 : 기, %)

구분		2020년 4월	2019년	2018년	2017년
화장건수(위)		4,060	11,261	10,965	11,210
봉안시설	이용실적	641	2,382	2,677	3,037
	화장대비 이용률	16.8	21.2	24.3	27.0
자연장	이용실적	152	424	414	353
	화장대비 이용률	3.7	3.8	3.8	3.1
유택동산 (합동유골처리장 + 산골장)	이용실적	398	1,054	964	1,031
	화장대비 이용률	9.8	9.4	8.7	9.2

자료 : 수원도시공사 내부자료(2020년 6월 기준).

즉, 일반적으로 유택동산 시설은 합동유골함과 제단이 있고 화장한 유골을 뿌릴 때는 합동유골함의 투입구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고, 합동유골함이 가득차면 분골을 자연장지로 옮겨 합동매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가족공원의 경우 유택동산이 별도의 건물로 건립되어 있으며 유택동산에 골분이 쌓이면 인근의 산골장(합동분묘)에 매장한다. 특히 합동분묘에는 추모공간을 마련하여 유족들이 계속 추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과 용인시 평온의 숲 유택동산은 아외에 유택동산이 있으나 지붕이 있어서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였다. 다만, 수원시 연화장의 유택

54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동산은 별도의 지붕이나 칸막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우천 시 추모에 어려움이 있다.

〈표 9〉 수도권 주요 공설 장서시설의 산골시설 운영현황

구분	시설	비용
인천광역시 가족공원	- 유택동산: 실내건물 - 합동분묘시설	관내: 1만 원 관외: 5만 원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 유택동산: 야외건물(지붕 존재)	관내: 1만 원 관외: 3만 원
수원시 연화장	- 유택동산: 야외건물(지붕 없음) - 산골장: 합동분묘	무료
용인시 평온의 숲	- 유택동산: 야외건물(지붕 존재)	관내: 1만 원 관외: 3만 원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원시 연화장을 제외한 인천 가족공원,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용인 평온의 숲의 유택동산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가족공원의 경우 유택동산 이용료는 관내 1만 원, 관외 5만 원이었으며 성남시와 용인시의 유택동산 이용료는 관내 1만 원, 관외 3만 원이었다. 이용요금은 유택동산의 유지를 위해 유택동산 이용신청서 및 자료보관, 행정관리비용, 유택동산 만장 시 자연장으로 개장하면서 발생하는 처리 작업비용과 합동매장 했음을 알리는 비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유택동산의 이용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료 수입 실적은 미미하다.⁵⁵

2) 수원시민 안치시설 이용현황 및 선호도 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총 응답자수는 248명이었으나 결측값 3개를 제외하여 분석에 활용한 표본은 245개이다. 성별은 여성이 154명(62.9%), 남성이 91명(37.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20대 41명(16.7%), 30대 62명(25.3%), 40대 66명(26.9%), 50대 64명(26.1%), 60대 이상은 12명(4.9%)

55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한 경우가 154명(6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는 47명(19.2%), 대학원 이상은 44명(18.0%)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월 250만 원 ~ 월 500만 원 이하가 90명(3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500만 원~월 750만 원 이하가 56명(22.9%), 월 250만 원 이하가 45명(18.4%), 월 750만 원~월 1,000만 원 이하가 33명(13.5%), 월 1,000만 원 초과는 21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안치방식과 선호하는 안치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중 90명이 안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안치 방식은 봉안당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봉안묘·잔디장이 11.1%씩, 수목장 10%, 산골 7.8%, 봉안담 6.7%, 봉안탑 3.3%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봉안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장 중 잔디장과 수목장이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인다.

선호하는 안치방식은 봉안당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목장 25.9%, 봉안묘 14.4%, 봉안담 9.1%, 잔디장 7.8%, 산골 7.4%, 화초장 0.8%, 봉안탑 0.4%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안치방식으로 봉안시설의 비율이 높았는데 자연장 중에서도 수목장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골의 경우 이용률과 선호도가 각각 7.8%, 7.4%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선호도가 봉안당, 수목장, 봉안묘, 봉안담, 잔디장에 이어 여섯 번째이지만 자연장의 한 방법인 잔디장과 선호도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표 10〉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91	37.1
	여	154	62.9
연령대	20대	41	16.7
	30대	62	25.3
	40대	66	26.9
	50대	64	26.1
	60대 이상	12	4.9

구분		빈도	비율
최종학력	고졸 이하	47	19.2
	대졸(전문대 포함)	154	62.9
	대학원 이상	44	18.0
총소득 월평균	월 250만 원 이하	45	18.4
	월 250만 원~월 500만 원 이하	90	36.7
	월 500만 원~월 750만 원 이하	56	22.9
	월 750만 원~월 1,000만 원 이하	33	13.5
	월 1,000만 원 초과	21	8.6
합계		245	100

비고 : 결측값은 제외함

〈표 11〉 안치방식 이용현황 및 선호도 분석

(단위 : 명)

이용한 안치 방식		선호하는 안치 방식		
구분	빈도(비율)	구분	빈도(비율)	
봉안시설	봉안당	45(50%)	봉안당	83(34.2%)
	봉안묘	10(11.1%)	봉안묘	35(14.4%)
	봉안담	6(6.7%)	봉안담	22(9.1%)
	봉안탑	3(3.3%)	봉안탑	1(0.4%)
자연장	수목장	9(10.0%)	수목장	63(25.9%)
	화초장	0(0%)	화초장	2(0.8%)
	잔디장	10(11.1%)	잔디장	19(7.8%)
산골(유택동산)		7(7.8%)	산골(유택동산)	18(7.4%)
합계		90(100%)	합계	243(100%)

다음으로, 성별, 연령, 총소득 월평균에 따라 이용한 안치방식과 선호하는 안치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한 안치방식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호하는 안치방식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봉안시

설에 대한 선호도가 67.4%, 자연장 시설 선호도가 23.6%, 산골(유택동산) 선호도가 9%인 반면, 여성의 경우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52.6%, 자연장 시설 선호도가 40.9%, 산골(유택동산) 선호도가 6.5%로 선호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산골에 대한 선호도 9%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산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작은 샘플 수에 의해 해석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치시설 선택 시 고려하는 기준들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여 분석하였다. 시민들은 안치시설을 선택할 때 시설의 쾌적성(평균 4.33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접근성(4.27점), 안치기간(4.25점), 비용(4.10점), 고품질 서비스(3.90점), 편의시설(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산골 방식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시설의 쾌적성(4.29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산골 방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고품질 서비스(4.24점)를 시설의 쾌적성(4.29점)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치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물었을 경우 고품질 서비스는 3.90점으로, 다른 기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산골 방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나라 공설 화장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산골시설인 유택동산과 산골장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거나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용 측면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는 고인의 유골을 산골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것에 반해 실제로 이용하는 선호도는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⁵⁶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 선호도와 실제 이용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치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산골 방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고려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산골 장사 서비스의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산골시설의

56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 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표 12〉 안치시설 이용 현황 및 선호도 분석

(단위 : 명, %)

구분	이용한 안치방법식				선호하는 안치방법식				χ^2/p	
	봉안시설 n(%)	자연장시설 n(%)	산골 (유택동산) n(%)	전체 n(%)	봉안시설 n(%)	자연장시설 n(%)	산골 (유택동산) n(%)	전체 n(%)		
성별	남성	31 (73.8%)	9 (21.4%)	2 (4.8%)	42 (100.0%)	60 (67.4%)	21 (23.6%)	8 (9.0%)	89 (100.0%)	7.500* df=2
	여성	33 (68.8%)	10 (20.8%)	5 (10.4%)	48 (100.0%)	81 (52.6%)	63 (40.9%)	10 (6.5%)	154 (100.0%)	
연령	20대	9 (81.8%)	2 (18.2%)	0 (0.0%)	11 (100.0%)	26 (65.0%)	12 (30.0%)	2 (5.0%)	40 (100.0%)	9.971 (.267) df=8
	30대	19 (82.6%)	3 (13.0%)	1 (4.3%)	23 (100.0%)	34 (54.8%)	23 (37.1%)	5 (8.1%)	62 (100.0%)	
	40대	16 (59.3%)	7 (25.9%)	4 (14.8%)	27 (100.0%)	41 (62.1%)	21 (31.8%)	4 (6.1%)	66 (100.0%)	
	50대	19 (76.0%)	5 (20.0%)	1 (4.0%)	25 (100.0%)	34 (54.0%)	24 (38.1%)	5 (7.9%)	63 (100.0%)	
총소득 월평균	60대 이상	1 (25.0%)	2 (50.0%)	1 (25.0%)	4 (100.0%)	6 (50.0%)	4 (33.3%)	2 (16.7%)	12 (100.0%)	9.974 (.267) df=8
	월 250만 원 이하	11 (73.3%)	4 (26.7%)	0 (0.0%)	15 (100.0%)	27 (60.0%)	15 (33.3%)	3 (6.7%)	45 (100.0%)	
	월 250만 원~ 월 500만 원 이하	24 (68.6%)	9 (25.7%)	2 (5.7%)	35 (100.0%)	52 (58.4%)	31 (34.8%)	6 (6.7%)	89 (100.0%)	
	월 500만 원~ 월 750만 원 이하	13 (65.0%)	5 (25.0%)	2 (10.0%)	20 (100.0%)	27 (48.2%)	22 (39.3%)	7 (12.5%)	56 (100.0%)	
	월 750만 원~ 월 1,000만 원 이하	10 (76.9%)	0 (0.0%)	3 (23.1%)	13 (100.0%)	24 (72.7%)	8 (24.2%)	1 (3.0%)	33 (100.0%)	
	월 1,000만 원 초과	6 (85.7%)	1 (14.3%)	0 (0.0%)	7 (100.0%)	11 (55.0%)	8 (40.0%)	1 (5.0%)	20 (100.0%)	

비고 : p<.05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의 쾌적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품질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의 쾌적성과 서비스를 위한 비용책정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13〉 안치 시설 선택 시 고려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산골 방식 희망자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 점수
접근성 (위치, 교통 등)	9 (3.7)	10 (4.1)	28 (11.5)	56 (22.6)	141 (57.8)	4.27	1 (5.6%)	2 (11.8%)	3 (16.7%)	1 (5.6%)	10 (55.6%)	4.000
안치(봉안) 기간	6 (2.5)	6 (2.5)	39 (16.0)	62 (25.4)	131 (53.7)	4.25	1 (5.6%)	-	3 (16.7%)	3 (16.7%)	10 (55.6%)	4.235
시설의 쾌적성	7 (2.9)	6 (2.5)	29 (11.9)	60 (24.6)	142 (58.2)	4.33	1 (5.6%)	-	2 (11.1%)	4 (22.2%)	10 (55.6%)	4.294
비용	9 (3.7)	9 (3.7)	43 (17.7)	69 (28.4)	113 (46.5)	4.10	1 (5.6%)	-	6 (35.3%)	3 (17.6%)	7 (38.9%)	3.882
편의시설 (매점, 식당, 카페 등)	17 (7.0)	36 (14.8)	98 (40.2)	31 (12.7)	63 (25.4)	3.35	2 (11.1%)	2 (11.1%)	6 (33.3%)	3 (16.7%)	4 (22.2%)	3.294
고품질 서비스	12 (5.0)	19 (7.9)	51 (21.3)	58 (24.3)	99 (41.0)	3.90	1 (5.6%)	-	2 (11.1%)	5 (27.8%)	9 (50%)	4.235

이는 유택동산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즉, 무연고·극빈층 등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나무와 꽃으로 이루어진 수목공원에 유희를 안장(매장)하고 추모단에서 추모하는 방식으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석 봉분은 설치할 수 없으나 산골인 명부를 보존하여 언제든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인과 유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문화는 가족과 같은 사회구성원이나 집단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등 사회관습이며, 사회적 다수 성격을 함축한 것으로 장례문화는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풍습과 제도로 인식된다.⁵⁷ 즉, 장례문화는 지역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고 또한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의식으로 한 세대가 앞선 세대에서 배워서 후세대로 전하면서 발전되고 관습으로 전통으로 형상화되어 전수된다.⁵⁸ 더 나아가 장례문화는 한 사회의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되고 공유되면서 세대 간에 전수되어 지속적 전통에 의해 의식과 관습으로 자리 잡는 한편,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 구조 변화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장례문화의 변화는 장례방법의 변화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장례방법은 화장과 매장이고, 화장과 매장에 따라 이후 안치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특히 화장 이후 안치방법으로는 봉안, 자연장, 산골 등이 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국토잡식의 우려, 환경문제에 대한 강조 등으로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되었고 화장 중심에서의 장례문화 변화는 화장 후 안치방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화장 이후 봉안 방식이 대표적인 안치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도 봉안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봉안시설의 과도한 석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영구적 유지로 인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관리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자연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장지를 조성할 경우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고, 나무, 꽃, 잔디 등의 자연 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산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산골은 전통적인 장법 중 하나로서 영구적으로 장사지내는 것이며 자연회귀성이 가장 빨라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장례문화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비용

57 손병도·조계표, 2018, 「우리나라 장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2, 493~516쪽.

58 이동찬, 2019, 「묘지로 인한 국토잡식에 대한 개선연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6, 123~144쪽.

이나 관리를 요구되지 않고,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한 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⁵⁹ 또한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고인을 추모하고 장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후손세대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산골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진작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죽음과 관련 질적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부각될 것이다. 예컨대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가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장례서비스 수요는 다양화되고 장사시설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사시설을 친환경적 장법, 관리의 편의성, 경제적 비용효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⁶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산골에 대한 법규정 등 제도화 현황과 산골의 이용현황 및 산골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산골에 대한 개념과 법제도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장사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사법」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선호도는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골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장과 산골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상태이다. 학자들마다 산골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일부는 산골을 자연장의 일부로 보거나 하면 일부는 산골을 자연장과는 다른 별도의 장례방법으로 본다.

둘째, 법률에 장사방법으로 화장과 매장을 비롯하여 봉안시설, 자연장이 장사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산골에 대한 직접적인 명칭과 규정은 없다. 다만 「장사법시행령」에 화장시설의 부속시설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한 곳은 유골을 뿌리는 산골시설로 유족동산 혹은 산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59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한국노년학연구』 16, 139~156쪽.

60 이필도·김혁우, 2018, 「장례문화 인식과 웰엔딩의 실천과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67~75쪽.

법규정의 부재는 산골방법이나 산골장소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한 유족 등도 산골의 합법성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산골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유골을 아무 곳에 뿌림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 특정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산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상수도보호지역 이외에는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택동산이나 개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산골이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될 소지가 있다.⁶¹ 이와 함께 산골은 관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 혹은 자식이 없는 자, 무연고자 등 악상인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현재 법제도상에서도 산골을 무연고 등에 의한 경우에 허용되고 있는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규정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할 때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써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산골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화장장이나 납골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산골시설(유택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자와 망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⁶²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택동산은 단순히 화장한 유골을 한곳에 뿌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 일종의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산골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수원시의 경우 종합 공설장사시설인 연화장에 화장시설을 비롯한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에 해당하는 유택동산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택동산의 경우 이용 건수와 화장 대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골에 대한 선호도도 7.4%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시 연화장의 유택동산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지붕이 없는 구조물로 우천 시에 추모하기 어렵다는 점

61 안우환, 2007,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연구」, 『정토학연구』 12, 301~340쪽.

62 이동찬, 2019,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연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6, 123~144쪽.

등 시민친화적인 장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원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붕 등을 설치하여 일정 정도 장사시설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래 변화하는 시대에 산골장의 활성화를 위한 장사서비스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연장과의 별도의 장례방법으로 볼 것인지 자연장의 하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안후환⁶³은 자연장의 두 가지 요소인 자연으로의 회귀,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 자연장과 산골이 단순한 장법에 관한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상의 문제로 자연장에 산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연장이라는 장법의 주요 골자는 화장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산골이든 매장이든 자연물에 의탁하고 있다는 점, 그 정신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산골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뿌린다는 개념에서 모신다는 개념으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⁶⁴은 산골이 하나의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하고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산골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는 법제도 규정으로 이어진다. 산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골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로, 산골장소로서 포괄적으로 지역을 제한하기보다 일정한 지역에 한해 금지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⁶⁵ 상수원보호지역 등 보건위생 및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 주거지역 등과 가까운 지역 등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유택동산(산골시설)에 유골이 매장된 경우 그 후 유골 처리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종 처리방법에 어려움이 있다. 산골시설(유택동산)로서 유골을 뿌리도록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모인 유골을 일정한 지역에 합동으로 땅에 묻거나 일정한 해양지역에 뿌

63 안우환, 2007,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연구」, 『정도학연구』 12, 301-340쪽.

64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65 이삼식, 2005,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릴 수 있는 최종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산골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과 장소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⁶⁶ 이는 산골에 대한 인식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수원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또한 현재 장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골시설의 취약점인 고인의 존엄성과 미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품위 있는 장사서비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산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시설 선택기준으로 시설의 쾌적성과 고품질 서비스, 안치기간을 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의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개선과 이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장사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산골시설이 뿌리는 시설이 아닌 모시는 시설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장례문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제사문화와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문화이다. 그러나 산골은 기억할 만한 장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장례의식의 변화를 산골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족 혹은 지인들이 추모할 수 있는 추모지점과 추모 조형물로 고인이 묻힌 지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상징성을 보완하는 품격 높은 산골시설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수원시 연화장의 산골시설을 비롯한 공설장사시설의 유택동산 및 산골시설에서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시설의 쾌적성과 서비스를 위한 비용책정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유택동산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즉, 무연고·극빈층 등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나무와 꽃으로 이루어진 수목공원에 유택회를 안장(매장)하고 추모단에서 추모하는 방식으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석 봉분은 설치할 수 없으나 산골인 명부를 보존하여 언제든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인과 유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산골시설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생애미혼율의 증가, 만혼화, 사회적 연결고리의 약화,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무연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66 이삼식, 2005,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 없거나 남아있는 가족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장법이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합장묘⁶⁷이다. 합장묘는 기존의 봉안과 산골이 결합되는 형태로 사전에 합장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봉안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합장묘에 안치하거나 사후 봉안하지 않고 곧바로 합장묘에 안치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수목장을 산골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파리 근교에 있는 종쉬롤(Ensemble Funéraire des Joncherolles)을 들 수 있다. 종쉬롤은 ‘추억의 정원’이라 불리는 미루나무 숲으로 조성된 산골장으로 나무주위에 쇠골한 유골을 뿌리게 되고 입구에 조그마한 명패를 달아 유족이 참배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⁶⁸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장사정책의 키워드는 ‘환경친화적’, ‘품격’이고, 이와 함께 중요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장사시설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차원에서의 접근성과 자연과의 조화성 및 친환경성,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친환경성, 다양성 등의 역점을 두고 설치되어야 하고 가족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해주며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품위 있는 다양한 장사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⁶⁹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수요의 다양화,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한 편의주의·실용주의 확산은 새로운 장사문화와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적 장법, 장사시설 관리의 편의성, 저렴한 장례비용 등의 장점들이 부각될 수 있는 장사문화의 발전과 함께 이를 위한 장사환경이 조성되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명확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장사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장

67 황규성·배호정·최영은·김정은, 2015,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일 장례문화 비교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1), 69~72쪽.

68 박대수, 2013, 「제3부 한국인의 효문화 : 현대 한국의 상·장례 문화의 성찰과 미래전망-수목장법의 수용가능성에 관하여」, 『청소년과 효문화』 22, 201~228쪽.

69 이필도·김혁우·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6(2), 87~106쪽;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사시설은 산자와 망자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치방식 중에서 산골(유택동산) 방식이 새로운 장사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하여 현 수준에서의 문제점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골(유택동산)의 운영 형태를 살피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인식하는 안치방식의 이용 현황 및 선호도와 안치 방식을 선택할 시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치 방식 선택 시 고려기준에서는 장사서비스 중에서 물적 서비스와 시스템 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론을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장사서비스라는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사서비스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이용경험, 만족도, 재이용의향 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산골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김경덕·황재진, 2000, 『서비스 경영문화』, 학문사.
- 김경혜, 2007,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달수, 2007, 「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한국노년학연구』 16, 139~156쪽.
- 김봉남, 권민숙, 김근식, 한은하, 2015, 「보육시설 재이용의사 결정요인 연구-보육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283~304쪽.
- 김성엽, 주혜영, 2007, 「서비스품질, 이미지, 서비스가치가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국내 요가센터서비스품질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25(1), 111~125쪽.
- 김수봉, 2009, 「장사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10월호, 62~76쪽.
- 김철재, 2017, 「개인특성별 자연장 인식과 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45(4), 45~53쪽.
- 남윤주·이필도, 2019,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67~77쪽.
- 박대수, 2013, 「제3부 한국인의 효문화 : 현대 한국의 상·장례 문화의 성찰과 미래전망-수목장법의 수용가능성에 관하여」, 『청소년과 효문화』 22, 201~228쪽.
- 손병도·조계표, 2018, 「우리나라 장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2, 493~516쪽.
- 안우환, 2007,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연구」, 『정토학연구』 12, 301~340쪽.
- 오상영, 2008, 「호텔 이용 의도에 따른 호텔 브랜드, 서비스 지각과 호텔 선택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5), 1422~1427쪽.
- 이기현, 2015,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이삼식, 2005,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찬, 2019, 「묘지로 인한 국토잡식에 대한 개선연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6, 123~144쪽.
- 이필도·김혁우, 2018, 「장례문화 인식과 웰엔딩의 실천과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67~75쪽.
- 이필도·김혁우·김수봉, 2015,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6(2), 87~106쪽.
- 이필도·남상권, 2013, 「장사방법 선호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장사정책 방향」, 『한국케어매

니지먼트연구』 10, 185~201쪽.

주호상 · 최열, 2019,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933~943쪽.

최인택, 2013, 「현대일본의 무연사회와 장례문화의 변용」, 『일어일문학』 59, 445~460쪽.

황규성 · 배호정 · 최영은 · 김정은, 2015,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일 장례문화 비교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1), 69~72쪽.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5,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 · 설비 · 안전기준 등을 위한 연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타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isul.or.kr>).

「수십구 유골 뒤섞여 '폐기물 취급」,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2010년 7월 12일.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한국민속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05>).

요 약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장사시설로 산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산골은 기존의 봉안과 자연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친환경적 장법, 관리의 편의성, 경제적 비용효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산골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장사제도에서 산골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산골에 대한 개념, 법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종합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이다.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의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이용현황, 장사시설에 대한 선호도 등을 산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산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법률에 산골에 대한 직접적인 명칭과 규정이 없어, 산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산골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의 경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유택동산의 화장 대비 이용률이 10%에 육박함에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변화하는 장사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장사시설로서 산골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산골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산골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산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골시설로서 유골을 뿌리도록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에 모아진 유골을 일정한 지역에 합동으로 묻을 수 있는 최종 처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골시설의 품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골시설의 취약점인 고인의 존엄성과 미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골시설에 공동추모시설을 설치하여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상징성을 보완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장사시설

은 사자와 땅자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운영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장사환경, 장사시설, 산골, 유택동산, 수원시, 선호도

ABSTRACT

The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service of the funeral facilities: the case of Suwon City, Korea.

Kang, Na Yul / Baek, Jeongmi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that the Scattering Ash Facilities could be as a substitute for the new funeral facility in response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low childish rates, the aging society, and one person households. Despite having the advantage of eco-friendly, economical, efficient, and easier to manage than the other funeral facilities,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vitalizing Scattering Ash Facilities in Korea. To analyze problems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and relevant law.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public funeral faciliti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nd conducted surveys on citizens of Suwon C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definition of the scattering ash facilities is not clear. Second, there are no direct names and regulations for scattering ash facilities in law, which it might be result in curbing scattering ash facilities demand with doubts about the legality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Next, scattering ash facilities managed by each local government have a problem of lack of respect for the deceased and their bereaved families. In particular, Suwon City has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i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even though the utilization rate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is close to 10%.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between scattering ash facilities and Natural Burial. Secondly, there is a need to stipulate scattering ash facilities in law in terms of new perceptions and directions for scattering ash facilities to the people by presenting basic principles and methods rather than specifying scattering ash fac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l treatment regulation to jointly bury the remains collect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certain area. Third, high qualit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citizens can recognize scattering ash facilities as funeral method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dignity and aesthetic problems of the deceased in scattering ash facilities, joint memorial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offer symbolism and develop services. Ultimately, funeral facilities should function as a link between living and the dead and serve as a cultural space for citizens.

keywords : funeral facilities, scattering ash facilities, suwon city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수준의 비교분석 연구

장연수*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이론 및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4. 시청 홈페이지의 구성내용 분석
5. 주민참여 실적의 비교 평가
6.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제7회(2018.6.13) 지방선거를 거쳐 2021년 현재 지방자치 실시 27년을 맞아 참여민주주의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 특색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며 적극적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2000년 초기까지는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가 주민들의 의식과 행태 및 제도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1년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¹ 특히 수원시 인구는 최근 122만 명²을 넘어 2022년 특례시³로 승격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는 인구를 기준으로

* 전 경기대학교 대우교수(Former professor emerita, Kyonggi University), E-mail: younjys@naver.com, Tel : 010-5391-8403.

로 도·시·군 및 광역시·특례시를 지정하고 있다. 광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지정하는데 전에 직할시였던 도시를 1995년 광역시로 명칭을 바꾸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3호에 의거 광역시가 되었다. 이어 2020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에 의거하여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선정되었다. 현재 인구기준으로 볼 때 수원시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고양시가 있다.⁴

효율적이고 지방주민의 복지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통해 주민참여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행태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집행기관(시청)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구체적인 방안 및 그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이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인 시청이 어떻게 이러한 제도와 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용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민원사항이나 해결할 문제가 발생하면 자치센터를 거쳐 구청·시청을 찾아 해결하는 off-line 방식이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의거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2001년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on-line 방식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 제17조에 제시한 것을 보면 토론이나 건의 및 다양한 의사표현의 주민참여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제7조-제18조에는 관련서비스에 대하여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수원시에서도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토론회(만민광장), 시장 소식, 채용정보, e-news, 각종 설문, 시장의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확인, 각종 정

-
- 1 국회에서 정책자료로 의원 이재선, 2001,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산업자원부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실: 송조호·손달호, 2005,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고찰』, 『경영경제』 38(1) 등 많은 자료가 있다.
 - 2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정보공개-수원통계(2021년 2월 28일 현재)
 - 3 법률 제17893호(2021. 1. 12)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198조 2항에 의하면 특례시란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지정하는 도시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를 띠는데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 등이 있다.(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 4 통계청 인구통계, 2021.

책과 수혜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직접 신청은 물론 인터넷과 Mobile 기기 등을 이용한 찬반투표 등의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⁵

이렇게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이때 홈페이지가 어떤 영역과 분야에 걸쳐 주민들에게 접근성 있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분석대상인 수원시청 홈페이지가 비슷한 규모의 타 시청에 비해 어느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홈페이지 구성은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목적과 연계 속에서 시장의 시정의지를 받들어 이를 구성하는 담당자와 지역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및 인구·주민 등 내·외부 환경 요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수원시청 홈페이지 하나만을 놓고 해석하기보다는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와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요소에 대해 하미승⁶은 민주성과 합리성, 효율성, 융통성, 접근적 편의성, 다양성, 민감성, 투명성 을 제시하였고, 이용건·김종석⁷은 접근성, 편리성, 신속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 박범중⁸과 한동효,⁹ 김보흠,¹⁰ 서복순¹¹은 홈페이지 구성의 상세성과 함께 정보의 풍부성을 강조하였고, 윤상오¹²와 윤주명¹³은 홈페이지에 참여도, 안재호,¹⁴ 윤상오,¹⁵ 윤주명¹⁶은 주

5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6 하미승, 1996,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7 이용건·김종석, 199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화저널』 5, 138~168쪽.

8 박범중, 2014, 「6.4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과 시민참여: 2014 년 부산시장 선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7(1), 43~60쪽.

9 한동효, 2006, 「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분석: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2), 113~135쪽.

10 김보흠, 2005,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 87~112쪽.

11 서복순, 2004,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 149~187쪽.

12 윤상오,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13 윤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43~163쪽.

14 안재호, 2004,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5 윤상오,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16 윤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43~163쪽.

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반영도), 송조호·손달호,¹⁷ 윤상오¹⁸는 정보나 과정의 공개성, 서복순¹⁹과 윤상호²⁰는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시 홈페이지 구성이 얼마나 구체적(상세성)이며 공개된 자료나 정보 등의 풍부성과 주민들이 정책이나 제안, 민원해결 등에 대한 참여도와 주민요구에 대한 반영도, 홈페이지 방문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정책과정이나 예산과정의 공개성이 어떠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요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① 홈페이지 구성의 상세성 ② 주민참여를 위한 접근성(편의성) ③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도 ④ 정보의 풍부성 ⑤ 참여결과에 대한 공개성 ⑥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⑦ 의회의 예산과정 공개성 등 7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비교분석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정하였다.

문제1 수원시와 비교도시 울산시·고양시의 홈페이지 구성 내용은 어떠한가?

문제2 홈페이지의 핵심인 영역·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문제3 수원시 홈페이지 구성에서 지향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2. 이론 및 선행연구

1) 주민참여 이론과 선행연구

주민참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 참여 및 정치과정에 직접참여와 사회적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되면서 지역주민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인데 미국에서는 시민참여로 칭하기도 한다. 주민

17 송조호·손달호, 2005,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고찰」, 『경영경제』 38(1), 101~121쪽.

18 윤상오,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19 서복순, 2004,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 149~187쪽.

20 윤상오,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참여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각종 선거나 정책 결정에 대한 투표, 주민발안제도, 타운미팅, 공청회, 주민자문위원회 등이 있다.²¹ 하미승²²은 주민참여(시민참여)를 첫째, 기존의 off-line 차원에서 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 시민단체의 참여, 옴부즈맨제도, 시민현장, 행정정보공개, 반상회, 공청회, 민원 및 청원제도, 시민의 감시,²³ 시위나 집단민원 등의 집단행위를 들고 있다. 둘째, 전자정부에 들어서는 2001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시민중심의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주민참여는 전자투표(e-voting), sns(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각종 민원에 대한 전자서비스(e-service), 전자상거래(e-commerce), 고객의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각종 정책 소개, 토론회(수원시의 경우 만민광장), 시정소식, 정보통통과 채용정보, e-news, 각종 설문, 시장의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확인, 각종 수혜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직접 신청 등 주민참여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²⁴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 출현 이전인 1960년대 후반 실업증가로 여러 사회문제가 일어나면서 신행정학의 배경 속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화이트(O.F. White), 커크 하트(L. Kirkhart)²⁵ 등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와 주민과 관료간의 협조모델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치측면에서 시민참여를 측정하고자 체계적인 연구가 버바와 나이(Sidney Verba and Norman H. Nie),²⁶ 애브러버넬(M. D. Abravanel),²⁷ 아브람슨(Paul R. Abramson)²⁸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리고 주민참여 행태에 관해서 버바와 나이,

21 이종수 외,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2 하미승, 1996,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3 시민의 감시로 방청권, 회의록 공개, 예산심의 및 결산 공개 등을 예로 들고 있다.(하미승, 1996,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20~258쪽)

24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25 장연수 외, 2005, 『한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배경과 수준』, 오름.

26 Verba, Sidney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 ROW, Publishers.

27 Abravanel, M. D., 2007, *Fragile rights within cities : government, housing, and fairness*, John Goering(ed.), Rowman & Littlefield.

28 Abramson, Paul R., 1983, *Political attitudes in America : formation and change*, W. H. Freeman and Co.

솔로즈만(Sidney Verba & Norman H. Nie., 1987, Kay Lehman Schlozman)²⁹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민참여가 공권력을 가진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작용으로 보는 입장이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민참여를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공동문제를 직접·간접으로 정책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Herson & Bolland³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전산망 보급법률에 의거하여 1단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어 1988년부터 1996년 동안 제2단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추진한 결과 2001년 7월 전자정부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면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³¹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연구를 보면, 첫째, 정책참여에 중점, 둘째, 시민참여와 홈페이지 역할과 평가요인, 셋째, 시민참여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평가요인 등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참여와 관련된 연구로 지방자치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과정으로 좀 더 폭넓게 보는 이종수·윤영진³²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는 최창호³³에 이어 주민들이 지방단체의 수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는 전영평·최준호³⁴의 연구가 있었다. 최근 들어 주민참여를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었다.³⁵

29 Verba, Sidney and Nie, Norman H., and Jae-On Kim, 1987,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Univ. of Chicago Pr; Schlozman, K. L., Burns, N., & Verba, S.,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The Journal of Politics*, 56(4).

30 Lawrence J.R., Herson and M. B., John, 1990, *The urban web: Politics, policy, and theory*,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31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32 이종수·윤영진, 2009,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33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 삼영사.

34 전영평·최준호, 2002,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 시민, 공무원, NGO를 중심으로」, 『하계학술발표 및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자료집』, 85~111쪽.

35 황선영·김순은, 2017, 「도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역할: 아파트 공동체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전철민·이희정, 2016, 「우리나라 참여형 도시 계획의 추세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7(4); 김동근, 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46(3).

둘째, 시민참여와 홈페이지 역할과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박범중³⁶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과 시민참여에서 주민들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 SNS를 통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보흠³⁷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분석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중 주민참여 메뉴를 분석한 결과 ①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② 보다 협의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이 가능해야 하며 ③ 주민들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참여를 확대 시키고자 홈페이지의 상세성을 주장하였다. 이어 윤상호³⁸는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온라인과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는 참여 정보제공이나 질의응답에는 참여도가 높으나 그 외는 낮았다면서 참여의 요인으로 투명성, 신뢰성, 대응성, 책임성,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자료제공수준, 정보공개율, 전자여론조사, 포럼 및 토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복순³⁹은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 정책과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의견 및 제안제도, 설문 등 홈페이지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접근에 편리하도록 하여 주민참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고, 안재호⁴⁰는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는 컴퓨터 사용능력,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리와 구성, 참여 형태, 제안이나 토론의 폭과 수용여부, 의견 수렴보다는 민원해결과, 신뢰성 구축이 중요하며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시민참여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한동효⁴¹는 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분석에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제시

36 박범중, 2014, 「6.4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과 시민참여: 2014년 부산시장 선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7(1), 43~60쪽.

37 김보흠, 2005,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 87~112쪽.

38 윤상호,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39 서복순, 2004,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 149~187쪽.

40 안재호, 2004,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41 한동효, 2006, 「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분석: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2), 113~135쪽.

된 많은 정보나 민원처리 및 자료가 주민참여를 통해 확인되고, 감시하므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 행정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주장하였다. 이어 유주명⁴²은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는 교통(29.3%), 문화, 체육·교육(27.5%), 일반행정(16.8%), 홈페이지운영(9.0%) 등의 순으로 이뤄지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정보나 민원처리 등의 대응적 반영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홈페이지 평가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전자정부에 들어서면서 off-line 방식의 주민참여에서 on-line 방식의 전자민주주의(e-democracy)⁴³로 전환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므로 행정기관의 방문 없이도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통해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있으며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됨은 물론 기관측면에서 공무원의 대면적 업무절감으로 효율적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차원에서도 민원해결은 물론 지역 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각 지방의 홈페이지 운영은 민주성과 합리성, 효율성, 융통성, 접근적 편의성, 다양성, 민감성, 투명성 등의 이념적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⁴⁴ 홈페이지는 소속 지방자치 주민들에게 on-line 방식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각종 정책 소개, 토론회(수원시의 경우 만민광장), 시정소식, 정보통통과 채용정보, e-news, 각종 설문, 시장의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확인, 각종 수혜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직접 신청, 찾아가는 공청회 등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는 울산소식을 sns를 통해 카톡채

42 유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43~163쪽.

43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사이버상의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전자 의회, 전자공청회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이 포함되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범위 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위키백과)

44 하미승, 1996,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40~258쪽

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스토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⁵ 이상에서 살펴 본 ① 주민참여의 구분과 내용에 이어 ②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박석희⁴⁶는 책임성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부서 간 만족도 평가와 분석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자적 참여와 함께 직원의 만족도 평가 요소로 의사소통 원활성, 개선도, 업무협조 공감성, 고객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송조호·손달호⁴⁷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고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 평가요인으로 정보제공, 민원처리 및 편리성, 신속성, 정보공개성, 행정의 투명성, 의사 소통성을 지시하였다. 이승주⁴⁸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 평가요인으로 접근성, 이용편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최봉문⁴⁹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도시계획정보 제공실태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에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과 이를 통한 대량의 주민참여의 효율성 수준 평가를 위해 업무량, 도시계획 내용소개수준, 행사나 회의 공개, 자료제공, 고객 의견수용, 정책반영에 대한 적극성, 신속성, 관리성, 최신성, 상세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전갑길⁵⁰은 지식정보화시대·참여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발전과제에서 각 영역별 홈페이지분석 평가를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신청하는 즉시적 on-line 신청, 결과의 통보 가능성, 단순 신청성, 단순 안내성 기능에 따라 4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이용건·김종석⁵¹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정보제공, 지능화된 정보제공, 쌍방향적 의사소통, 내부업무확장 등을 분석하였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요인으로 접근성, 편

45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2021.

46 박석희, 2010, 「책임성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부서간 만족도 평가와 분석」, 『행정논총』 48(2), 249~280쪽.

47 송조호·손달호, 2005,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고찰」, 『경영경제』 38(1), 101~121쪽.

48 이승주, 2003,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9 최봉문, 2003,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도시계획정보 제공실태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vol1(1), 237~244쪽.

50 전갑길, 2000, 「지식정보화시대·참여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발전과제 : 홈페이지 분석과 정보 공개를 통해 본 지자체 행정서비스 조사」, 세미나 자료(국회의원).

51 이용건·김종석, 199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화저널』 5, 138~168쪽.

리성, 신속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의 방법과 내용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민참여의 방법과 내용의 범위 구분

주민참여 구분		주민참여 내용
방식	참여	
off-line 방식	직접방문 전화·팩스 등	- 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 시민단체의 참여, 옴부즈맨 제도, 시민헌장, 행정정보공개, 반상회, 공청회, 민원, 청원제도, 시민의 감시, 시위나 집단민원
on-line 방식	홈페이지 방문 (컴퓨터기반 전산기기사용) (Mobile사용)	- 전자투표(e-voting), 민원전자서비스(e-service), 전자상거래(e-commerce), 고객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정책소개, 토론회(수원시의 경우 만민광장), 시정소식, 정보통통과 채용정보, e-news, 각종 설문, 시장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확인, 각종 수혜에 대한 신청, 공청회, 찾아가는 공청회 - 카톡채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프로필 등의 SNS를 통해 시장 및 시장실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정보수집 및 민원처리, 복지나 필요 수혜에 대한 on-line 신청, 주민제안, 설문에 대한 응답, 토론, 주민감시 등, 주민들의 모든 활동을 주민참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참여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기구를 통한 Mobile voting,⁵² SNS 참여로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법 제 7조-제18조⁵³에 의거해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주민참여로 보고 있다.

52 Mobile voting은 2013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사용한 K-voting을 시작으로 활성화되었으나 제한점이 있어 현재는 정책투표 등과 같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일부터는 민간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중지하기로 되어 있다.

53 전자정부법, 2021, 법률 제18207호. 전자정부법 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토론회나 건의 및 다양한 의사표현의 참여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제7조-제18조에 관련서비스에 대하여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요인은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데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을 보면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융통성, 접근적 편의성, 다양성, 민감성, 투명성, 신속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 의사소통 원활성, 개선성, 업무협조 공감성, 고객 만족성, 정보제공성, 정보공개성, 의사소통성, 적극성, 관리성, 최신성, 상세성, 즉시성, 통보성, 단순신청성, 단순 안내성 등 많은 요인이 있었다.

3) 주민 참여 예산제에 관한 선행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법률 제16855호 : 2019.12.31.) 및 수원시 조례 제3859호(2019.1.10.)⁵⁴에 의거하여 실행되고 있는 예산제도로써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조정하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예산낭비 억제 등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⁵⁵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11년 이전에는 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립 방안이나 성공가능성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나 방안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 이후는 운영의 실태나 평가에 관한 연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권혁준 외⁵⁶와 최웅선⁵⁷ 등의 연구가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와 같이 예산제도의 실태나 반영률 등에 관한 분석이 아닌 주민참여 차원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횟수,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여부 등 참여빈도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였다.

54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조례 제1928호(2019.3.7)에 근거하며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1961호(2018.5.25)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울산:www.ulsan.go.kr/, 고양:www.goyang.go.kr/)

55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전국에 적용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되었고, 시작할 때에는 예산편성과정에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2019)

56 권혁준·이정철·황윤원,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9(4), 271~303쪽.

57 최웅선, 2018,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발전과제」, 『열린충남』 85(4).

4) 선행연구의 시사점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이나 제안 및 설명, 주민 참여를 위한 독려, 정보교육 필요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용건·김종석⁵⁸은 주민참여 연구에서 정보수집과 의사소통에 주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고, 전갑⁵⁹은 민원해결과 그에 대한 on-line 바로신청, 안내와 제안 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선행연구의 시사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정도를 정보수집, 민원해결, 민원의 on-line 해결, 앞으로 on-line로 전환 가능한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수준이 어떠한지 평가요인을 선정하므로 수원시에서 홈페이지 개선시 어떤 요인이 더 고려되어야 할지 착안점을 찾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요인은 27개⁶⁰가 있었는데 연구주제에 따라 요인이 다를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박범중⁶¹과 한동호,⁶² 김보흠,⁶³ 서복순⁶⁴은 홈페이지 구성의 상세성과 함께 정보의 풍부성 요인을 강조하였고, 윤상호⁶⁵와 윤주명⁶⁶은 홈

58 이용건·김종석, 199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화저널』 5, 138~168쪽.

59 전갑길, 2000, 「지식정보화시대·참여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발전과제 : 홈페이지 분석과 정보 공개를 통해 본 지자체 행정서비스 조사」, 세미나 자료(국회의원).

60 선행연구에서 평가요소로 도출된 요인은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융통성, 접근적 편익성, 다양성, 민감성, 투명성, 신속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 의사소통 원활성, 개선성, 업무협조 공감성, 고객 만족성, 정보제공성, 정보공개성, 의사 소통성, 적극성, 관리성, 최신성, 상세성, 즉시성, 통보성, 단순신청성, 단순 안내성 등이 있었다

61 박범중, 2014, 「6.4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과 시민참여: 2014년 부산시장 선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7(1), 43~60쪽.

62 한동호, 2006, 「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분석: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2), 113~135쪽.

63 김보흠, 2005,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 87~112쪽.

64 서복순, 2004,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 149~187쪽.

65 윤상호,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66 윤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43~163쪽.

페이지에 참여도, 안재호,⁶⁷ 윤주명⁶⁸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반영도), 송조호·손달호,⁶⁹ 윤상호⁷⁰는 정보나 과정의 공개성, 서복순⁷¹과 윤상호는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시 홈페이지 구성이 얼마나 구체적(상세성)이며 공개된 자료나 정보 등의 풍부성과 주민들의 정책이나 제안, 민원해결 등에 대한 참여도와 주민요구에 대한 반영도, 홈페이지 방문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정책 과정이나 예산과정의 공개성이 어떠한지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요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① 홈페이지 구성의 상세성 ② 주민참여를 위한 접근성(편의성) ③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도 ④ 정보의 풍부성 ⑤ 참여결과에 대한 공개성 ⑥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⑦ 의회의 예산과정 공개성 등 7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수원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행정에서의 민원해결, 자치입법 및 자치재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과 의회의 예산결정에 어떻게 참여하도록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 구성의 장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홈페이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수원시청, 비교대상은 울산광역시청과 고양시의 홈페이지 전 내용이 해당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67 안재호, 2004,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8 윤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43~163쪽.

69 송조호·손달호, 2005,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관한 고찰」, 『경영경제』 38(1), 101~121쪽.

70 윤상호,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71 서복순, 2004,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 149~187쪽.

〈표 2〉 연구의 대상 및 분석내용

구분	연구대상	홈페이지 분석내용	비고
연구대상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 영역·분야별 내용 - 청사안내 - 자주 찾는 메뉴	- 수원특례시의 홈페이지 구성과 주민참여 내용이 어떠한지 분석 평가를 위해 규모 면에서 수준이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고양 특례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비교대상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양시특례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시장관련 내용 - 만민광장 - 페미리사이트 - 의회의 예산결정	- 수원특례시의 홈페이지 구성과 주민참여 내용이 어떠한지 분석 평가를 위해 규모 면에서 수준이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고양 특례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5개 영역과 분야, 그리고 청사안내와 자주 찾는 메뉴 및 분야별 정보, 시장관련 매니페스토, 만민광장, 페미리사이트 내용과 시의회의 예산결정 공개성 등이 분석대상인데 이를 간단히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연구에서 3개 도시 홈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분석대상으로 한 만큼 그 자료의 수가 수원 1,827개 항목, 비교대상인 울산광역시 1,897개 항목, 고양시 1,084개 항목으로 총 4,808개 항목이다. 그리고 분석내용은 숫자가 아닌 크고, 작은 문장으로 된 정성적 Big data로서 자료취급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표와 정치참여는 주민참여에 해당되나 홈페이지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방법

수원시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은 첫째, 민원 및 수혜를 위해 바로 연계 신청 가능한 분야, 둘째, 전 분야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정보획득 분야, 셋째,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매니페스토 넷째, 주민의 제안이나 토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분석내용 중 영역·분야별내용, 청사안내, 자주 찾는 메뉴, 분야별정보, 페미리사이트에 대해서는 ① on-line을 통해 바로 신청가능한가 ②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어떤 내용의 정보를 수집 가능한지 분석하였고, 시장관련과 만민광장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의 내용과 주민들의 제안과 토론 참여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분석할 내용은 Big data의 질적 자료(qualitative data)인 점을 고려하여 영역별 서열화 배열을 거친 다음 여기에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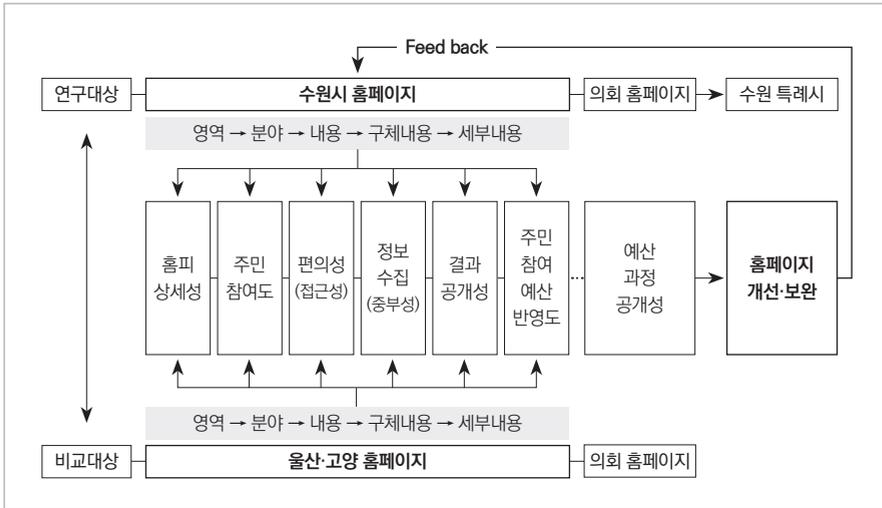
용·항목별로 숫자 코드화 하여 명명척도 후 정성-정량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종합민원 영역의 경우 분야(코드1)-주민참여예산(101)-재정운영현황(10101)-세출현황(1010101)-사업·예산정보(101010101)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코드화 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 홈페이지 구성 내용별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이용건·김종석⁷²이 주민참여 연구에서 정보수집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전갑길⁷³은 민원해결과 그에 대한 on-line 바로신청, 안내와 제안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원해결과 함께 주민에게 더 필요한 정보는 없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주민참여를 크게 정보수집과 민원해결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민원해결이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한 부분과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환할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홈페이지 영역·분야 내용에 대해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 하였다. 홈페이지의 평가 분석은 선행연구의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듯이 27개 요인 중에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① 홈페이지 구성의 상세성 ②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도 ③ 정보 획득의 풍부성 ④ 참여결과에 대한 공개성 ⑤ 차치예산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⑥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⑦ 의회의 예산과정 공개성 등 7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3) 연구 분석틀

선행연구에서 고찰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주민참여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on-line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구성내용이 고객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풍부하여야 한다. 접근적 편의와 함께 수집할 정보의 양과 질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72 이용건·김종석, 199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화저널』 5, 138~168쪽.

73 전갑길, 2000, 「지식정보화시대·참여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발전과제: 홈페이지 분석과 정보 공개를 통해 본 지자체 행정서비스 조사」, 세미나 자료(국회의원).



〈그림 1〉 연구 분석 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동시에 찾는 정보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며 획득된 정보를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므로 주민들의 양적·질적 참여수준이 달라진다.

특히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과 함께 행정의 변화와 함께 홈페이지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 구성 및 내용의 개선이나 보완점을 찾기 위해 선행연구 시사점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주민참여 내용으로 정보수집, 민원해결, 민원의 on-line 해결, 앞으로 on-line로 전환가능한 내용을 분석 후, 7개의 요인별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사용된 연구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연구대상인 수원시청과 비교대상인 울산·고양시청의 홈페이지 내용을 영역-분야-내용-구체내용-세부내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획득, 민원해결,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on-line 신청, 정책참여 등에 대한 자료의 공개수준과 함께 만민광장⁷⁴에 건의하고 토론한 내용, 과거 및 현재의 각종통계 자료 제공의 신속성, 주민참여예산 제안 결과 및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의 결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7가

74 수원은 만민광장, 울산광역시는 다음이 방, 고양시는 제안광장으로 명명되어 있다.

지 평가요소 ① 홈페이지 구성의 상세성 ②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도, ③ 정보획득의 풍부성 ④ 참여결과에 대한 공개성, ⑤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편의성), ⑥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⑦ 의회의 예산과정 공개성 등을 평가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토대로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4. 시청 홈페이지의 구성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수원시청을 비롯하여 비교 집단인 울산광역시와 고양시가 홈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어 홈페이지에 주민이 참여한 내용을 이용건·김종석⁷⁵ 및 전갑길⁷⁶이 분석했던 정보수집, 민원해결, on-line신청이 어떤 수준인지 분석하고 여기에 on-line신청으로 전환가능한 내용이 얼마나 되며,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행태별로 비율 분석하였다.

1) 수원시 홈페이지 분석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는 <그림 2>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는 ① 5개의 영역(종합민원, 시민참여, 정보공개와 개방, 수원소식, 수원소개)과 분야별(10개 분야) 정보의 6개 핵심 분야 ② 수원시청 안내 부분⁷⁷ ③ 상단우측 패밀리 사이트⁷⁸ ④ 수원시민 맞춤형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의 홈페이지 내용을 각 영역·분야·구체내용-세부-세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75 이용건·김종석, 199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화저널』 5, 138~168쪽.

76 전갑길, 2000, 「지식정보화시대·참여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발전과제 : 홈페이지 분석과 정보 공개를 통해 본 지자체 행정서비스 조사」, 세미나 자료(국회의원).

77 수원시청에 대한 안내는 청사안내, 조직도,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언어별보기의 6개로 구분되어 있다.

78 패밀리사이트는 수원 iTV, e-수원뉴스, 수원관광, 수원시도서관, 수원시의회로 바로 갈 수 있는 주요 홈페이지와 Suwon Bike 반디클, 한눈에 보는 수원시 임산·출산·육아 플랫폼, 수원컨벤션센터, 민주시민의 참여와 소통광장인 수원만민광장, 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예약, 수원시 명예의 전당,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수원, 수원화성 군 공항이전, E-BOOK 자료 홍보관 등 10개로 구성된 Hot이슈 홈페이지가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청 안내	청사안내 조직도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언어별 보기						패밀리 사이트
민원 정보	종합민원	시민참여	정보공개/개방	수원소식	수원소개	분야별정보	맞춤 서비스							
안내	뉴스알림, 시민참여 안내						매니페스토 시정현장							
							수원 OPEN API 서비스 (공공정보 및 서비스)							
자주 찾는	종합민원	일자리	공유자원 예약	불법 주정차	수원관광	대형 폐기물	세금안내	세울 전자민원	공모접수	조직도				
바로 서비스	시정소식	보도자료	채용시험	공모접수	정보통통	수원만민광장			행사/축제					
	수원 ITV		수원뉴스		포토 갤러리		코로나19 속보							
분야별생활정보(상동)		복지	건강	교통	일자리	환경								

〈그림 2〉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모습

〈표 3〉 수원시 홈페이지 영역·분야별 내용

구분	영역·분야	수	수원시홈페이지 구체내용	세부	세세부
영역·분야별 내용	종합 민원	9	민원신청(3), 민원발급(2), 민원안내(20), 민원센터안내(3), 여권민원(8), 민원서식자료실(1), 민원사무편람(1), 고객만족행정(2), 정보통신공사(4)	-	-
	시민 참여	12	수원시민의 정부(3), 신고센터(7), 주민참여예산(9), 인권아카이브(7), 제안마당(2), 수원희망글판(1), 칭찬합니다(2),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1), 지역소식(1), 수원포럼(1), 만민광장(4) *아고라가 만민광장으로 통합	43	18
	정보 공개/개방	17	시정자료실(6), 정보공개청구(3), 청렴수원(10), 행정정보공개(8), 업무추진비공개(4), 기타지출 지급공개(2), 지방공기업(3), 출자출연기관(3), 위원회방(2), 규제개혁·적극행정(2), 수원통계(4), 자치법규조례(4), 데이터개방활용(1), 공공시물예약하기(3), 연도별시정계획(1), 학술용역(1), 공무국회연수자료실(4)	52	128

구분	영역·분야	수	수원시홈페이지 구제내용	세부	세세부
영역·분야별 내용	수원 소식	18	시정소식(1), 공고·고시·입법예고(1), 보도자료(1), 해명자료(1), 사진보도자료(5), 시정브리핑(1), 인문학강좌(1), 시민정보화교육(1), 목공체험(1), 반려동물문화교실(1), 부국원(1), 서울대수원수목원(12), 구인·구직(4), 주간행사계획(1), 이달의 수원행사(7), 모두의 사진(6), 정보통통(1), 계약정보(9)	11	-
	수원 소개	6	수원시소개(15), 조직·업무(6), 수원시상징물(5), 도시사용설명서(29), 수원시 홍보영상(1), 지도로 보는 수원(2)	2	-
	분야별 정보	14	뉴스포털(10), 교육(7), 교통(4), 도시(7), 문화·체육(3), 민방위(6), 보건(6), 복지(6), 세금(4), 안전(12), 일자리(6), 재정·경제(6), 행사축제(6), 환경·녹지(5)	344	354
청사 안내	조직도	11	수원시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로그인, 회원가입	-	-
	사이트 맵	6	6분야 사이트 요약(6), 언어별 보기(4)	-	-
자주 찾는 주요 메뉴	여권 민원	3	종합민원, 여권민원, 여권민원실 안내(종합민원 同)	-	-
	일자리	1	일자리 채용정보(각 민원과 분야에 포함 同)		
	공유 자원 예약	3	전체, 대관시설, 도시공원수원 (재정경제 공유수원, 수원통계DB)		
	불법 주정차	1	불법주정차단속(분야-교통과 동일)		
자주 찾는 주요 메뉴	수원 관광	6	수원화성, 수원관광, 추천코스, 이색관광, 여행길잡이, 교통정보(문화체육 同)	-	-
	대형 폐기물	4	대형폐기물신청안내, 폐기물배출신청, 처리결과확인, 공지사항	7	3
	세금 안내	4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방법안내, 정보마당		
	서울 전자 민원	3	민원신청 및 조회, 행정정보공개, 고객센터	3	6
	공모 접수	2	설문조사, 공모접수	-	-
	조직도	5	수원시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수원시 소개와 同)	4	-

구분	영역·분야	수	수원시홈페이지 구체내용	세부	세세부
분야별 생활 정보	복지	8	아동수당, 여성안전도시, 임신출산장려지원, 아동친화도시 다문화생활가이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한아름콜택시	-	-
	건강	8	응급의표정보, 휴일지킴이약국, 자동제세동기현황, 치매지원센터, 영유아예방접종, 진료및 검사, 의료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	-
	교통	8	차량등록, 주정차위반조회, 무인자전거대여,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이, 교통정보, 검사/보험, 공영주차장, 버스노선	-	-
	일자리	8	구인/구직, 일자리창출, 상담지원, 마을기업, 새일공공일자리, 아르바이트상담, 취업관련사이트, 일자리소식	-	-
	환경	8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판매, 폐기물스티커, 음식물쓰레기 배출, 조기폐차, 경유차저감장치·LPG엔진개조, 친환경운전자10약속, 미세먼지시민행동요령	-	-
시장	매니페스토	13	약속을 지키겠습니다(3), 시민과만남(5), 매이페스토와 6, 7기 성과(5)	-	-
만민광장		4	토론광장,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설문조사	-	-
OPEN API		1	서비스 이용안내(공공정보개방), 서비스소개(2)	-	-
패밀리 사이트	주요 홈페이지	5	주요홈피 : 수원ITV, e-수원뉴스, 수원관광, 수원시도서관, 수원시의회	-	-
	이슈 홈페이지	10	이슈홈피 : 수원바이크, 수원시임신출산육아, 수원컨벤션센터 등10	-	-
맞춤 서비스	생애 주기·유형별	12	생애주기: 출생준비기(10), 영유아(47), 취학아동청소년(3), 청년(36), 중장년, 노년 유형별: 생활보장, 장애인, 여성, 아동, 어르신, 다문화 (분야내용과 동)	58	85
바로서비스		5	시정소식, 보도자료, 채용시험, 공모접수, 정보통통	-	-
행사축제		1	강연, 공연, 전시 등소개	-	-
수원 I TV 및 View		101	뉴스 등, 수원뉴스, 포토갤러리, 코로나19(7)	-	-
34		226	449	524	594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정리.

수원시 홈페이지의 영역·분야는 6개인데 종합민원, 시민참여, 정보공개/개방, 수원소식, 수원소개와 분야별(14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다시 내용 76개-구체 내용은 342개-세부내용 500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메뉴는 여권민원과 일자리, 공유자원예약, 불법주정차, 수원관광, 대형폐기물, 세금안내, 세울전자민원, 공모접수, 조직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2개-구체내용 32-세부내용 14개로 되어 있다. 분야별생활정보영역은 복지, 건강, 교통, 일자리,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 40개-구체내용 32개-세부내용은 없었다. 수원 시장 관련 분야는 시장의 약속이행과 시민과의 만남 및 매니페스토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 13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와 여론 및 의견 등의 반영에 가장 중요한 만민광장은 토론광장과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관련 설문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외에도 맞춤형서비스 분야에서는 영역과 분야에 제시된 내용을 출생, 영유아, 취학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및 유형별 내용(생활보장, 장애인, 여성, 어르신, 아동, 다문화)으로 재구분해 센터와 연계하였다. 이렇게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은 1,827개이다.

〈표 3〉을 홈페이지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내용과 교차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수원시 홈페이지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내용의 교차분석표

주민참여 내용 홈피 내용	정보수집 (%)	민원			기타 소개, 연계 등
		민원관련	민원 중 on-line처리	민원 중 on-line 전환필요	
종합민원·신청상담	63(3.4%)	52(8.7%)	12(7.0%)	7(2.9%)	1 (3.9%)
시민참여	104(5.7%)	62(10.4%)	17(9.9%)	5(2.0%)	16(5.6%)
정보공개개방	330(18.1%)	117(19.5%)	10(5.8%)	4(1.7%)	137(48.4%)
수원소식	63(3.4%)	22(3.7%)	18(10.5%)	4(1.7%)	11(3.9%)
수원소개	67(3.7%)				
분야별	878(48.1%)	219(36.6%)	74(43.3%)	135(56.2%)	71(25.0%)
맞춤서비스	237(13.0%)	107(17.9%)	24(14.0%)	84(35.0%)	15(5.3%)
시정소식	14(0.8%)	1(0.2%)	1(0.6%)		1(0.4%)
시장관련내용	22(1.2%)	10(1.7%)	9(5.3%)	1(0.4%)	6(2.1%)
수원 open API	6(0.3%)				

주민참여 내용 홈피 내용	정보수집 (%)	민원			기타 소개, 연계 등
		민원관련	민원 중 on-line처리	민원 중 on-line 전환필요	
패밀리사이트	11(0.6%)				3(1.1%)
수원관광	5(0.3%)				3(1.1%)
서울전자민원	10(0.5%)	6(1.0%)	4(2.3%)		
수원시 조직	13(0.7%)	2(0.3%)	2(1.1%)		9(3.2%)
합계(결측 4 포함)	1,827(100%)	598(100%)	171(100%)	240(100%)	283(100%)

참고 : ① 홈페이지의 전체 내용은 1,082개인데 이를 정보수집과 민원 관련으로 2구분하였다.
 ② 분야별에는 뉴스포털, 교육, 교통, 도시, 문화·체육, 민방위, 보건, 복지, 세금, 안전, 일자리, 재정·경제, 행사축제, 환경·녹지 등 14개 분야 내용이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종합민원, 시민참여, 정보공개, 수원소식, 수원소개, 분야별, 맞춤형서비스, 시정소식, 시장관련 내용, 수원 open API, 패밀리사이트, 수원관광, 서울전자민원, 수원시청 소개의 14개 영역·분야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의 내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분야별 내용으로 14개 분야 878건(48.1%)을 차지하며, 다음이 정보공개 330건(18.1%), 맞춤형서비스 237건(13.0%), 시민참여 104건(5.7%)을 차지하고 있다. 즉, 시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분야별 내용과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맞춤형서비스가 1,546건으로 홈페이지의 84.6%를 차지한다.

수원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며, 필요 시 one-line 신청을 한다. 현재 홈페이지에 제시된 1827개 정보 중 민원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598개로 32.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598개의 민원 중 171개(28.6%)가 one-line 처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e-line 서비스 제공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분야별 정보로 36.6%, 정보공개 관련 19.5%, 맞춤형 서비스 17.9%, 시민참여 10.4%, 종합민원 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one-line으로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부분은 40.1%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분야별 정보와 맞춤형서비스 부분에서 on-line 많은 전환이 필요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의 영역·분야별 내용을 통해 총 1,827개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내용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행태에 대한 비율 분석

홈페이지 정보 내용	빈도	비율 (%)	특징		홈페이지 정보 내용	빈도	비율 (%)	특징	
			정보 수집	on-line 신청				정보 수집	on-line 신청
안내 소개	962	52.7	○		전국 공지사항 공개	4	.2	○	
책자나 pdf 공개	171	9.4	○		청소년 연계 소개 (청나래)	54	3.0	○	
신고서 작성	2	.1	○		정부질의 공개	11	.6	○	
공지사항 공개	20	1.1	○		정부기관 바로 연계	16	.9	○	○
연계검색 (도로, 서식, 거래)	82	4.5	○		주민질문답변 공개	24	1.3	○	○
자주 찾는 업무 공 개	10	.5	○		바로연계 신청	171	9.4	○	○
시장관련 소개	7	.4	○		포털로 연계	1	.1	○	○
시장 매니페스토와 뉴스	12	.7	○		로그인후 직접신청	2	.1	○	○
시장관련 책자공개	1	.1	○		일자리 연계 소개	6	0.3	○	○
정부연계 안내	40	2.2	○		일자리 로그인 신청	5	.3	○	○
정부연계 통계	1	.1	○		청소년 연계 신청 (청나래)	14	.8	○	○
부동산과 지방세공지	17	.9	○		총 합계 (결측 150 포함)	1827	100	100%	13.1%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총 1,827개의 내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수집된 정보를 통해 필요 시 주민들이 컴퓨터나 Mobile을 사용해 on-line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171건(9.3%)이었다. 주민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볼 수 있는 정보는 안내나 소개관련 내용 962건(52.7%), 책자나 PDF파일로 공개된 것 171(9.4%),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이를 공개한 내용 24건(4.9%), 도로나 서식 등 연계검색 82건(4.5%), 일자리 연계소개 6건(0.3%), 정부연계 관련 안내나 통계 및 공개내용 112건(6.1%), 전국부동산과 지방세 공지 등이 17건(0.9%), 청소년 연계소개나 신청 68건(3.8%)으로 되어 있다. 전체 홈페이지 내용 중 on-line으로 전환 가능한 부문은 9.4%로 낮은 편이다.

2)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석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www.ulsan.go.kr)도 수원시 홈페이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울산시 홈페이지는 5개의 영역(민원, 소통참여, 정보공개, 시정소식, 울산소개)과 분야별정보(10개 분야)로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 42개-구체내용은 246개-세부내용은 45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우측 상단에 열린시장실과 매니페스토를 안내하기 위한 부분 바로서비스 코너가 있어 울산소식·뉴스 및 보도자료와 시험공고, 고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이용자별 및 자주찾는 메뉴에 이어 울산시청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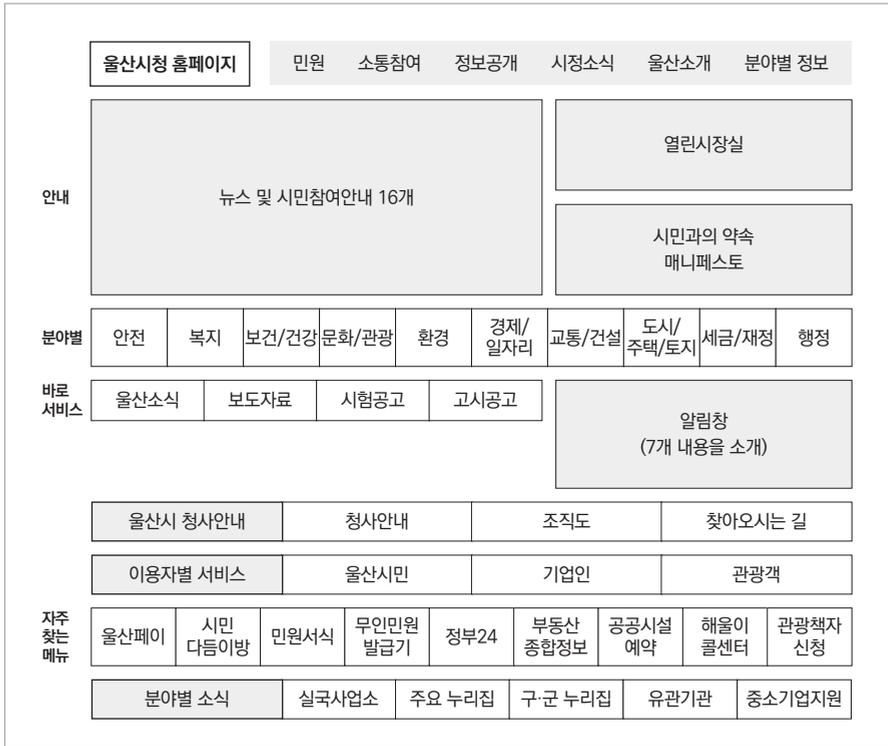
〈그림 3〉에 제시된 홈페이지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내용을 교차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내용의 교차분석표

홈피 내용 \ 주민참여 내용	정보수집(%)	민원		
		민원관련	민원 중 on-line처리	민원 중 on-line 전환필요
민원	73(3.8%)	53(8.7%)	27(14.9%)	13(8.1%)
소통참여	27(1.4%)	9(1.5%)		
정보공개	118(6.2%)	40(6.6%)	17(9.4%)	17(10.7%)
시정소식	30(1.6%)	12(1.9%)	12(6.6%)	
울산소개	55(2.9%)	2(0.3%)	1(0.5%)	1(0.6%)
홍보소식	3(0.2%)			
민원상담 및 해율이 콜	13(0.7%)	10(1.6%)	4(2.2%)	2(1.2%)
시장관련	49(2.6%)	8(1.3%)	5(2.8%)	
울산시민 참여	8(0.4%)	7(1.1%)	7(3.8%)	
입법예고	1(0.05%)	1(0.1%)		
울산고시	1(0.05%)			
분야별(11개)	1429(75.3%)	466(76.6%)	108(59.6%)	126(79.2%)
보도자료	1(0.05%)			
청사안내와 조직	6(0.6%)			
합계(결측 3포함)	1,897(100%)	608(100%)	181(100%)	159(100%)

참고 ① 홈페이지의 전체 내용은 1,897개인데 이를 정보수집과 민원관련으로 2구분하였다.

② 분야별-교통·건설, 도시·주택, 문화·관광, 보건, 복지, 세금·재정, 안전, 일자리, 경제, 환경, 행정 등 10개 분야이다.



〈그림 3〉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모습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의 영역·분야별 내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분야별 내용으로 10개 분야 1,429건(75.3%)을 차지하며, 다음이 정보공개 118건(6.2%), 민원업무 73건(3.8%), 울산소개 55건(2.9%), 소통참여 27건(1.4%)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분야별 내용과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민원서비스 내용이 1,620건으로 85.4%를 차지하였다.

울산광역시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며, 필요시 one-line 신청을 하기도 한다. 현재 홈페이지에 제시된 1,897개의 정보 중 민원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608개로 전체 민원 1,897개의 32.1%를 차지한다. 그리고 608개의 민원 중 181개(29.8%)가 one-line 처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e-line 서비스 제공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분야별 정보로

59.6%, 민원 8.7%, 정보공개 관련 6.6%, 울산소개 2.9%, 소통참여 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one-line으로 서비스로 전환 되어야 할 부분은 민원 관련 업무 중 26.1%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분야별 정보와 정보공개 및 민원 부분에서 전환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총 1,897개인데 이 많은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현재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구분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행태에 대한 비율 분석

홈페이지 내용 구분	빈도	빈도	특징	
			정보수집	on-line신청
바로연계 신청	181	9.5	○	○
안내 소개	769	40.5	○	
책자나 pdf 자료 공개	140	7.4	○	
질문답변 공개	213	11.2	○	○
로그인 부정부채신고	15	.8	○	○
시의 시민의견 및 제안	5	.3	○	○
시장의 시민과 약속 소개	12	.6	○	
시장 공약실천	25	1.3	○	
정부연계관련	54	2.8	○	
정부연계 민원 소개	32	1.7	○	
정부연계 민원공개	9	.5	○	
정부연계 검색	4	.2	○	
연계검색 확인	101	5.3	○	○
공공데이터 포털연계	8	.4	○	
육아센터 연계신청	26	1.4	○	○
육아센터 소개	220	11.6	○	
육아센터 상담 등 공개	65	3.4	○	○
합계(결측 포함)	1,897	100	100%	24.9%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총 정보는 1,897개인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컴퓨터나 Mobile을 사용해 on-line으로 민원신청 할 수 있는 내용은 181건(9.5%)이며, 기관 안내나 정책 소개 769건(40.5%), 책자나 PDF파일로 자료 공개 140건(7.4%),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공개 213건(11.2%), 연계검색 101건(5.3%), 포털로 연계가 8건(0.4%), 정부연계 및 포털연계 내

용 208건(10.4%), 육아 관련 정보가 311건(15.6%)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홈페이지 내용 중 on-line으로 전환 가능한 부문이 24.9%이다.

3) 고양시 홈페이지 분석

고양시의 홈페이지(www.goyang.go.kr/)도 수원시의 홈페이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표 8〉 고양시 홈페이지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내용의 교차분석표

주민참여 내용 홈피 내용	정보수집(%)	민원		
		민원관련	민원 중 on-line처리	민원 중 on-line 전환필요
전자민원 및 민원정보	93(8.6%)	40(8.0%)	16(14.8%)	7(10.1%)
시민소통	64(5.9%)	25(5.0%)	17(15.7%)	58(84.0%)
분야별전체	634(58.6)	293(58.5%)	43(39.8%)	
시정소식	181(16.7%)	65(12.9%)	16(14.8%)	
고양소식 소개	3(0.3%)	3(0.6%)		
문화 관광	29(2.7%)	28(5.6%)		
민원신청				
민원정보	7(0.6%)	19(3.8%)	9(8.3%)	1(1.4%)
시장관련	46(4.2%)	3(0.6%)	2(1.8%)	
입법예고	1(0.1%)			
고양 고시	2(0.2%)	1(0.2%)	1(0.9%)	
세무	2(0.2%)	21(4.2%)	1(0.9%)	2(2.8%)
재정 예산정보	20(1.8%)	3(0.6%)	3(2.7%)	1(1.4%)
합계(결측 2 포함)	1,084(100%)	501(100%)	108(100%)	69(100%)

참고 : ① 홈페이지의 전체 내용은 1082개인데 이를 정보수집과 민원관련으로 2구분하였다.

② 분야별-재난안전, 경제·일자리, 환경, 산업·소비자, 교통, 교육, 식품위생, 사회복지, 산림·녹지, 도시·부동산, 문화, 체육 11개 분야이다.

고양시의 홈페이지는 고양시 행정의 핵심인 5개의 영역(전자민원, 시민소통, 생활정보, 열린 시정, 늘 푸른 고양, 문화관광)과 생활정보(11개 분야)⁷⁹가 제시되어 있고, 우

79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는 “분야별정보”로 표기하였고, 고양시는 생활정보로 표기하였다.

측 상단에 미래고양시장실과 공약실천과 함께 시청안내 위한 부분에 이어 자주 찾는 내용으로 일자리정보, 민원서식, 통합예약, 고양페이, 여권발급, 대형폐기물수거, 민원상담, 직원검색, 행사캘린더 등 10개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영역이나 분야 구분 없이 자주 찾는 내용이다. 그리고, Goyang City(고양시) 주제로 민원정보, 시민참여, 정보공개 자료를 제공하고 참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수원시나 울산시의 정보공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고양시 홈페이지가 수원이나 울산과 좀 다른 점은 상단에 통합예약 부문과 온라인 신청부분을 설치한 점이다. 홈페이지 내용 1,084개를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내용을 교차분석하여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양시청 통합예약		고양시의회					
홈피	시민소통	전자민원	생활정보	열린시정	늘푸른고양	문화관광				
안내	시청뉴스 3개				열린시장실					
					공약과 실천	고양시에 바란다				
					청사안내	내부조직	찾아 오시는 길			
자주 찾는 메뉴	일자리 정보	민원서식	통합예약	고양페이	여권발급	대형폐기물 수거	민원상담	직원검색	행사캘린더	
새소식	채용공고	행사안내	고시공고	입법예고	Hot News					
						12개 슬라이드쇼				
	민원정보	민원상담	정부24	민원서식	여권안내	무인민원기	주정차단속			
	시민참여	자유계시판	칭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광장	설문조사	온라인서명			
	정보공개	예산정보	사전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창구	고양시 통계	행정자료실			
	고양 TV		고양 포커스		고양 소식지					
	온라인 신청	민원신고센터	민원콜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그림 4>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모습

고양시 홈페이지 내용은 1,084개인데 영역·분야별 내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분야별 내용으로 11개 분야 634건(58.6%)을 차지하며, 다음이 시정소식 181건(16.7%), 민원업무 93건(8.6%), 시민소통 64건(5.9%), 시장 관련 46건(4.2%)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분야별 내용과 시정소식, 민원, 시민소통 내용이 972건으로 89.7%를 차지한다.

고양시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며, 필요시 one-line 신청을 하기도 한다. 현재 홈페이지에 제시된 1,084개의 정보 중 민원과 직접관련 된 부분은 501개로 전체 민원 1,084의 46.2%를 차지한다. 그리고 501개의 민원 중 108개(21.6%)가 one-line 처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e-line 서비스 제공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분야별 정보로 39.8%, 민원 14.8%, 시민소통 15.7%, 시정소식 14.8%, 민원에 관련된 정보 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one-line으로 서비스로 전환 되어야 할 부분은 민원관련 업무 중 13.8%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분야별 정보와 정보공개 및 민원 부분에서 전환 가능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총 1,084개인데 이 많은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현재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구분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고양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행태에 대한 비율 분석

홈페이지 내용 구분	빈도	비율(%)	특징	
			정보수집	on-line신청
연계 신청	108	9.9	○	
안내 소개	483	44.6	○	
책자 pdf 자료다운	61	5.6	○	
질문 답변과 자료 공개	155	14.3	○	○
연계검색 확인 등	20	1.8	○	
주민참여예산	9	.8	○	○
로그인 부정신고	6	.6	○	○
정부연계 바로 신청	20	1.8	○	○
정부연계 민원안내	28	2.6	○	

홈페이지 내용 구분	빈도	비율(%)	특징	
			정보수집	on-line신청
정부연계 자료책자나 pdf	3	.3	○	
정부연계 민원공개	52	4.8	○	
정부연계 검색	12	1.1	○	
공공일자리	25	2.3	○	
일자리센터	5	.5	○	○
합계(결측값 97 포함)	1,084	100	100	18.0%

〈표 9〉와 같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총1,084개의 내용 중 현재 주민들이 on-line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108건(9.9%) 정도이며, 주로 안내나 소개하는 내용이 483건(44.6%), 책자나 PDF파일로 공개된 것 61(5.6%),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이를 공개한 내용 155건(14.3%), 연계검색 20건(1.8%), 정부연계 관련 안내나 통계 및 공개 내용 115건(10.6%)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홈페이지 내용 중 on-line으로 전환 가능한 부분이 18.0%이다.

4) 홈페이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홈페이지의 영역·분야별 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내용을 교차분석한 결과 수원시의 민원 관련 내용은 32.7%, 이중 on-line 신청해결 28.6%, on-line으로 전환 가능한 내용 40.1%이었고, 울산광역시는 민원관련 내용 32.1%, 이중 on-line 신청해결 29.8%, on-line으로 전환 가능한 내용 26.1%, 고양시는 민원관련 내용 46.2%, 이중 on-line 신청해결 21.6%, on-line으로 전환 가능한 내용 13.8%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전체 내용에 대한 민원관련 업무는 고양시가 가장 많았고, 수원시와 울산광역시는 비슷하였다. 또한 on-line인 처리 서비스 수준은 고양시가 낮았고, 앞으로 on-line으로 전환하여야 할 내용은 수원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행태에 대한 비율 결과를 보면 정보관련 내용(52.7%)과 책자나 PDF파일 자료 공개(9.4%)는 수원시가 가장 높았고, 정책소개 관련은 울산광역시가 40.5%로 높았으며,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고양시가 가장 높았다.

5. 홈페이지 영역·분야별 분석과 주민참여 수준의 평가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통해 수원시 지방자치의 전반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민원 해결 및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가장 편한 방법은 one-line의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체제를 이루어 간소화와 효율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이루는 것이 홈페이지 구축의 핵심인데 어떠한 내용들을 One stop 방식으로 on-line 전환이 가능한지 분류해 보았다.

1) 종합민원·주민참여·정보공개에 대한 분석

종합민원·시민참여·정보공개에 대한 홈페이지 내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필요 정보를 찾았을 경우 컴퓨터 인터넷이나 Mobile 기기를 사용하여 바로 on-line을 통해 신청 가능한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on-line으로 전환이 가능한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종합민원 영역 중 홈페이지에서 바로 on-line 신청하도록 실행되는 내용은 4건이 있었고, 앞으로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전환하여야 할 내용이 7건이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경우 현재 on-line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3건, 앞으로 on-line 신청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5건, 정보공개·개방의 경우는 현재 실행 10건, 앞으로 전환필요 4건이 있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가사홈서비스의 경우 현재는 소개와 방법 등의 안내만 하고 있어 해당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신청이 되면 담당공무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One line으로 신청된 자료를 비대면을 통해 확인 처리하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on-line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표 10〉 종합민원·시민참여·정보공개 영역에서 on-line 신청 처리되는 것과 신청전환이 필요한 내용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필요	개인정보상 고려
종합민원	가사홈서비스		○	
	구술전화신청안내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필요	개인정보상 고려
종합민원	마을행정사		○	
	병역사항			○
	사전상담예약제안내		○	
	새울전자민원	○		
	시장님보세요	○		
	안전신고	○		
	어디서나 민원(fax)		○	
	여권신청			○
	여권재발급 및 기재			○
	외국인인감신고			○
	인감증명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		○	
	주민등록등초본발급		○	
시민참여	Q&A시민참여	○		
	공익신고하기(안내)		○	
	수원시 웹서비스 모니터	○		
	위조상품 신고안내		○	
	은닉재산 제보		○	
	인권침해신고	○		○
	제안안내		○	
	주민참여예산 참여기구		○	
정보공개 ·개방	규제애로신고	○		
	시도별 접수하기	○		
	응시표 출력	○		○
	합격/성적조회	○		○
	지방기업 규제애로	○		
	공공데이터와 개방		○	
	날짜별	○		
	보고서 공동 활용		○	
	시설별	○		
	이용 안내		○	
	인터넷청구		○	
	적극행정 공무원추천	○		
	주민참여조례 서명하기	○		
지역별	○			

2) 분야별 내용에 대한 분석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내용에는 뉴스포털, 교육, 보건, 복지, 안전, 교통, 도시, 환경·녹지, 세금, 재정·경제, 문화·체육, 민방위, 일자리, 행사축제 등 14개 분야 내용이 있다.

〈표 11〉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on-line신청 처리되는 것과 신청전환이 필요한 내용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교육	개인상담		○	보건	예방접종시기확인	○	
	상담센터 7개소		○		일반예방접종	○	
	집단상담		○		자살예방 중독관리센터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정신건강복지센터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		정신재활시설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		표준예방접종	○	
	학교밖 청소년지원사		○		건강검진		○
	교육지원(교육체험)		○		검사안내		○
	교육지원(다양한 학습기회)		○		모자보건		○
	교육지원(사교육비 절감)		○		방문보건		○
	교육지원(학교 교육과정)		○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연계)	○	
	교육지원(학교급식 지원)		○		의료비지원		○
	교육지원(행복한 학교)		○		정신보건		○
	권선구교육통합검색	○			정신재활시설현황		
	상담프로그램사업		○		제증명 발급		○
	영통구교육통합검색	○			치매안심센터		○
	장안구교육통합검색	○					
팔달구교육통합검색	○						

참고 : 개인정보상 on-line신청처리 고려대상 없음.

교육 분야에서 현재 바로 on-line 신청 가능한 내용은 4건이고, 앞으로 on-line 신청 가능하도록 전환할 내용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14건이 있었다. 보건 분야는 현재 바로 신청되는 내용이 일반예방접종, 표준예방접종 등 4건, 앞으로 on-line

신청으로 전환가능한 내용으로 자살예방 중독관리센터 등 11건이 있었다.

주민참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on-line 신청에 관심이 높은 분야는 복지분야인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에 소개만 있을 뿐 바로 on-line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 편의성이 크게 부족하였다. 특히 복지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보면 가정폭력 Q&A, 가정폭력 피해자 위한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초연금제도,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36개가 있었는데 대부분 안내나 소개 및 센터소개 위주로 되어 있고, on-line 신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⁸⁰

이어 도시와 환경 분야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등록 및 거래 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안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개별공시지가 검색, 부동산 임대차계약, 조례법규에 대한 정보마당 등 16건이 바로 on-line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 구역별 사업 추진현황, 도움센터, 주소전환 등 12개의 내용은 on-line 신청이 되지 않고 있었다.

〈표 12〉 복지 분야에서 on-line신청 처리되는 것과 신청전환이 필요한 내용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복지	가정폭력 Q&A		○	복지	노인여가 및 문의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노인일자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다누리꾼 (대상자만 가능)		○
	이런 것도 가정폭력		○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장애인 냉난방비 지원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지원		○

80 실제 주민생활에 접근하여 살펴보면 어린이, 장애인, 결손가정, 어르신, 극빈자 등 어려움이 많아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바로 가기로 신청 접수하는 등의 접근적 편의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복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복지	수원시 해누리 푸드마켓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		아동수당지원		○
	장애인연금지급안내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		아동학대예방		○
	저소득 장애인 이사비지원		○		외국인 다문화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		의료급여제도		○
	출산 전 지원		○		자활사업		○
	출산 후 지원		○		장애연금 수당지급		○
	기초연금지원제도		○		장애인 복지시설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
	노인돌봄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노인복지시설 (5개 양로원)		○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		○
	노인생활안정지원		○		지역서비스투자사업		○

환경 분야는 과정보별 수질 검사 결과, 도시가스 공급, 식품안전소비자 신고, 약수터 수질분석 자료 등 8건은 바로 on-line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 시설설치 비용 1개의 내용은 on-line 신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과 교통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안전 분야는 국민재난 안전포털(www.safekorea.go.kr/), 경기도 소방재난본부(119.gg.go.kr/)와 연계되어 있고, 즉시 on-line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Mobile로도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위기, 무더위 쉼터, 안전디딤돌 등 5개 내용이 앞으로 on-line 신청으로 전환하여야 할 내용이었다. 교통 분야는 차량등록 및 검사, 온라인 자동차 등록 등 3개 내용이 현재 바로 신청하고 있으나 견인단속, 과태료 금액 등 4개가 전환이 필요하다.

〈표 13〉 세금 분야-재정-일자리에서 on-line신청 처리되는 것과 신청전환이 필요한 내용

종류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개인 정보상 고려	종류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세금	계좌자동이체신청	○			세금	급수공사 신청안내		○
	급수공사 신청안내		○			급수공사지원		○
	납부방법	○				누수/동파안내		○
	누수/동파방지법		○			문자안내신청/해지	○	
	누수감면		○			심사청구제도		○
	누수신고 포상금안내		○			요금조회 및 납부	○	
	다자녀/조손가정지원		○			이사정산/수용가명의	○	
	세대별수도미터 교체		○			이의신청제도		○
	수급자/장애인 요금지원		○			자동납부신청	○	
	수도관 개량지원		○			행정소송제도		○
	수용가명의변경	○				ARS		○
	수전분리 신청안내		○			개별공시지가		○
	신용카드 자동력재신청	○				개별주택가격		○
	요금납부	○				납부방법 가상계좌납부		○
	요금조회 및 계산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	
	이사정산	○				납세자 보호관제도신청		○
	자동납부해지	○				마을 세무사	○	
	폐전 신청안내		○			상하수도(사업소)	○	
	간편고지신청/해지	○				스마트 고지서	○	
	감사원심사청구제도		○			자동이체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지방세 문자알림 서비스		○		
재정	과수공원		○		일자리	교육훈련신청		○
	농업기술정보	○				인재정보검색	○	
	농업인 실용교육		○			자격증별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		○			전공계열별	○	
	도시농업아카데미		○			직업심리검사		○
	병충해정보	○				직종별	○	
	병해충예측지도	○				취업희망몰	○	
	빌딩 숲, 텃밭정원		○			시 공무원 임기제채용		○
	생활문화교육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스쿨팜 프로그램운영		○			대학생인턴사업		○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개인 정보상 고려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 신청처리	on-line 전환 필요
재정	시민농업대학		○		일자리	사업계획 (29부서39사업)		○
	시민농장운영		○			사업별세부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		○			사업별채용계획		○
	아파트치유농업교육		○			새-일 공공일자리채용		○
	주간농사정보	○				신중년 디딤돌 사업		○
	품목별농작업일정	○				아르바이트상담		○
	품목별재배기술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공간공유분야 (103개시설)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사업		
	농업기술정보	○						
	물건공유분야	○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				○

이러 세금분야· 재정· 일자리에 대해 on-line신청이 가능한 내용과 불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 분야는 계좌자동이체신청, 납부방법, 수용가 명의변경, 요금납부, 요금조회 및 계산, 간편 고지신청/해지, 인터넷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17개의 내용이 현재 바로 on-line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수공사 신청안내, 누수감면신청, 다자녀가정 지원, 세대별 수도미터 교체, 폐전 신청안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급수공사 신청안내, 이의신청제도,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등 25개의 내용은 on-line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야 할 내용이었다. 재정 분야는 농업기술정보, 병충해 정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공간공유분야, 물건공유분야 등 9개 내용이 바로 on-line 신청하도록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과수공원, 농업인 실용교육, 도시농업아카데미, 생활문화교육, 시민농업대학 등 11개 내용은 on-line 신청이 되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 분야는 인재정보검색, 자격증별, 전공계열별, 취업희망폴 등 5개 내용이 현재 바로 on-line 신청하도록 실행되고 있으며, 사용자 직업심리검사, 시 공무원 임기제채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신중년 디딤돌사업 등 13개 내용은 on-line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3) 맞춤형서비스 영역에 대한 분석

맞춤서비스는 분야별 내용에서 제시되었던 보건과 복지 부분의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를 생략하고 내용만 제시하였다. 맞춤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유형별로 크게 2개로 구분되어 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는 다시 출생준비기, 영유가기, 취학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6개로 구분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생활보장, 장애인, 여성, 아동, 어르신, 다문화로 6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모두 12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다시 내용별로 제도나 사업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등 너무나 구체화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수원시가 복지와 관련 맞춤형사이트를 구성해 유형별, 생애주기별⁸¹로 특색화한 점은 좋으나 너무나 나열식으로 제시한 것을 간소화하여 고객들이 찾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시장 관련 영역에 대한 분석

시장은 자치단체의 통괄대표권과 함께 운영권, 임명권, 예산편성권 등 자치단체 운영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시장 관련 내용 중에서 on-line신청 처리되는 것과 신청전환이 필요한 내용

영역	홈페이지 내용	직접 on-line신청처리	on-line전환필요
시장	민선7기 약속사업(실천계획)		○
	시민배심법정		○
	시장님보세요	○	
	시장염태영입니다		○
	시정방침과 목표		○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참시민토론회	○	
	칭찬합시다	○	
	현장이 답이다	○	
	형태영이 시정 살이		○
활기찬지역경제		○	

81 맞춤형서비스는 생애주기별과 유형별로 2구분하여 제시 하였는데 유형별은 복지 분야와 동일하고, 생애주기별의 내용은 221개 항목이었다. 이중 바로 가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0.5%에 불과하고, 안내나 소개내용은 79.6%(176/221건)로 되어 있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적 편의성이 없다고 본다.

시장 관련 내용은 시장의 업적이나 활동 등과 관련됨은 물론 시민참여를 통해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만족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시장님 보세요’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불만 등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참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이 답이다’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대한 on-line 신청이 잘 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선 7기의 약속사업이나 그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내용을 주민들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안이나 느낌, 개선 내용 등에 대해 본 주민이 살핀 후 후기를 작성하도록 on-line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실적과 관련한 내용은 이어지는 6장에서 평가요소와 함께 비교대상인 울산시나 고양시와 함께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5) 주민참여 실적의 비교평가

(1) 홈페이지 자료의 공개성 평가

지금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과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on-line이나 Mobile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어떻게 참여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실적의 빈도와 참여내용의 공개 및 예산 반영도 등을 울산광역시, 고양시의 내용과 비교하며 평가요소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각 시청에서 발간한 백서, 간행물과 책자, 보고서, 예산서 등의 공개정보의 풍부성을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홈페이지에 제시된 제반 내용에 대한 공개정보의 풍부성

자료 구분	수원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e-book(전자책 자료)	수원통계 ◎	통계연보 ○	통계연보 ○
백서	수원백서 ○	시정백서 ○	시정백서 ○
예산서	○	○	○
결산승인자료	○	○	○
지방세정보 및 통계연감	○	○	○
주민참여예산	○	○	○
사회조사 보고서	○	○	○
의정백서나 유사자료	의정활동 PDF	의정백서	위원회활동
평가	◎	◎	○

연구대상인 수원시청과 비교대상인 울산광역시청 및 고양시청의 각종 책자나 PDF파일 및 전자자료 등 공개한 내용을 보면 수원시의 경우 패밀리사이트(family site)와 e-book을 통해 아주 잘 공개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정보공개법 백서부분, 고양시는 열린시정에 잘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의 종류와 양은 수원시와 울산시에서 많은 양의 자료를 잘 공개하고 있었다.

(2)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편의성 평가

주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이나 Mobile 기기를 이용해 on-line one stop 방식으로 바로가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더 편리 할 것이다. 현재 홈페이지 내용 중에서 on-line 신청 가능한 내용, 각종 자료공개, 연계검색 내용으로 구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가기 신청이 가능한 내용 분석

구 분	수원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on-line 신청 가능한 내용	240/ 1,827	13.1	473/ 1,897	24.9	195/ 1,084	18.0
각종자료(PDF, 질문, 공지 등) 공개 ⁸²	323/ 1,827	17.8	427/ 1,897	22.5	271/ 1,084	25.0
연계하여 검색 가능한 내용	105/ 1,827	5.7	167/ 1,897	8.8	51/ 1,084	4.7
평 가	○		◎		◎	

참고 : ① 2020년 수원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홈페이지 분석을 저자가 정리.

② 수 항목의 분모는 홈페이지 총 내용의 숫자임.

위 분석은 5장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영역·분야별 분석한 내용과 5장에서 소개하지 않는 소규모 내용을 모두 합한 홈페이지 전체 내용(수원시 1,827개, 울산광역시

82 여기에 제시된 각종 자료는 여러 영역과 분야에서 공지나 고시 및 안내자료 등 간단한 내용이나 실태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즉, 백서, 간행물과 책자, 보고서, 예산서 등의 책자 형태가 아닌 내용분량이 적은 자료를 의미한다.

1,897개, 고양시 1,084개)을 총합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바로 on-line신청을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수원 240건(13.1%), 고양시 195건(18.0%)나 울산광역시 473건(24.9%)에 비해 낮았다. 질문이나 공지 및 고시 그리고 실태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한 내용 건수를 보면 고양시가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광역시 22.6%, 수원시 17.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계하여 검색 가능한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원시 5.7%, 고양시 4.7%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수원시의 on-line 신청률이 낮다.

(3)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성 및 의회의 예산공개성 평가

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수원시의 경우 만민광장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신청되면 표의 하단 “예시”와 같이 시청 부서에서 정리한다. 2020년 1년 동안 각 구청별로 접수된 안건은 총 266건이 있었는데 이를 월별로 정리⁸³하면 <표 17>과 같다.

정리한 결과 266건의 신청 건수 중에서 전 구청 공통이 52건(19.5%), 권선구가 91건(34.2%)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영통구 54건(20.3%), 팔달구 39건(14.7%), 장안구 30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제안 건수를 월별로 보면 5월이 92건(34.6%)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6월(27.1%), 4월 45건(16.9%) 순으로 나타났는데 78.6%가 4~6월 3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표 17>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제의한 참여자 수 통계

월별	해당구청					전체
	공통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1월		1				1
2월	1	1				2
3월	5	5	2		1	13

83 해당구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여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제안서를 바로 가기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을 월별, 구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어떤 구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 수원시 전체에 해당이 되면 시청 담당 공무원이 공통으로 구분하였다.

월별	해당구청					전체
	공동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월	7	16	12	4	6	45
5월	9	28	26	1	19	92
6월	2	28	8	11	5	72
7월	7	4	2	4	1	18
8월		2				2
9월		1	1		1	3
10월		1	1			2
11월	1	3	2			6
12월	2	1		1	6	1
계	52	91	54	30	39	266
(예시)	주민참여 제안 주제			담당기관	제안자	제안일
2020년 주민참여 예산신청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 “수원몰” 제작			공동	조**	2020.3.1

울산광역시와 고양시 또한 수원시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2020년 1년 동안 수원시, 울산광역시, 고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제안건수와 채택건수 및 그에 대한 예산반영액수를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제안 수와 채택된 수

구분	제안건수	채택건수	예산(백만원)	평가
수원시	505	57(11.3%)	1,054	◎
울산광역시	645(시청소관 364)건	82(9.7%)	48,423	○
고양시	216	88(4.07%)	5,308	△

참고 : 2020년 수원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서를 저자가 정리.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와 고양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울산시의 경우 사업에 관한 심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각 분과위 및 부서별로 세부목록내역 및 부서요구안, 의회심의 결과 최종예산액을 아주 자세히 잘 공개하고 있다.

주민참여에서 예산낭비신고는 국가재정에서도 강조하는 중요사항인데 수원시는 예산낭비신고센터⁸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시의 경우 민원·신고센터와 합

계 주민참여예산에서 동시에 연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고양시는 열린 시정의 재정·예산정보 코너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적을 보려면 로그인 한 뒤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공개를 통해 투명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원시는 예산절감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같이 하도록 한 점은 특색이 있었다.

② 의회의 예산결정에 대한 평가

집행기관이 주민참여를 통해 작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기록한 속기록을 공개하는지에 관한 것과 의회에 대한 주민참여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정리하였다.

〈표 19〉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정과정 공개와 시민참여 정도 분석

내용		연도	수원	울산	고양
예산 공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속기록	2019- 2020년	각위원회 공개예산결산특위 속기록 不	공개 잘됨 각 위원회별로 상세 공개	회의록공개로 공개
주민 참여	의회에 바란다 (울산-시민소통방)	2019년	295건	58건	677건
		2020년	231건	19건	1180건
	자유게시판	2019년	없음	188건	없음
		2020년	없음	274건	없음
	청원/진정	2020년	없음	비공개-본인만	청원안내
	방청안내	2020년	방청자수 不	방청자수 不	방청자수 不
	견학일정	2020년	견학수 제시 不	견학수 제시 不	없음
견학갤러리	2020년	있음	없음	없음	
업무비	업무추진비공개	2020년	공개	정보공개항에 공개	자료실에 공개
의회 활동	안건처리	2020년	공개	공개	공개
	의정활동	2020년	의정활동 PDF	의정백서	위원회활동
공개성(투명성)에 대한 평가			△	◎	○

참조 : 2021년 수원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의회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와 예산 공개성정도를 저자가 작성.

84 수원시의 경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같이 예산절감제안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에 대한 주민참여 반응은 ‘의회에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에 나타나 있다. 물론 집행기관인 시청에 올려야 할 내용도 “의회에 바란다”에 올린 시민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수원의 “의회에 바란다”에 참여한 내용을 보면 수원은 231건, 고양시 1,180건, 울산광역시는 시민소통방에 19건이 건의되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도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수원과 고양시는 없고, 울산광역시만 274건이 건의 되었는데, 고양시가 의회에 대한 참여가 가장 높았고, 수원은 낮았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정 과정의 공개 수준을 보기 위하여 속기록 작성여부를 수원시와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및 울산광역시, 고양시를 조사하였는데 <표 20>과 같다.

〈표 20〉 경기도지방자치단체의 속기록 작성과 청원, 진정에 대한 내용분석

도시명	행정기관	예산속기록 작성 공개	속기록 미작성	청원이나 진정 수용	비고
경기도	시 자치단체 28	25	3	18	속기록 미작성 수원시, 양주시, 여주시
	군 자치단체 3	3	-	3	
울산광역시	광역시	1	-	1	
고양시	특례시	1	-	1	
합 계		30	3	21	

참조 : 2020년 경기도 의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뒤 저자가 정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정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지 조사 분석한 결과 수원시만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았고, 울산시는 각 위원회별 공개는 물론 부록까지도 공개하고 있었다. 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면 고양시가 가장 제시 횟수가 많았고, 수원시는 낮은 편이다.⁸⁵ 또한 수원시의회의 속기록 작성이 경기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31개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곳이 수원, 양주, 여주 3곳이었다. 그리고 의회에 청원이나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길을 열어둔 지방단체는 21곳이 있었고, 수원은 속기록 작성이 없고 상임위원회 속기록만 제시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에 대한 공개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85 의회에 바라는 내용이 집행기관에 해야 할 내용 그리고 의회에 욕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참여내용에 많은 순화가 필요하다.

(4) 만민광장을 통한 주민참여성 평가

각 지방단체는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만민광장, 울산광역시에는 다듬이 방, 고양시는 제안마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 토론 및 정책제안 등관 관련된 각 시청 홈페이지 내용을 분석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수원시·울산광역시·고양시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광장

구분	참여구분	수원시의 만민광장에 제시된 주민참여 분석	건수
수원시 (만민광장)	토론광장	주민요청 등 73회 토론	73
	정책제안	8개부서- 257건 제안	257
	주민참여예산	주민요청 등	
	설문조사	설문공개	
	칭찬합니다	656건	656
울산광역시 (다듬이방)	소개		
	시민제안	11건(국민신문고)	11
	시민토론	그때그때 내용만 게시	
	실행	내용에 대한 실행관련 게시	
	울산시가 묻습니다	태화강 공원관련 1	1
	소통참여단	로그인으로만 가능	
	주민제안사업의견 수렴	제시가 잘 안됨	
	자유게시판	1485건	1,485
	칭찬합니다	93건	
설문조사	사회조사 1회,	1	
고양시 (제안마당)	소개	주민요청 등	19
	행복제안	각 분야에 대한 제안- 총19건(9분야)	
	열린마당	홈피 이상으로 계속 열리지 않음	
	공지사항	공지내용	
	참여정보	로그인만 가능	
	자유게시판	906건	906
	칭찬합니다	223건	223
	설문조사	5회(호수공원명칭, 출산지원, 테크노밸리 네이밍공모, 고양소식지 만족도)	5

수원시는 만민광장에서 토론 73회, 정책제안 257건 ‘칭찬합니다’ 656건이 있었고, 울산광역시시는 시민제안 11건, 자유게시판 1,485건, ‘칭찬합니다’ 93건이 있었다. 고양시는 행복제안 19건, 자유게시판 906건, ‘칭찬합니다’ 223건이 있었다. 정책과 관련한 제안은 수원, 울산이 고양시에 비해 높은 편이며 칭찬의 빈도도 가장 높았다. ‘칭찬합니다’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주민참여율이 가장 높고 좋았으며,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특히 주민참여를 통해 표명된 의견을 시민제안 ○건, 공감제안 ○건, 시민토론 ○회, 울산시가 묻습니다 ○건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듬어 방에 게시판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5) 시장과의 소통에 대한 참여성 평가

각 지방단체의 시정운영에 대한 전권은 시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통할대표권, 조례 공포권과 사무위임권, 임면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여 시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시장관련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는데 <표 22>와 같다.

<표 22> 수원시 시장의 정책공약과 시민소통내용 분석 평가

도 시	내 용	실 적	비 고	평 가	
수 원 시 장	시장염태영 입니다	반갑습니다/ 걸어온 길	출생, 학력, 경력, 수상 등		
		말씀드립니다	시정연설모음		
	크게 들겠습니다	시장님보세요	1595건	바로신청과 공개	◎
		칭찬합시다	만민광장에 제시	-	-
		다량민원	5건		○
	시민과 만나 겠습니다	수원만민광장	앞의 표에서 제시됨	-	
		현장이 답이다	9건(현장 행사 등 방문 사진)	현장방문소개	
		염태영이 시정 살이	31건(사업이나 특별 뉴스)	추진내용사진	
		참시민토론회	추진할 정책주제-토론회 개최○	운영현황소개	○
		소통박스(현장의견수렴)	주제별현장 찾아가 의견 청취	현장의견수렴	
		시민배심법정		소개	○

도 시	내 용		실 적	비 고	평 가
수 원 시 장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민선7기약속사업천계획) · 3목표-9대전략-77과제	· 활기찬 지역경제-44과제 · 탄탄한 사회복지-22과제 · 똑똑한 시민정부-11과제	목표-과제 소개	○
		매니페스토	좋은시정위원회 평가보고 2회	소개와 실적	
울 산 시 장	송철호 입니다	인사말, 취임사, 프로필, 걸어온 길, 연설문		자기소개	
	일하는 시장	공개일정, 보도자료, 활동사진, 동영상 소식		소개	
	민선7기 주요성과	전반기 시정성과	6개	현장방문소개	○
		후반기 정책방향	3개 정책	추진내용사진	○
	시민과의 약속	시정방향	9개 전략	내용 공개	○
		공약실천	6분야(총공약97개- 완료34,추진 63개)	이행율 도표	◎
		매니페스토	소개	소개	
		공약관리	이행실적 도표 표시	소개	○
	시민과의 소통	울산시에 바란다	로그인 바로 신청	본인만 보기	△
		시민정책제안(다듬이)	이미 위에서 분석	-	
		업무추진비	수원과 동일	소개와 실적	
	역대시장			소개	○
시민신문고 위원회		시민의 고충-민원-감사-결과공 표	소개와 실적	○	
고 양 시 장	고양시민 이재준	인사말, 프로필		자기소개	
	소통과 참여	이재준의 말과 글	소개	소개	
		고양시에 바란다	로그인 바로 신청	본인만 보게 함	
	민선7기 주요성과	전반기 시정성과	6개	현장방문소개	
		후반기 정책방향	3개 정책	추진내용사진	
	공약과 실천	한 눈에 보는 공약	43.2%완료 4대시정목표-중장 기22	내용제시	
		시정비전	4목표-7개 미래상	내용제시	
		공약총괄	비전별 공약사업 수(총88개)	내용제시	
		공약실천	구체적으로 공개	공개	◎
	공약가계부	재원별비전별 투자규모 밝힘	-	○	

도 시	내 용		실 적	비 고	평 가
고 양 시 장	공약과 실천	시민참여	-	-	
		공약자료실	실행계획과 결과 보고	비전별 추진실적	◎
		매니페스토 실천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장과의 시민소통을 보면 3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장님 보세요”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박스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또한 시장의 정책공약은 목표-전략-과제로 구분하여 잘 제시하고 있으나 7기의 계획서 공개는 좋으나 현재 시민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그 시점에 얼마나 완료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도시보다 제시가 부족하였다. 공약실천을 보면 고양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약실천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 시장관련 공약과 소통을 종합하면 수원은 소통이 좋았고, 울산광역시나 고양시는 정책공약실적에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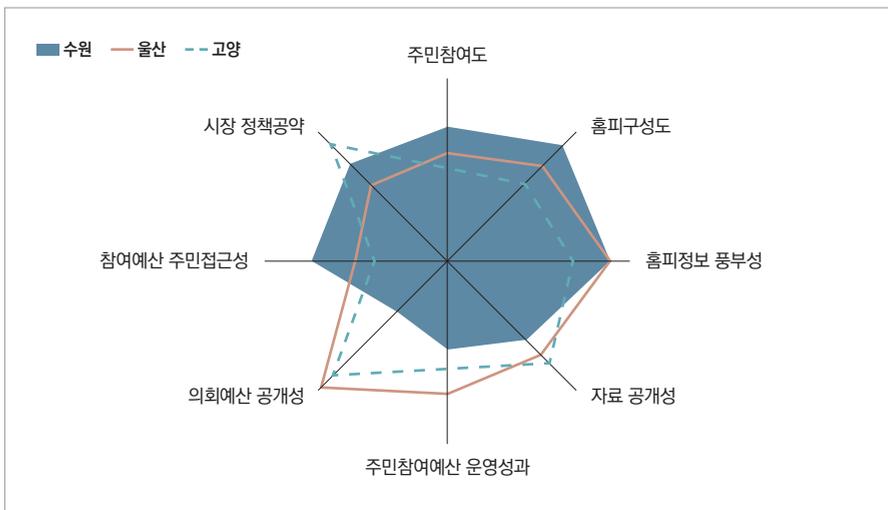
6) 주민참여에 대한 전체적 평가 논의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안내된 주민참여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내용을 토대로 홈페이지 구성도, 홈페이지를 통한 전반적인 주민참여도, 홈페이지상의 자료 공개성,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기에 접근적 편의성이 어떠한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공개성, 의회의 예산결정과정 등에 대한 공개성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는 분석한 연구자가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리커트 5점 척도 평가를 통해 <표 23>과 같은 내용을 얻었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표 23>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	수원	울산	고양
주민참여도	4.5	4.2	4
홈피구성도	4.8	4.5	4.2

평가 내용	수원	울산	고양
홈피정보 풍부성	4.8	4.8	4.4
자료 공개성	4.2	4.5	4.6
주민참여예산운영성과	4	4.5	4.2
의회예산공개성	3.5	5	4.8
참여예산주민접근성	4.5	4	3.8
시장 정책공약	4.5	4.2	4.8



〈그림 5〉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도

주민참여는 지방정부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수원시의 홈페이지가 주민참여를 통해 소통이 잘 될 때 민선 7기에 제시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평가한 내용을 정리하면 수원시의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참여도는 비교도시(울산광역시·고양시)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구성은 구체적으로 잘 구분하여 제시하였지만 맞춤형 서비스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고, 패밀리사이트에서 제시한 수원시의 모든 간행물 공개 등 자료의 공개성은 좋은 편이다. 홈페이지는 주민과 외부 국민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방문하는데 수원시가 제공한 정보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풍

부하다고 평가 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에 대한 제안에 참여하도록 접근성(편의성)이 타시에 비해 좋았으나 참여 예산에 대한 반영이나 규모 등의 운영성은 가장 낮았으며 의회의 예산결정과정을 볼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이 작성되지도 않아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접근적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정책공약이나 시장과의 소통은 “시장님 보세요”를 통해 많은 주민참여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장을 찾아가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박스를 운영하므로 비교도시보다 참여 수가 많았다. 그리고 정책 추진실적의 공개는 수원은 계획서 공개에 충실한 반면 고양시는 실적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었다.

6.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원시 주민들이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자치의 전반적 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연구이다. 홈페이지 구성은 전자정부의 운영방침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시정의지를 반영하되 각 지역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및 인구·주민 등 내·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분석을 위해 첫째, 수원시와 비교도시 울산시·고양시의 홈페이지 구성 내용은 어떠한지 둘째, 홈페이지에 제시된 각 영역과 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수원시 홈페이지 구성에서 지향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수원시 홈페이지가 타 시청에 비해 어느 측면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고자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울산광역시와 고양시의 홈페이지를 비교 도시로 놓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요인으로 ① 홈페이지 구성의 상세성 ②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도 ③ 정보획득의 풍부성 ④ 참여결과에 대한 공개성 ⑤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편의성) ⑥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⑦ 의회의 예산과정 공

개성 등 7개 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원시가 주민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on-line신청을 통해 해결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171건(28.6%)인데 고양시 108건(21.6%)보다 높고, 울산광역시 181건(29.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구 내용을 보면 수원시와 울산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수원은 패밀리사이트(Family sites) 구성이 좋았는데 특히, e-book홍보를 통해 시에서 발간된 전체적인 책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았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 있어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구체화 하도록 구성한 점은 좋으나 내용이 많고 간결성이 없어 검색하기가 힘들었다.

둘째, 연구대상인 수원시청과 비교대상인 울산광역시청 및 고양시청의 각종 책자나 PDF파일 및 전자자료 등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 잘 제시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패밀리사이트의 e-book에 수원시 발간 모든 자료를 모아 제시하므로 정보 찾기가 편리하였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분석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건수, 채택건수 및 예산규모 면에서 울산광역시에 이어 고양시가 높았으며, 수원시는 주민참여를 통해 제안된 예산에 대한 반영률이 낮았다.

넷째,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소개, 만민광장, 시정소식, 정보통통, e-news, 각종 설문, 시장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확인, 각종 수혜에 대한 신청, 공청회, 찾아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쌍방향의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접근적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원은 울산·고양시에 비해 만민광장이나 수원시장에 대한 “시장님 보세요”를 통해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주민 참여율도 높았다.

다섯째, 의회의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성은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으므로 투명성이 아주 낮았다. 경기도의 31개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비교해 볼 때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속기록을 작성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원시도 이에 해당되었다.

여섯째, 시장과의 시민소통 및 시장의 정책공약 실천을 보면 시민소통은 수원시가 월등히 높으나 공약실천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계획에 중점을 두었고, 고양시·울산광역시는 실적에 중점을 두어 공개하였다.

이상을 통해 앞으로 홈페이지 구성을 통해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패밀리사이트와 맞춤 서비스, “시장님 보세요”등은 시민참여의 관심도 높고, 타 시에 비해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한다. 자료 공개에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e-book 안내를 한 점도 타시에 비교해 우수하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맞춤 서비스는 그 분류가 혼란스러워 실제로 민원인에 맞는 서비스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그에 대한 채택비율이 낮는데 수원은 소통박스를 통해 주제별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는 참여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연계 활용함으로 채택비율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원시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록 마련과 이에 대한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소홀히 한 점으로 보여 하루 빨리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장의 정책공약은 계획 중심과 실적을 동시에 강조하도록 전환되어야 하며 매니페스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수원시는 홈페이지 구성도,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풍부성,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참여도,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은 우수한 편이나 의회예산의 공개성 및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자료의 공개성, 시장의 정책공약의 공개성은 비교 도시인 울산광역시나 고양시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2) 제언

이 연구는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며,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고, 의견 제안 활동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가장 좋은지 답도 없고, 방향도 없다. 다만 주민들이 그들의 필요한 민원해결과 자치단체의 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리성)과 함께 모든 정보의 공개와 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996년부터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

하면서 대부분의 주민참여가 2001년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에 접근가능 함은 물론, 전자정부법 17조에 제시한 것처럼 토론이나 건의 및 다양한 의사표현의 참여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제7조-제18조에 관련서비스에 대하여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홈페이지 관련 연구는 홈페이지 체제가 어떠한지 구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그 구성내용의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가 적다. 따라서 구성 항목의 내용별로 정보수집 및 민원처리, 조세관련 통지와 납부,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타 국민 편익 서비스와 함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어떻게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지 부분별 연구를 통한 통합적 연구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추진하면서 현재 홈페이지의 내용이 너무 많아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 영역·분야별로 구분 연구를 추진한 다음 전체적으로 개선점을 찾는 통합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홈페이지의 평가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의 내용이 정보획득, 민원해결,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 정책참여, 정책투표, 예산 운영, 자치법규, 주민 감시 및 인구 등 다양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함께 추진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는 민원해결이나 정책 및 예산에 관련된 이용자 현황이나 관련된 자료를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연구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백서나 통계연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투명하게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연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고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일 2021년 5월 25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참고문헌

- 권혁준 · 이정철 · 황윤원,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 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9(4), 271~303쪽.
- 김경기 · 정성환, 2012, 「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표준화에 관한 연구: 메뉴 분류체계 및 명칭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5(3), 246~255쪽.
- 김동근, 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46(3), 5~17쪽.
- 김보흠, 2005,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 87~112쪽.
- 김상철, 201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미래에서 온 편지』 25, 67~73쪽.
- 김용기, 2001, 『미국의 지방자치』, 대영문화사.
- 김정희, 201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참여성과 심의성 연구: 서울, 부산, 대구 3개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77~104쪽.
- 류영아, 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NARS 입법·정책보고서』 27, 1~60쪽.
- 미래한국재단, 2007,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와 과제: 광주 북구청 사례」, 『지방자치』 228, 28~30쪽.
- 민병익, 2000,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기능분석: 경남지역을 중심」, 『지방정부연구』 4(2), 169~195쪽.
- 박문희, 1999, 「밀레니엄을 맞이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추진방향」, 『지역정보화』 10, 60~66쪽.
- 박미옥, 2006,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광주시 북구청과 울산시 동구청 사례의 비교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2), 131~167쪽.
- 박범중, 2014, 「6.4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과 시민참여: 2014년 부산시장 선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7(1), 43~60쪽.
- 박석희, 2010, 「책임성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부서간 만족도 평가와 분석」, 『행정논총』 48(2), 249~280쪽.
- 박영미, 1998, 「전자정부하에서의 행정서비스 전달」, 『한국지방자치학회보국 토계획』 10(3).
- 배병룡 · 민병익, 2002,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 수준, 그 영향요인 및 효과: 경남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117~136쪽.
- 서복순, 2004,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

- 과학연구』 20(1), 149-187쪽.
- 서정섭,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 주민예산서 작성 · 활용 필요」, 『자치발전』 26(7), 32~40쪽.
- 손광섭,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조호 · 손달호, 2005,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 운영에 관한 고찰」, 『경영경제』 38(1), 101~121쪽.
- 안재호, 2004,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오,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4쪽.
- 윤주명, 2000, 「행정의 대응성과 시민참여」, 한국행정학회, 세미나발표집.
- 윤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43~163쪽.
- 윤희영,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어 홈페이지 활용도 평가: 인용 웹페이지 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 『지역정보화』 3(1), 89~108쪽.
- 이승중 · 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 이승주, 2003,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재, 2007, 「자치단체 홈페이지 웹 호환성 확보 방안」, 『지역정보화』 44, 30~34쪽.
- 이용건 · 김중석, 199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할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화저널』 5, 138~168쪽.
- 이재선, 2001,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산업자원부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실.
- 이종수 외,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 이종수 · 윤영진, 2009,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임석준 · 김관규, 2007, 「지방자치와 전자민주주의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재방문」, 『21세기정치학회보』 17(2), 47~65쪽.
- 장연수 외, 2005, 『한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배경과 수준』, 으뜸.
- 전갑길, 2000, 「지식정보화시대 · 참여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발전 과제 : 홈페이지 분석과 정보 공개를 통해 본 지자체 행정서비스 조사」, 세미나 자료 (국회의원).
- 전영평 · 최준호, 2002,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 시민,

- 공무원, NGO를 중심으로. 『하계학술발표 및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자료집』, 85~111쪽.
- 전철민 · 이희정, 2016. 「우리나라 참여형 도시계획의 추세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7(4).
- 최봉문, 2003,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도시계획정보 제공실태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vol1(1), 237~244쪽.
- 최용선, 2018,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발전과제」, 『열린충남』 vol 85(4).
-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 삼영사.
- 하미승, 1996,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 한동효, 2006, 「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분석: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2), 113~135쪽.
- 황선영 · 김순은, 2017. 「도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역할: 아파트 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ulsan.go.kr).

- Abramson, Paul R., 1983, *Political attitudes in America : formation and change*, W. H. Freeman and Co.
- Abравanel, M. D., 2007, *Fragile rights within cities : government, housing, and fairness*, John Goering(ed), Rowman & Littlefield.
- Herson, Lawrence J.R., and John M. Bolland, 1990, *The urban web: Politics, policy, and theory*,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Paige, Jeffery M., 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 Schlozman, K. L., Burns, N., & Verba, S.,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The Journal of Politics*, 56(4).
- Verba, Sidney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 ROW, Publishers.
- Verba, Sidney and Nie, Norman H., and Jae-On Kim, 1987,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Univ. of Chicago Pr.

요 약

이 연구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수준이 어떠한지 평가하고자 울산광역시와 고양시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지방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과 함께 수원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고, 민원을 해결하며, 의견을 제시하는지 울산시·고양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원시의 정보획득을 위한 풍부성은 울산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민원 관련 주민참여도는 비교도시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맞춤형서비스 부분은 혼란스러워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패밀리사이트의 e-book에 제시된 수원시의 모든 간행물 공개는 비교도시보다 풍부하였다. 이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있어 예산제안에 참여하도록 접근성이 타시에 비해 좋았으나 의회의 예산결정과정을 볼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투명성이 아주 낮았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정책공약이나 시장과의 소통은 ‘시장님보세요’를 통해 많은 주민참여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장을 찾아가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박스는 주민참여를 자극하는 아이디어였다.

주제어 : 홈페이지,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만민광장, 공개성, 편의성, 접근성, 참여

ABSTRACT

A comparing analysis research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Suwon city's website

Jang, youn-soo

This research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a website.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encourag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events through websites. Suwon City will be promoted to a special city, and many changes are expected in the administration of Suwon City. In light of such period, it was analyzed how often Suwon City citizens access the website to present their opinions and participate compared with Ulsan City and Goyang 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Suwon City's level of participation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mpared cities. The composition of the website was presented well in detail; however, the customized service section was disordered and needed to be organized and posted. Suwon City's 'view all publications' presented in the Family Site e-book was rich and decent. Next, the access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budget proposal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as better than other cities, but the transparency was extremely low as the stenographic records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hat shows the budget decision process of the local council was not prepared. Finally, for the mayor's policy commitments and communication with the mayor, the 'Message for the Mayor' is improv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Furthermore, the communication box that visits the sites and hears the voices of the people was a good idea to stimulate residents' participation.

『수원학연구』 간행 및 편집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4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0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원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수원학연구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수원학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수원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 2. 논문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 4.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 2.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 4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2.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정기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임시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의결사항은 다음 정기회

의에 보고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출석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 공모)

-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준)

-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5.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 6.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 8.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판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③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⑤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 ⑧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 ⑨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⑩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수원학연구』 발간 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5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1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학연구의 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그 밖에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타당성)

-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의 윤리**제11조(저자의 의무)**

-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 ② 투고 및 게재 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

제13조(자기 표절)

-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구성과 의결)

- ① 학술지 발간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제6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권리보호)

- ①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① 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 논문 투고 및 작성 요강

▣ 논문 투고와 작성 일반사항

1. 원고 접수

- 1) 접수일자는 원고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원고의 주요 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한다.
- 4)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및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원고 분량

-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 작성

- 1)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18mm, 머리말/꼬리말 12mm로 한다.
- 3)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국문요약과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한다.

- 4)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논문 작성 세부사항

□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

- 1)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 논문 제목 표기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 저자명 아래에 영문 제목을 작성한다.

- 2)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어논문

- 1)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 2)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3)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uwon)

3. 부제목

- 1)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1.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아래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 제목 아래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3)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
- 4)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를 변경할 수 없다.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

수일 경우에는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3)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6)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3. 저자 소속 표기 예시

- 1) 저자가 1인인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2)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 3)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Urban@suwon.re.kr, Tel : 031-456-7890)

□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2. 주제어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10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본문 작성

1. 본문 작성

- 1) 목차 및 본문의 장(章), 절(節), 항(項) 등의 번호 전개는 ‘장 → 1. 2. 3. / 절 → 1) 2) 3) / 항 → (1) (2) (3)’으로 하고,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 2)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3)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수원학(水原學)’ ‘수원학(Suwonology)’과 같이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병기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본문의 인용문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2) 왼쪽 여백만 2칼럼 둔다.
- 3) 자료(사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도표 및 사진

1. 표 번호

- 1)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 및 사진 번호

- 1)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1. 각주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 2) 한자(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 3) 표기 순서와 원칙(√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①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연구』1, √활빈학회, √100~101쪽.
 - ② 홍길동, √1960, √「의적연구」, √『의적학보』1√; √1998√『의적의 사회사』, √활빈출판사√재수록, √100쪽.
 - ③ 홍길동, √1997,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홍길동, √1988(a), √앞의 논문, √100쪽.
 -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 ⑤ A. √R, √Zolberg, √1972,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pp. √183~207.
 - ⑥ 조한욱 √유희김, √1996,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Robert √Darnton, √1984, √The Great Cat Massacre :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출판사이름), 100쪽
 - ⑦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고려사』 √권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事多稽滯 仍罷之.”
 - 『세종실록』 √권9, √세종 √6년 √5월 √1일(경자).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2.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 2) 논문 및 단행본의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 3)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한다.

□ 사사 등 표기

1. 사사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게재일자 등

- 1)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맺음말 말미 하단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편집위원장

이세구 수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용 원광대학교 교수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식 영남대학교 교수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금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동수 한양대학교 교수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Rainer Dormels 비엔나대학 교수

편집간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18

발행인 | 김선희

편집인 | 이세구

발행일 | 2021년 6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주소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홈페이지 www.suwon.re.kr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E-mail suwonstudy@suwon.re.kr

인쇄 | ㈜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

Suwon Studies

No. 18, 2021

Suwon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Suwon Studies

Do, Ji-won

A Study on the Soundscape in Hwaseongneunghaengdobyong
(Eight-Fold Screen Painting of Royal Procession to the Ancestral Tomb in Hwaseong)

HEAJIN MUN

Japanese Religion's Introduction And Activities In Suwon Under Japanese
Occupation Period

Han, Dong Min

Japanese colonial era The Life and Social Movement of Byun Ki-jae from Osan

Lee Sin-Jae

A Study on US President Lyndon B. Johnson's Visit to Hwaseong Model Rural Village in 1966

Kim, Sae-Hoon

A Study on the Online Perception of Suwon Wang Galbi Chicken
Using Big Data Analysis

Kim, Lee-Young

Analysi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by Housing Ownership and Occupancy Type in Suwon City

Kim Sukhee / Lim Hyejin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 of Users/Non-Users of Personal Mobility in Suwon

Kang, Na Yul / Baek, jeongmi

The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service of the funeral facilities: the case of Suwon City, Korea.

Jang, youn-soo

A comparing analysis research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Suwon city's
website